

정책연구
2024-18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연구

김영아 · 강동우 · 임유진

한국노동연구원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영아)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3
제3절 연구의 구성	7
제2장 이주배경 청년의 개념과 정책 현황	(김영아) 8
제1절 이주배경 청년 개념	8
제2절 이주배경 청년의 체류자격과 정책 현황	12
1. 이주배경 청년의 체류자격과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	12
2. 이주배경 청년 정책	17
제3장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상태 변화 분석	(강동우) 21
제1절 서 론	21
제2절 분석자료	22
1. 인구주택총조사 2010 · 2015 · 2020년 2% 표본	22
2. 이주배경 청년의 조작적 정의	24
3. 이주배경 청년의 범주를 ‘자녀’로만 한정한 이유	25
4. 비교 집단으로서 ‘비이주배경 청년’의 정의	26
제3절 이주배경 청년의 주요 특징	27
1. 0~34세 이주배경 자녀의 연령 구성	27

2.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의 주요 특성	29
3.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의 재학 및 일하였음 비중 비교	32
4. 19~24세 및 25~29세 연령집단별 5년 후 취업 상태 변화	36
제4절 모형 및 분석 결과	39
1. 이중 코호트 모형(double cohort model)	39
2. 개인 및 가구 특성 변수	41
3. 분석 결과 1 : 취업 선택에 대한 이주배경 여부의 영향	45
4. 분석 결과 2 : 직업 선택에 대한 이주배경 여부의 영향	50
제5절 소 결	54
1. 주요 분석 결과 요약	54
2. 시사점	57

제4장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내 지위와 일자리 궤적

..... (김영아)	63
제1절 서 론	63
제2절 실태조사 개요	64
1. 조사 설계 및 내용	64
2. 응답자 특성	65
3. 실태조사 주요 결과 요약	68
제3절 근로 실태와 직업력	71
1. 근로 실태	71
2. 직업력	86
제4절 미래 일자리 계획	96
1. 미래 일자리 계획	96
2. 구직자와 포기자의 일자리 탐색과 희망 일자리 특성	103
3. 직업훈련 참여 수요	108
4. 정책 수요	111

제5절 취업 상태와 직업훈련 참여 결정요인	114
1. 취업 상태 결정요인	114
2. 직업훈련 참여 의향 결정요인	118
제6절 소 결	121
1. 이주배경 청년 일반적 특성	121
2. 근로 실태와 직업력	122
3. 미래 일자리 계획	124
4. 직업훈련 정책 수요	125
5. 취업 상태와 직업훈련 참여 의향 결정요인	126
6. 시사점	127
 제5장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임유진)	129
제1절 서 론	129
제2절 조사개요	132
1. 조사 방법 및 절차	132
2. 조사 참여자 선정	133
3. 조사 내용 및 분석방법	137
제3절 분석 결과	140
1. 취업준비 및 구직 경험	142
2. 과거와 현재의 일	160
3. 변화, 모두를 위한 제안	169
제4절 소 결	177
 제6장 결 론	182
..... (김영아 · 강동우 · 임유진)	182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요약	182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92

참고문헌	195
------------	-----

[부록] 설문지	199
----------------	-----

표 목 차

〈표 2- 1〉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 자녀	9
〈표 2- 2〉 탈북청소년	9
〈표 2- 3〉 선행연구의 이주배경 청년 정의	10
〈표 2- 4〉 이주배경 청소년의 체류자격	12
〈표 2- 5〉 이주배경 청년의 취득 가능 체류자격	15
〈표 2- 6〉 이주배경 동포 청년의 취득 가능 체류자격	16
〈표 3- 1〉 연도별 0~34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청년 수	25
〈표 3- 2〉 연도별 0~34세 이주배경 자녀 연령대별 인원	28
〈표 3- 3〉 연도별 0~34세 이주배경 자녀 연령대별 비중	29
〈표 3- 4〉 연도별 19~34세 이주배경 청년 특성별 비중	30
〈표 3- 5〉 연도별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의 부모 특성별 비중	32
〈표 3- 6〉 19~34세 이주배경 청년 및 비이주배경 청년의 재학 및 일하였음 비중	34
〈표 3- 7〉 19~34세 이주배경 청년 및 비이주배경 청년의 일하였음 비중(‘재학’ 제외)	34
〈표 3- 8〉 19~24세 및 25~29세 연령집단별 5년 후 취업 상태 변화 (2010년 기준)	38
〈표 3- 9〉 19~24세 및 25~29세 연령집단별 5년 후 취업 상태 변화 (2015년 기준)	38
〈표 3-10〉 분석모형 설정	40
〈표 3-11〉 분석모형 데이터 변수별 평균값(2010~2015년 연계 표본)	43
〈표 3-12〉 분석모형 데이터 변수별 평균값(2015~2020년 연계 표본)	44
〈표 3-13〉 이항 로짓모형 추정 결과(2010~2015년 연계 표본)	47
〈표 3-14〉 이항 로짓모형 변수별 평균 한계효과(2010~2015년 연계 표본) ..	48

〈표 3-15〉 이항 로짓모형 추정 결과(2015~2020년 연계 표본)	49
〈표 3-16〉 이항 로짓모형 변수별 평균 한계효과(2015~2020년 연계 표본) ..	50
〈표 3-17〉 직업별 '이주배경 청년' 변수의 평균 한계효과 (2010~2015년 연계 표본)	51
〈표 3-18〉 이주배경 청년인 경우, 직업별 '5년 전 한국 거주'의 평균 한계효과(2010~2015년 연계 표본)	52
〈표 3-19〉 직업별 '이주배경 청년' 변수의 평균 한계효과(2015~2020년 연계 표본)	52
〈표 3-20〉 이주배경 청년인 경우, '5년 전 한국 거주' 변수의 직업별 평균 한계효과(2015~2020년 연계 표본)	53
〈표 4- 1〉 조사 개요	64
〈표 4- 2〉 조사 내용	65
〈표 4- 3〉 응답자 특성 전체	66
〈표 4- 4〉 경제활동 상태	70
〈표 4- 5〉 현재 하는 일 직종(전체): 현재 일자리	72
〈표 4- 6〉 고용 형태(전체): 현재 일자리	74
〈표 4- 7〉 4대 보험 가입 여부(전체): 현재 일자리	76
〈표 4- 8〉 한달 평균 소득(월급)(전체): 현재 일자리	77
〈표 4- 9〉 현재 일 시작 동기	78
〈표 4-10〉 현재 일자리 구한 경로	79
〈표 4-11〉 현재 일자리의 기능	80
〈표 4-12〉 취업 준비 및 일할 때 애로사항	84
〈표 4-13〉 다문화 가정 및 이주배경으로 인한 차별 대우 평가	85
〈표 4-14〉 일자리 직종: 직전/최근 일자리	87
〈표 4-15〉 고용 형태: 직전/최근 일자리	88
〈표 4-16〉 4대 보험 가입 여부: 직전/최근 일자리	89
〈표 4-17〉 일자리 직종: 첫 일자리	91
〈표 4-18〉 고용 형태: 첫 일자리	92
〈표 4-19〉 4대 보험 가입 여부: 첫 일자리	92

〈표 4-20〉 일자리 직종 : 가장 길게 한 일자리	94
〈표 4-21〉 고용 형태 : 가장 길게 한 일자리	95
〈표 4-22〉 향후 직업 계획	97
〈표 4-23〉 향후 직업 계획 : ‘그렇다’ 응답 비율	98
〈표 4-24〉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개인적 준비 여부	99
〈표 4-25〉 더 나은 일자리 취득 준비 내용	101
〈표 4-26〉 일자리 비탐색 이유(포기자)	104
〈표 4-27〉 향후 1년 내(또는 졸업 후) 구직 의향(포기자)	105
〈표 4-28〉 희망 일자리 직종(구직자 및 포기자)	106
〈표 4-29〉 희망 고용 형태(구직자 및 포기자)	107
〈표 4-30〉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참여 경험	108
〈표 4-31〉 정부 주관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향	110
〈표 4-32〉 취업 상태 다항 로짓모형의 평균 한계효과	116
〈표 4-33〉 직업훈련 의향 로짓모형 한계효과	119
〈표 5- 1〉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이주배경 청년)	135
〈표 5- 2〉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이주배경 청년 전문가)	136
〈표 5- 3〉 조사내용	137
〈표 5- 4〉 사례 간 분석 결과	141

그림목차

[그림 3-1] 이주배경 청년의 조작적 정의	24
[그림 3-2] 19~34세 이주배경 및 비이주배경 청년 '재학' 비중 추세	35
[그림 3-3] 19~34세 이주배경 및 비이주배경 청년 '일하였음' 비중 추세	35
[그림 3-4] 19~34세 이주배경 및 비이주배경 청년 '일하였음' 비중 추세('재학' 제외)	36
[그림 4-1] 현재 일자리 만족도	82
[그림 4-2] 취업 결정의 고려 요인	83
[그림 4-3] 더 나은 일자리 취득의 애로사항	102
[그림 4-4] 정부 직업훈련 참여조건 필요도	112
[그림 4-5] 정부 직업훈련 교육 분야 필요도	113

요 약

이주배경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청년과 이주 배경의 취약성이 결합된 고용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다문화가족과 청년 고용정책에서 주요 대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년 규모와 취업 상태 변화 추이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개인적 측면에서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일자리 경로 특성, 그리고 노동시장 이행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이주배경 청년 고용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1. 이주배경 청년의 개념과 정책 현황

이주배경 청년의 개념과 체류자격 종류별 취업 자격을 파악하고, 이주배경 청년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기본계획을 검토하였다.

이주배경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법이나 정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정책이나 학계에서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주배경 가구의 자녀 중 아동 및 청소년기를 포괄하는 정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녀로 정의한다. 다문화 학생 또는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년 등에 사용되는 다문화의 개념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결혼이민자 가족 또는 기타 귀화자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등 외국인 가정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 지원법」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의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그 외 관계 부처(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정책 대상 또한 청년보다 아동 또는 청소년에 초점을 둔 정의가 주를 이룬다.

최근 이주배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및 학술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연령을 청년기로 확장하여 사용하거나, 부모와 자녀의 출생지를 교차하여 이주배경 청년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와 이주배경의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만 25세 이상 연령의 청년을 기준으로 다문화 청년 또는 이주배경 청년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이주배경 청년의 체류자격은 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갖고 있는 체류자격 유형에 따라 성인이 된 후 체류할 수 있는 자격 전환 방식이 다르며, 취업 가능 여부도 달라진다. 현재 이주배경 주민의 미성년 자녀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F계열 사증으로,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4(재외동포), F-5(영주)가 가능하다. 이 외에 학업과 관련된 D-4(일반연수) 자격, G-1(기타자격)이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는 성년이 된 이후 한국에서 체류 가능한 별도의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정주형 체류자격인 F-2나 F-5의 경우에는 기존 체류자격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존재한다. 정주형이 아닌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D계열, F-1계열, F-3계열)에는 성년이 되면 별도의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그 외의 연령을 특정하여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있다. 재외동포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F-1-9)는 부나 모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25세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다. F-1, F-3 체류자격의 이주배경 청소년이 청년이 되었을 때 체류자격 취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자격은 유학(D-2)과 연수(D-4) 자격이다. 성년이 된 직후 진학이 아니라 취업을 한다면 E-1~E-7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취득이 어렵다. E-9은 한국과 송출국(국적국) 간에 선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성장한 이주배경 청년이 국내에서 지원할 수는 없고, 국적국에서 선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입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선발 인원, 대기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단시간 내 입국이 쉽지는 않다.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인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을 통하여 초청자 또는 주 이민자의 배우자 자

격으로 F계열의 비자를 취득할 수도 있다.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인도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경우 난민신청을 하여 G-1(난민신청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난민인정 심사 결과 난민인정자(F-2)나 인도적 체류자(G-1)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 이주배경 동포 청소년의 경우에는 동포 관련 체류자격인 F-4계열도 취득 가능하다. 동포의 직계비속이면 동포 관련 자격(H-2)의 신청이 가능하다. 미등록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성년일 때 D-4계열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이후 성인이 되어 D계열, E계열로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1년 동안 임시로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D계열은 요건 충족 후 허용 분야에서 파트타임이 가능하다. F-2는 일부 제한 직종 외에 취업 제한이 없고, F-5계열은 취업의 제한이 없다. F-1, F-3, F-6계열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다. G-1계열은 신청 후 6개월 이후부터 취업 가능하다. 동포 체류자격인 F-4계열은 단순 노무가 불가하며, H-2계열은 46개 업종 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이주배경 청년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국가 기본계획으로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이 있다.

2.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상태 변화 분석

인구주택총조사 2010·2015·2020년 2% 표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와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간 비교를 통해 취업 상태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주배경 청년은 1)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출생 또는 현재 국적이 외국(북한 포함)인 가구의 19~34세 자녀(유형 1: 부모 기준 이주배경 청년)와 2) 본인의 출생 또는 현재 국적이 외국인 19~34세 청년 중에서 가구주와의 관계가 자녀(유형 2: 본인 기준 이주배경 청년)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비교집단으로서 비이주배경 청년은 부모 기준 이주배경 청년이 속한 가

구원이 아님과 동시에, 본인 기준 이주배경 청년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이 아닌 19~34세 자녀로 정의하였다.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는 2010년 1만 7천 명, 2015년 2만 7천 명, 2020년 3만 5천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이주배경 청년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부모 기준 이주배경인 경우가 연도에 상관없이 70% 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부모의 출생 시 국적 기준으로 가족 유형을 구분할 때, 아버지는 한국이고 어머니가 외국인 경우가 연도에 상관없이 32%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일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지(부업, 아르바이트, 가족의 수입되는 일을 도움 포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일자리를 갖고 있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일하였음'으로 구분하고 취업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49%에서 2020년 46%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 학교 재학 비중이 증가하면서, 취업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비중을 비교하면, 이주배경 청년이 비이주배경 청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비이주배경 청년은 51~54%의 취업 비중을 유지하지만, 이주배경 청년은 2010년 49%에서 2020년 46% 수준으로 다소 하락을 보였다. 연령대를 세분화하면, 19~24세에서는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비중이 시기에 상관없이 비이주배경 청년보다 다소 높지만, 25~29세 연령대에서는 비이주배경 청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인구주택총조사 2010~2015년 연계 표본과 2015~2020년 연계 표본을 각각 구성하고, 이중 코호트 모형(double cohort model)의 틀에서 이주배경 여부가 취업 확률과 직업별 선택 확률에 끼친 영향을 이항 로짓 모형 및 다항 로짓모형으로 추정하였을 때, 이주배경 청년은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취업 확률이 1.3%p(2015~2020년)~3.5%p(2010~2015년) 낮았다.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 이해도의 대리변수인 '5년 전 한국 거주 여부'의 평균 한계효과는 2010~2015년에 8.3%p, 2015~2020년

에는 4.3%p로 나타나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취업 확률 감소보다 더 큰 효과를 보였다. 직업별 선택 확률의 경우, 분석 기간에 상관없이 이주배경 청년은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사무직과 서비스 및 판매직을 선택하는 확률이 낮은 반면, 기능직, 단순노무직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다만 이주배경 청년인 경우라도 5년 전 한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관리자·전문가, 서비스·판매종사자를 선택할 확률이 늘어났다.

3.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내 지위와 일자리 궤적

부모 중 1명 이상이 외국 출신으로 만 18세 이전에 1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20~39세 이주배경 청년 324명을 대상으로 직업력, 근로실태 그리고 미래 일자리 계획을 살펴보았다. 체류자격, 인적자본, 취업 어려움 경험 등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 특성을 살펴보고, 다항로짓 분석을 이용하여 현재 취업 상태와 직업훈련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가구 특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이주배경 청년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된 이주배경 청년의 평균 연령은 26.9세로, 20대 초반이 29.3%, 20대 후반이 48.1%, 30대가 22.2%로 구성되었다. 여성은 58.3%, 남성은 41.7%이며, 한국 국적자는 75.6%, 외국 국적자가 전체 응답자의 24.4%로, 이들 중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경우는 41.8%, 조건부 취업과 아르바이트 가능 비자는 40.5%,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는 17.7%였다. 현재 취업 상태는 취업자가 52.5%, 구직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 상태의 포기자가 25.6%, 그리고 구직자 21.9%였다. 만 18세까지 한국 체류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78.4%로 청소년기에 한국 체류기간이 긴 편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67.6%이며, 평균 2.57개를 경험하였다. 구직자의 일 경험률은 35.2%, 포기자는 28.9%로 낮은 편이며, 포기자의 경우 평균 3.33개 일을 하여 취업자(2.47개) 및 구직자(2.52개)보다 일 경험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실태와 직업력 특성을 요약하면, 취업자들은 평균 1.06개

일을 하며, 주로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65.3%, 비정규직 32.4%이며,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가 6.5%, 무급가족종사자와 특수고용직이 각각 1.2% 순이었다. 현재 일자리의 근속연수는 평균 29.5개월이었다. 취업자의 76.5%가 현재 일자리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23.5%, 잘 모른다가 6.5%였다.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 국적일수록 정규직 비중과 4대 보험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일주일 평균 37.6시간 일하며, 월 평균 236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 국적자일수록, 서울 거주자일수록, 한국어를 잘할수록 월 평균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일을 시작하게 된 주된 동기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이거나, 일자리의 임금, 근로시간, 안정성에 만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는 구인광고나 직업소개소나, 지인이나 가족의 소개를 통해 구한 비중이 높았다. 취업자 3명 중 1명만 현재 일자리를 은퇴까지 하고 싶은 일자리로 여겼으며, 나머지는 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그만둘 수 있는 일자리이거나, 임시 일자리로 여겼다. 현재 일자리에서 은퇴하고 싶은 경우 현재 일자리가 적성, 전공, 경력과 능력에 맞는 업무라고 평가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이 높고, 적성, 전공, 경력 및 능력에 맞는 업무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의 조건으로 평가하였다.

취업자와 구직자는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과 취업 관련하여 상의할 사람을 찾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자인 구직자는 체류자격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포기자는 일자리를 구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이용하는 것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찾는 것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주배경 청년의 생애 첫 일자리의 특성을 보면, 평균적으로 22.5세에 비정규직(68%, 정규직은 25%)으로 단순 노무, 사무, 판매 및 서비스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노동 경력이 시작되었으며, 평균 14개월 정도 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첫 일자리의 4대 보험 가입률은 46.3%로 낮은 편

이며, 한국 국적자보다 외국 국적자의 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았다. 일주일 평균 35시간 일하여, 월 평균임금은 157만 원이었다. 가장 길게 한 일자리는 평균 23.3세에 단순 노무, 사무, 판매 및 서비스직에서 비정규직(61%, 정규직은 29%)으로 평균 18.1개월가량 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대 보험 가입률은 52.4%로, 일주일 평균 35.3시간 일하여, 월 평균 165.2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최근 및 직전 일자리는 평균 24.4세에 단순 노무, 사무, 서비스, 판매직에서 주로 비정규직(66%, 정규직은 27%)으로 일하였고, 평균 14.5개월간 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대 보험 가입률은 55.8%로, 일주일 평균 34.8시간 일하며 월 평균 172만 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노동 궤적은 이주배경 청년은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약 1년간 일 한 뒤 동일한 직종이지만, 상대적으로 임금과 복지 부분에서 개선된 일자리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첫 일자리가 비정규직이었던 청년의 84%가 최근 일자리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일하였다는 점은 이주배경 청년의 일자리 이동이 처음 시작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미래 일자리 계획 특성을 요약하면, 현재 취업자인 이주배경 청년의 대다수가 향후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자리, 정규직 등의 안정적 일자리, 전문직 일자리를 가지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이 해외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였다. 취업자의 다수가 더 나은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위해 준비는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었다. 전체 취업자의 33%만 더 나은 일자리 취득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으며, 구직자는 57.7%, 포기자는 39.8%로 낮은 편이었다. 더 나은 일자리 취득을 위한 준비는 주로 자격증 취득 또는 교육 및 직업훈련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성 그리고, 20대 후반에서 상대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준비 비중이 높았다. 더 나은 일자리 취득에 있어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 부족은 가장 큰 어려움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취업 등에 대한 상담할 사람의 부재, 필요한 경력의 기회 부재, 직업훈련 및 교육에 대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원하

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구직자들이 현재까지 구직활동을 한 지는 평균 12.7개월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일수록, 외국 국적자일수록,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평균 구직기간이 짧았다. 구직자들은 주로 구인 광고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현재 비취업자인 구직자와 1년 이내 구직을 희망하는 포기자가 희망하는 일자리 직종은 주로 사무직, 전문가였으며, 여성은 사무직, 남성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다수가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지만, 일부는 자영업 및 프리랜서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주당 평균 40.5시간 근로로, 월 평균 281만 원의 임금을 희망하였으며, 수도권 취업에 대한 희망이 높은 편이었다.

넷째, 본 조사의 이주배경 청년의 3명 중 1명만이 학교 졸업 이후 직업 훈련이나 직업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이주배경 청년의 과반 정도가 향후 정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밝혔다. 직업훈련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안정적이고 소득이 괜찮은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다음으로 적성과 희망에 맞는 일자리 연결을 중요시하였다. 직업훈련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희망하는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로 작용하기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을 가장 선호하였고, 회사에서의 현장실습 및 일 경험, 그리고 면접,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등 취업 준비 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었다. 이는 앞서 더 나은 일자리 및 희망 일자리를 찾는 데 경험하는 어려움이 경력 획득 기회 부재, 취업 과정에서 상담할 사람의 부재였던 점과 연결되는 선호로 보여진다. 특히, 회사에서의 현장실습과 일 경험은 정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중요도에서 1순위를 차지하여 이주배경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한국어와 체류자격 등 외국인 관련 정책에 대한 교육 훈련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다섯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취업 상태 결정요인 분석

결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구직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포기자가 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한국 국적 이주배경 청년과 비교하여, 외국 국적자로 취업 가능 비자를 가진 경우 포기자가 될 가능성이 감소하였으며, 취업 불가 비자를 가진 경우에는 구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체류 여건을 가진 이주배경 청년일수록 노동시장 진입의 의지가 높고, 구직 의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에게 독립하지 않은 이주배경 청년은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청년 니트(NEET)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다. 만 18세 이전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5년 이상일수록, 현재까지 경험한 일자리 수가 많을수록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직업훈련 참여 의향 결정요인 결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훈련 참여 의향이 낮았다. 취업한 이주배경 청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취업한 20대 여성일수록 직업훈련 참여 의향이 높아졌다. 지역적으로는 전라 지역이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서울보다 컸다. 평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결혼하였을수록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였을 경우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오래 보냈을수록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직업훈련이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취업 청년일수록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4. 이주배경 청년 노동시장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이주배경 청년의 내부자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이주배경 청년과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질적 사례 분석을 시행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라 그들의 노동시장 이행 경험은 어떻게 전개되고 그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분석의 범주는 크게 ‘취업준비 및 구직 경험’, ‘과거와 현재의 일’, ‘변화, 모두를 위한 제안’이라는 3개로 축약되었고 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취업준비 및 구직 경험의 첫 단계로 '진로, 직업선택'을 하는 데 한국 사회 정착에 있어 대학은 중요한 조건이라 인식하고 적성을 고려하여 대학에 진학한다. 그러나 역할 모델이 부족한 경우 진지한 고민 없이 진학을 선택하기도 하고, 취업을 원하지만 비자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대학이라는 대체 진로를 선택하기도 한다. 방향 결정 이후에는 '역량 키우기'를 하는데, 한국어 능력, 체류자격에 따라 역량키우기 방점은 달라지며,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정책도 달라진다. 국내 출생 청년은 한국어가 걸림돌이 된 적은 없으나 중도입국 청년 중 일부는 한국어 능력의 한계로 취업목표를 낮추기도 한다.

'본격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일 접근' 과정에서는 외모의 독특성, 이중 언어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여러 취업장벽 및 실패를 경험하며 본인의 역량보다 낮은 곳을 목표로 하거나 추가적인 준비를 하게 된다. 구직은 전문기관 활용보다는 인터넷이나 지인 소개가 주를 이루어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 기본적인 면접 에티켓 등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청년조차 난항을 겪지만, 실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전문기관은 없다. 한편 취업 준비 과정에서 '통제할 수 없는 역량 외의 것들' 중 가장 큰 것은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이들의 경우 적성과 능력에 관계없이 취업을 빨리할 수 있는 직업을 얻거나 대학 교육이 필요 없지만 다시 유학생이 되기도 한다.

본격적인 '일 경험' 단계에서는 대부분 본인 스스로 취업이라고 말하는 일자리 진입 전까지 취업 경력개발과는 무관한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한다. 다양한 사회경험 중에 이중 언어 활용,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일자리 등 이주배경이 일자리 경험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노동시장은 만만치 않아 '일자리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과중한 업무량, 불안정한 회사 상황과 더불어 누구보다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차별, 무시, 은근한 따돌림과 업무 과정에서 동료들과는 다른 업무 내용 부여, 특정 업무 배제 등을 당하기도 한다. 구직과정이나 일 경험 중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

만 곳곳이 ‘나의 일자리에 정착’하며 여느 청년과 다르지 않은 직장생활을 이어간다. 이주배경 청년이기에 부가적인 역량개발과 관계 및 조직 문화 어려움,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하지만 역량을 지키는 것도, 마음을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고 도움받을 곳도 없다. 안정적인 정착을 해야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도 모호하고, 같은 역량이나 조건일 경우 한국보다 대우가 더 좋고, 문화와 언어가 익숙하며,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출신 국가로 돌아가 취업하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노동시장 이행의 경험과 인식은 ‘변화’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데, 먼저 이주배경 청년을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이주배경 청년에게 기술훈련 지원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한 대학 교육까지 마친 우수한 인재로서 이주배경 청년을 인정해야 하며, 대체인력으로만 보는 시각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으로서 일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이다. 외국인가정 자녀와 전문가들의 경우 방법의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미성년 시기에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경우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식의 차원에서 벗어나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이 행동으로, 그리고 생활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인식개선 교육과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5. 정책적 시사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는 2010~2020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0~18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이주배경 청년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주배경 청년의 정확한 규모와 이들의 상황과 정

책 수요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도 커진다.

둘째, 이주배경 청년의 약 70% 이상이 부모가 외국 출신이고, 45% 이상은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으로 추측되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 및 가구 특성이 동일하더라도 이주배경 청년은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취업과 직업 선택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지만,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도가 향상될 경우 상당한 노동시장 성과 개선이 기대된다. 이주배경 청년의 원만한 노동시장 이행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이들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 이해도 향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이주배경 청년의 관참은 커리어 형성을 위한 이직 및 전직 지원이 필요하다. 이주배경 청년의 일자리 이동이 처음 가진 일자리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동시장 경력을 쌓고 있어, 불안정한 첫 번째 일자리가 불안정한 커리어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취업한 이주배경 청년의 다수가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이나 전직을 희망함에도 3명 중 1명만 실제로 이를 위한 실질적 준비를 하였다. 구직자와 포기자도 희망하는 일자리 진입을 위해 실제 준비하는 경우는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넷째,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장기적인 커리어 플랜 설계가 가능한 직업 상담기관의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취업자, 구직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취업 의사가 있는 현재 비경제활동 이주배경 청년은 취업 관련 상담을 할 사람을 찾지 못해 더 나은 일자리 취득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에 어려움을 느꼈다. 이주배경 청년의 사회 및 인적 네트워크가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에서 학교 졸업 후 이주배경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및 커리어 개발 상담이 더욱 필요하다. 실제, 현장 전문가들은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이 임박했을 때 이들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있으면서 실제적인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나 전문가들과의 멘토링 시스템 운영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직업훈련과 취업 교육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주배경 청년은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의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업훈련과 취업 교육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배경 청년의 과반이 정부의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보였고, 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직업훈련이 희망하는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장 실습과 취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이주배경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경력이 부재하고, 취업 준비의 행정적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장 전문가 또한 활용할 수 있는 더욱 실질적인 전문교육이나 훈련,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주배경 청년의 역량 개발과 관심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에서 2016년부터 도입된 이주배경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이주배경 청년 정착프레임워크(National Youth Settlement Framework)와 지역 사회의 취약 이주배경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주배경 청년 지원 서비스(Youth Transition Support)는 우리가 벤치마킹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여섯째, 취업에 제한이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배경 청년의 국내 노동시장 진입 및 구직 의사가 높았다. 사회통합 관점에서 이주배경 청년 노동 정책의 주요 대상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취업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취업에 있어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배경 청년의 국내 노동시장의 진입과 구직 의사가 높다는 점은 향후 이주배경 청년 노동시장 정책의 대상으로 이들을 포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이주배경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청년’이 겪는 불안정성에 ‘이주배경’ 요인이 결합되어 고용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집단이다. 2022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약 225만 명으로 총 인구의 4.4%이다. 이 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175만 명, 한국 국적 취득자 22만 명, 국내 출생 외국인주민 자녀는 28만 명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와 함께 이주배경 청년의 본인 출생지와 부모의 이주 배경 다양화로 집단 내 이질성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이주배경 청년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여 다루고 있는 법이나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의 정의도 관련 법령별, 부처별, 그리고 정책별 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통일된 정의가 없다. 이에 현재까지 주요 연구에서 분류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범주는 국내 출생 국제결혼 자녀, 중도입국 자녀, 국내 출생 외국인주민 자녀, 외국 출신 외국인가족 자녀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최근 이주배경 청소년의 국적과 이주 경로 다양성을 반영한 취업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주배경청소년 사회진출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2023). 이주배경 청년은 이주민의 자녀 세대 중 아동과 청소년과 달리

정책적 관심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다문화가족 지원은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24세 이하인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25세 이상의 이주배경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청년기본법」의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신분의 34세 이하 이주배경 청년은 청년 대상 정책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주변화된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선제적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높다. 먼저,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증가로 향후 이주배경 청년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다문화 혼인¹⁾은 1만 3천 건으로 전체 혼인의 7.2%, 다문화 출생은 1만 4천 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5%로 나타난다(통계청, 2021). 다문화 가구 자녀는 2007년 4만 4천 명에서 2017년 22만 2천 명으로 10년간 5배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27만 5천 명으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22).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배경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어 전체 학생에서 다문화 배경 학생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20년 초등학교의 4%, 중학교의 2%, 고등학교의 1%가 다문화가족으로 이는 2014년 초등학교의 1.8%, 중학교의 0.7%, 고등학교의 0.4%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서 청년 비중이 최근으로 올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만 15세 이상~24세 미만 청년이 전체 다문화 가구 자녀의 5%에서 2015년 14.3%, 2021년에는 18.5%로 증가하였다(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09, 2015, 2021). 2009년 만 18세 이상~만 24세 미만이 전체 다문화 가구 자녀의 3.6%에서 2015년 7.8%, 2021년에는 8.3%로 증가하였다(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09, 2015, 2021). 재혼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외국인 자녀인 중도입국 자녀, 부모가 모두 외국인으로 국내 출생한 외국인주민 자녀도 증가하고 있다.

이주배경 청년은 사회 인적 자본이 취약하고,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어 노동시장 진입과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일자리 경로는 비(非)이주배경 청년들과 다를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은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또는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다문화가족의 초기 청년기(만 24세까지) 청년은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이 낮고, NEET의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고용 취약계층의 특성을 보인다. 실제, 2021년 다문화자녀의 대학교 이상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0.5%로 전체 국민의 취학률 71.5%보다 31.0%p 낮게 나타난다(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21). 2015년 만 15~24세 다문화자녀의 5명 중 1명이 NEET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2021년 이후 몇몇 사례 연구가 이주배경 청년의 사회적 주변화와 불안정성을 살펴보았으나, 다문화가족 범주 안에서 횡단적 측면으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다루는 데 그쳤다. 먼저, 분석 대상을 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백경민·연구진, 2022; 송영호·김재훈, 2022; 장현진 외, 2023). 다문화가족 범주 외에 있는 이주배경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횡단적 측면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민선·김재훈, 2021; 최영미·송영호, 2022; 박희진 외, 2023; 류유선, 2023).

이주배경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청년과 이주배경의 취약성이 결합된 고용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다문화가족과 청년 고용정책에서 주요 대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범주 외 이주배경 청년을 포괄하여,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통합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주배경 청년 규모와 취업 상태 변화 추이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개인적 측면에서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일자리 경로 특성, 그리고 노동시장 이행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국내의 이주배경 청년 연구는 주로 다문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만 25세 이상의 다문화 청년의 사회 적응과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있어(신윤정 외, 2018; 김민선·김재훈,

2021; 송영호·최영미, 2021; 박희진 외, 2023), 노동시장 진입과 이행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주배경 청년이라는 용어는 2020년대 이후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고용 측면에서는 이들의 자립, 진로 계획 및 진로 준비 등 성인기 초기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어려움을 다루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민선·박희진(2022)은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일을 하는 25~34세 다문화 청년 288명을 대상으로 진로 장벽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진로목표 불일치와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진로목표 불일치는 직무만족뿐 아니라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목표 불일치는 낮아지며, 삶과 직무만족은 높았다. 진로장벽은 진로목표 불일치의 긍정적 영향 요인이며, 사회적 지지는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년의 진로 방벽이 진로목표 불일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민선 외(2022)는 20~28세의 다문화 청년 중 국내 출생 6명, 중도입국 6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이용하여, 성인기 진입기 진로 경험 특성과 이것이 삶의 만족과 미래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성인기 진입 이전 다문화 청년의 학습과 진로 경험이 어떠한지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출생과 중도입국 다문화 청년 모두 한국 사회의 높은 경쟁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희망했던 전공이나, 진로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분석 대상 다문화 청년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나 대학교 재학 또는 중퇴 중에 일을 시작하였고,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 중심의 일자리로 이직이 잦아 안정적인 일자리 경로를 갖고 있지 않았다. 특히, 중도입국 다문화 청년의 경우 언어로 인해 일하면서 차별 경험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진로 결정에 있어 학창 시절의 친구와 교사를 통해 특정 직업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된 경우가 많았으나, 부모나 가족 구성원을 통한 직업의 간접 경험은 부족한 편이었다. 미래 진로에 대한 희망을 가짐과 동시에 불안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 국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희망하지만, 가능하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운 경우도 있었다. 다문화 배경이 차별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언어나 일의 선택에 있어 다양성 측면의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도 평가하였다. 국내 출생 다문화 청년에 비해 중도입국 청년의 진로 선택이나 적응에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에서 청년이 된 경우 취업에 필요한 네트워크가 부족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 과정, 직업 교육 및 훈련, 취업 등 대한 정보 접근이 떨어졌다.

김진희 외(2021)는 국내 출생 및 중도입국한 19~34세 다문화 청년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여 성인기 진입 이후 다문화 청년의 평생 교육과 학습 수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 청년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좁고, 가족의 문화적 자본과 경제적 수준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준비는 제한적인 학습 활동에만 이루어졌다. 언어적 제약뿐 아니라 직업능력 개발 정보가 부재하여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출생 다문화 청년 또한 다문화 배경으로 인한 부정적 사회의 시선을 경험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나 학습 네트워크도 제한적이었다.

류유선(2023)은 국내 출생 및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 4명(19~26세)과 이주배경 청년의 부모로 결혼이주 여성 5명, 그리고 현장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하여, 이주배경 청년의 사회적 독립 과정의 어려움을 살펴 보았다. 이주배경 청년은 언어와 정체성 혼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주배경 학생 중 국내 출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학생보다 낮지만, 중도입국과 외국인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 선택에 있어 학업을 종료하여 취득한 학교 졸업장과 학교에서 형성된 인적 및 사회 네트워크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 취업 정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중도입국 청년의 높은 학업 중단율은 결국 사회적 독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주배경 청년의 진로 결정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진로 및 교육 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경우 취업 전반에 필요한 정보, 교육, 진로 설계에 어려움이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신윤정 외(2018)는 2016~2017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이용하여, 15~29세 이주배경 청소년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과 취업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배경 청소년은 상급학교 진학률이 비이주배경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노동시장 성과를 보

면, 2017년 비이주배경 청년 20~24세의 고용률은 46.4%, 실업률은 11.1%이며, 이주배경 청소년 20~24세의 고용률은 39.5%, 실업률은 11.2%였다. 4년제 대학 졸업 연령대인 25~29세의 고용률을 비교하면, 비이주배경 청년의 고용률은 69.8%, 실업률은 8.5%인 반면, 이주배경 청소년은 56.3%와 12.4%로 나타나 이주배경 청소년이 비이주배경 청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 그리고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상 지위별 특징 또한 2017년 전체 취업 이주배경 청년의 49.7%가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이 42.4%, 그리고 비임금근로가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취업한 비이주배경 청년과 비교하여 보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진 청년이 72.8%, 그리고 계약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청년이 25%, 비임금근로자가 2.1%로 이주배경 청년의 비임금근로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장현진 외(2022)는 25~34세 이주배경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스트레스, 취업장벽,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장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국내 출생 이주배경 청년과 중도입국 청년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취업장벽을 많이 경험하였을수록, 코로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나빠졌다. 이러한 코로나 스트레스와 취업장벽의 영향은 국내 출신인지 중도입국인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졌다. 중도입국 국내 출생 청년의 경우 취업장벽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정도가 국내 출생 청년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주배경 청년의 진로 준비, 진로 목표 설계, 취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한국 체류기간, 한국어 수준, 가족 및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주배경 청년 집단 내에서도 국내 출생인지 중도입국인지에 따라 성인이 자립의 과정과 어려움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3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주배경 청년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주배경 청년 정책 현황을 검토한다. 이주배경 청년에 관한 학술 및 정책적 정의를 살펴본 뒤, 이주배경 청년의 체류자격 종류와 이에 따른 취업 자격을 파악한다. 또한 이주배경 청년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기본계획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 추이와 취업 상태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한다. 인구주택총조사 2010, 2015, 2020년 2% 표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의 최근 10년간 취업 상태 변화를 분석한다. 비이주배경 청년을 비교 집단으로, 재학 및 취업의 차이를 살펴보고, 개인 및 가구 특성이 취업과 직업 선택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4장은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이주배경 청년의 근로 실태와 직업력 특성을 살펴보고, 미래 일자리 계획과 직업훈련 수요를 파악한다. 현재 취업 상태와 직업훈련 참여 의향에 개인과 가구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5장은 심층면접을 통해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 경험, 취업 장벽, 진로 및 취업 지원의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이주배경 청년의 특성별 정책지원 수요와 지원방안을 살펴본다.

제 2 장

이주배경 청년의 개념과 정책 현황

제1절 이주배경 청년 개념

이주배경 청년은 본인 또는 부모를 통해 국경을 넘는 국제 이주를 경험한 청년을 지칭한다. 이주배경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법이나 정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정책이나 학계에서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법, 관계 부처, 서비스 제공 기관, 그리고 학계에서 사용되는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주배경 가구의 자녀 중 아동 및 청소년기를 포괄하는 정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관련 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녀로 정의한다. 다문화 학생 또는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년 등에 사용되는 다문화의 개념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결혼이민자 가족 또는 기타 귀화자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등 외국인 가정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 지원법」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의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관계 부처의 정책 대상 또한 청년보다 아동 또는 청소년에 초점을 둔 정의가 주를 이룬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 자녀로 부모가 모두 외국계, 부모 중 한쪽이 외국계, 또는 생물학적 부모는 모두 한국인이지만 외국계 주민과 재혼하여 현재 한쪽 부모가 외국계 가구인 청소년 자

녀를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법무부는 이민배경 청소년을 결혼이민자 자녀, 외국인 투자자 자녀, 외국인 유학생 자녀로 정의하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국민의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정의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 자녀를 다문화가정 청소년 또는 결혼이민자 자녀 및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을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교육부의 경우 국내 출생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정의한다. 특히, 난민과 미등록이주아동도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이주배경 아동을 포괄하고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은 이주배경 청소년을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국제결혼 가정 및 외국인 가정, 그리고 탈북청소년을 구분하여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2-1〉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 자녀

부모배경	본인출생지	
	국내 출생	국외 출생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외 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부모 모두 외국인	국내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국외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자료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www.rainbowyouth.or.kr) 2024. 9. 5. 접속.

〈표 2-2〉 탈북 청소년

부모배경	본인출생지	
	남한 출생	남한 외 출생
부모 중 한 명이 이상이 북한이탈주민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외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부모 중 한 명은 외국인 다른 한 명은 북한이탈주민	남한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자료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www.rainbowyouth.or.kr) 2024. 9. 5. 접속.

최근 이주배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및 학술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연령을 청년기로 확장하여 사용하거나, 부모와 자녀의 출생지를 교차하여 이주배경 청년을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와 이주배경의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만 25세 이상 연령의 청년을 기준으로 다문화청년 또는 이주배경 청년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선행연구의 이주배경 청년 정의

정의		유형	연령
다문화 청년	다문화 2세대 (윤형준, 2019)	- 결혼이민자 가족의 성인 초기 자녀(결혼 이민자와 출생·인지·귀화에 의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자녀) - 기타 귀화자 가족의 성인 초기 자녀(귀화자와 출생·인지·귀화에 의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의 자녀)	18~24
	다문화 청년 김은정 외(2022)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 가정(한국인과 결혼이민자 결혼가정 자녀와 한국인과 귀화자 결혼가정의 자녀)의 자녀 -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인 국내 출생 국제결혼자녀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중도입국) 대상	25~34
	다문화 청년 김민선 외(2022)	- 성인기에 진입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인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자녀 대상	19~34
	다문화배경 청년 김진희 · 이로미 · 권진희(2021)	-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 자녀 - 국내 출생과 중도입국 자녀 대상	19~34
이주 배경 청년	이주배경 청년 류유선(2023)	- 다문화 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18~39
	이주배경 청년 최영미(2020)	- 다문화 가정의 자녀(한국인+외국인 사이 자녀), 중도입국 자녀	20대
	이주배경 청년 송영호 · 김재훈 (2022)	- 부모 또는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국내 출생 또는 중도입국 청년	19~34
	이주배경 청년 송영호 · 최영미 (2021)	- 다문화 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자녀	19~34

〈표 2-3〉의 계속

정의		유형	연령
	이주배경 청년 장현진 외(2022)	- 다문화 가정의 국내 출생과 중도입국 자녀	25~34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 박희진 외(2023)	-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이주배경 자녀로 정의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연령에서 벗어난 25~34세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	25~34
	이주배경 청년, 김민선 · 김재훈 (2021)	- 다문화 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19~34
	이주배경 청년 장현진 외(2023)	- 다문화 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25~34
	이주배경 청년 백경민 · 연규진 (2022)	- 다문화 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	25~34
	이주배경 청년 김정유(2024)	- 국내에서 91일 이상 상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과 귀화허가자 중 청년층	15~39
	이주배경 청년 최영미 · 송영호 (2022)	- 본인 출생지와 부모 이주배경을 교차하여 4가지의 유형(① 국내 출생 국제결혼 자녀, ② 중도입국 자녀, ③ 국내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④ 외국출신 외국인가족 자녀) 구분	19~34
이주 배경 후기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양계민 외(2023)	- 본인 또는 부모가 국경을 넘는 이주 배경 (북한출신 가정 자녀 포함)을 지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 - 본인 출생과 부모의 이주배경을 교차하여 i)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ii) 국외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iii) 국내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iv) 국외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v) 남한 출생 북한배경 vi) 북한 출생 아동·청소년 vii) 제3국 출생 북한배경 아동·청소년	9~24

자료 : 저자 작성.

제2절 이주배경 청년의 체류자격과 정책 현황

1. 이주배경 청년의 체류자격과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

외국 국적의 이주배경 청소년은 보통 초청자(주 이민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을 얻어 한국에 체류하게 된다. 부모 모두가 외국인일 수도 있고, 부나 모 중 1인이 한국인인 경우도 있고, 부모 모두 한국인인 경우에도 자녀는 외국 국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한국의 사증 체계에서 주 이민자의 자녀 동반을 허용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한정된다. 동반 가족과 관련된 대부분의 체류자격 명칭은 'OO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이다.

현재 이주배경 주민의 미성년 자녀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F계열 사증이며,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4(재외동포), 영주(F-5)가 가능하다. 이 외에 학업과 관련된 D-4(일반연수) 자격, G-1(기타자격)이 가능하다. 체류자격 계열별로 외국 국적 미성년자가 취득할 수 있는 주요 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 이주배경 청소년의 체류자격

계열	체류자격	체류자격 대상	체류기간 상한
D	D-4-3(연수)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2년 (연장 가능)
	D-4-8, 9, 10(연수)	초·중·고 재학 중인 미등록 외국인	고교 졸업시까지
F	F-1(방문동거)	합법체류자/재외동포(F-4)/방문취업(H-2)/거주(F-2)자의 미성년 자녀, 결혼이민자 전혼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	2년 (연장 가능)
	F-2(거주)	국민/영주(F-5)/난민(F-2)/투자이민자(F-2)/점수제 우수인재의 미성년 자녀	5년 (연장 가능)

〈표 2-4〉의 계속

계열	체류자격	체류자격 대상	체류기간 상한
	F-3(동반)	D계열/전문인력(E-1~E-7)/재외동포(F-4)/방문취업(H-2)의 미성년 자녀 *기존 F-1계열로 발급하던 체류자격 중 일부가 F-3로 변경	주 이민자 체류기간
	F-4(재외동포)	기존 한국 국적자/기존 한국 국적자의 직계비속/ 초·중·고 재학 중인 동포(H-2, F-4) 자녀	3년 (연장 가능)
	F-5(영주)	국민/영주(F-5)자의 미성년 자녀	상한 없음
G	G-1	난민신청자/인도적 체류자나 그 미성년 자녀	1년 (연장 가능)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2), 「비자 내비게이터」의 내용을 정리함. 2024년 7월 기준으로 작성함.

〈표 2-4〉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갖는 체류자격의 유형에 따라 성인이 된 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으로 전환되는 방식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가족 동반을 보장하는 대상은 미성년 자녀이기 때문에 성년이 될 경우에는 이주배경 청년이 한국에서 체류 가능한 별도의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표 2-4〉를 기준으로 볼 때 F계열 체류자격 중에서도 일부만이 한국에서 정주가 가능한 형태의 사증이다. 1회 체류기간 상한이 5년인 거주(F-2) 자격과 체류기간 상한이 없는 영주(F-5) 자격이 대표적인 정주형 체류자격이다. F-4(재외동포) 자격도 1회에 부여되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지만 범위반 사항 등이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주형 체류자격이라고 볼 수 있다.

미성년자로서 정주형 체류자격 여부에 따라 본인이 직접 새로운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지, 기존의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정주형 체류자격인 F-2나 F-5의 경우에는 기존 체류자격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장기거주(F-2-99) 자격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경우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고, 성년이 된

후 주 이민자(주 체류 자격자)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정주형이 아닌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D계열, F-1계열, F-3계열)에는 성년이 되면 별도의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그 외의 연령을 특정하여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있다. 재외동포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F-1-9)는 부나 모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25세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다.

F-1계열 체류자격, 또는 F-3계열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배경 청소년은 성년이 되고 기존의 체류기간이 끝나면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한다. D 계열 체류자격을 가졌던 이주배경 청소년도 이와 동일하다. 변경이 가능한 체류자격 중 성년에 도달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취득 가능한 장기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다. <표 2-5>에 없는 체류자격 중 일부 특수한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으나(예 : E-7 전문인력), 현실적으로 어렵다.

F-1, F-3 체류자격의 이주배경 청소년이 청년이 되었을 때 체류자격 취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는 자격은 유학(D-2)과 연수(D-4) 자격이다. 그러나 해외의 외국인이 유학, 연수 자격의 사증을 받을 때보다 체류자격 요건에서 완화되는 부분은 없다(예 : 국내 체재비와 등록금 입증).

성년이 된 직후 진학이 아니라 취업을 한다고 한다면 E-1~E-7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취득이 어렵다. E-9은 한국과 송출국(국적국) 간에 선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성장한 이주배경 청년이 국내에서 지원할 수는 없고, 국적국에서 선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입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선발 인원, 대기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단시간 내 입국이 쉽지는 않다.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인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을 통하여 초청자 또는 주 이민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F계열의 비자를 취득할 수도 있다.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인도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경우 난민신청을 하여 G-1(난민신청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난민인정 심사 결과, 난민인정자(F-2)나 인도적 체류자(G-1)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 미성년자일 때부터 인도적 보호 관련 체류자격(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 아프간 특별기여자)였던 경우에는 성년이 된 경우에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표 2-5〉 이주배경 청년의 취득 가능 체류자격

계열	체류자격	체류자격 대상	체류기간 상한	취업 가능
D	D-2(유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2년 (연장 가능)	요건 충족 후 허용 분야에서 파트타임 가능
	D-4(연수)	어학원, D-2 대상 아닌 교육기관에서 교육·연수	2년 (연장 가능)	요건 충족 후 허용 분야에서 파트타임 가능
E	E-9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취업대상자 ※ 국적국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선발되어야 입국 가능	3년 (4년 10개월까지 연장 가능)	가능
F	F-1(방문동거)	재외동포(F-4)/방문취업(H-2)/거주(F-2)자의 배우자	2년 (연장 가능)	불가
	F-2(거주)	영주(F-5)/난민(F-2)/투자이민자(F-2)/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5년 (연장 가능)	가능
	F-3(동반)	D계열/전문인력(E-1~E-7)/재외동포(F-4)/방문취업(H-2)의 배우자	주이민자 체류기간	불가
	F-5(영주)	영주자의 배우자	3년 (연장 가능)	가능
	F-6(결혼이민)	국민의 배우자	3년 (연장 가능)	불가
G	G-1(기타)	난민신청자	1년 (연장 가능)	신청 후 6개월 지나면 가능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2), 「비자 내비게이터」의 내용을 정리함. 2024년 7월 기준으로 작성함.

유지된다면 체류자격이 유지된다.

이주배경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동포 관련 체류자격의 취득도 가능하다. 동포의 직계비속 세대 범위(기존 3세대)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면서 동포의 직계비속이면 동포 관련 자격의 신청이 가능하다.

〈표 2-6〉 이주배경 동포 청년의 취득 가능 체류자격

계열	체류자격	체류자격 대상	체류기간 상한	취업 가능
F	F-4 (재외동포)	기존 한국 국적자, 기존 한국 국적자의 직계비속, 기존 재외동포 자격(예: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F-4-29)을 가졌던 동포	3년(연장 가능)	가능 (단순노무 불가)
H	H-2 (방문취업)	동포 미성년 자녀(F-1-9, F-1-11) 자격으로 체류하던 동포	3년(연장 가능)	가능 (46개 업종 외 불가)

자료: 장주영(2024)의 자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4년 7월 기준으로 작성함.

미등록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에는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하여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국내 초·중·고를 재학하거나 졸업한 경우, 6세 이후에 입국하여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국내 초·중·고를 재학하거나 졸업한 경우 교육권 보장을 위해 D-4계열 체류자격을 미성년일 때 부여받는다.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되면 유학이나 취업 자격 요건으로 변경해야 한다. 만약 D계열, E계열로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1년 동안 임시로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는데 이 기간 동안 다른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F-1, F-3 계열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체류자격외활동 허가가 가능하다. 법무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사사용인 취업 허가가 시작될 경우에 그 예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외에도 E-1~E-7 계열 영역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자격외활동 허가가 가능하다. D계열은 요건 충족 후 허용 분야에서 파트타임이 가능하다. F-2는 일부 제한 직종 외에 취업 제한이 없고, F-5계열은 취업의 제한이 없다. F-6계열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다. G-1계열은 신청 후 6개월 이후부터 취업 가능하다. 동포 체류자격인 F-4계열은 단순 노무가 불가하며, H-2계열은 46개 업종 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2. 이주배경 청년 정책

2024년 현재 이주배경 청년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국가 기본계획을 살펴 보고자 한다.

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대표적인 다문화 관련 법정 계획이다. 지금까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추진되었으며, 2024년 현재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한정해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맞춰 정책 방향이 발전되어왔다.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녀 출생과 초기 발달에 초점을 두고 이들을 지원하는 언어발달 지원사업, 학교 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의 과제가 추진되었다(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2010).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취학자녀 증가와 더불어 학습 부진이나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한국어능력 향상,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의 정책이 시행되었다(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2012).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청소년기에 도달한 자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영유아 및 취약계층 자녀 중심 정책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가와 이들의 적응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목표로,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중도입국 자녀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

었다. 3차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국내 및 국외출생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 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맞춰 정책 방향이 발전되어 왔다(양계민 외, 2023).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제3차 기본계획 성과를 분석하고, 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였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생활 부적응과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기부터 후기 청소년기를 포함한 정책 지원 수요 등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목표로,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역량 제고,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안정 기반 조성 등의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전 기본계획과 달리 다문화 아동·청소년 관련 목표와 과제가 먼저 제시되고 있어, 다문화 가족정책에서 자녀 세대의 사회적 통합 지원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부터 후기 청소년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후기 청소년으로 초기 청년기를 커버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만 19세 이상 다문화 후기 청소년의 정부 지원 수요 실태 파악 과제이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모집단을 기반으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통해 후기 청소년의 현황과 정책지원 수요 등 실태 파악은 후기 청소년의 진로개발 지원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실태조사는 현재 통계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19세 이상 24세 미만의 다문화 후기 청소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다문화 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한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뿐 아니라 폴리텍대학, 내일이룸학교 등의 직업훈련 제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한 취업 촉진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경제적 지원,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등 신기술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 지원 등의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양계민 외(2023)는 이러한 정

책들의 대상에서 외국인가정 자녀는 배제되었다는 점과 후기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 아닌 단편적 사업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

외국인정책은 국경·출입국 및 체류 관리, 사회통합과 국적 부여 정책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법무부의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2008~2012년까지 시행되었다. 2024년 현재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험성, 유학생 및 영주 자격자의 증가 등 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라는 비전을 설정하였고, 구체화한 5가지 정책 목표와 18개의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이민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유입단계부터 이민자의 정주 가능성과 사회통합을 고려하여 필수인력으로 적극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양계민 외, 2023).

이주배경 청년과 관련된 중점과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과제이다. 이민자 자립을 위한 성장기반 확충, 이민자 기초생활 적응 지원,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 성장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 지원 중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이 이주배경 청년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영유아기 언어발달, 취학 전후 기초학습 및 청소년기 상담, 진로설계 지원, 이중언어 역량 강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진로 컨설팅 및 대학생을 활용한 한국어·기초학습 및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과제에서는 ‘경제적 자립

과 기여를 위한 동포 체류제도 개선' 이 이주배경 청년과 관련된 내용이다.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동포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지역사회 연계형 동포 체류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동포의 사회적응 및 국민과의 유대감 증진'에서는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커뮤니티 지원이나 재외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체류 안내 강화를,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한 차세대 동포 육성'에서는 차세대 동포의 국내 체류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문제와 노동력 부족 문제의 대안이 이민이라면, 국내에 있는 이주배경 청년의 정착 유도 방안을 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양계민 외, 2023)

제 3 장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상태 변화 분석

제1절 서론

한국은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면서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명 미만 수준이 된 이후, 2023년에는 0.72명까지 하락하였다.²⁾ 이러한 저출생 현상은 사회 전반의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총인구 감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뿐만 아니라 소비 감소를 의미하므로, 사회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여 확대와 함께 최근에는 인구전담부처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4). 또한 이민 확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한국일보, 2024; 한겨레, 2024). 그러나 이민 확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배경 인구(migrant background population)의 사회통합에 대한 노력이 충분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미래 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이주배경 청년의 상황에 대한 관심은 부족해 보인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청년 전체의 규모 파악도 미진한 상황이고,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현황 파악이 가능한 실정이다.

2)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 ‘합계출생률’ 검색(접속일 : 2024. 11. 12).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 가구에 속한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가 최근 10여 년 동안 얼마나 증가해 왔는지 확인하고, 취업 상태 변화를 비이주배경 청년과 비교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널리 사용된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한국인 가구 전체를 포함하지 못하거나 25세 이상의 이주배경 청년을 조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집단 가구와 외국인 가구가 제외되는 한계는 있지만, 한국인 가구에 속한 19~34세 이주배경 청년 전체 규모를 파악하여 연구 대상의 포괄성이 넓고, 비이주배경 청년과 비교하여 최근 10여 년간의 취업 상태 변화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분석자료인 인구주택총조사 2010·2015·2020년 2% 표본을 소개하고, 이주배경 청년의 조작적 정의를 설명한다. 제3절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에서 산출한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와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비이주배경 청년과 비교하여 재학 및 취업 비중 변화를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개인 및 가구 특성을 동일하게 통제하였을 때도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간의 취업 비중의 차이가 발견되는지를 이중 코호트 모형의 틀에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이주배경 여부’와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도의 대리변수인 ‘5년 전 한국 거주 여부’가 취업 확률과 직업 선택 확률에 끼친 영향을 추정한다. 제5절에서는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을 설명한다.

제2절 분석자료

1. 인구주택총조사 2010·2015·2020년 2% 표본

이주배경 청년 연구를 위한 미시자료로,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舊 외국인 고용조사)',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고려할 수 있다(신윤정 외, 2018: 25). 전자의 경우,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체류하는 15세 이상 외국인과 5년 이내 귀화 허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고용 및 체류자격 정보를 포함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한국 국적의 19~34세 이주배경 청년 중에 5년 이내 귀화 허가자만 포함하기 때문에 자료의 포괄성에 한계가 있다. 후자의 경우, 결혼이민자(사실혼 포함) 및 귀화자, 그의 배우자, 9~24세 청소년 자녀 및 가구 특성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 자료는 국내 다문화가족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나, 25세 이상 자녀는 파악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조사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10·2015·2020년 2% 표본을 분석자료로 사용한다.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에는 집단가구 및 외국인 가구가 제외되어 집단가구 또는 외국인 가구의 가구원인 이주배경 청년은 연구에 포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³⁾ 하지만 가구원의 출생 시 국적과 현재 국적이 한국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에⁴⁾, 본인 또는 부모의 국적 정보를 이용하여 이주배경 가구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 여부와 학력, 직업 등 고용 상태와 관련된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가구 조사이기 때문에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의 국적, 연령, 학력 특성을 연계하여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5세 단위로 연령집단을 구성하고 5년 단위로 두 개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연계하면 연령대별 취업 상태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9~24세 이주배경

3) 집단가구는 “가족이 아닌 6인 이상이 생활하는 가구, 기숙사, 노인 요양시설, 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살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고, 외국인 가구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단,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분류)”를 의미한다. 일반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가 포함된다(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조사 통계별 질문, 게시일: 2010. 8.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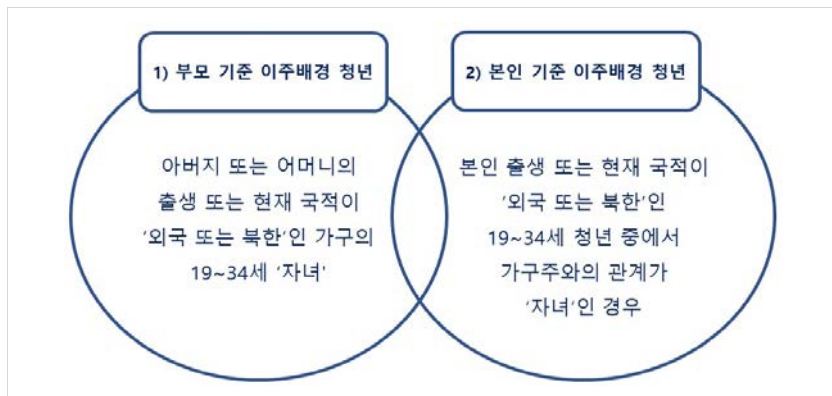
4) 2010·2015·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에는 가구원의 출생 시 국적(한국 여부) 항목이 포함된다. 그러나 1995·2000·2005년 표본에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출생지의 한국 여부는 2005년을 제외하고 1995~2020년 표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표본에는 출생 시 국적 및 출생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1995~2005년 기간 및 2005~2010년 기간의 취업 상태 변화를 분석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취업 상태 변화 분석기간은 2010~2015년 및 2015~2020년으로 한정하였다.

청년의 평균 취업 비중을 계산하고, 해당 연령집단이 25~29세가 되었을 때 평균 취업 비중을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계산할 수 있다.⁵⁾ 이처럼 두 개 연도의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을 연계하여 연령집단별 유사 패널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고자,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자료로 이용한다.

2. 이주배경 청년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이주배경 청년은 1)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출생 또는 현재 국적이 한국이 아닌(즉, 외국 또는 북한인 경우) 가구의 19~34세 자녀(이하 '부모 기준 이주배경 청년'이라 칭함)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2) 본인의 출생 또는 현재 국적이 '외국 또는 북한'인 19~34세 청년 중에서 가구주와의 관계가 자녀인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본인 기준 이주배경 청년').⁶⁾ '부모 기준 이주배경 청년'의 일부는 '본인 기준 이주배경 청년'과 중복될 수 있기에, 두 유형의 이주배경 청년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은 아니다. 실제 자료 구축 순서로, 먼저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에서 '부모 기준 이주배경 청년'을 선별하

[그림 3-1] 이주배경 청년의 조작적 정의



자료: 저자 작성.

5) 이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이주배경 청년 표본에서 5년 전 한국에 거주한 경우만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6) 편부모의 경우에는 동거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국적을 기준으로 이주배경 청년을 판별하였다.

고, ‘부모 기준 이주배경 청년’이 소속된 가구는 분석자료에서 제외한 후, 남은 분석자료의 가구 중에서 ‘본인 기준 이주배경 청년’인 자녀 표본을 추가로 선별하였다.

3. 이주배경 청년의 범주를 ‘자녀’로만 한정한 이유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이주배경 청년은 가구원 중에서 가구주와의 관계가 ‘자녀’인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에서 이미 제외된 집단가구 및 외국인 가구의 이주배경 청년뿐만 아니라, 본인의 출생 또는 현재 국적이 외국 또는 북한인 19~34세 청년 중에서 가구주와의 관계가 ‘자녀’가 아닌 경우(예 : 가구주,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등)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표 3-1〉은 부모 기준으로 이주배경을 가지는 34세 이하 자녀와 본인 기준 이주배경을 가지는 34세 이하 모든 가구원을 종합하여 국내거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청년의 규모를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서 19~34세 청년은 2020년에 약 16만 명이고, 이 중에서 가구주와의 관계가 ‘자녀’인 경우는 약 22%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이주배경 청년의 범위는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 연도별 0~34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청년 수

	2010년		2015년		2020년	
	천 명	비중	천 명	비중	천 명	비중
0~34세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청년	250		363		420	
19~34세 이주배경 청년	116	1.000	145	1.000	157	1.000
1) 가구주	7	0.059	15	0.105	22	0.139
2) 가구주의 배우자	64	0.547	77	0.529	78	0.500
3) 자녀	17	0.145	27	0.185	35	0.223
4) 자녀의 배우자	18	0.158	14	0.096	9	0.055
5) 기타	11	0.090	12	0.086	13	0.083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2015·2020년 2% 표본(인구가중치 적용하여 저자 계산).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을 ‘자녀’로 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배경 청년 자녀가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하여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사회통합과 인구 감소 대응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이기 때문이다. <표 3-1>에서 이주배경 청년 중에서 ‘자녀’의 비중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22%로 ‘가구주의 배우자’(50%) 다음으로 큰 비중을 보였다. ‘가구주의 배우자’의 대다수는 국제결혼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경우이고, ‘가구주’는 독립가구를 형성하고 취업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이주배경 청년 ‘자녀’는 노동시장 이행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들이 이주배경을 가졌다는 이유로 교육을 받거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면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배경 청년 자녀의 취업은 중요한 정책 의제가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간의 취업 여부 등 노동시장 성과 차이는 개인의 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녀’를 실증분석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청년은 축적한 인적자본 및 사회경제적 네트워크가 기성세대에 비해 적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의 취업 여부와 변화를 분석할 때, 청년 개인의 특성과 부모의 특성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가구 조사이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의 특성은 파악할 수 있지만,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이주배경 청년이 가구주 본인인 경우, 부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자료의 특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특성 파악이 가능한 이주배경 청년 중에서 ‘자녀’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4. 비교 집단으로서 ‘비이주배경 청년’의 정의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여부 또는 취업 상태 변화는 ‘이주배경’이라는 특

성에 기인할 수 있지만, 국내 거주 청년 전체에 영향을 끼친 시기적 요인에도 관련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청년이 취업 상태가 상대적으로 높은 또는 낮은 수준인지를 가늠하고, 또한 시기적 요인의 영향을 감안하고자 동일 시기에 관측되는 비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상태 변화를 함께 살펴본다. 비교집단으로서 비이주배경 청년은 앞서 설명한 ‘부모 기준 이주배경 청년’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이 아니고, 또한 ‘본인 기준 이주배경 청년’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이 아닌 19~34세 ‘자녀’로 설정하였다. 즉, 부모 모두 출생 및 현재 국적이 한국이고, 동거하는 19~34세 형제 또는 자매의 출생 및 현재 국적도 한국인 조건을 만족하는 19~34세 가구원 중에서 ‘자녀’만을 선별하였다. 이주배경이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있는 가구에 속할 경우, 본인이 이주배경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이주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또는 자매의 국적도 모두 한국인 가구만을 선별하여 비이주배경 청년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제3절 이주배경 청년의 주요 특징

1. 0~34세 이주배경 자녀의 연령 구성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에서 선별한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연령대를 0~34세로 확장하였을 때 이주배경 자녀의 연령 구성을 살펴본다. <표 3-2>와 <표 3-3>은 각각 연령대별 규모 및 비중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부모 또는 본인 국적 기준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자녀의 규모는 2010년 15만 명에서 2015년 24만 명, 2020년 29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이 중에서 부모 기준 이주배경을 가진 자녀의 비중은 87% 이상으로 나타나, 부모의 출생 또는 현재 국적이 한국이 아닌 가구에 속하는 이주배경 자녀가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별 규모를 보면, 0~24세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령대에 따라서 비중에 변화를 보이는데, 0~34세 이주배경 자녀

중에서 0~6세 비중은 2010년 54%로 가장 컸으나, 2020년에는 39%로 감소하였다. 7~14세는 2010년 28%의 비중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40%로 증가하여 가장 큰 연령집단이 되었다. 15~18세 비중은 2010년 6%에서 2020년 10% 수준까지 늘어났다. 2010년 이후 6세 미만 영유아의 비중은 감소하고,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늘어난 특징이 확인된다.

19~34세 연령대의 경우, 2010년 1만 7천명, 2015년 2만 7천명, 2020년 3만 5천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규모 증가는 주로 19~24세 연령대(2015년 : 1만 3천 명 → 2020년 2만 2천 명)에서 나타났고, 25~29세 및 30~34세 연령대 규모는 감소 또는 정체를 보였다. 25세 이후에는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연령대에서 큰 규모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3-2〉 연도별 0~34세 이주배경 자녀 연령대별 인원

	2010년	2015년	2020년
표본 수	2,963	4,952	5,941
이주배경 자녀 총합(천 명)	145	239	291
부모 기준 이주배경 자녀	135	207	266
남성	75	122	149
여성	70	117	142
0~6세	78	106	112
7~14세	40	83	116
15~18세	9	22	28
19~24세	9	13	22
25~29세	5	9	8
30~34세	2	5	5
소계 : 0~18세	128	212	256
소계 : 19~34세	17	27	3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2015·2020년 2% 표본(인구가중치 적용하여 저자 계산).

〈표 3-3〉 연도별 0~34세 이주배경 자녀 연령대별 비중

	2010년	2015년	2020년
표본 수	2,963	4,952	5,941
이주배경 자녀 총합(천 명)	145	239	291
부모 기준 이주배경 자녀	0.933	0.866	0.916
남성	0.518	0.509	0.512
여성	0.482	0.491	0.488
0~6세	0.542	0.446	0.386
7~14세	0.280	0.350	0.398
15~18세	0.061	0.092	0.095
19~24세	0.065	0.056	0.074
25~29세	0.034	0.038	0.028
30~34세	0.017	0.019	0.018
소계 : 0~18세	0.883	0.887	0.880
소계 : 19~34세	0.117	0.113	0.12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 2015 · 2020년 2% 표본(인구가중치 적용하여 저자 계산).

2.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의 주요 특성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에서 선별된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의 주요 특성은 〈표 3-4〉와 같다. 부모 기준 이주배경인 경우는 연도에 따라 등락을 보이나 70%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출생 시 국적(한국 여부)을 기준으로 가족 유형을 구분할 때, 아버지는 한국이고 어머니가 외국인 경우가 연도에 상관없이 32%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 모두 한국 출생인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 세 번째로 많은 유형은 외국 출생 국적의 편모 가족인데, 2010년 11% 수준을 보인 이후 5년마다 1%p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부모 모두 출생 시 외국 국적인 경우가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연도에 따라 등락이 있지만, 9~14% 수준의 비중을 보였다.

연령 구성을 살펴보면, 19~24세 연령대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출생 시 외국 국적인 비중은 연도에 따라 등락은 있지만 45% 이상으로 나타나, 해외에서 출생하고 중도입국한 이주배경 청년의 비중이 절반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 국적을 보유한 비중은 2010년

〈표 3-4〉 연도별 19~34세 이주배경 청년 특성별 비중

	2010년	2015년	2020년
표본 수	314	504	696
19~34세 이주배경 청년 수(천 명)	17	27	35
부모기준(출생시/현재 국적) 이주배경 자녀	0.741	0.686	0.811
가족 유형 1: 부-모 출생국적(한국-한국)	0.198	0.241	0.155
가족 유형 2: 부-모 출생국적(한국-외국)	0.413	0.322	0.471
가족 유형 3: 부-모 출생국적(외국-한국)	0.060	0.057	0.065
가족 유형 4: 부-모 출생국적(외국-외국)	0.089	0.137	0.096
가족 유형 5: 편부 출생국적(한국)	0.022	0.022	0.017
가족 유형 6: 편부 출생국적(외국)	0.017	0.007	0.008
가족 유형 7: 편모 출생국적(한국)	0.089	0.092	0.057
가족 유형 8: 편모 출생국적(외국)	0.111	0.122	0.132
남성	0.513	0.523	0.496
여성	0.487	0.477	0.504
19~24세	0.559	0.498	0.618
25~29세	0.295	0.333	0.231
30~34세	0.146	0.169	0.151
활동제약 있음	0.023	0.019	0.008
출생 외국국적	0.500	0.647	0.452
현재 외국국적	0.358	0.281	0.214
배우자 있음	0.073	0.063	0.041
초졸 이하	0.010	0.000	0.004
중졸	0.101	0.048	0.047
고졸	0.557	0.586	0.627
대졸 이상	0.332	0.365	0.321
학교 재학	0.225	0.249	0.318
고등학교 재학	0.078	0.000	0.055
대학교 재학	0.835	0.904	0.899
대학원 재학	0.087	0.096	0.046
1년 전 한국 거주함	0.852	0.938	0.939
5년 전 한국 거주함	0.630	0.803	0.817
일하였음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잠시 쉬 포함)	0.493	0.488	0.463
가구원 수	3.788	3.759	3.708
동 지역	0.887	0.894	0.854

주: 일하였음(즉, 취업)은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지 (부업, 아르바이트, 가족의 수입되는 일을 도움 포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일자리를 갖고 있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2015·2020년 2% 표본(인구가중치 적용하여 저자 계산).

3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21%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 비중이 2010년 5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63% 수준을 보였다. 학교에 재학 중인 비중도 2010년 23%에서 2020년에 특히 32%까지 증가를 보였고, 재학 경우의 대부분이 대학교 재학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한국에 거주한 비중은 2010년에 85%였으나 2015년 이후 94% 수준을 보였다. 5년 전 한국 거주 비중은 2010년 63%에서 2015년 이후 80~82% 수준을 보여, 2015년 이후에는 중도입국 청년의 대부분이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사일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지(부업, 아르바이트, 가족의 수입되는 일을 도움 포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일자리를 갖고 있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일하였음(즉, 취업)’으로 구분하고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49%에서 2020년 46%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 학교 재학 비중이 증가하면서, 취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3-5〉는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의 부모 특성을 나타낸다. 부모 모두 있는 비중은 76~79%로 나타나며, 어머니가 있는 경우는 96% 이상이나, 아버지가 있는 경우는 약 80%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아버지가 있는 경우, 아버지 연령대별 비중은 50~59세가 가장 많았으며(50~65%), 2015년 이후에는 60세 이상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2015년 18%, 2020년 26%). 40~49세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2010년 28%→2020년 13%). 어머니 역시 50~59세 연령대가 가장 많았고(40~53%), 40~49세 연령대가 두 번째로 많았다(32~38%). 어머니의 경우, 20~39세 연령대의 비중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특징을 보인다.

학력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졸 이상이 많았다. 출생 시 국적이 외국(북한 포함)인 비중은 아버지의 경우 21~26%인 반면에, 어머니는 60~72%로 나타나 어머니가 외국 출신인 경우가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외국 국적인 경우는 아버지가 13~14%, 어머니가 23~30% 수준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 연도별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의 부모 특성별 비중

	2010년	2015년	2020년
표본 수	314	504	696
19~34세 이주배경 청년 수(천 명)	17	27	35
부모 모두 있음	0.760	0.758	0.787
아버지 있음	0.800	0.786	0.811
아버지 : 20~29세	0.000	0.000	0.000
아버지 : 30~39세	0.012	0.000	0.000
아버지 : 40~49세	0.282	0.170	0.134
아버지 : 50~59세	0.501	0.646	0.603
아버지 : 60세 이상	0.206	0.184	0.263
아버지 : 초졸 이하	0.122	0.073	0.035
아버지 : 중졸	0.196	0.109	0.139
아버지 : 고졸	0.406	0.393	0.469
아버지 : 대졸 이상	0.276	0.425	0.357
아버지 : 출생 외국국적	0.209	0.255	0.208
아버지 : 현재 외국국적	0.134	0.132	0.136
어머니 있음	0.960	0.971	0.976
어머니 : 20~29세	0.029	0.015	0.005
어머니 : 30~39세	0.080	0.072	0.052
어머니 : 40~49세	0.384	0.315	0.358
어머니 : 50~59세	0.408	0.525	0.489
어머니 : 60세 이상	0.099	0.074	0.095
어머니 : 초졸 이하	0.080	0.060	0.018
어머니 : 중졸	0.247	0.133	0.156
어머니 : 고졸	0.440	0.440	0.465
어머니 : 대졸 이상	0.233	0.367	0.361
어머니 : 출생 외국국적	0.638	0.598	0.716
어머니 : 현재 외국국적	0.244	0.225	0.295

주: 부모의 연령, 학력, 국적 등 특성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존재하는 표본에 대해서만 특성별 비중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2015·2020년 2% 표본(인구가중치 적용하여 저자 계산).

3.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의 재학 및 일하였음 비중 비교

〈표 3-6〉은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의 재학 비중과 일하였음 비중을 나

타내며, [그림 3-2]와 [그림 3-3]은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의 재학 비중과 일하였음 비중의 추세를 각각 시각화하여 나타낸다.

재학 비중의 경우,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은 비이주배경 청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10년 23%에서 2020년 32%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기간에 비이주배경 청년의 재학 비중도 증가를 보였지만, 이주배경 청년의 재학 비중 증가의 정도가 더 컸고, 특히 2020년에는 비이주배경 청년의 재학 비중(30%)보다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⁷⁾ 연령대를 세분화하였을 때, 특히 19~24세 연령대에서 이주배경 청년의 재학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하였음 비중의 경우에도,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이 비이주배경 청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비이주배경 청년은 51~54%의 일하였음 비중을 유지하지만, 이주배경 청년은 2010년 49%에서 2020년 46% 수준으로 다소 하락을 보였다. 연령대를 세분화하면, 19~24세에서는 이주배경 청년의 일하였음 비중이 시기에 상관없이 비이주배경 청년보다 다소 높지만, 25~29세 연령대에서는 비이주배경 청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19~24세 연령대가 일반적으로 대학교 재학 시기임을 고려할 때, 이주배경 청년이 비이주배경 청년보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학교에 재학 중인 표본을 제외하고 일하였음 비중을 다시 계산하여 <표 3-7>과 [그림 3-4]에 제시하였다. 재학 중인 표본을 제외하면,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모두 일하였음 비중이 증가하지만, 비이주배경 청년의 일하였음 비중(2010년 68%, 2020년 65%)이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2010년 61%, 2020년 57%)보다 더 높아, 노동시장에서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간의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7) 2020년에 이주배경 청년의 재학 비중이 더 큰 것은 연령대별 구성비의 차이에 기인한다. <표 3-4>와 <부표 3-1>에서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의 연령대별 비중을 비교하면, 일반적인 대학 재학 연령대인 19~24세 비중이 이주배경 청년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2020년에는 62%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비이주배경 청년의 2020년 19~24세 연령대 비중은 48%이다.

〈표 3-6〉 19~34세 이주배경 청년 및 비이주배경 청년의 재학 및 일하였음 비중

		19~34세 이주배경 청년			19~34세 비이주배경 청년		
연도		2010년	2015년	2020년	2010년	2015년	2020년
표본 수		314	504	696	89,258	90,180	87,451
인원(천 명)		17	27	35	4,787	4,998	5,003
재학 비중	19~34세	0.225	0.249	0.318	0.286	0.287	0.302
	19~24세	0.331	0.420	0.478	0.511	0.502	0.540
	25~29세	0.136	0.109	0.098	0.128	0.107	0.108
	30~34세	0.000	0.011	0.000	0.018	0.013	0.014
일하 였음 비중	19~34세	0.493	0.488	0.463	0.535	0.513	0.520
	19~24세	0.392	0.374	0.341	0.329	0.323	0.331
	25~29세	0.540	0.556	0.609	0.683	0.663	0.666
	30~34세	0.387	0.351	0.483	0.380	0.440	0.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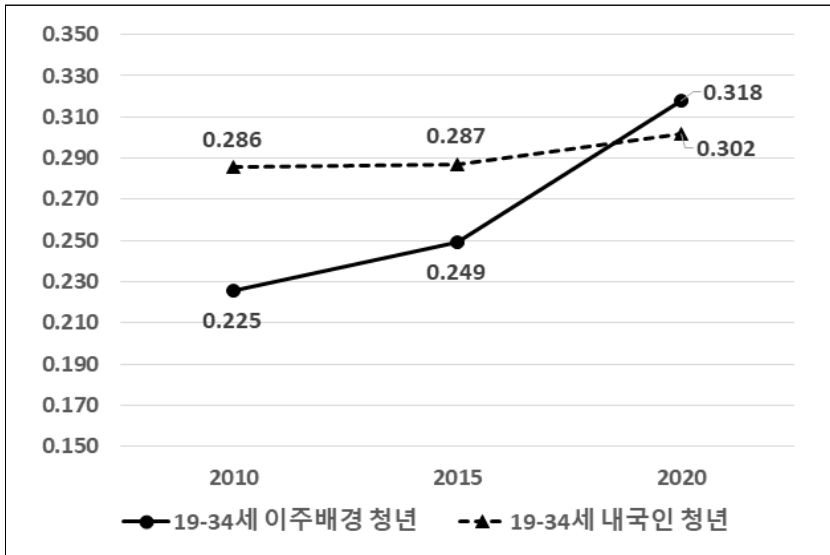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 2015 · 2020년 2% 표본(인구가중치 적용하여 저자 계산).

〈표 3-7〉 19~34세 이주배경 청년 및 비이주배경 청년의 일하였음 비중(‘재학’ 제외)

		19~34세 이주배경 청년			19~34세 비이주배경 청년		
연도		2010년	2015년	2020년	2010년	2015년	2020년
표본 수		243	378	461	64,178	64,320	60,934
인원(천 명)		13	20	24	3,420	3,564	3,493
일하 였음 비중	19~34세	0.606	0.581	0.568	0.678	0.657	0.652
	19~24세	0.535	0.507	0.460	0.520	0.504	0.491
	25~29세	0.611	0.586	0.610	0.744	0.716	0.706
	30~34세	0.447	0.390	0.536	0.423	0.486	0.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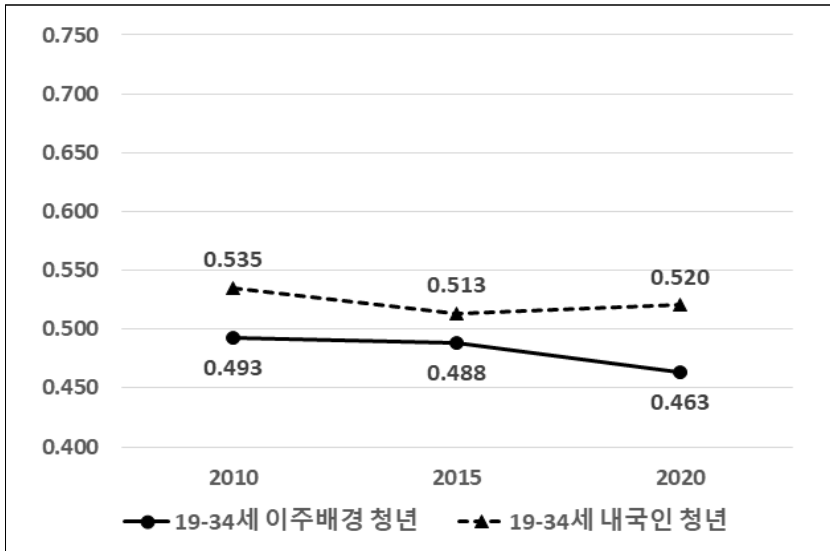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 2015 · 2020년 2% 표본(인구가중치 적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2] 19~34세 이주배경 및 비이주배경 청년 '재학' 비중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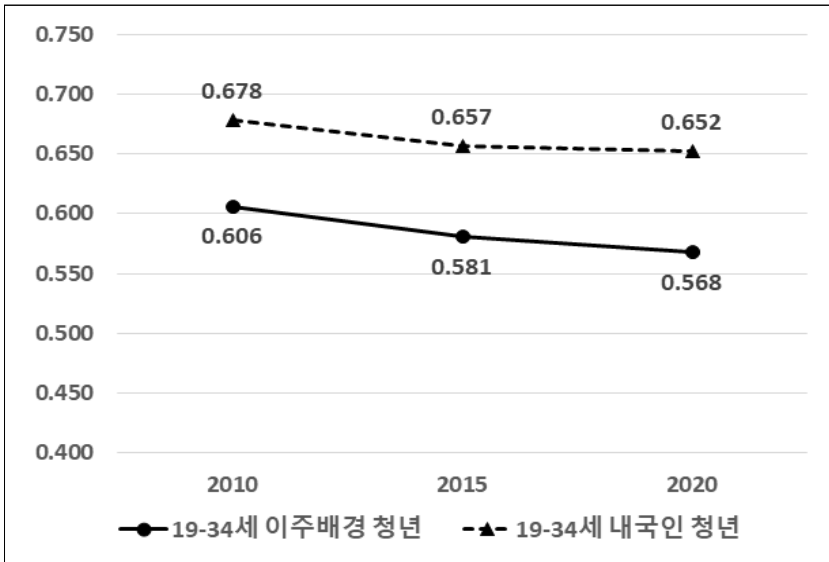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 2015 · 2020년 2% 표본(인구가중치 적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3] 19~34세 이주배경 및 비이주배경 청년 '일하였음' 비중 추세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 2015 · 2020년 2% 표본(인구가중치 적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4] 19~34세 이주배경 및 비이주배경 청년 '일하였음' 비중 추세('재학'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2015·2020년 2% 표본(인구가중치 적용하여 저자 계산).

4. 19~24세 및 25~29세 연령집단별 5년 후 취업 상태 변화

앞서 살펴본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의 일하였음 비중은 각 연도의 인구주택총조사 횡단면 표본으로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동일 대상의 취업 상태 변화를 추적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는 이주배경 청년을 5세 단위 연령집단으로 구분하고, 19~24세 연령집단과 25~29세 연령집단이 5년 뒤 각각 25~29세 및 30~34세가 될 때 일하였음 비중을 계산함으로써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선별된 19~24세 이주배경 청년 표본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25~29세 이주배경 청년 중에서 5년 전 한국에 거주한 표본이 동일한 연령집단이라 가정한다. 그리고 2010년의 19~24세 이주배경 청년의 일하였음 비중과 5년 전에 한국에 거주하였고 2015년에 25~29세인 이주배경 청년의 일하였음 비중을 각각 계산하여, 2010년 기준 19~24세 연령집단의 취업 상태 변화를 측정한다. 비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상태 변화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주배경 청년과 비교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19~24세 및 25~29세 연령집단의 취업 상태 변화는 <표 3-8>에 제시된다. 2010년 기준 19~24세 이주배경 청년의 일하였음 비중은 2010년 39%에서 2015년 53%로 늘어났다. 19~24세 비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2010년 33%에서 2015년 66%로 늘어났다. 19~24세에는 이주배경 청년의 일하였음 비중이 비이주배경 청년보다 6%p 높지만, 5년 뒤에는 오히려 1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24세 연령대가 25~29세가 되어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될 때,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상태 변화의 정도가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비이주배경 청년 : 34%p, 이주배경 청년 : 14%p)

2010년 기준 25~29세 연령대의 경우, 이주배경 청년은 2010년에 54%의 일하였음 비중을 보이고, 2015년에는 69%로 늘어나 15%p의 증가를 나타냈다. 증가폭은 동일 연령대의 비이주배경 청년이 보인 8%p보다 크지만, 비이주배경 청년의 일하였음 비중의 수준 자체는 2010년(68%)과 2015년(77%) 모두 더 높았다.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25~29세 연령대에서는 비이주배경 청년이 이주배경 청년보다 취업 비중이 더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19~24세 및 25~29세 연령대의 취업 상태 변화는 <표 3-9>에 제시되어 있으며, 19~24세 시기에 일하였음 비중은 이주배경 청년이 비이주배경 청년보다 더 크지만 5년 후에는 작아지고, 25~29세의 경우 비이주배경 청년이 이주배경 청년보다 일하였음 비중이 더 큰 특징은 동일하게 발견된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연령집단별 취업 상태의 변화에서 주목할 특징은, 5년이 경과했을 때 비이주배경 청년과 이주배경 청년 간의 일하였음 비중의 차이가 2010년 기준 연령집단에 비해 좁혀진 점이다. 2010년 기준 연령집단의 경우, 19~24세는 비이주배경 청년과 이주배경 청년의 일하였음 비중이 각각 66%와 53%인 반면, 2015년 기준의 경우에는 각각 67%와 62%로 나타났다. 25~29세의 비이주배경 및 이주배경의 경우, 2010년 기준은 각각 77% 및 69%였는데, 2015년 기준은 각각 76% 및 75%로 차이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에 비이주배경 청년고용여건이 악화된 시기적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3-8〉 19~24세 및 25~29세 연령집단별 5년 후 취업 상태 변화(2010년 기준)

		이주배경 청년			비이주배경 청년		
연도		2010년	2015년	차이	2010년	2015년	차이
표본 수		270	177		72,673	44,307	
인원(천 명)	19~24세	9	6	-3	2,179	1,585	-594
	25~29세	5	4	-1	1,736	912	-824
재학 비중	19~24세	0.331	0.119	-0.212	0.511	0.106	-0.405
	25~29세	0.136	0.017	-0.119	0.128	0.022	-0.106
일하였음 비중	19~24세	0.392	0.534	0.141	0.329	0.664	0.335
	25~29세	0.540	0.690	0.150	0.683	0.765	0.083

주 : 2015년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이주배경 청년 및 비이주배경 청년 집단 중에서 2010년 기준 19~24세 및 25~29세 연령대이고, 2010년에 한국에 거주한 표본만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 2015 · 2020년 2% 표본(인구가중치 적용하여 저자 계산).

〈표 3-9〉 19~24세 및 25~29세 연령집단별 5년 후 취업 상태 변화(2015년 기준)

		이주배경 청년			비이주배경 청년		
연도		2015년	2020년	차이	2015년	2020년	차이
표본 수		422	171		73,407	43,764	
인원(천 명)	19~24세	13	6	-8	2,478	1,729	-749
	25~29세	9	4	-5	1,600	812	-789
재학 비중	19~24세	0.420	0.091	-0.329	0.502	0.108	-0.394
	25~29세	0.109	0.000	-0.109	0.107	0.028	-0.079
일하였음 비중	19~24세	0.374	0.619	0.245	0.323	0.666	0.343
	25~29세	0.556	0.750	0.194	0.663	0.759	0.096

주 : 2020년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이주배경 청년 및 비이주배경 청년 집단 중에서 2015년 기준 19~24세 및 25~29세 연령대이고, 2015년에 한국에 거주한 표본만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 2015 · 2020년 2% 표본(인구가중치 적용하여 저자 계산).

제4절 모형 및 분석 결과

1. 이중 코호트 모형(double cohort model)

제3절의 <표 3-8>과 <표 3-9>에서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의 일하였음 비중의 변화 차이를 2010~2015년 및 2015~2020년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선 표의 결과는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 제4절에서는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개인 및 가구 특성의 차이를 동일하게 통제하였을 때, 이주배경 여부에 따라 취업 상태에 구조적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회귀분석은 Meyers and Lee(1998)와 Shibuya et al.(2020)에서 사용된 이중 코호트 모형(double cohort model)을 차용하여 구성하였다. 이중 코호트 모형은 두 개 연도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관측되는 이주배경 청년 집단과 비이주배경 청년 집단의 취업 상태 변화를 비교할 때 유용하다. 2010~2015년 연계 표본을 예로 들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9~24세 및 25~29세 이주배경 청년 집단과 비이주배경 청년 집단을 추출하고,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5년 전에 한국에 거주한 25~29세 및 30~34세 이주배경 청년 집단과 비이주배경 청년 집단을 추출한다. 그리고 2010년에 19~24세인 이주배경 청년 집단은 5년 후인 2015년 시점의 25~29세 이주배경 청년 집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개의 연령대별로 이주배경 여부에 따라 두 개의 청년 집단의 종단 자료를 구성한다.

전술한 구성을 바탕으로, 회귀분석 모형에는 개인 및 가구 특성과 함께, 2015년 연도 더미(참조 연도 : 2010년), 이주배경 청년 더미(참조 집단 : 비이주배경 청년), 2010년 기준 25~29세 연령 집단 더미(참조집단 : 2010년 기준 19~24세 연령 집단)을 포함한다. 그리고 연도 더미, 이주배경 청년 더미, 연령 집단 더미 변수 간의 교차항을 추가로 포함하면서 2010년과 2015년을 비교할 때 관측되는 취업 상태 변화의 두 청년 집단 간 차이를 연령 집

단별로 세분화하여 측정한다.

구체적인 이중 코호트 모형의 설정은 <표 3-10>과 같다. 모형 1은 기본 모형으로, 상수항과 함께 연도 더미(YR_i), 이주배경 청년 더미(MC_i), 연령대 더미(AC_i)만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각 연도별 시기 효과(period effect)와 5년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연령대별 취업 상태 변화, 즉 연령효과(aging effect)가 이주배경 청년 집단과 비이주배경 청년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Shibuya et al., 2020). 이러한 가정에서 이주배경 청년 더미의 추정치($\hat{\beta}_3$)는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이주배경 청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취업 상태 확률이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측정한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 개인 및 가구 특성을 추가로 포함하는데, 청년의 개인 및 부모 등의 특성의 차이를 동일하게 통제하였을 때의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평균적인 취업 상태 확률의 차이를 측정한다.

모형 3에서는 연도 더미와 연령 더미의 교차항($YR_i \times AC_i$), 연도 더미와 이주배경 청년 더미의 교차항($YR_i \times MC_i$)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서 연령 효과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시기효과도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정을 보다 완화한다.

<표 3-10> 분석모형 설정

	분석모형 설정
모형 1	$\text{Logit}(\text{일하였음}_i) = \alpha +$ $1(\text{5년 후 연도}_i)\beta_1 +$ $1(\text{25~29세 집단}_i)\beta_2 +$ $1(\text{이주배경청년 집단}_i)\beta_3$
모형 2	$\text{Logit}(\text{일하였음}_i) = \alpha + X_i' \gamma +$ $YR_i \beta_1 + AC_i \beta_2 + MC_i \beta_3$
모형 3	모형 2 + $(YR_i \times AC_i)\delta_1 + (YR_i \times MC_i)\delta_2$
모형 4	모형 3 + $(AC_i \times MC_i)\delta_3$
모형 5	모형 4 + $(YR_i \times AC_i \times MC_i)\delta_4$

자료: 저자 작성.

모형 4에서는 연령 더미와 이주배경 청년 더미 간 교차항($AC_i \times MC_i$)을 추가하여, 연령대별 집단 내에서도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간에 취업 확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정을 완화한다.

모형 5에서는 연도-연령-이주배경 더미 교차항($YR_i \times AC_i \times MC_i$)을 추가하여, 연령효과가 이주배경 여부 및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다 가정을 완화한다.

모형 1에서 모형 5로 확장할수록 각 연령대별로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청년 집단 간 취업 확률 차이를 반영하면서 모형을 보다 유연하게 설정한다. 종속변인은 ‘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일자리를 갖고 있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일하였음(즉, 취업)’으로 보고 1의 값을 같은 더미 변수로 설정하였다. 모형의 추정은 로짓(logit) 분포를 가정한 로지스틱 모형을 각 표본의 인구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추정하였다. 추정치의 표준오차는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중 코호트 모형으로 설정한 로짓모형을 추정하여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확률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를 측정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2015~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연계 표본에 대해서도 이중 코호트 모형을 추정하여,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청년의 취업 확률의 차이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이와 함께, 종속변인을 ①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② 사무종사자, ③ 서비스 종사자/판매 종사자, 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⑤ 단순노무 종사자, ⑥ 일하지 않음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이중 코호트 모형 설정을 다항 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으로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이주배경 여부에 따라 직업 선택에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2. 개인 및 가구 특성 변수

분석모형에서 통제하는 개인 특성에는 성별 및 활동제약 여부와 함께, 인적자본의 대리변수로 ‘대졸 이상’ 더미를 포함한다. 또한 재학 중에는 경제

활동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재학 여부 더미도 포함하였다. 신윤정 외(2018: 282)의 연구 결과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상태 결정에 한국어가 주요 결정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는 한국어 수준을 직접 측정하는 변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의 유창함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고 가정하여, '5년 전 한국 거주' 더미 변수를 한국어의 유창함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개인 특성 변수에 포함하였다.

가구 특성 변수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을 '대졸 이상' 및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더미 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부양가족 수를 대리하는 총 가구원 수를 포함하고,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반영하고자 자가 여부 더미를 통제변수에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도시 지역을 대리하는 '동' 지역 더미를 포함하였다.

〈표 3-11〉과 〈표 3-12〉는 전술한 개인 및 가구 특성 변수별 평균값을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표 3-11〉에서 2010~2015년 연계 표본의 변수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이주배경 청년이 취업 비중과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비중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 구성의 경우, 19~24세 연령집단(2010년 기준) 비중이 이주배경 청년에서 더 컸다. 대졸자 및 재학자 비중, 5년 전 한국 거주 비중은 비이주배경 청년이 더 높는데, 특히 5년 전 한국 거주 비중에서 차이가 컸다(이주배경 청년 77.9%, 비이주배경 청년 99.7%). 부모의 학력과 직업을 살펴보았을 때, 어머니의 학력에서 차이가 비교적 큰데, 대졸 이상을 살펴보면, 이주배경 청년의 어머니의 경우에 27.5%, 비이주배경 청년의 경우에는 15.1%로 나타났다. 자가 비중에서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데, 이주배경 청년(54.9%)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비이주배경 청년(70.7%)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 3-12〉에서 2015~2020년 연계 표본의 변수별 평균값을 살펴보았을 때, 대체로 2010~2015년 경우와 유사하나, 몇 가지 차이가 발견되기도 한다. 직업별 비중의 경우, 서비스·판매직에서 이주배경 청년(14.2%)이 비이

〈표 3-11〉 분석모형 데이터 변수별 평균값(2010~2015년 연계 표본)

변수	이주배경 청년	비이주배경 청년
표본 수	447	116,980
관측치(가중치 적용)	24,107	6,411,725
일하였음(취업함)	0.502	0.570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124	0.180
사무종사자	0.100	0.148
서비스 종사자/판매 종사자	0.107	0.12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122	0.081
단순노무 종사자	0.049	0.030
2015년 비중	0.402	0.389
19~24세 연령집단(2010년 연령 기준)	0.648	0.587
25~29세 연령집단(2010년 연령 기준)	0.352	0.413
여성	0.476	0.471
활동제약 있음	0.029	0.018
대졸 이상	0.409	0.528
재학 여부	0.191	0.238
5년 전 한국 거주 여부	0.779	0.997
아버지 학력: 대졸 이상	0.258	0.240
아버지 직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141	0.116
어머니 학력: 대졸 이상	0.275	0.151
어머니 직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56	0.055
가구원 수	3.721	3.643
자가 여부	0.549	0.707
동 지역	0.890	0.880

주: 변수별 평균값은 인구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및 2015년 마이크로데이터 2% 표본, 저자 작성.

주배경 청년(1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 구성에서, 19~24세 연령집단(2015년 기준) 비중이 이주배경 청년(59.3%)보다 비이주배경 청년(63.6%)에서 더 높았다. 5년 전 한국 거주 비중은 비이주배경 청년(99.6%)이 이주배경 청년(86.7%)에 비해 높지만, 2010~2015년 표본 자료(비이주배경 청년

99.7%, 이주배경 청년 77.9%)와 비교할 때는 차이가 상당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기준 19~29세 이주배경 청년 집단에 비해 2015년 기준 19~29세 이주배경 청년 집단이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 수준이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2〉 분석모형 데이터 변수별 평균값(2015~2020년 연계 표본)

변수	이주배경 청년	비이주배경 청년
표본 수	593	117,171
관측치(가중치 적용)	31,954	6,618,773
일하였음	0.515	0.549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147	0.157
사무종사자	0.091	0.141
서비스 종사자/판매 종사자	0.142	0.13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91	0.079
단순노무 종사자	0.044	0.034
2020년 비중	0.300	0.384
19~24세 연령집단(2015년 연령 기준)	0.593	0.636
25~29세 연령집단(2015년 연령 기준)	0.407	0.364
여성	0.469	0.468
활동제약 있음	0.015	0.015
대졸 이상	0.414	0.523
재학 여부	0.223	0.245
5년 전 한국 거주 여부	0.867	0.996
아버지 학력: 대졸 이상	0.335	0.319
아버지 직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156	0.116
어머니 학력: 대졸 이상	0.353	0.243
어머니 직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97	0.087
가구원 수	3.728	3.594
자가 여부	0.594	0.710
동 지역	0.901	0.882

주: 변수별 평균값은 인구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및 2020년 마이크로데이터 2% 표본, 저자 작성.

3. 분석 결과 1 : 취업 선택에 대한 이주배경 여부의 영향

취업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이항 로짓모형을 추정하였을 때, 2010-2015년 연계 표본에 대한 <표 3-10>의 모형 설정별 분석결과는 <표 3-13>과 같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설정에 관계없이 '가구원 수' 변수를 제외하면 모든 변수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특히 연도 더미, 연령 더미, 이주배경 더미 변수 간 교차항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추정결과를 고려할 때, 취업 확률이 시기, 연령집단, 이주배경 여부에 따라 이질적임은 물론, 연령집단 내에서도 이주배경 여부와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지안 정보 기준(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으로 모형 적합도를 판단할 때(이성우 외, 2005: 326~329), 시기, 연령, 이주배경 더미 간 모든 교차항을 포함하는 모형 5의 BIC 값이 가장 작게 나타나, 취업 상태에 대한 이주배경의 영향의 이질성을 가장 유연하게 설정하였을 설명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의 해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각 변수가 취업 확률에 끼친 평균 한계효과를 모형별로 계산한 결과를 <표 3-13>에 요약하여 제시한다. 개인 및 가구 특성을 동일하게 통제하지 않고 연도 및 연령 집단 더미와 이주배경 여부만을 모형에 포함하였을 때, 이주배경 여부가 취업 확률에 끼치는 영향은 -5.3%p로 나타났다. 반면 모형 2에서 개인 및 가구특성을 통제하였을 때는 이주배경 여부의 평균 한계효과가 -3.2%p로 절댓값의 크기가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서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간 취업 비중 차이의 상당 부분은 개인 및 가구 특성에 기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 연령, 이주배경 더미 간 모든 교차항을 포함하는 모형 5에서, 이주배경 여부가 취업 확률에 끼친 영향은 -3.5%p로 나타나, 시기 및 연령대별 청년 집단 간 이질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확률이 구조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5를 중심으로 개인 특성별 취업 확률에 대한 평균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취업 확률이 높고, 대졸 이상 고학력인 경우에 취업에 유리했다. 반면 신체 등 활동 제약이 있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취업 확률이 낮았다.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 이해도의 대리변수인 '5년

전 한국 거주 여부' 변수의 경우, 한계효과가 8.3%p로 추정되어, 이주배경 여부의 한계효과(-3.5%p)보다 계수의 절댓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가구특성 변수의 경우, 아버지가 대졸 이상, 관리자·전문가 직종인 경우에 자녀인 청년의 취업 확률이 낮아졌다.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경우에도 취업 확률에 부정적이었다. 부모가 고학력 및 전문직인 경우 대체로 가구 소득이 높고, 자녀는 당장 취업하기보다는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탐색 기간을 더 길게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어머니가 관리직·전문직인 경우에는 취업 확률에 긍정적이었는데, 더 높은 가구 소득으로 자녀의 취업 적극성을 낮추는 효과 이외에,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가족의 문화 및 동기 부여, 사회경제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자녀의 취업 적극성 또는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에 집이 자가인 경우에도 취업 확률이 1.5%p 낮았다. 주거 안정성이 높은 것은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자녀의 취업 적극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특성의 경우,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 거주할 때 취업 확률이 1.8%p 낮았다.

2015~2020년 연계 표본을 이용하여 이항 로짓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3-15>와 같다. 2010~2015년 연계 자료를 분석한 경우와 같이, 연도 더미, 연령 더미, 이주배경 더미 변수 간 교차항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모형 5의 BIC 값이 가장 작아 설명이 가장 우수하였다.

<표 3-16>의 변수별 평균 한계효과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취업 확률에 대한 영향의 방향이 2010~2015년 연계 표본을 분석한 경우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동 지역 더미(0.1%p)와 가구원 수(0.2%p)가 취업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여 차이를 보였다.

모형 5를 중심으로 평균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이주배경인 경우에 취업 확률이 -1.3%p 감소하였는데, 2010~2015년의 경우(-3.5%p)에 비해 절댓값의 크기가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한국 거주인 경우의 한계효과도 4.3%p로 나타나, 2010~2015년(8.3%p)에 비해 작았다. 2010~2015년 연계 표본의 이주배경 청년 집단에 비해서, 2015~2020년 이주배경 청년 집단이 겪게 되는 취업에서의 불이익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비교집단인 비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3-13〉 이항 로짓모형 추정 결과(2010~2015년 연계 표본)

종속변인 : 일하였음 여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2015년 연도 더미	1.067***	0.456***	0.625***	0.625***	0.626***
25~29세 집단 (2010년 연령 기준)	1.161***	0.605***	0.765***	0.766***	0.768***
이주배경 청년 더미	-0.243***	-0.171***	-0.011	0.068***	0.178***
2015년×25~29세 집단			-0.409***	-0.409***	-0.412***
2015년×이주배경 청년			-0.345***	-0.345***	-0.607***
25~29세 집단×이주배경 청년				-0.221***	-0.526***
2015년 × 25~29세 집단 × 이주배경 청년					0.739***
여성		0.299***	0.313***	0.313***	0.313***
활동제약 있음		-1.355***	-1.351***	-1.351***	-1.351***
대졸 이상		0.708***	0.667***	0.667***	0.667***
재학 여부		-1.642***	-1.630***	-1.630***	-1.630***
5년 전 한국 거주 여부		0.403***	0.449***	0.445***	0.440***
아버지 학력 : 대졸 이상		-0.273***	-0.274***	-0.273***	-0.273***
아버지 직업 : 관리자/전 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44***	-0.045***	-0.045***	-0.045***
어머니 학력 : 대졸 이상		-0.195***	-0.195***	-0.195***	-0.195***
어머니 직업 : 관리자/전 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57***	0.052***	0.052***	0.052***
동 지역		-0.101***	-0.101***	-0.101***	-0.101***
가구원 수		-0.001	-0.001	-0.002	-0.002
자가 여부		-0.085***	-0.085***	-0.085***	-0.085***
상수항	-0.572***	-0.396***	-0.507***	-0.504***	-0.499***
관측치	6,435,832	6,435,832	6,435,832	6,435,832	6,435,832
Pseudo R ²	0.085	0.198	0.199	0.199	0.199
Log Likelihood	-4,023,900	-3,527,456	-3,522,246	-3,522,218	-3,522,141
BIC	8,047,862	7,055,163	7,044,775	7,044,734	7,044,596

주 : *** P-value < 0.001, ** P-value < 0.05, * P-value < 0.1. 인구가중치를 적용하여 이항 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추정함. 표준오차는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함. 연령은 2010년 기준으로 정의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및 2015년 마이크로데이터 2% 표본, 저자 작성.

〈표 3-14〉 이항 로짓모형 변수별 평균 한계효과(2010~2015년 연계 표본)

종속변인 : 일하였음 여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2015년 연도 더미	0.234***	0.085***	0.088***	0.088***	0.088***
25~29세 집단 (2010년 기준)	0.258***	0.114***	0.117***	0.117***	0.117***
이주배경 청년 더미	-0.053***	-0.032***	-0.029***	-0.031***	-0.035***
여성		0.055***	0.057***	0.057***	0.057***
활동제약 있음		-0.259***	-0.259***	-0.259***	-0.259***
대출 이상		0.141***	0.132***	0.132***	0.132***
재학 여부		-0.355***	-0.352***	-0.352***	-0.352***
5년 전 한국 거주 여부		0.076***	0.085***	0.084***	0.083***
아버지 학력 : 대출 이상		-0.051***	-0.051***	-0.051***	-0.051***
아버지 직업 :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08***	-0.008***	-0.008***	-0.008***
어머니 학력 : 대출 이상		-0.036***	-0.036***	-0.036***	-0.036***
어머니 직업 :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10***	0.009***	0.009***	0.009***
동 지역		-0.018***	-0.018***	-0.018***	-0.018***
가구원 수		-0.000	-0.000	-0.000	-0.000
자가 여부		-0.016***	-0.015***	-0.015***	-0.015***

주 : *** P-value < 0.001, ** P-value < 0.05, * P-value < 0.1. 인구가중치를 적용하여 이항 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추정함. 표준오차는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함. 연령은 2010년 기준으로 정의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및 2015년 마이크로데이터 2% 표본, 저자 작성.

〈표 3-15〉 이항 로짓모형 추정 결과(2015~2020년 연계 표본)

종속변인: 일하였음 여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2020년 연도 더미	1.148***	0.597***	0.741***	0.741***	0.742***
25~29세 집단 (2015년 기준)	1.121***	0.539***	0.689***	0.690***	0.691***
이주배경 청년 더미	-0.098***	-0.059***	-0.016	0.110***	0.194***
2020년×25~29세 집단	.	.	-0.395***	-0.396***	-0.399***
2020년×이주배경 청년	.	.	-0.121***	-0.124***	-0.403***
25~29세 집단×이주배경 청년	.	.	.	-0.295***	-0.494***
2020년×25~29세 집단 ×이주배경 청년	.	.	.	.	0.679***
여성	.	0.314***	0.326***	0.326***	0.326***
활동제약 있음	.	-1.199***	-1.198***	-1.197***	-1.197***
대출 이상	.	0.643***	0.606***	0.606***	0.606***
재학 여부	.	-1.524***	-1.511***	-1.511***	-1.511***
5년 전 한국 거주 여부	.	0.216***	0.242***	0.232***	0.225***
아버지 학력: 대출 이상	.	-0.221***	-0.222***	-0.222***	-0.222***
아버지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0.023***	-0.026***	-0.026***	-0.027***
어머니 학력: 대출 이상	.	-0.150***	-0.151***	-0.150***	-0.150***
어머니 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0.031***	0.031***	0.031***	0.031***
동 지역	.	0.009***	0.007**	0.007**	0.007**
가구원 수	.	0.013***	0.013***	0.012***	0.012***
자가 여부	.	-0.050***	-0.051***	-0.051***	-0.051***
상수항	-0.621***	-0.463***	-0.540***	-0.531***	-0.524***
관측치	6,650,727	6,650,727	6,650,727	6,650,727	6,650,727
Pseudo R ²	0.086	0.184	0.185	0.185	0.185
Log Likelihood	-4,183,265	-3,735,074	-3,730,254	-3,730,185	-3,730,110
BIC	8,366,593	7,470,399	7,460,791	7,460,669	7,460,534

주: *** P-value < 0.001, ** P-value < 0.05, * P-value < 0.1. 인구가중치를 적용하여 이항 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추정함. 표준오차는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함. 연령은 2015년 기준으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및 2020년 마이크로데이터 2% 표본, 저자 작성.

〈표 3-16〉 이항 로짓모형 변수별 평균 한계효과(2015~2020년 연계 표본)

종속변인: 일하였음 여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2020년 연도 더미	0.256***	0.116***	0.119***	0.119***	0.119***
25~29세 집단(2015년 기준)	0.249***	0.104***	0.107***	0.107***	0.107***
이주배경 청년 더미	-0.022***	-0.011***	-0.012***	-0.009***	-0.013***
여성		0.060***	0.062***	0.062***	0.062***
활동제약 있음		-0.232***	-0.232***	-0.232***	-0.232***
대출 이상		0.132***	0.123***	0.123***	0.123***
재학 여부		-0.330***	-0.327***	-0.327***	-0.327***
5년 전 한국 거주 여부		0.041***	0.046***	0.044***	0.043***
아버지 학력: 대출 이상		-0.042***	-0.042***	-0.042***	-0.042***
아버지 직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04***	-0.005***	-0.005***	-0.005***
어머니 학력: 대출 이상		-0.029***	-0.029***	-0.029***	-0.029***
어머니 직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06***	0.006***	0.006***	0.006***
동 지역		0.002***	0.001**	0.001**	0.001**
가구원 수		0.002***	0.002***	0.002***	0.002***
자가 여부		-0.009***	-0.010***	-0.010***	-0.010***

주: *** P-value < 0.001, ** P-value < 0.05, * P-value < 0.1. 인구가중치를 적용하여 이항 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추정함. 표준오차는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함. 연령은 2015년 기준으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및 2020년 마이크로데이터 2% 표본, 저자 작성.

4. 분석 결과 2 : 직업 선택에 대한 이주배경 여부의 영향

앞서 살펴본 이항 로짓모형 분석을 통해서 개인 및 가구 특성을 동일하게 통제하였을 때도 ‘이주배경 여부’가 취업 확률에 부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어 능력 및 한국 문화 이해도를 대리하는 ‘5년 전 한국 거주 여부’가 취업 확률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이주배경 여부가 직업 선택에 끼치는 영향을 다항 로짓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표 3-17〉은 2010~2015년 연계 표본을 이용하여 이주배경 여부가 각 직업별 선택 확률에 끼친 평균 한계효과를 계산한 결과이다. 다항 로짓모형에서도 연도-연령 집단-이주배경 더미 교차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형 5의 설명력이 가장 우수하였다. 모형 5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주배경 청년인 경우에는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관리자·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종사자를 선택한 확률이 3.0~3.9%p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기능원(4.9%p), 단순노무직(1.5%p)을 가질 확률은 더 높았고, 미취업 확률이 3.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확률에 대한 평균 한계효과는 <표 3-14>에서 이주배경 청년 더미의 한계효과인 -3.5%p와 절댓값이 유사하다.

이주배경 청년인 경우라도 한국어가 능숙한 경우에 직업 선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표 3-18>에서는 이주배경 청년인 경우에 대해 '5년 전 한국 거주'의 조건부 평균 한계효과를 계산하여 제시한다. 분석 결과에서 모형 5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관리자·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종사자 모두 선택 확률이 늘어났고, 특히 서비스·판매종사자 선택 확률은 3.3%p로 <표 3-17>에서 이주배경 청년 변수가 해당 직업에 끼친 부정적 한계효과(-3.0%p)와 절댓값 크기가 유사하였다. 또한 미취업 확률에 대한 영향은 -10.8%p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주배경 청년인 경우라도 한국어 능력이 향상될 때 취업 확률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7> 직업별 '이주배경 청년' 변수의 평균 한계효과(2010~2015년 연계 표본)

종속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1)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53***	-0.039***	-0.040***	-0.038***	-0.039***
2) 사무종사자	-0.044***	-0.034***	-0.033***	-0.033***	-0.033***
3) 서비스 종사자/판매 종사자	-0.020***	-0.021***	-0.021***	-0.028***	-0.030***
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45***	0.048***	0.052***	0.053***	0.049***
5) 단순노무 종사자	0.020***	0.011***	0.011***	0.012***	0.015***
6) 일하지 않음	0.052***	0.035***	0.031***	0.034***	0.037***

주: *** P-value < 0.001, ** P-value < 0.05, * P-value < 0.1. 인구가중치를 적용하여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추정함.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및 2015년 마이크로데이터 2% 표본, 저자 작성.

〈표 3-18〉 이주배경 청년인 경우, 직업별 '5년 전 한국 거주'의 평균 한계효과
(2010~2015년 연계 표본)

종속변인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10***	0.008***	0.008***	0.009***
사무종사자	0.006***	0.006***	0.007***	0.008***
서비스 종사자/판매 종사자	0.034***	0.036***	0.034***	0.03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45***	0.059***	0.060***	0.059***
단순노무 종사자	-0.003**	-0.001	-0.000	0.000
일하지 않음	-0.091***	-0.108***	-0.109***	-0.108***

주 : *** P-value < 0.001, ** P-value < 0.05, * P-value < 0.1. 인구가중치를 적용하여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추정함.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및 2015년 마이크로데이터 2% 표본, 저자 작성.

〈표 3-19〉 직업별 '이주배경 청년' 변수의 평균 한계효과(2015~2020년 연계 표본)

종속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1)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09***	0.010***	0.010***	0.013***	0.013***
2) 사무종사자	-0.048***	-0.043***	-0.041***	-0.041***	-0.040***
3) 서비스 종사자/판매 종사자	0.010***	-0.001	-0.003*	-0.004*	-0.009***
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15***	0.017***	0.017***	0.018***	0.018***
5) 단순노무 종사자	0.012***	0.008***	0.007***	0.006***	0.006***
6) 일하지 않음	0.020***	0.009***	0.010***	0.007***	0.011***

주 : *** P-value < 0.001, ** P-value < 0.05, * P-value < 0.1.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인구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및 2020년 마이크로데이터 2% 표본, 저자 작성.

〈표 3-20〉 이주배경 청년인 경우, '5년 전 한국 거주' 변수의 직업별 평균 한계효과
(2015~2020년 연계 표본)

종속변인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1)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013***	0.015***	0.014***	0.015***
2) 사무종사자	-0.010***	-0.009***	-0.010***	-0.009***
3) 서비스 종사자/판매 종사자	0.005***	0.006***	0.006***	0.005**
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42***	0.045***	0.045***	0.045***
5) 단순노무 종사자	0.010***	0.011***	0.011***	0.011***
6) 일하지 않음	-0.061***	-0.067***	-0.067***	-0.066***

주 : *** P-value < 0.001, ** P-value < 0.05, * P-value < 0.1.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인구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년 및 2020년 마이크로데이터 2% 표본, 저자 작성.

2015~2020년 연계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19〉 및 〈표 3-20〉과 같다. 먼저 이주배경 청년 변수의 직업 선택에 대한 영향을 모형 5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무직과 서비스·판매 종사자를 선택할 확률에는 부정적이나, 관리자·전문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나 〈표 3-17〉의 2010~2015년 연계 표본 분석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기능원(1.8%p)과 단순노무직(0.6%p)을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영향의 방향성은 2010~2015년 연계 표본의 경우와 동일하나, 영향의 크기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취업 확률에 대한 영향도 1.1%p로 나타나, 2010~2015년 연계 표본의 경우(3.7%p)에 비해 평균 한계효과 크기가 감소하였다.

이주배경 청년인 경우에 '5년 전 한국 거주' 변수의 직업별 평균 한계효과는 〈표 3-20〉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5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관리자·전문가, 서비스·판매 종사자, 기능직 선택 확률에 긍정적으로 나타나 2010~2015년 연계 표본의 경우와 질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사무종사자 선택 확률에 대한 평균 한계효과는 -0.9%p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2010~2015년 연계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한 영

향이 2015~2020년 연계 표본에서는 선택 확률을 1.1%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 확률에 대한 영향은 -6.6%p로 추정되어, 2015~2020년 연계 표본(-10.8%p)에 비해서는 절댓값의 크기가 다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절 소 결

1. 주요 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 2010·2015·2020년 2% 표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와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간 비교를 통해 취업 상태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주배경 청년은 1)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출생 또는 현재 국적이 외국(북한 포함)인 가구의 19~34세 자녀(유형 1: 부모 기준 이주배경 청년)와 2) 본인의 출생 또는 현재 국적이 외국인 19~34세 청년 중에서 가구주와의 관계가 자녀(유형 2: 본인 기준 이주배경 청년)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비교집단으로서 비이주배경 청년은 부모 기준 이주배경 청년이 속한 가구원이 아님과 동시에, 본인 기준 이주배경 청년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이 아닌 19~34세 자녀로 정의하였다.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는 2010년 1만 7천 명, 2015년 2만 7천 명, 2020년 3만 5천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2015년 이후에는 주로 19~24세 연령대(2015년: 1만 3천 명 → 2020년 2만 2천 명)에서 규모 증가가 나타났고, 25~29세 및 30~34세 연령대 규모는 감소 또는 정체를 보였다. 25세 이후에는 독립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연령대의 이주배경 자녀의 규모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주배경 청년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부모 기준 이주배경인 경우가 연도에 상관없이 70% 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부모의 출생 시 국적 기준으로 가족 유형을 구분할 때, 아버지는 한국이고 어머니가 외국인 경우가 연도에

상관없이 32%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 모두 한국 출생인 경우는 두 번째로 많았다. 세 번째로 많은 유형은 외국 출생 국적의 편모 가족인데, 2010년 11% 수준을 보인 이후 5년마다 1%p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부모 모두 출생 시 외국 국적인 경우가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연도에 따라 등락이 있지만, 9~14% 수준의 비중을 보였다.

연령 구성에서는 19~24세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출생 시 외국 국적 비중은 연도에 따라 등락은 있지만 45% 이상으로 나타나, 해외에서 출생하고 중도입국한 이주배경 청년의 비중이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 국적을 보유한 비중은 2010년 3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21%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 비중이 2010년 5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63% 수준을 보였다. 학교에 재학 중인 비중도 2010년 23%에서 2020년에 특히 32%까지 증가했고, 대부분 대학교 재학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한국에 거주한 비중은 2010년에 85%였으나 2015년 이후 94% 수준을 보였다. 5년 전 한국 거주 비중은 2010년 63%에서 2015년 이후 80~82% 수준을 보여, 2015년 이후에는 중도입국 청년의 대부분이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것으로 추측된다.

부모가 모두 있는 비중은 76~79%로 나타나며, 어머니가 있는 경우는 96% 이상이나, 아버지가 있는 경우는 약 80%로 다소 낮았다. 출생 시 국적이 외국인 비중은 아버지의 경우 21~26%, 어머니는 60~72%로 나타나 어머니가 외국 출신인 경우가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외국 국적인 경우는 아버지가 13~14%, 어머니가 23~30% 수준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높았다.

조사일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지(부업, 아르바이트, 가족의 수입되는 일을 도움 포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일자리를 갖고 있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일하였음'으로 구분하고 취업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49%에서 2020년 46%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 학교 재학 비중이 증가하면서, 취업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비중을 비교하면, 이주배경 청

년이 비이주배경 청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비이주배경 청년은 51~54%의 취업 비중을 유지하지만, 이주배경 청년은 2010년 49%에서 2020년 46% 수준으로 다소 하락을 보였다. 연령대를 세분화하면, 19~24세에서는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비중이 시기에 상관없이 비이주배경 청년보다 다소 높지만, 25~29세 연령대에서는 비이주배경 청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재학 중인 경우를 제외할 경우,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모두 취업 비중이 증가하지만, 비이주배경 청년의 일하였음 비중(2010년 68%, 2020년 65%)이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2010년 61%, 2020년 57%)보다 더 높아, 노동 시장에서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간의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의 차이를 동일하게 통제한 후에도 취업 비중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2010~2015년 연계 표본과 2015~2020년 연계 표본을 각각 구성하고, 이중 코호트 모형(double cohort model)의 틀에서 이주배경 여부가 취업 확률과 직업별 선택 확률에 끼친 영향을 이항 로짓모형 및 다항 로짓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취업시기 및 연령대별 청년 집단 간 이질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이주배경 청년은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취업 확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2010~2015년 기간에는 3.5%p, 2015~2020년 기간에는 1.3%p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 이해도의 대리변수인 '5년 전 한국 거주 여부'의 평균 한계효과는 2010~2015년에 8.3%p, 2015~2020년에는 4.3%p로 나타나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취업 확률 감소보다 더 큰 효과를 보였다.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2010~2015년 기간에 비해 2015~2020년에 이주배경 청년 집단이 겪는 취업에서의 불이익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2020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비교집단인 비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업별 선택 확률의 경우, 2010~2015년 기간에 이주배경 청년은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관리자·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종사자를 선택한 확률이 3.0~3.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능원(4.9%p), 단순노무직

(1.5%p) 확률은 더 높았고, 미취업 확률이 3.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청년인 경우라도 한국어가 능숙한 경우 직업 선택 확률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이주배경 청년일 때 5년 전 한국 거주’ 변수의 조건부 평균 한계효과로 확인했을 때, 관리자·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종사자 모두 선택 확률이 늘어났다. 특히 서비스·판매종사자 선택 확률은 3.3%p 증가하였고, 미취업 확률은 10.8%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5~2020년 기간의 경우, 이주배경 청년은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사무직과 서비스·판매 종사자 선택 확률이 낮았다. 그러나 관리자·전문가에 대해서는 더 높게 나타나 2010~2015년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기능원(1.8%p)과 단순노무직(0.6%p) 선택 확률은 비이주배경 청년보다 높아 2010~2015년 연계표본의 경우와 동일하나, 영향의 크기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미취업 확률에 대한 영향도 1.1%p로 2010~2015년 기간(3.7%p)에 비해 평균 한계효과 크기가 감소하였다. 이주배경 청년인 경우에 ‘5년 전 한국 거주’ 변수의 평균 한계효과는 관리자·전문가, 서비스·판매 종사자, 기능직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사무종사자에 대해서는 -0.9%p로 나타났다. 또한 2010~2015년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한 영향이 2015~2020년에는 1.1%p로 추정되어 차이를 보였다. 미취업 확률에 대한 영향은 -6.6%p로, 2015~2020년(-10.8%p)에 비해서는 절댓값의 크기가 다소 줄어들었다.

2. 시사점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는 2010~2020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0~18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이주배경 청년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주택총조사 2010·2015·2020년 미시자료를 분석하였을 때, 집단 가구 및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이주배경 가구의 19~34세 청년 자녀는 2010년 1만 7천 명, 2015년 2만 7천 명, 2020년 3만 5천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특히 19~24세 연령대가 2010년 9천 명, 2015년 1만 3천 명, 2020년 2만 2천 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0~18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가 2010년 12만 7천 명에서 2020년 25만 6천 명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주배경 청년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이주배경 청년의 약 70% 이상이 부모가 외국 출신이고, 45% 이상은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으로 추측되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이주배경 청년의 부모가 외국 출신인 경우가 연도에 상관없이 약 7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2020년에는 81.7%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배경 청년의 출생 시 국적이 외국인 경우는 45% 이상으로 나타나 절반 정도는 중도입국인 경우로 추측된다. 이러한 이주배경 청년의 특징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도가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구조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다만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비중이 2010년 63%에서 2020년 81.7%로 증가 추세를 보여, 최근 10여 년 동안 이주배경 청년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도가 평균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개인 및 가구 특성이 동일하더라도 이주배경 청년은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취업과 직업 선택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지만,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도가 향상될 경우 상당한 노동시장 성과 개선이 기대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이주배경 청년은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취업 확률이 1.3~3.5%p 더 낮아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업 선택에서는 분석 기간에 상관없이 이주배경 청년은 사무직과 서비스 및 판매직을 선택하는 확률이 낮은 반면, 기능직, 단순노무직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를 통해 일을 하더라도 이주배경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 청년이더라도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도가 향상된다면 취업 확률은 물론 직업 선택의 폭이 확대될 수 있음을 대리변수인 '5년 전 한국 거주' 여부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한국어 능력이 15~24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니트(NEET) 상태의 중요 결정요인임을 확인한 신윤정 외(2018: 28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향후 지속적인 규모 증가가 전망되는 이주배경 청년의 원만한 노동시장 이행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들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 이해도 향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부표 3-1〉 연도별 19~34세 비이주배경 청년 특성별 비중

	2010년	2015년	2020년
표본 수	89,258	90,180	87,451
비이주배경 청년 수(천 명)	4,787	4,998	5,003
가족유형 1: 아버지 한국+어머니 한국	0.757	0.751	0.734
가족유형 5: 편부 출생국적(한국)	0.060	0.058	0.065
가족유형 7: 편모 출생국적(한국)	0.184	0.191	0.201
남성	0.526	0.530	0.522
여성	0.474	0.470	0.478
19~24세	0.455	0.496	0.479
25~29세	0.363	0.320	0.354
30~34세	0.182	0.184	0.167
활동계약 있음	0.020	0.017	0.013
출생 외국국적	0.000	0.000	0.000
현재 외국국적	0.000	0.000	0.000
배우자 있음	0.028	0.017	0.009
초졸 이하	0.004	0.001	0.000
중졸	0.013	0.008	0.008
고졸	0.533	0.527	0.538
대졸 이상	0.450	0.463	0.454
학교 재학	0.286	0.287	0.302
고등학교 재학	0.010	0.002	0.008
대학교 재학	0.930	0.949	0.948
대학원 재학	0.060	0.050	0.044
1년 전 한국 거주함	0.994	0.995	0.982
5년 전 한국 거주함	0.994	0.992	0.981
일하였음(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잠시 쉼 포함)	0.535	0.513	0.520
가구원 수	3.705	3.637	3.559
동 지역	0.874	0.882	0.87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2015·2020년 2% 표본(인구가중치 적용하여 저자 계산).

〈부표 3-2〉 연도별 19~34세 비이주배경 청년의 부모 특성별 비중

	2010년	2015년	2020년
표본 수	89,258	90,180	87,451
비이주배경 청년 수(천 명)	4,787	4,998	5,003
부모 모두 존재	0.757	0.751	0.734
아버지 존재함	0.816	0.809	0.799
아버지 : 20~29세	0.000	0.000	0.000
아버지 : 30~39세	0.001	0.001	0.000
아버지 : 40~49세	0.160	0.125	0.094
아버지 : 50~59세	0.631	0.682	0.659
아버지 : 60세 이상	0.208	0.192	0.247
아버지 : 초졸 이하	0.129	0.064	0.019
아버지 : 중졸	0.159	0.103	0.065
아버지 : 고졸	0.442	0.461	0.471
아버지 : 대졸 이상	0.270	0.372	0.445
아버지 : 이주배경 있음	0.000	0.000	0.000
아버지 : 출생 외국국적	0.000	0.000	0.000
아버지 : 현재 외국국적	0.000	0.000	0.000
아버지 : 일하였음	0.820	0.850	0.870
어머니 존재함	0.940	0.942	0.935
어머니 : 20~29세	0.000	0.000	0.000
어머니 : 30~39세	0.003	0.002	0.001
어머니 : 40~49세	0.355	0.310	0.238
어머니 : 50~59세	0.556	0.609	0.654
어머니 : 60세 이상	0.086	0.079	0.106
어머니 : 초졸 이하	0.171	0.078	0.015
어머니 : 중졸	0.208	0.128	0.072
어머니 : 고졸	0.479	0.562	0.585
어머니 : 대졸 이상	0.142	0.232	0.328
어머니 : 이주배경 있음	0.000	0.000	0.000
어머니 : 출생 외국국적	0.000	0.000	0.000
어머니 : 현재 외국국적	0.000	0.000	0.000
어머니 : 일하였음	0.543	0.572	0.63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 2015 · 2020년 2% 표본(인구가중치 적용하여 저자 계산).

〈부표 3-3〉 연도별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의 일자리 특성별 비중

	2010년	2015년	2020년
표본 수	314	504	696
이주배경 청년 수(천 명)	17	27	35
일하였음(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잠시 씬)	0.493	0.488	0.463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0.880	0.947	0.895
종사상 지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054	0.026	0.032
종사상 지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014	0.015	0.034
종사상 지위: 무급 가족 종사자	0.052	0.012	0.040
산업: 농림어업	0.016	0.001	0.013
산업: 광업/제조업	0.208	0.237	0.162
산업: 전기가스증기수도/하수원료재상환경복원업	0.000	0.003	0.000
산업: 건설업	0.093	0.046	0.036
산업: 도소매/운수/숙박음식업	0.288	0.290	0.418
산업: 서비스업	0.380	0.411	0.340
산업: 공공행정국방/국제외국	0.014	0.012	0.028
산업: 가구내고용/해당없음	0.000	0.000	0.000
직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195	0.306	0.184
직업: 사무종사자	0.172	0.161	0.225
직업: 서비스 종사자/판매 종사자	0.230	0.254	0.287
직업: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016	0.000	0.006
직업: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263	0.185	0.190
직업: 단순노무 종사자	0.124	0.095	0.108
근무연수: 6개월 미만	0.266	0.323	0.254
근무연수: 6개월~1년 미만	0.194	0.188	0.195
근무연수: 1년~3년 미만	0.307	0.278	0.305
근무연수: 3년 이상	0.233	0.212	0.247

주: 일자리 특성별 비중은 '일하였음'으로 응답한 표본만을 이용하여 비중을 계산함. 근무연수의 경우, 직장이나 사업체를 옮긴 것과 상관없이 현재 직업에서 하는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의미함(전 직장 및 사업체를 포함하여 현 직업의 근무연수를 의미).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2015·2020년 2% 표본(인구가중치 적용하여 저자 계산).

〈부표 3-4〉 연도별 19~34세 비이주배경 청년의 일자리 특성별 비중

	2010년	2015년	2020년
표본 수	89,258	90,180	87,451
비이주배경 청년 수(천 명)	4,787	4,998	5,003
일하였음(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잠시 씬)	0.535	0.513	0.520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0.893	0.913	0.907
종사상 지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046	0.042	0.044
종사상 지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024	0.016	0.018
종사상 지위: 무급 가족 종사자	0.038	0.029	0.032
산업: 농림어업	0.017	0.009	0.009
산업: 광업/제조업	0.159	0.160	0.154
산업: 전기가스증기수도/하수원료재상환경복원업	0.005	0.006	0.008
산업: 건설업	0.042	0.032	0.039
산업: 도소매/운수/숙박음식업	0.276	0.294	0.310
산업: 서비스업	0.474	0.464	0.427
산업: 공공행정국방/국제외국	0.028	0.033	0.053
산업: 가구내고용/해당없음	0.000	0.000	0.000
직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304	0.302	0.239
직업: 사무종사자	0.254	0.246	0.257
직업: 서비스 종사자/판매 종사자	0.233	0.248	0.271
직업: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016	0.006	0.008
직업: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137	0.133	0.149
직업: 단순노무 종사자	0.054	0.062	0.071
근무연수: 6개월 미만	0.200	0.214	0.211
근무연수: 6개월~1년 미만	0.170	0.164	0.174
근무연수: 1년~3년 미만	0.315	0.314	0.306
근무연수: 3년 이상	0.315	0.308	0.309

주: 일자리 특성별 비중은 '일하였음'으로 응답한 표본만을 이용하여 비중을 계산함. 근무연수의 경우, 직장이나 사업체를 옮긴 것과 상관없이 현재 직업에서 하는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의미함(전 직장 및 사업체를 포함하여 현 직업의 근무연수를 의미).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2015·2020년 2% 표본(인구가중치 적용하여 저자 계산).

제 4 장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내 지위와 일자리 궤적

제1절 서론

제3장에서 행정 자료를 이용하여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확률을 거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에 따라 취업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어떤 이주배경 청년이 취업자가 되고, 누가 취업 포기자가 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이들이 어떠한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어떤 일자리로 이동하는지, 이주배경 청년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이러한 노동시장 이행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부재하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파악되던 다문화 후기 청소년도 만 25세가 되면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 통계상으로 확인이 어렵다. 게다가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취업 현황은 직업력, 현재 일자리 특성, 그리고 미래 일자리 계획 등을 세분화하여 조사하지 않아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특성을 살펴보고, 체류자격, 한국어 수준, 취업의 어려움 경험 등에 따른 취업 상태 결정요인과 미래 일자리 계획, 그리고 정책 수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제2절 실태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및 내용

본 장은 이주배경 청년의 직업력, 현재 일자리, 그리고 미래 일자리 계획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20~39세 청년 중 부모 중 1명 이상이 외국 출신이며, 만 18세까지 부모와 함께 한국에서 산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4년 9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온라인과 대면조사를 병행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최종 유효표본은 총 324명이다.

현재 일과 구직 여부에 따라 취업자, 구직자, 포기자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설문지의 내용은 이주배경 특성을 포함한 일반 현황, 현재 일자리와 과거 일자리 정보, 그리고 향후 일자리 계획, 그리고 정책 수요로 구성된다.

〈표 4-1〉 조사 개요

조사지역	• 전국 17개 시·도
조사 대상	• 부모님 한 분 이상 외국 출신의 이주배경을 가진 청년 • 1985년생~2004년생으로 제한 • 만 18세까지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 산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유효표본	• 324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사 병행
조사기간	• 사전조사: 2024년 9월 2일~9월 13일 • 본조사: 2024년 9월 23일~11월 11일

〈표 4-2〉 조사 내용

문항 구분	조사 내용
일반 특성 및 현황	• 성별, 연령, 만 18세까지 한국에서 산 기간 • 부모님 외국 출신 여부, 현재 부모님 국적 • 본인 태어난 나라, 본인 국적, 현재 체류자격 • 현재 사는 지역, 한국어 수준 • 현재 동거인, 월 평균 가구소득, 최종 학력
현재 경제활동 상태 및 향후 계획	• 현재 경제활동 상태(취업/구직/비경제활동) • 현재/직전(최근)/첫/가장 오래한 일자리 특성 - 각 일자리별 시간제(파트타임) 일을 한 이유 • 일자리 시작 동기, 일자리 취득 방법 • 현재 일자리 장점, 좋은 일자리의 조건 • 현재 일자리 만족도 • 희망 일자리 특성, 취업 시 결정 요인 • 취업 준비 및 취업 후 직장생활 어려움 • 일자리 구할 때 어려움, 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유 • 다문화 가정 및 이주배경으로 인한 차별 대우 여부 • 미래 일자리 계획, 미래 일자리 준비 사항 • 더 나은 일자리(창업 포함) 취득 어려움
정책 수요	• 직업훈련/직업교육 참여 경험, 향후 참여 의향 • 정부 지원 사항 • 정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조건

2. 응답자 특성

이주배경 청년 노동 실태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의 표로 요약된다. 전체 응답자 324명 중 58.3%가 여성이며, 남성은 41.7%이다. 응답자 연령은 최소 20세에서 최대 39세까지 조사되었다. 평균 26.9세이며, 20~24세가 전체 응답자의 29.3%, 25~29세 48.1%, 그리고 30세 이상이 22.2%로 나타났다. 특히, 35세 이상의 경우 2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3%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보였다.

〈표 4-3〉 응답자 특성 전체

(단위 : 명, %)

		빈도	비율
전 체		324	100.0
성별	남성	135	41.7
	여성	189	58.3
연령	20~24	95	29.3
	25~29	156	48.1
	30세 이상	73	22.5
취업 상태	취업자	170	52.5
	구직자	71	21.9
	포기자	83	25.6
체류 자격 ⁸⁾	취업 불가	14	17.7
	조건부 취업 및 파트타임	32	40.5
	취업 가능	33	41.8
본인 국적	한국 국적	245	75.6
	외국 국적	79	24.4
부모님 출신	1명 외국 출신	241	74.4
	모두 외국 출신	83	25.6
현재 거주지	서울	69	21.3
	경기/인천	93	28.7
	전라권	59	18.2
	충청권	30	9.3
	경상권	43	13.3
	강원/제주	30	9.3
최종 학력	고졸(중퇴) 이하	73	22.5
	전문대졸(중퇴/재학)	59	18.2
	4년제졸(중퇴/재학)	152	46.9
	대학원졸(중퇴/재학) 이상	40	12.3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42	13.0
	100~200만 원 미만	42	13.0
	200~300만 원 미만	72	22.2
	300~400만 원 미만	119	36.7
	500만 원 이상	49	15.1

8) 체류자격은 외국 국적자만 해당됨. 따라서 사례수는 79명임.

〈표 4-3〉의 계속

		빈도	비율
가구 구성 ⁹⁾	혼자	114	35.2
	본인+부모 등	138	42.6
	본인+배우자 등	52	16.0
	그 외	20	6.2
한국어 수준 ¹⁰⁾	못함	27	8.3
	잘함	112	34.6
	매우 잘함	185	57.1
과거 일자리 개수	0개	177	54.6
	1개	66	20.4
	2개	28	8.6
	3개 이상	53	16.4

취업 상태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2.5%가 현재 취업자이며, 25.6%가 포기자, 그리고 21.9%가 구직자이다. 응답자의 24.4%(79명)가 외국 국적자로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여부가 달라져,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33명, 조건부 취업 및 파트타임 가능은 32명,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는 14명이다. 부모님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5.6% 이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 출신인 경우가 75.6%이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중퇴 및 재학 포함)이 46.9%로 가장 많고, 고졸(중퇴) 이하 22.5%, 전문대졸(중퇴/재학) 18.2%, 대학원졸(중퇴/재학) 이상 12.3% 순이다.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42.6%, 1인 가구가 35.2%,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16.0%, 그 외가 6.2% 순이다. 조사 대상자를 만 18세 이전 부모와 함께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제한하였기에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한국어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매우 잘함이 57.1%, 잘함 34.6%, 못함이 8.3%의 순이었다. 현재까지 경험한 일자리는 현재 일자리가 첫 일자리인 경우가 72명, 현재 일자리 이외

1. 취업 불가: 단기방문동포(C-3-8), 방문동거(F-1), 동반(F-3) / 2. 조건부 취업 및 파트타임: 유학 D-2, D-4-1, D-4-7, D-10 / 3. 취업 가능: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F-4-R), 영주[국민의 배우자](F-5-2), 영주(F-5), 거주(F-2), A3
9) 1. 본인+부모 등: 형제자매, 조부모 포함 / 2. 본인+배우자 등: 자녀, 부모 포함
10) 못함: 전혀 못함 포함.

에 과거에 1개의 일자리를 가진 경우가 66명, 과거 일자리가 2개인 경우가 28명, 그리고 3개 이상인 경우가 53명이다. 과거 일자리 수는 최소 0개에서 최대 24개 일자리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한번도 일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 경우가 105명이다.

3. 실태조사 주요 결과 요약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응답자 324명 중 남성은 135명, 여성은 189명으로 각각 41.7%와 58.3%를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25~29세가 48.1%로 가장 많고, 20~24세 29.3%, 30세 이상 22.5%이었다. 한국 국적자 절반 이상이 25~29세(53.1%)이나, 외국 국적자는 연령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20~24세 36.7%, 25~29세 32.9%, 30세 이상 30.4%).

만 18세까지 한국에서 산 기간은 5년 이상이 78.4%로 가장 비중이 높고, 취업자(5년 이상 88.2%)들의 한국 거주기간이 가장 길고, 구직자(5년 이상 78.9%), 포기자(5년 이상 57.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자(5년 이상 86.9%) 및 부모님 1명 외국 출신(5년 이상 85.5%) 응답자의 한국 거주기간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만 외국 출신인 경우가 65.7%로 가장 많고, 두 분 모두 외국 출신 25.6%, 아버지만 외국 출신 8.6%이다. 한국 국적자는 어머니만 외국 출신이 81.6%, 외국 국적자는 두 분 모두 외국 출신이 79.7%로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부모님 국적은 부모 모두 한국 국적(55.6%), 부모 모두 외국 국적(20.1%), 어머니만 외국 국적(18.2%), 아버지만 외국 국적(6.2%)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태어난 나라는 한국 및 외국이 비슷하였으나 한국에서 태어난 응답자(56.2%)가 약간 더 많았다. 한국 국적이 69.4%로 가장 많고, 외국 국적 24.4%, 이중 국적 6.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 전체(한국 국적 + 이중 국적)는 75.6%였다. 외국 국적자의 체류자격은 유학(D-2, D-4-1, D-4-7)이

3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재외동포(F-4, F-4-R) 및 방문 동거(F-1), 동반(F-3) 각각 16.5%, 영주(F-5; F-5-2는 제외)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할 수 있는 응답자들의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 F-4-R)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67.6%이며, 유경험자는 평균 2.57개의 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30세 이상에서 일 경험률(74.0%) 및 경험 개수(2.70개)가 가장 많았다. 구직자의 일 경험률은 35.2%, 포기자는 28.9%로 낮은 편이며, 포기자의 경우 평균 3.33개 일을 하여 취업자(2.47개) 및 구직자(2.52개)보다 일 경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이 취업할 수 있는 응답자의 일 경험률이 84.8%로 매우 높고, 일 경험 개수도 매우 많았다(평균 3.57개).

가구 구성은 본인+부모 등(형제자매, 조부모 포함) 42.6%, 혼자 35.2%, 본인+배우자 등(자녀, 부모 포함) 16.0%, 그 외 6.2%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은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3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22.2%, 500만 원 이상 15.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51.8%였다.

한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가 4년제 대학인 경우가 4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21.0%, 전문대 17.0%, 대학원 10.8% 순이었다. 체류자격별로 조건부 취업 및 파트타임 응답자, 외국 국적자(본인), 부모님 모두 외국 출신인 응답자에서 대학원 졸업이 가장 많았다.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중퇴/재학이 46.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중퇴 19.8%, 전문대 졸업/중퇴/재학 18.2%, 대학원 졸업/중퇴/재학 이상 12.3%, 중학교 졸업/중퇴 2.8% 순이었다.

나.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는 170명으로 전체의 52.5%, 구직자 71명으로 21.9%, 포기자('나중에 일할 생각이 있지만, 지금은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다')는 83명으로 25.6%로 나타났다. 성별 및 연령별 취업 상태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20~24세의 경우 포기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고 구직자가 약간 낮았

다. 체류자격이 조건부 취업 및 파트 타임은 포기자가, 취업 가능은 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국 국적자의 취업자(56.3%) 비중이 외국 국적자의 취업자(40.5%) 비중보다 높았다. 각 문항 내 취업 상태의 비중을 보면 취업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은 구직자가, 500만 원 이상은 포기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4〉 경제활동 상태

(단위 : 명, %)

		사례 수	취업자		구직자		포기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324	170	52.5	71	21.9	83	25.6
성별	남성	135	69	51.1	29	21.5	37	27.4
	여성	189	101	53.4	42	22.2	46	24.3
연령	20~24	95	50	52.6	16	16.8	29	30.5
	25~29	156	81	51.9	39	25.0	36	23.1
	30세 이상	73	39	53.4	16	21.9	18	24.7
체류 자격	취업 불가	14	2	14.3	6	42.9	6	42.9
	조건부 취업 및 파트타임	32	8	25.0	9	28.1	15	46.9
	취업 가능	33	22	66.7	6	18.2	5	15.2
본인 국적	한국 국적	245	138	56.3	50	20.4	57	23.3
	외국 국적	79	32	40.5	21	26.6	26	32.9
부모님 출신	1명 외국 출신	241	134	55.6	51	21.2	56	23.2
	모두 외국 출신	83	36	43.4	20	24.1	27	32.5
현재 거주지	서울	69	39	56.5	10	14.5	20	29.0
	경기/인천	93	54	58.1	16	17.2	23	24.7
	전라권	59	27	45.8	25	42.4	7	11.9
	충청권	30	19	63.3	4	13.3	7	23.3
	경상권	43	20	46.5	8	18.6	15	34.9
	강원/제주	30	11	36.7	8	26.7	11	36.7
최종 학력	고졸(중퇴) 이하	73	43	58.9	14	19.2	16	21.9
	전문대졸(중퇴/재학)	59	36	61.0	13	22.0	10	16.9
	4년제졸(중퇴/재학)	152	74	48.7	36	23.7	42	27.6
	대학원졸(중퇴/재학) 이상	40	17	42.5	8	20.0	15	37.5

〈표 4-4〉의 계속

		사례 수	취업자		구직자		포기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42	2	4.8	22	52.4	18	42.9
	100~200만 원 미만	42	17	40.5	12	28.6	13	31.0
	200~300만 원 미만	72	46	63.9	9	12.5	17	23.6
	300~400만 원 미만	119	94	79.0	15	12.6	10	8.4
	500만 원 이상	49	11	22.4	13	26.5	25	51.0
가구 구성	혼자	114	57	50.0	28	24.6	29	25.4
	본인+부모 등	138	72	52.2	29	21.0	37	26.8
	본인+배우자 등	52	29	55.8	10	19.2	13	25.0
	그 외	20	12	60.0	4	20.0	4	20.0
한국어 수준	못함	27	7	25.9	10	37.0	10	37.0
	잘함	112	59	52.7	14	12.5	39	34.8
	매우 잘함	185	104	56.2	47	25.4	34	18.4
과거 일자리 개수	0개	177	72	40.7	46	26.0	59	33.3
	1개	66	43	65.2	12	18.2	11	16.7
	2개	28	24	85.7	3	10.7	1	3.6
	3개 이상	53	31	58.5	10	18.9	12	22.6

제3절 근로 실태와 직업력

1. 근로 실태

가. 현재 일자리 특성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자들의 94.1%(160명)가 현재 1개의 일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2개 5.3%(9명), 3개 0.6%(1명)이며, 평균적으로 1.06개의 일을 하고 있다.

취업자들이 현재 하는 일의 직종은 ③ 사무종사자가 29.4%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④ 서비스 종사자 20.6%, ② 전문가/관련 종사자 19.4%, ⑤ 판매종사자 14.1%, ⑨ 단순노무자 8.8%, ⑦ 기능원/관련 기능 종사자 6.5%, ⑧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4.1%의 순이다. 남성(20.3%) 및 여성(35.6%) 모두 ③ 사무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나 여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비중을 보면, 20~24세, 최종 학력 고졸(중퇴) 이하 및 전문대졸(중퇴/재학), 월 300~400만 원 미만 및 본인+부모 등과 거주하는 응답자들에서 ④ 서비스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고, 본인 국적이 외국 국적인 응답자와 부모님이 모두 외국 출신인 경우 ② 전문가/관련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② 전문가/관련 종사자 비중은 높아지고, ④ 서비스 종사자 및 ⑤ 판매종사자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4-5〉 현재 하는 일 직종(전체) : 현재 일자리

(단위 : 명, 중복응답 %)

		사례수	① 관리자	② 전문가/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종 사자	⑥ 농사· 어업· 축산업 종사자	⑦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자
전 체		170	1.8	19.4	29.4	20.6	14.1	1.8	6.5	4.1	8.8
성별	남성	69	2.9	17.4	20.3	14.5	17.4	2.9	13.0	5.8	10.1
	여성	101	1.0	20.8	35.6	24.8	11.9	1.0	2.0	3.0	7.9
연령	20~24	50	2.0	10.0	20.0	26.0	22.0	0.0	6.0	8.0	8.0
	25~29	81	1.2	19.8	33.3	19.8	14.8	2.5	6.2	1.2	7.4
	30세 이상	39	2.6	30.8	33.3	15.4	2.6	2.6	7.7	5.1	12.8
체류 자격 (외국인 만)	취업 불가	2	0.0	0.0	0.0	50.0	0.0	0.0	0.0	0.0	50.0
	조건부 취업 및 파트타임	8	0.0	12.5	37.5	25.0	37.5	0.0	0.0	0.0	0.0
	취업 가능	22	4.5	50.0	9.1	13.6	13.6	4.5	4.5	0.0	13.6
본인 국적	한국 국적	138	1.4	15.2	32.6	21.0	13.0	1.4	7.2	5.1	8.0
	외국 국적	32	3.1	37.5	15.6	18.8	18.8	3.1	3.1	0.0	12.5
부모님 출신	1명 외국 출신	134	1.5	16.4	33.6	21.6	12.7	1.5	6.7	4.5	6.7
	모두 외국 출신	36	2.8	30.6	13.9	16.7	19.4	2.8	5.6	2.8	16.7

〈표 4-5〉의 계속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관리자	전문가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 사자	농사· 어업· 축산업 종사자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자
현재 거주지	서울	39	0.0	23.1	30.8	23.1	15.4	0.0	2.6	7.7	5.1
	경기/인천	54	1.9	14.8	37.0	20.4	9.3	0.0	7.4	3.7	9.3
	전라권	27	3.7	18.5	11.1	25.9	18.5	7.4	11.1	3.7	3.7
	충청권	19	0.0	21.1	36.8	15.8	15.8	0.0	0.0	0.0	21.1
	경상권	20	5.0	25.0	20.0	25.0	10.0	0.0	10.0	5.0	5.0
	강원/제주	11	0.0	18.2	36.4	0.0	27.3	9.1	9.1	0.0	18.2
최종 학력	고졸(중퇴) 이하	43	0.0	9.3	18.6	20.9	14.0	2.3	11.6	9.3	14.0
	전문대졸 (중퇴/재학)	36	0.0	8.3	16.7	22.2	13.9	2.8	13.9	8.3	16.7
	4년제졸(중퇴/재학)	74	4.1	20.3	40.5	23.0	14.9	0.0	1.4	0.0	4.1
	대학원졸 (중퇴/재학) 이상	17	0.0	64.7	35.3	5.9	11.8	5.9	0.0	0.0	0.0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2	0.0	50.0	50.0	0.0	0.0	0.0	0.0	0.0	0.0
	100~200만 원 미만	17	0.0	17.6	29.4	17.6	29.4	5.9	0.0	5.9	0.0
	200~300만 원 미만	46	0.0	15.2	34.8	15.2	13.0	2.2	10.9	2.2	8.7
	300~400만 원 미만	94	3.2	18.1	24.5	26.6	12.8	1.1	5.3	5.3	10.6
	500만 원 이상	11	0.0	45.5	45.5	0.0	9.1	0.0	9.1	0.0	9.1
가구 구성	혼자	57	1.8	17.5	45.6	12.3	12.3	1.8	5.3	1.8	5.3
	본인+부모 등	72	1.4	9.7	18.1	30.6	18.1	1.4	6.9	6.9	9.7
	본인+배우자 등	29	3.4	31.0	31.0	10.3	6.9	3.4	10.3	3.4	13.8
	그 외	12	0.0	58.3	16.7	25.0	16.7	0.0	0.0	0.0	8.3
한국어 수준	못함	7	0.0	0.0	28.6	14.3	14.3	0.0	0.0	14.3	42.9
	잘함	59	3.4	22.0	25.4	18.6	18.6	1.7	5.1	3.4	10.2
	매우 잘함	104	1.0	19.2	31.7	22.1	11.5	1.9	7.7	3.8	5.8

주 : 사례 수는 전체 응답자 170명을 나타내고, 종사상 지위는 2개 이상 일자리를 가진 경우 모든 일자리를 포함하여 총 181개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함.

현재 일자리 근무기간은 평균 29.5개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년~2년 미만인 27.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년 이상 25.9%, 2년~3년 미만 24.7%, 1년 미만 22.4% 순이다.

현재 일자리 고용 형태는 ① 정규직이 65.3%로 가장 많고, ② 비정규직은 32.4%, ③ 자영업/프리랜서 6.5%, ④ 무급가족종사자 1.2%, ⑤ 특수고용직 1.2% 순으로 나타난다. 과거 일자리 개수가 3개 이상으로 많은 응답자는 ②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6〉 고용 형태(전체) : 현재 일자리

(단위 : 명, 중복응답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프리랜서	무급가족 종사자	특수 고용직
전 체		170	65.3	32.4	6.5	1.2	1.2
성별	남성	69	72.5	29.0	2.9	0.0	0.0
	여성	101	60.4	34.7	8.9	2.0	2.0
연령	20~24	50	58.0	38.0	2.0	4.0	0.0
	25~29	81	66.7	33.3	6.2	0.0	0.0
	30세 이상	39	71.8	23.1	12.8	0.0	5.1
체류 자격 (외국인 만)	취업 불가	2	100.0	0.0	0.0	0.0	0.0
	조건부 취업 및 파트타임	8	12.5	100.0	0.0	0.0	0.0
	취업 가능	22	59.1	27.3	18.2	4.5	4.5
본인 국적	한국 국적	138	68.8	29.7	5.1	0.7	0.7
	외국 국적	32	50.0	43.8	12.5	3.1	3.1
부모님 출신	1명 외국 출신	134	69.4	29.1	5.2	0.7	0.7
	모두 외국 출신	36	50.0	44.4	11.1	2.8	2.8
현재 거주지	서울	39	64.1	35.9	5.1	0.0	2.6
	경기/인천	54	72.2	25.9	5.6	0.0	0.0
	전라권	27	48.1	51.9	3.7	0.0	0.0
	충청권	19	89.5	10.5	10.5	0.0	0.0
	경상권	20	70.0	25.0	5.0	5.0	0.0
	강원/제주	11	27.3	54.5	18.2	9.1	9.1

〈표 4-6〉의 계속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프리랜서	무급가족 종사자	특수 고용직
최종 학력	고졸(중퇴) 이하	43	76.7	20.9	2.3	0.0	0.0
	전문대졸(중퇴/재학)	36	52.8	38.9	5.6	2.8	2.8
	4년제졸(중퇴/재학)	74	64.9	29.7	10.8	1.4	1.4
	대학원졸(중퇴/재학) 이상	17	64.7	58.8	0.0	0.0	0.0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2	0.0	100.0	0.0	0.0	0.0
	100~200만 원 미만	17	41.2	58.8	0.0	5.9	0.0
	200~300만 원 미만	46	67.4	28.3	6.5	0.0	0.0
	300~400만 원 미만	94	68.1	29.8	6.4	1.1	2.1
	500만 원 이상	11	81.8	18.2	18.2	0.0	0.0
가구 구성	혼자	57	70.2	28.1	5.3	0.0	0.0
	본인+부모 등	72	61.1	30.6	6.9	2.8	1.4
	본인+배우자 등	29	69.0	31.0	10.3	0.0	3.4
	그 외	12	58.3	66.7	0.0	0.0	0.0
한국어 수준	못함	7	85.7	0.0	28.6	0.0	0.0
	잘함	59	64.4	35.6	5.1	0.0	3.4
	매우 잘함	104	64.4	32.7	5.8	1.9	0.0
과거 일자리 개수	0개	72	73.6	27.8	2.8	1.4	1.4
	1개	43	72.1	25.6	4.7	0.0	0.0
	2개	24	54.2	37.5	12.5	0.0	0.0
	3개 이상	31	45.2	48.4	12.9	3.2	3.2

주: 1) ① 정규직 (원하면 다니고 싶을 때까지 일할 수 있음) ②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아르바이트/인턴 (정해진 계약 기간만큼 일할 수 있음) ③ 자영업/프리랜서 ④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와주고 있음(무급가족종사자) ⑤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전속 대리운전기사, 전속 쿼서서비스기사, 건설기계 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⑥ 기타
2) 사례 수는 전체 응답자 170명을 나타내고, 종사상 지위는 2개 이상 일자리를 가진 경우 모든 일자리를 포함하여 총 181개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함.

4대 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취업자의 76.5%가 현재 일자리에서 4대 보험에 가입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는 23.5%, 잘 모른다는 응답은 6.5%였다. 4대 보험이 가입한 남성 취업자는 84.1%, 여성 취업자는 71.3%로 남성의 가입률이 훨씬 더 높다. 20~24세는 4대 보험 가입률이 70.0%이나, 25~29세 및 30세 이상 청년들은 79%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절반 정도(50.0%)만 가입하였지만, 한국 국적자는 82.6%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와 유사하게 부모님이 모두 외국 출신인 응답자(58.3%)보다 한 분만 외국 출신(81.3%)일 때에 4대보험 가입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들은 일주일 평균 37.6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비중을 보면, 36~40시간 이하(38.8%)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35시간 이하(30.6%), 41~45시간 이하 및 46시간 이상(각각 15.3%) 순이다.

〈표 4-7〉 4대 보험 가입 여부(전체) : 현재 일자리

(단위 : 명, 중복응답 %)

		사례수	가입함	가입하지 않음	잘모름
전 체		170	76.5	23.5	6.5
성별	남성	69	84.1	11.6	8.7
	여성	101	71.3	31.7	5.0
연령	20~24	50	70.0	24.0	8.0
	25~29	81	79.0	18.5	8.6
	30세 이상	39	79.5	33.3	0.0
체류 자격 (외국인 만)	취업 불가	2	0.0	0.0	100.0
	조건부 취업 및 파트타임	8	37.5	75.0	0.0
	취업 가능	22	59.1	54.5	0.0
본인 국적	한국 국적	138	82.6	15.9	6.5
	외국 국적	32	50.0	56.3	6.3
부모님 출신	1명 외국 출신	134	81.3	15.7	8.2
	모두 외국 출신	36	58.3	52.8	0.0

취업자들의 현재 일자리 월 평균 236.3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월 평균 소득 구간별로는 월 300만 원 이상 27.6%, 100~200만 원 미만 26.5%, 250~300만 원 미만 22.9%, 200~250만 원 미만 14.1%, 100만 원 미만 7.6%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60만 원 더 받고 있으며, 20~24세 대비 25~29세 및 30세 이상 청년의 월 소득이 약 30만 원 이상 더 많다.

외국 국적자보다 한국 국적자의 소득이 더 높고(약 80만 원 높음), 현재 거주지별로는 서울 거주자(평균 262.0만 원)의 소득이 가장 높고,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월 평균 소득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하는 일 중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일자리 기준으로, 현재 일을 시작하게 된 주된 동기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가 42.9%로 가장 많

〈표 4-8〉 한달 평균 소득(월급)(전체) : 현재 일자리

(단위 : 명, %, 만 원)

		사례수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250만 원 미만	250~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해당 없음 (무급가족 종사자)*	평균
전 체		170	7.6	26.5	14.1	22.9	27.6	1.2	236.3
성별	남성	69	1.4	13.0	15.9	29.0	40.6	0.0	271.4
	여성	101	11.9	35.6	12.9	18.8	18.8	2.0	211.9
연령	20~24	50	14.0	26.0	10.0	28.0	18.0	4.0	212.0
	25~29	81	6.2	19.8	17.3	27.2	29.6	0.0	247.5
	30세 이상	39	2.6	41.0	12.8	7.7	35.9	0.0	243.1
본인 국적	한국 국적	138	5.8	22.5	13.0	26.1	31.9	0.7	251.2
	외국 국적	32	15.6	43.8	18.8	9.4	9.4	3.1	170.5
현재 거주지	서울	39	2.6	28.2	10.3	20.5	38.5	0.0	262.0
	경기/인천	54	9.3	18.5	13.0	27.8	31.5	0.0	243.8
	전라권	27	3.7	37.0	7.4	29.6	22.2	0.0	221.5
	충청권	19	0.0	31.6	31.6	10.5	26.3	0.0	236.7
	경상권	20	5.0	30.0	15.0	25.0	20.0	5.0	240.9
	강원/제주	11	45.5	18.2	18.2	9.1	0.0	9.1	126.0

주 : ※ 무급가족 종사자는 평균 분석에서 제외.

았다. 다음으로 ‘일자리의 임금, 근로시간, 안정성에 만족하여’ 25.9%,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어서’ 12.4%,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라서’ 10.0%,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5.9%, ‘체류자격에 적합한 일자리가 지금 일 있어서’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선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30세 이상의 청년들은 당장의 수입원(35.9%)보다는 일자리 안정성(43.6%)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최종 학력이 전문대졸(중퇴/재학)인 경우 ‘당장의 수입이 필요해서(50.0%)’ 다음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리라서(19.4%)’ 직장을 선택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현재 일자리를 구한 경로는 ‘구인공고(잡코리아, 알바천국, 알바몬, 회사구인공고 등)나 직업소개소를 통해’가 38.2%로 가장 많았으나, ‘주변 지인/가족의 소개를 통해’도 32.4%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교사, 교수, 교육기관 소개 등을 통해’ 11.8%, ‘정부의 일자리 정보(고용센터,

〈표 4-9〉 현재 일 시작 동기

(단위 : 명, %)

		사례수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일자리의 임금, 근로시간, 안정성에 만족하여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라 서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체류자격 에 적합한 일자리가 지금 일 있어서	기타
전 체		170	42.9	25.9	12.4	10.0	5.9	1.2	1.8
연령	20~24	50	40.0	20.0	12.0	18.0	6.0	0.0	4.0
	25~29	81	48.1	21.0	14.8	6.2	7.4	1.2	1.2
	30세 이상	39	35.9	43.6	7.7	7.7	2.6	2.6	0.0
본인 국적	한국 국적	138	45.7	26.1	10.1	10.9	5.8	0.0	1.4
	외국 국적	32	31.3	25.0	21.9	6.3	6.3	6.3	3.1
최종 학력	고졸(중퇴) 이하	43	48.8	27.9	2.3	14.0	7.0	0.0	0.0
	전문대졸 (중퇴/재학)	36	50.0	13.9	8.3	19.4	5.6	2.8	0.0
	4년제졸(중퇴/재학)	74	39.2	31.1	16.2	4.1	5.4	0.0	4.1
	대학원졸 (중퇴/재학) 이상	17	29.4	23.5	29.4	5.9	5.9	5.9	0.0

워크넷 등)를 통해' 10.0%, '다문화/외국인/이주배경 지원 단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 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구인공고나 직업소개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반면, 20~24세 및 30세 이상, 외국 국적자, 최종 학력이 고졸(중퇴) 이하, 전문대졸(중퇴/재학) 및 과거 일자리 개수가 3개 이상인 응답자들은 '주변 지인이나 가족 소개'를 받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현재 일자리 구한 경로

(단위 : 명, %)

		사례수	① 구인 공고/ 직업 소개소	② 주변 지인 /가족 소개	③ 교육기 관 등 소개	④ 정부 일자리 정보	⑤ 지원 단체/ 프로그 램	⑥ 인턴십/ 교육 참여 기업	⑦ 기타
전 체		170	38.2	32.4	11.8	10.0	5.9	0.6	1.2
연령	20~24	50	36.0	40.0	14.0	4.0	6.0	0.0	0.0
	25~29	81	43.2	27.2	11.1	12.3	4.9	0.0	1.2
	30세 이상	39	30.8	33.3	10.3	12.8	7.7	2.6	2.6
본인 국적	한국 국적	138	39.9	29.0	10.1	12.3	6.5	0.7	1.4
	외국 국적	32	31.3	46.9	18.8	0.0	3.1	0.0	0.0
최종 학력	고졸(중퇴) 이하	43	27.9	30.2	14.0	11.6	16.3	0.0	0.0
	전문대졸 (중퇴/재학)	36	41.7	41.7	5.6	8.3	2.8	0.0	0.0
	4년제졸(중퇴/재학)	74	43.2	29.7	13.5	10.8	1.4	0.0	1.4
	대학원졸 (중퇴/재학) 이상	17	35.3	29.4	11.8	5.9	5.9	5.9	5.9
과거 일자리 개수	0개	72	40.3	29.2	11.1	12.5	6.9	0.0	0.0
	1개	43	41.9	30.2	9.3	9.3	4.7	0.0	4.7
	2개	24	37.5	29.2	8.3	16.7	8.3	0.0	0.0
	3개 이상	31	29.0	45.2	19.4	0.0	3.2	3.2	0.0

주 : ① 구인공고(잡코리아, 알바천국, 알바몬, 회사 구인공고 등)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② 주변 지인/가족의 소개를 통해 ③ 학교, 교사, 교수, 교육기관 소개 등을 통해 ④
 정부의 일자리 정보(고용센터, 워크넷 등)를 통해 ⑤ 다문화/외국인/이주배경 지원
 단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 ⑥ 인턴십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기업에
 연락해 봄 ⑦ 기타

현재 일자리에 대한 평가를 보면, 취업자들의 45.9%는 ‘현재 일자리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29.4%는 ‘현재 일자리에서 은퇴할 때까지 일하고 싶다’, 24.7%는 ‘현재 일자리는 원하는 일을 찾기 전의 임시 일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를 희망하는 편임을 알 수 있다. 남성은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여 은퇴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비중(39.1%)이 높지만, 여성은 더 나은 일자리가 있다면 이직(54.5%)을 희망하였다. 20~24세의 경우 현재 일자리를 임시 일자리(42.0%)로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최종 학력이 고졸(중퇴) 이하는 절반 이상이 현재 일자리에서 은퇴까지 일하고 싶어 하며(53.5%), 전문대졸(중퇴/재학)은 임시 일자리(44.4%)로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1〉 현재 일자리의 기능

(단위: 명, %)

		사례수	현재 일자리에서 은퇴할 때까지 일하고 싶다	현재 일자리는 원하는 일을 찾기 전의 임시 일자리다	현재 일자리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그 일을 하고 싶다
전 체		170	29.4	24.7	45.9
성별	남성	69	39.1	27.5	33.3
	여성	101	22.8	22.8	54.5
연령	20~24	50	20.0	42.0	38.0
	25~29	81	27.2	23.5	49.4
	30세 이상	39	46.2	5.1	48.7
본인 국적	한국 국적	138	29.0	26.8	44.2
	외국 국적	32	31.3	15.6	53.1
최종 학력	고졸(중퇴) 이하	43	53.5	18.6	27.9
	전문대졸(중퇴/재학)	36	25.0	44.4	30.6
	4년제졸(중퇴/재학)	74	21.6	18.9	59.5
	대학원졸(중퇴/재학) 이상	17	11.8	23.5	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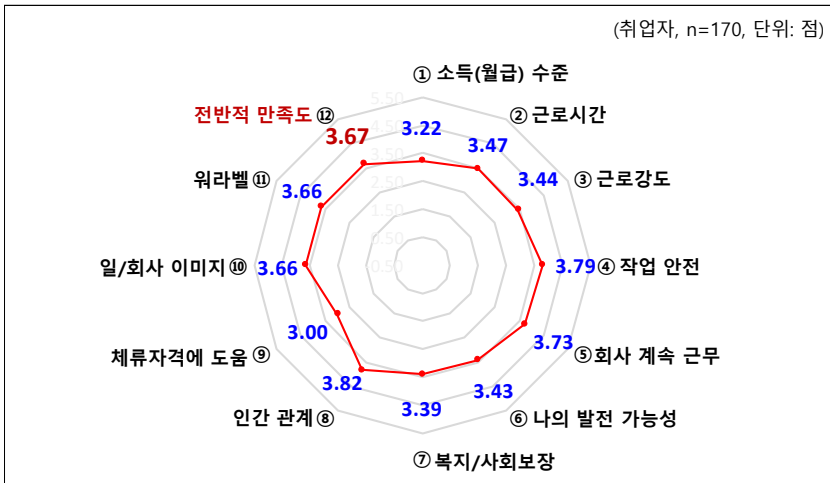
현재 일자리에서 은퇴까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취업자들(50명)이 생각하는 현재 일자리의 장점은 ‘나의 적성과 전공, 경력, 능력에 맞는 업무’라는 점이 54.0%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고용의 안정성(회사가 망하거나 해고될 걱정 없는 직장)’ 및 ‘적정 근로시간(정시 퇴근 포함) 및 업무량’ 각각 28.0%, ‘높은 임금’ 18.0%, ‘일의 내용(사무직/생산직 등)’ 16.0%, ‘출퇴근 편의(시간, 거리)’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이직을 희망하거나, 현재 일을 임시직으로 생각하는 취업자들(120명)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조건은 ‘높은 임금’이 54.2%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나의 적성과 전공, 경력, 능력에 맞는 업무’ 51.7%, ‘고용의 안정성(회사가 망하거나 해고될 걱정 없는 직장)’ 26.7%, ‘적정 근로시간(정시 퇴근 포함) 및 업무량’ 20.0%, ‘가정 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조건(유연한 근무시간, 육아휴직 활용 등)’ 11.7%, ‘일의 내용(사무직/생산직 등)’ 6.7% 순으로 나타났다.

나. 취업 결정요인 및 애로사항

취업자인 이주배경 청년이 현재 일자리의 만족도를 5점 만점(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3.67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⑧ 동료/상사(윗사람)와의 관계(3.82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④ 작업 중 안전(일하다 다칠 가능성)(3.79점), ⑤ 내가 원하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다(회사에서 해고되지 않는다)(3.73점), ⑩ 나의 일(직업) 또는 나의 회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미지) 및 ⑪ 퇴근 후에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이 있고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있다(위라벨)(각각 3.66점), ② 근로시간(3.47점), ③ 근로강도(일의 양 또는 어려움 정도)(3.44점), ⑥ 나만의 기술이나 능력이 발전될 가능성(3.43점)의 순으로 전체 만족도 평균 수준을 상회하였다. 반면, ⑨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얻는 데 도움 되는 정도(3.00점), ① 소득(월급) 수준(3.22점), ⑦ 복지제도 및 사회보장(휴가, 보너스, 건강보험 등)(3.39점)은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현재 일자리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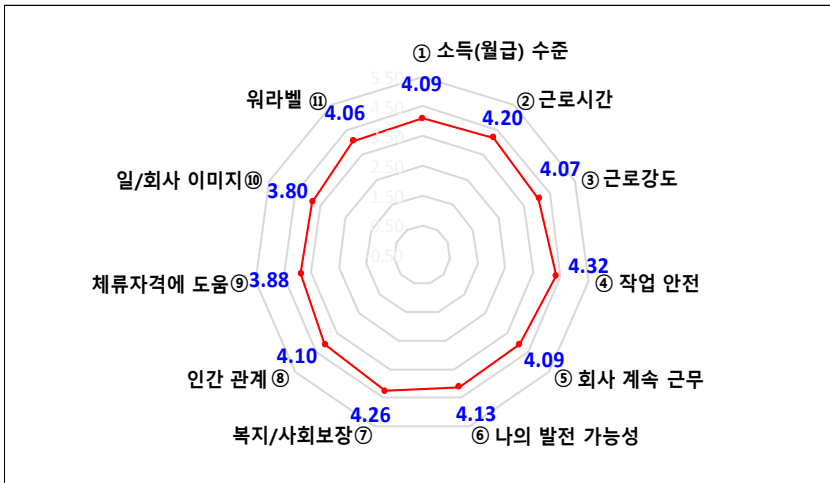


구직자와 포기자의 경우 취업을 결정할 때 요인별 중요도를 5점 만점으로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직자 및 향후 1년 내 취업 의향이 있는 포기자(128명)는 취업 결정 시 ④ 작업 중 안전(일하다 다칠 가능성)(4.32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⑦ 복지제도 및 사회보장(휴가, 보너스, 건강보험 등)(4.26점), ② 근로시간(4.20점), ⑥ 나만의 기술이나 능력이 발전될 가능성(4.13점), ⑧ 동료/상사(윗사람)와의 관계(4.10점), ① 소득(월급) 수준 및 ⑤ 내가 원하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다(회사에서 해고되지 않는다)(각각 4.09점), ③ 근로강도(일의 양 또는 어려움 정도)(4.07점), ⑪ 퇴근 후에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이 있어야 하고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있어야 한다(워라벨)(4.06점)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상대적으로 ⑩ 사람들이 그 일(직업)이나 회사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3.80점), ⑨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얻는 데 도움되는 정도(3.88점)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편이었다.

취업자가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해서 일할 때 어려움,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할 때 어려움, 향후 1년 내 취업 의향이 있는 포기자가 일자리를 구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국 국적자인 경우 ‘비자와 체류자격을 얻거나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림 4-2] 취업 결정의 고려 요인



주: 구직자 및 1년 이내 취업 의사가 있는 포기자 128명 대상.

63.0%가, ‘체류자격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79.5%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모두는 ‘취업 등에 대해 상의할 사람을 찾는 것(69.5%)’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나의 전공이나 경력, 흥미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68.8%)’, ‘취업 및 일자리 정보를 찾는 것(63.8%)’,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이용하는 것(60.7%)’ 순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취업자의 30.6%가 ‘일하면서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는 반면, 구직자 및 포기자의 45.3%가 ‘취업 인터뷰(면접)를 할 때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구직자와 포기자들이 한국어 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또는 이주배경 청년이라는 것 때문에 취업할 때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평가는 평균 2.45점이었다. 응답자의 50.0%는 ‘차별을 받지 않는 편(전혀 차별을 받지 않는다 29.0% + 차별을 받지 않는 편이다 21.0%)’, 21.6%는 ‘차별을 받는 편(매우 차별을 받는다 2.8% + 차별을 받는 편이다 18.8%)’으로 응답하였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더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취업자(2.21점)보다 구직자(2.76점)와 포기자(2.69점)에서

〈표 4-12〉 취업 준비 및 일할 때 애로사항

(단위 : 명, %)

	사례수	전체			
		어렵지 않음	▶ 어려움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비자와 체류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는 것(외국 국적자)	73	37.0	37.0	26.0	63.0
체류자격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외국 국적자)	73	20.5	49.3	30.1	79.5
취업 등에 대해 상의할 사람을 찾는 것	298	30.5	54.4	15.1	69.5
취업 및 일자리 정보를 찾는 것	298	36.2	46.3	17.4	63.8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이용하는 것	298	39.3	46.0	14.8	60.7
나의 전공이나 경력, 흥미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	298	31.2	40.6	28.2	68.8
일하면서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취업자)	170	69.4	24.1	6.5	30.6
일하면서 문화적인 차이(업무 스타일 또는 식사 습관 등)에 적응하는 것(취업자)	170	73.5	20.6	5.9	26.5
취업 인터뷰(면접)를 할 때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 (구직자/포기자)	128	54.7	32.0	13.3	45.3

차별받는다라는 평가가 더 많고, 체류자격 중 조건부 취업 및 파트타임 응답자가 취업 가능자보다 차별 대우를 더 받는다고 생각한다. 한국 국적자보다 외국 국적자, 부모님 1명 외국 출신보다 모두 외국 출신인 응답자가 더 차별 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서울 지역 거주자가 차별받는다라는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충청권이 가장 낮았으며, 최종 학력은 대학원졸(중퇴/재학) 이상이 가장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차별받는다라고 생각하였다. 한국어를 못하거나 잘하는 응답자가 매우 잘하는 응답자보다 더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다문화 가정 및 이주배경으로 인한 차별 대우 평가

(단위: 명, %, 점)

		사례 수	전혀 차별을 받지 않는다	차별을 받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차별을 받는 편이다	매우 차별을 받는다	차별 받지 않는 편	보통	차별 받는 편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 체		324	29.0	21.0	28.4	18.8	2.8	50.0	28.4	21.6	2.45	49.1
성별	남성	135	33.3	23.0	25.2	14.8	3.7	56.3	25.2	18.5	2.33	46.5
	여성	189	25.9	19.6	30.7	21.7	2.1	45.5	30.7	23.8	2.54	50.9
연령	20~24	95	36.8	23.2	30.5	8.4	1.1	60.0	30.5	9.5	2.14	42.7
	25~29	156	29.5	22.4	22.4	23.7	1.9	51.9	22.4	25.6	2.46	49.2
	30세 이상	73	17.8	15.1	38.4	21.9	6.8	32.9	38.4	28.8	2.85	57.0
취업 상태	취업자	170	37.1	21.2	27.1	12.9	1.8	58.2	27.1	14.7	2.21	44.2
	구직자	71	18.3	19.7	31.0	29.6	1.4	38.0	31.0	31.0	2.76	55.2
	포기자 ¹¹⁾	83	21.7	21.7	28.9	21.7	6.0	43.4	28.9	27.7	2.69	53.7
체류 자격	취업 불가	14	21.4	21.4	28.6	21.4	7.1	42.9	28.6	28.6	2.71	54.3
	조건부 취업 및 파트타임	32	9.4	28.1	43.8	12.5	6.3	37.5	43.8	18.8	2.78	55.6
	취업 가능	33	30.3	9.1	42.4	18.2	0.0	39.4	42.4	18.2	2.48	49.7
본인 국적	한국 국적	245	31.8	21.6	24.5	19.6	2.4	53.5	24.5	22.0	2.39	47.8
	외국 국적	79	20.3	19.0	40.5	16.5	3.8	39.2	40.5	20.3	2.65	52.9
부모님 출신	1명 외국 출신	241	33.6	22.4	24.1	18.3	1.7	56.0	24.1	19.9	2.32	46.4
	모두 외국 출신	83	15.7	16.9	41.0	20.5	6.0	32.5	41.0	26.5	2.84	56.9
현재 거주지	서울	69	15.9	20.3	34.8	24.6	4.3	36.2	34.8	29.0	2.81	56.2
	경기/인천	93	35.5	19.4	31.2	11.8	2.2	54.8	31.2	14.0	2.26	45.2
	전라권	59	18.6	25.4	20.3	35.6	0.0	44.1	20.3	35.6	2.73	54.6
	충청권	30	36.7	23.3	30.0	6.7	3.3	60.0	30.0	10.0	2.17	43.3
	경상권	43	44.2	18.6	16.3	16.3	4.7	62.8	16.3	20.9	2.19	43.7
	강원/제주	30	30.0	20.0	36.7	10.0	3.3	50.0	36.7	13.3	2.37	47.3
최종 학력	고졸(중퇴) 이하	73	27.4	20.5	38.4	8.2	5.5	47.9	38.4	13.7	2.44	48.8
	전문대졸(중퇴/재학)	59	32.2	18.6	33.9	15.3	0.0	50.8	33.9	15.3	2.32	46.4
	4년제졸(중퇴/재학)	152	29.6	23.7	21.1	25.0	.7	53.3	21.1	25.7	2.43	48.7
	대학원졸(중퇴/재학) 이상	40	25.0	15.0	30.0	20.0	10.0	40.0	30.0	30.0	2.75	55.0
한국어 수준	못함	27	18.5	14.8	44.4	18.5	3.7	33.3	44.4	22.2	2.74	54.8
	잘함	112	18.8	19.6	33.0	24.1	4.5	38.4	33.0	28.6	2.76	55.2
	매우 잘함	185	36.8	22.7	23.2	15.7	1.6	59.5	23.2	17.3	2.23	44.5

2. 직업력

가. 직전 및 최근 일자리 특성

응답자의 직업력은 현재 취업 상태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취업자는 현재 하는 일 외에도 과거에 한국에서 일자리 경험이 있는 경우(98명) 직전 일자리 특성을, 구직자 및 포기자 중 과거 한국에서 일자리 경험이 있는 응답자(각각 25명, 24명)에게는 가장 최근의 일자리 특성을 조사하였다.

직전/최근 일자리 직종은 ⑨ 단순노무자가 25.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③ 사무종사자 21.8%, ④ 서비스 종사자 16.3%, ⑤ 판매종사자 13.6%, ② 전문가/관련 종사자 10.9%, ⑦ 기능원/관련 기능 종사자 7.5%, ⑧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3.4%, ① 관리자 1.4% 순이었다. 남성은 ⑨ 단순노무자(28.6%)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③ 사무종사자(27.5%)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24세는 ⑨ 단순노무자(38.1%)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5~29세 및 30세 이상은 ③ 사무종사자(각각 22.2%, 35.7%)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③ 사무종사자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모님이 1명 외국 출신은 ③ 사무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고, 모두 외국 출신은 ⑨ 단순노무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과거 일자리 개수가 3개 이상인 응답자들은 ④ 서비스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포기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33.3%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직전/최근 일자리를 시작한 연령은 평균적으로 24.2세에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초반이 5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후반 28.6%, 30대 10.9%, 10대 후반 6.1% 순이다. 직전/최근 일자리의 근무기간은 평균적으로 14.5개월 동안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1년~2년 미만이 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개월 미만 26.5%, 6개월~1년 미만 25.9%, 2년~3년 미만 10.9%, 3년 이상 8.2% 순이었다.

직전/최근 일자리의 고용 형태는 ② 비정규직이 6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① 정규직 27.2%, ③ 자영업/프리랜서 4.1%, ⑤ 특수고용직 2.0%, ④

11) 포기자는 미래형으로 질문함(1=전혀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다, 2=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다, 3=보통이다, 4=차별을 받을 것이다, 5=매우 차별을 받을 것이다).

〈표 4-14〉 일자리 직종 : 직전/최근 일자리

(단위 : 명, %)

		사례수	① 관리자	② 전문가/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종 종사자	⑥ 농사· 어업· 축산업 종사자	⑦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차·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자
전 체		147	1.4	10.9	21.8	16.3	13.6	-	7.5	3.4	25.2
성별	남성	56	1.8	3.6	12.5	14.3	17.9	-	16.1	5.4	28.6
	여성	91	1.1	15.4	27.5	17.6	11.0	-	2.2	2.2	23.1
연령	20~24	42	4.8	4.8	7.1	23.8	14.3	-	4.8	2.4	38.1
	25~29	63	0.0	12.7	22.2	12.7	19.0	-	12.7	3.2	17.5
	30세 이상	42	0.0	14.3	35.7	14.3	4.8	-	2.4	4.8	23.8
취업 상태	취업자	98	2.0	13.3	19.4	16.3	15.3	-	8.2	3.1	22.4
	구직자	25	0.0	12.0	24.0	16.0	8.0	-	4.0	8.0	28.0
	포기자	24	0.0	0.0	29.2	16.7	12.5	-	8.3	0.0	33.3
부모님 출신	1명 외국 출신	99	0.0	11.1	24.2	16.2	16.2	-	7.1	3.0	22.2
	모두 외국 출신	48	4.2	10.4	16.7	16.7	8.3	-	8.3	4.2	31.3
한국어 수준	못함	9	0.0	0.0	0.0	0.0	0.0	-	0.0	33.3	66.7
	잘함	55	1.8	16.4	21.8	18.2	12.7	-	10.9	1.8	16.4
	매우 잘함	83	1.2	8.4	24.1	16.9	15.7	-	6.0	1.2	26.5
과거 일자리 개수	1개	66	1.5	6.1	24.2	7.6	16.7	-	9.1	4.5	30.3
	2개	28	0.0	14.3	17.9	25.0	10.7	-	3.6	3.6	25.0
	3개 이상	53	1.9	15.1	20.8	22.6	11.3	-	7.5	1.9	18.9

무급가족종사자 0.7% 순이었다. 남성(73.2%) 및 여성(61.5%) 모두 ② 비정규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남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훨씬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②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연령이 높을수록 ① 정규직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력이 낮을수록 ②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학력이 높을수록 ① 정규직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고용 형태 : 직전/최근 일자리

(단위 : 명,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프리랜서	무급가족 종사자	특수 고용직
전 체		147	27.2	66.0	4.1	0.7	2.0
성별	남성	56	23.2	73.2	0.0	1.8	1.8
	여성	91	29.7	61.5	6.6	0.0	2.2
연령	20~24	42	14.3	83.3	0.0	2.4	0.0
	25~29	63	27.0	69.8	1.6	0.0	1.6
	30세 이상	42	40.5	42.9	11.9	0.0	4.8
취업 상태	취업자	98	26.5	67.3	5.1	0.0	1.0
	구직자	25	32.0	52.0	4.0	4.0	8.0
	포기자	24	25.0	75.0	0.0	0.0	0.0
체류 자격	취업 불가	4	0.0	100.0	0.0	0.0	0.0
	조건부 취업 및 파트타임	13	15.4	69.2	7.7	0.0	7.7
	취업 가능	26	46.2	42.3	7.7	3.8	0.0
본인 국적	한국 국적	104	25.0	70.2	2.9	0.0	1.9
	외국 국적	43	32.6	55.8	7.0	2.3	2.3
최종 학력	고졸(중퇴) 이하	32	21.9	75.0	0.0	0.0	3.1
	전문대졸(중퇴/재학)	33	27.3	66.7	3.0	3.0	0.0
	4년제졸(중퇴/재학)	62	27.4	67.7	4.8	0.0	0.0
	대학원졸(중퇴/재학) 이상	20	35.0	45.0	10.0	0.0	10.0

직전/최근 일자리의 4대 보험 가입률은 직전/최근 일자리의 4대 보험 가입률은 55.8%였으며, 비가입률은 32.7%였다. 남성(58.9%)의 직전/최근 일자리의 4대 보험 가입률이 여성(53.8%)보다 약간 더 높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직전/최근 일자리의 4대 보험 가입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자 및 구직자들의 4대 보험 가입률이 포기자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자보다, 부모님 1명 외국 출신이 모두 외국 출신인 응답자보다 직전/최근 일자리에서 4대 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표 4-16〉 4대 보험 가입 여부 : 직전/최근 일자리

(단위 : 명, %)

		사례수	가입함	가입하지 않음	잘 모름
전 체		147	55.8	32.7	11.6
성별	남성	56	58.9	28.6	12.5
	여성	91	53.8	35.2	11.0
연령	20~24	42	45.2	38.1	16.7
	25~29	63	55.6	31.7	12.7
	30세 이상	42	66.7	28.6	4.8
취업 상태	취업자	98	57.1	34.7	8.2
	구직자	25	56.0	28.0	16.0
	포기자	24	50.0	29.2	20.8
본인 국적	한국 국적	104	59.6	26.9	13.5
	외국 국적	43	46.5	46.5	7.0
부모님 출신	1명 외국 출신	99	58.6	29.3	12.1
	모두 외국 출신	48	50.0	39.6	10.4
최종 학력	고졸(중퇴) 이하	32	46.9	31.3	21.9
	전문대졸(중퇴/재학)	33	69.7	24.2	6.1
	4년제졸(중퇴/재학)	62	53.2	35.5	11.3
	대학원졸(중퇴/재학) 이상	20	55.0	40.0	5.0

직전/최근 일자리에서 일주일 평균 34.8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은 36시간~40시간 이하가 3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35시간 이하 24.5%, 19시간 이하 13.6%, 46시간 이상 12.2%, 41시간~45시간 이하 11.6% 순이었다. 남성의 직전/최근 일자리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여성보다 7.6시간 더 길었다. 20~24세(평균 30.2시간)보다 25~29세(평균 37.4시간) 및 30세 이상(평균 35.3시간)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더 길었다. 직전/최근 일자리에서 1주 36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56명)가 시간제(파트타임) 일을 한 이유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50.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임금, 근로시간에 만족하여(21.4%)', '일 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8.9%)', '전일제 일자리보다 아르바

이트로 일하는 것을 선호해서' 및 '원하는 분야의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각각 7.1%), '체류자격에 적합한 일자리여서(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전/최근 일자리의 한달 평균 소득(월급)은 172.2만 원이었다. 구간별로는 100~200만 원 미만인 3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250만 원 미만 27.9%, 100만 원 미만 20.4%, 250~300만 원 미만 10.2% 순으로 나타났다.

나. 첫 일자리 특성

과거 일 경험이 있는 응답자(147명)의 생애 첫 일자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일자리 직종은 ⑨ 단순노무자가 26.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③ 사무종사자 20.4%, ⑤ 판매종사자 19.0%, ④ 서비스 종사자 16.3%, ② 전문가/관련 종사자 6.1%, ⑦ 기능원/관련 기능 종사자 및 ⑧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각각 5.4%, ① 관리자 0.7% 순이다. 남성의 첫 일자리는 ⑨ 단순노무자(28.6%) 다음으로 ⑤ 판매종사자(21.4%)가 많았고, 여성도 ⑨ 단순노무자(25.3%)의 비중이 높았지만 다음으로 ③ 사무종사자(24.2%)가 많았다. 20~24세는 ⑨ 단순노무자(40.5%)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5~29세는 ⑤ 판매종사자(25.4%), 30세 이상은 ③ 사무종사자(31.0%)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③ 사무종사자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님이 1명 외국 출신은 ③ 사무종사자(23.2%) 비중이 가장 높고(⑨ 단순노무자는 22.2%), 모두 외국 출신은 ⑨ 단순노무자(35.4%) 비중이 가장 높았다.

첫 일자리를 시작한 연령 평균적으로 22.5세였다. 첫 일자리를 시작한 20대 초반이 5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대 후반 23.8%, 20대 후반 19.7%, 30대 4.8% 순이었다. 남성은 평균 21.9세, 여성은 평균 22.9세에 첫 일자리를 시작하였다. 현재 연령이 높을수록 첫 일자리 시작 연령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 구성이 본인+배우자 등(자녀, 부모 포함)인 응답자의 첫 일자리 시작 연령이 평균적으로 4년 정도 늦게 나타났다. 한국어를 잘 할수록 첫 일자리를 빨리 시작하는 편으로, 잘못하는 경우 26.3세, 잘하는

〈표 4-17〉 일자리 직종 : 첫 일자리

(단위 : 명, %)

		사례수	① 관리자	② 전문가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종 종사자	⑥ 농사· 어업· 축산업 종사자	⑦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자
전 체		147	0.7	6.1	20.4	16.3	19.0	-	5.4	5.4	26.5
성별	남성	56	1.8	1.8	14.3	12.5	21.4	-	10.7	8.9	28.6
	여성	91	0.0	8.8	24.2	18.7	17.6	-	2.2	3.3	25.3
연령	20~24	42	2.4	4.8	9.5	19.0	16.7	-	4.8	2.4	40.5
	25~29	63	0.0	7.9	20.6	14.3	25.4	-	7.9	7.9	15.9
	30세 이상	42	0.0	4.8	31.0	16.7	11.9	-	2.4	4.8	28.6
취업 상태	취업자	98	1.0	8.2	19.4	16.3	20.4	-	4.1	6.1	24.5
	구직자	25	0.0	4.0	16.0	16.0	20.0	-	8.0	8.0	28.0
	포기자	24	0.0	0.0	29.2	16.7	12.5	-	8.3	0.0	33.3
본인 국적	한국 국적	104	0.0	4.8	21.2	17.3	22.1	-	4.8	4.8	25.0
	외국 국적	43	2.3	9.3	18.6	14.0	11.6	-	7.0	7.0	30.2
부모님 출신	1명 외국 출신	99	0.0	7.1	23.2	17.2	21.2	-	4.0	5.1	22.2
	모두 외국 출신	48	2.1	4.2	14.6	14.6	14.6	-	8.3	6.3	35.4

경우 23.5세, 매우 잘하는 경우 21.4세에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에서 평균적으로 14.0개월 동안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비중을 보면, 근무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이 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개월 미만 26.5%, 1년~2년 미만 25.2%, 2년~3년 미만 12.2%, 3년 이상 7.5% 순이었다. 남성은 평균 12.2개월, 여성은 평균 15.2개월 근무하여 여성이 3.0개월 더 오래 근무하였다. 첫 일자리 근무기간은 취업자(15.0개월)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직자는 근무기간이 평균 12.3개월, 포기자는 평균 11.8개월이었다. 한국 국적자(평균 14.7개월)가 외국 국적자(평균 12.3개월)보다 첫 일자리에서 평균 2.4개월 더 근무하였다. 본인+부모 등(평균 8.9개월)과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본인+배우자 등(평균 21.2개월) 및 혼자 사는 응답자(평균 15.5개월)의 첫 일자리 근무기간이 더 길었다. 본인+부모 등

과 거주하는 응답자는 근무기간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첫 일자리의 고용 형태는 ② 비정규직이 6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① 정규직 25.2%, ③ 자영업/프리랜서 3.4%, ⑤ 특수고용직 2.0%, ④ 무급가족종사자 1.4% 순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의 4대 보험 가입률은 46.3%였으며, 비가입률은 38.1%이었다. 남성의 첫 일자리 4대 보험 가입률이 여성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24세(21.4%)보다 25~29세(55.6%) 및 30세 이상(57.1%)에서 훨씬 높았다. 외국 국적자보다 한국 국적자의 4대 보험 가입률이 훨씬 높다.

〈표 4-18〉 고용 형태 : 첫 일자리

(단위 : 명,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프리랜서	무급가족 종사자	특수 고용직
전 체		147	25.2	68.0	3.4	1.4	2.0
성별	남성	56	25.0	67.9	1.8	1.8	3.6
	여성	91	25.3	68.1	4.4	1.1	1.1
연령	20~24	42	9.5	83.3	4.8	2.4	0.0
	25~29	63	28.6	69.8	0.0	0.0	1.6
	30세 이상	42	35.7	50.0	7.1	2.4	4.8

〈표 4-19〉 4대 보험 가입 여부 : 첫 일자리

(단위 : 명, %)

		사례수	가입함	가입하지 않음	잘 모름
전 체		147	46.3	38.1	15.6
성별	남성	56	57.1	30.4	12.5
	여성	91	39.6	42.9	17.6
연령	20~24	42	21.4	47.6	31.0
	25~29	63	55.6	33.3	11.1
	30세 이상	42	57.1	35.7	7.1
본인 국적	한국 국적	104	51.9	29.8	18.3
	외국 국적	43	32.6	58.1	9.3

첫 일자리에서 일주일 평균 35.0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36시간~40시간 이하가 3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시간~35시간 이하 23.8%, 46시간 이상 15.6%, 19시간 이하 15.0%, 41시간~45시간 이하 10.9% 순이었다. 첫 일자리에서 1주 36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57명)가 시간제(파트타임) 일을 한 이유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52.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임금, 근로시간에 만족하여(26.3%)', '전일제 일자리보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을 선호해서', '원하는 분야의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및 '일 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각각 5.3%),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어서(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의 한달 평균 소득은 157.8만 원이었다. 100~200만 원 미만이 3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만 원 미만 27.9%, 200~250만 원 미만 21.1%, 250~300만 원 미만 8.2% 순이었다. 남성(189.5만 원)이 여성(138.5만 원)보다 첫 일자리에서 평균 51.0만 원 더 많이 받았으며, 현재 구직자(평균 167.6만 원) 및 취업자(평균 161.6만 원)의 첫 일자리 소득(월급)이 포기자(평균 132.8만 원)보다 더 높았다.

다. 가장 길게 한 일자리 특성

과거에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147명)를 대상으로 가장 길게 한 일자리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길게 한 일자리의 직종은 ⑨ 단순노무자가 2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③ 사무종사자 22.4%, ④ 서비스 종사자 19.0%, ⑤ 판매종사자 13.6%, ② 전문가/관련 종사자 8.8%, ⑦ 기능원/관련 기능 종사자 6.8%, ⑧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4.8%, ① 관리자 0.7% 순이다. 남성이 가장 길게 한 일자리는 ⑨ 단순노무자(26.8%)가 가장 많은 반면, 여성은 ③ 사무종사자(27.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세는 ⑨ 단순노무자(35.7%)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25~29세 및 30세 이상은 ③ 사무종사자(각각 23.8%, 35.7%)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길게 한 일자리 역시 연령이 많을수록 ③ 사무종사자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외국 국적자 및 부모님 모두 외국 출신은 ⑨ 단순노무자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한국 국적자

〈표 4-20〉 일자리 직종 : 가장 길게 한 일자리

(단위 : 명, %)

		사례수	① 관리자	② 전문가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종 사자	⑥ 농사· 어업· 축산업 종사자	⑦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자
전 체		147	0.7	8.8	22.4	19.0	13.6	0.7	6.8	4.8	23.1
성별	남성	56	1.8	3.6	14.3	17.9	16.1	0.0	12.5	7.1	26.8
	여성	91	0.0	12.1	27.5	19.8	12.1	1.1	3.3	3.3	20.9
연령	20~24	42	2.4	2.4	7.1	31.0	14.3	0.0	4.8	2.4	35.7
	25~29	63	0.0	14.3	23.8	12.7	17.5	0.0	11.1	6.3	14.3
	30세 이상	42	0.0	7.1	35.7	16.7	7.1	2.4	2.4	4.8	23.8
본인 국적	한국 국적	104	0.0	8.7	24.0	18.3	17.3	0.0	5.8	3.8	22.1
	외국 국적	43	2.3	9.3	18.6	20.9	4.7	2.3	9.3	7.0	25.6
부모님 출신	1명 외국 출신	99	0.0	10.1	24.2	20.2	16.2	0.0	5.1	4.0	20.2
	모두 외국 출신	48	2.1	6.3	18.8	16.7	8.3	2.1	10.4	6.3	29.2
한국어 수준	못함	9	0.0	0.0	0.0	0.0	0.0	0.0	0.0	33.3	66.7
	잘함	55	1.8	10.9	23.6	20.0	10.9	1.8	10.9	3.6	16.4
	매우 잘함	83	0.0	8.4	24.1	20.5	16.9	0.0	4.8	2.4	22.9

및 부모님 1명 외국 출신은 ③ 사무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장 길게 한 일자리를 시작한 평균 연령은 23.3세였다. 20대 초반이 5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후반 23.1%, 10대 후반 14.3%, 30대 7.5% 순이었다. 가장 길게 한 일자리의 평균 근무기간은 18.1개월이었다. 1년~2년 미만인 3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개월~1년 미만 22.4%, 6개월 미만 18.4%, 2년~3년 미만 12.9%, 3년 이상 12.9% 순이었다. 남성은 평균 15.1개월, 여성은 평균 19.9개월 근무하여 여성이 4.7개월 더 길게 근무하였다. 연령이 많을수록 가장 길게 한 일자리 근무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20~24세의 10.0개월에 비해 30세 이상은 19.8개월이나 긴 29.8개월이었다. 한국 국적자는 근무기간이 평균 19.3개월, 외국 국적자는 15.0개월로 한국 국적자의 근무기간이 4.3개월 더 길었고, 한국어 잘함 응답자

〈표 4-21〉 고용 형태 : 가장 길게 한 일자리

(단위 : 명,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프리랜서	무급가족 종사자	특수 고용직
전 체		147	29.9	61.9	4.8	0.7	2.7
성별	남성	56	30.4	66.1	0.0	1.8	1.8
	여성	91	29.7	59.3	7.7	0.0	3.3
연령	20~24	42	14.3	81.0	2.4	2.4	0.0
	25~29	63	33.3	61.9	3.2	0.0	1.6
	30세 이상	42	40.5	42.9	9.5	0.0	7.1
취업 상태	취업자	98	31.6	61.2	5.1	0.0	2.0
	구직자	25	32.0	52.0	4.0	4.0	8.0
	포기자	24	20.8	75.0	4.2	0.0	0.0
본인 국적	한국 국적	104	29.8	64.4	2.9	0.0	2.9
	외국 국적	43	30.2	55.8	9.3	2.3	2.3
한국어 수준	못함	9	11.1	77.8	0.0	0.0	11.1
	잘함	55	34.5	52.7	7.3	1.8	3.6
	매우 잘함	83	28.9	66.3	3.6	0.0	1.2

는 평균 19.7개월, 매우 잘함은 평균 17.3개월로 잘하는 응답자가 평균 2.4개월 더 근무하였다. 가장 길게 한 일자리의 고용 형태는 ② 비정규직이 6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① 정규직 29.9%, ③ 자영업/프리랜서 4.8%, ⑤ 특수고용직 2.7%, ④ 무급가족종사자 0.7% 순이었다. 가장 길게 한 일자리의 4대 보험 가입률은 52.4%였으며, 비가입률은 33.3%였다.

가장 길게 한 일자리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35.3시간이었다. 36시간 ~ 40시간 이하가 3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시간~35시간 이하 24.5%, 46시간 이상 14.3%, 19시간 이하 12.9%, 41시간~45시간 이하 12.2% 순이었다. 남성(39.0시간)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여성(33.1시간)보다 평균 5.9시간 더 길었다. 가장 길게 한 일자리에서 1주 36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55명)가 시간제(파트타임) 일을 한 이유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54.5%)'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임금,

근로시간에 만족하여(23.6%)', '전일제 일자리보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을 선호해서' 및 '원하는 분야의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각각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릴수록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의 비중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임금, 근로시간에 만족하여'의 응답이 많았다. 가장 길게 한 일자리의 한달 평균 소득(월급)은 165.2만 원이었다. 남성(평균 190.9만 원)이 여성(평균 149.7만 원)보다 평균 41.2만 원 더 받았다.

제4절 미래 일자리 계획

1. 미래 일자리 계획

향후 직업계획은 <표 4-22>와 같다. 외국 국적자(79명)의 경우, 체류자격이 바뀐다면 현재 또는 희망하는 직업이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과 '아니다'는 의견이 비슷하였다.

현재 취업자(170명)의 향후 직업 계획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갖고 싶다(86.5%)'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싶다(82.9%)', '전문직 일자리를 갖고 싶다(74.1%)' 순이며,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50.6%)'라고 응답하였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갖고 싶다'는 20~24세(98.0%), 월 평균 가구소득 300~400만 원 미만(90.4%), 본인+부모 등과 함께 거주자(91.7%), 한국어를 매우 잘하는 응답자(90.4%), 과거 일자리 개수 3개 이상(93.5%)인 경우에서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는 최종 학력이 고졸(중퇴) 이하(62.8%) 및 혼자 거주하는 응답자(63.2%)의 '그렇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싶다'는 외국 국적자(90.6%), 체류자격 취업 가능자(90.9%) 및 과거 일자리 개수 3개 이상(90.3%) 응답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 일자리를 갖고 싶다'는 비중 또한 높아

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대학원졸(중퇴/재학) 이상에서는 100%가 전문직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 국적자(81.2%)보다는 외국 국적자(90.6%)가, 부모 1명 외국 출신(81.3%)보다는 모두 외국 출신(88.9%)에서 전문직을 더 희망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324명)의 26.9%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여, 4명 중 1명 정도가 해외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조건부 취업 및 파트타임(56.3%), 외국 국적자(38.0%)에서 해외 취업 희망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를 '한다'가 40.4%, '없다'가 59.6%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약간 더 많았다. 희망 일자리에 대해 남성(33.3%)보다 여성(45.5%)이 준비율이 더 높고, 25~29세(44.9%)가 20~24세(35.8%) 및 30세 이상(37.0%)보다 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57.7%)의 준비율이 포기자(39.8%) 및 취업자(33.5%) 대비 가장 높으며, 한국 국적자(36.3%)보다 외국 국적자(53.2%)가,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희망 일자리를 준비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혼자

〈표 4-22〉 향후 직업 계획

(단위: 명, %)

	사례수	전 체	
		아니다	그렇다
① 체류자격이 바뀐다면, 현재 직업이/희망하는 직업이/직업 계획이 달라질 것이다(외국 국적자)	79	50.6	49.4
②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갖고 싶다(취업자)	170	13.5	86.5
③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취업자)	170	49.4	50.6
④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싶다(취업자)	170	17.1	82.9
⑤ 전문직 일자리를 갖고 싶다(취업자)	170	25.9	74.1
⑥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싶다(전체)	324	73.1	26.9

주: 1) 외국 국적자에게만 질문함.

2) 취업자에게는 '체류자격이 바뀐다면, 직업이 달라질 것이다', 구직자는 '체류자격이 바뀐다면, 희망하는 직업이 달라질 것이다', 포기자는 '체류자격이 바뀐다면, 희망하는 직업 또는 직업 계획이 달라질 것이다'로 질문.

〈표 4-23〉 향후 직업 계획 : ‘그렇다’ 응답 비율

(단위 : 명, %)

		외국 국적자		현재 취업자					전 체	
		사례 수	①	사례 수	②	③	④	⑤	사례 수	⑥
			체류자격 변화로 직업/희망 직업/ 직업 계획 변화		보수 높은 일자리	자영업/ 프리랜 서 희망	안정적 일자리 희망	전문직 일자리 희망		한국 외 다른 나라 근무 희망
전 체		79	49.4	170	86.5	50.6	82.9	74.1	324	26.9
성별	남성	29	51.7	69	82.6	53.6	79.7	69.6	135	31.9
	여성	50	48.0	101	89.1	48.5	85.1	77.2	189	23.3
연령	20~24	29	51.7	50	98.0	56.0	90.0	66.0	95	28.4
	25~29	26	57.7	81	81.5	48.1	77.8	76.5	156	25.6
	30세 이상	24	37.5	39	82.1	48.7	84.6	79.5	73	27.4
취업 상태	취업자	32	34.4	170	86.5	50.6	82.9	74.1	170	25.9
	구직자	21	57.1	-	-	-	-	-	71	22.5
	포기자	26	61.5	-	-	-	-	-	83	32.5
체류 자격	취업 불가	14	50.0	2	100.0	50.0	100.0	50.0	14	14.3
	조건부 취업 및 파트타임	32	81.3	8	87.5	62.5	87.5	100.0	32	56.3
	취업 가능	33	18.2	22	72.7	50.0	90.9	81.8	33	30.3
본인 국적	한국 국적	-	-	138	88.4	50.0	81.2	71.7	245	23.3
	외국 국적	79	-	32	78.1	53.1	90.6	84.4	79	38.0
최종 학력	고졸(중퇴) 이하	14	28.6	43	76.7	62.8	69.8	44.2	73	27.4
	전문대졸(중퇴/재학)	13	46.2	36	94.4	50.0	88.9	75.0	59	22.0
	4년제졸(중퇴/재학)	25	44.0	74	87.8	41.9	83.8	85.1	152	26.3
	대학원졸(중퇴/재학) 이상	27	66.7	17	88.2	58.8	100.0	100.0	40	35.0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8	50.0	2	50.0	50.0	100.0	100.0	42	21.4
	100~200만 원 미만	22	59.1	17	82.4	58.8	82.4	88.2	42	26.2
	200~300만 원 미만	24	41.7	46	87.0	47.8	80.4	71.7	72	29.2
	300~400만 원 미만	19	52.6	94	90.4	51.1	84.0	73.4	119	29.4
	500만 원 이상	6	33.3	11	63.6	45.5	81.8	63.6	49	22.4

〈표 4-23〉의 계속

		외국 국적자		현재 취업자					전 체	
		사례 수	①	사례 수	②	③	④	⑤	사례 수	⑥
			체류자격 변화로 직업/희망 직업/ 직업 계획 변화		보수 높은 일자리	자영업/ 프리랜 서 희망	안정적 일자리 희망	전문직 일자리 희망		
가구 구성	혼자	31	58.1	57	82.5	63.2	80.7	82.5	114	31.6
	본인+부모 등	20	40.0	72	91.7	47.2	84.7	63.9	138	24.6
	본인+배우자 등	19	42.1	29	79.3	44.8	82.8	75.9	52	21.2
	그 외	9	55.6	12	91.7	25.0	83.3	91.7	20	30.0
한국어 수준	못함	21	57.1	7	71.4	28.6	71.4	42.9	27	33.3
	잘함	40	52.5	59	81.4	54.2	84.7	78.0	112	32.1
	매우 잘함	18	33.3	104	90.4	50.0	82.7	74.0	185	22.7
과거 일자리 개수	0개	36	55.6	72	88.9	56.9	79.2	61.1	177	23.7
	1개	16	43.8	43	76.7	39.5	83.7	76.7	66	31.8
	2개	8	62.5	24	87.5	62.5	83.3	91.7	28	32.1
	3개 이상	19	36.8	31	93.5	41.9	90.3	87.1	53	28.3

〈표 4-24〉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개인적 준비 여부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324	40.4	59.6
성별	남성	135	33.3	66.7
	여성	189	45.5	54.5
연령	20~24	95	35.8	64.2
	25~29	156	44.9	55.1
	30세 이상	73	37.0	63.0
취업 상태	취업자	170	33.5	66.5
	구직자	71	57.7	42.3
	포기자	83	39.8	60.2
본인 국적	한국 국적	245	36.3	63.7
	외국 국적	79	53.2	46.8

〈표 4-24〉의 계속

		사례수	있다	없다
최종 학력	고졸(중퇴) 이하	73	21.9	78.1
	전문대졸(중퇴/재학)	59	35.6	64.4
	4년제졸(중퇴/재학)	152	46.7	53.3
	대학원졸(중퇴/재학) 이상	40	57.5	42.5
가구 구성	혼자	114	37.7	62.3
	본인+부모 등	138	39.1	60.9
	본인+배우자 등	52	46.2	53.8
	그 외	20	50.0	50.0
한국어 수준	못함	27	29.6	70.4
	잘함	112	42.0	58.0
	매우 잘함	185	41.1	58.9
과거 일자리 개수	0개	177	33.3	66.7
	1개	66	39.4	60.6
	2개	28	53.6	46.4
	3개 이상	53	58.5	41.5

(37.7%) 및 본인+부모 등(39.1%) 거주자보다 본인+배우자 등(46.2%)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의 준비율이 높고, 과거 일자리 경험 개수가 3개 이상(58.5%)에서 준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준비 중인 경우(131명), 구체적인 준비 내용은 ‘자격증 취득을 준비(60.3%)’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또는 직업훈련(47.3%)’, ‘대학교/대학원 등 학업을 병행(20.6%)’, ‘안정적인 체류자격 획득을 위한 준비’ 및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할 준비’(각각 4.6%), ‘창업 교육(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자와 부모님이 모두 외국 출신인 응답자는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 준비는 남성(51.1%)보다 여성(65.1%)이 더 비중이 높고, 다른 연령층보다 25~29세(64.3%)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다. 20~24세(47.1%)는 자격증 준비 다음으로 대학교/대학원 등 학업 병행이 많았는데 이는 조사 대상으로 학업

중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인다. ‘대학교/대학원 등 학업을 병행한다’는 취업자(15.8%)나 구직자(7.3%) 대비 포기자(45.5%)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25〉 더 나은 일자리 취득 준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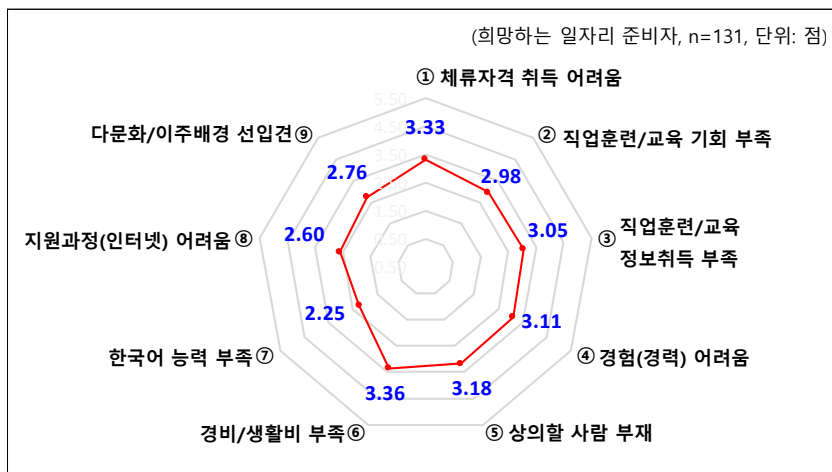
(단위 : 명, 중복응답 %)

		사례수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한 교육 또는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	창업 교육	대학교/ 대학원 등 학업을 병행	안정적인 채류자격 획득을 위한 준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할 준비	기타	사례수	현재 일자리 에서 경력 쌓기*
전 체		131	47.3	60.3	3.8	20.6	4.6	4.6	0.8	18	31.6
성별	남성	45	42.2	51.1	6.7	33.3	4.4	6.7	2.2	6	35.3
	여성	86	50.0	65.1	2.3	14.0	4.7	3.5	0.0	12	30.0
연령	20~24	34	29.4	55.9	8.8	47.1	0.0	11.8	2.9	4	28.6
	25~29	70	57.1	64.3	2.9	12.9	2.9	2.9	0.0	8	26.7
	30세 이상	27	44.4	55.6	0.0	7.4	14.8	0.0	0.0	6	46.2
취업 상태	취업자	57	40.4	59.6	3.5	15.8	0.0	5.3	0.0	18	31.6
	구직자	41	61.0	68.3	4.9	7.3	7.3	4.9	2.4	-	-
	포기자	33	42.4	51.5	3.0	45.5	9.1	3.0	0.0	-	-
본인 국적	한국 국적	89	46.1	69.7	1.1	19.1	2.2	2.2	1.1	13	35.1
	외국 국적	42	50.0	40.5	9.5	23.8	9.5	9.5	0.0	5	25.0
부모님 출신	1명 외국 출신	87	44.8	65.5	3.4	19.5	3.4	3.4	1.1	11	30.6
	모두 외국 출신	44	52.3	50.0	4.5	22.7	6.8	6.8	0.0	7	33.3
최종 학력	고졸(중퇴) 이하	16	37.5	43.8	18.8	6.3	18.8	0.0	6.3	2	33.3
	전문대졸 (중퇴/재학)	21	38.1	76.2	4.8	19.0	0.0	4.8	0.0	2	22.2
	4년제졸(중퇴/재학)	71	47.9	67.6	1.4	19.7	1.4	5.6	0.0	9	30.0
	대학원졸 (중퇴/재학) 이상	23	60.9	34.8	0.0	34.8	8.7	4.3	0.0	5	41.7
한국어 수준	못함	8	62.5	0.0	25.0	12.5	37.5	0.0	0.0	0	0.0
	잘함	47	44.7	51.1	4.3	19.1	6.4	6.4	0.0	9	34.6
	매우 잘함	76	47.4	72.4	1.3	22.4	0.0	3.9	1.3	9	30.0

주 : 취업자에게만 질문함.

더 나은 일자리를 얻는 데 겪는 어려움을 5점 만점으로 확인 결과, ⑥ 필요한 경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다(3.36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얻는 게 어렵다(3.33점, 외국 국적자(42명)만 질문함), ⑤ 취업 등에 대해 상의할 사람이 없다(3.18점), ④ 필요한 경험(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3.11점), ③ 직업훈련이나 교육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3.05점), ②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2.98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⑦ 업무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2.25점), ⑧ 일자리에 지원하는 과정(인터넷 지원 신청 등)이 어렵다(2.60점), ⑨ 다문화/이주배경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2.76점)는 점에서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외국인 국적자(42명)는 남성(3.60점), 20~24세(3.59점), 구직자(3.80점), 조건부 취업 및 파트타임 체류 자격자(3.88점), 혼자 거주자(3.73점)에서 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얻는 게 어렵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4-3] 더 나은 일자리 취득의 애로사항



주: 어려움의 정도는 1점 전혀 어렵지 않다~5점 매우 어렵다로 측정됨.

2. 구직자와 포기자의 일자리 탐색과 희망 일자리 특성

구직자들(71명)은 평균 1년 정도(12.7개월) 일자리를 탐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2년 미만(38.0%)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6개월~1년 미만(25.4%), 6개월 미만(22.5%), 2년~3년 미만(11.3%), 3년 이상(2.8%) 순이었다. 남성은 평균 10.7개월, 여성은 평균 14.2개월로 여성의 일자리 탐색 기간이 더 길었다. 외국 국적자(7.9개월)보다는 한국 국적자(14.8개월)가, 부모 모두 외국 출신(9.9)보다는 1명 외국 출신(13.9)인 경우가 구직기간이 더 길었으며, 한국어를 잘할수록 구직기간이 더 길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구직자들의 절반 이상(54.9%)은 '구인공고(잡코리아, 알바천국, 알바몬, 회사 구인공고 등)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보(고용센터, 워크넷 등)를 통해(21.1%)', '다문화/외국인/이주배경 지원 단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9.9%)', '학교, 교사, 교수, 교육기관 소개 등을 통해' 및 '주변 지인/가족의 소개를 통해'(각각 7.0%) 순으로 이용하였다.

나중에 일할 생각은 있지만,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은 포기자들(83명)이 현재 일자리를 찾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기관(학원, 학교 등)/훈련기관 다니고 있음(42.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냥 쉬고 있음(21.7%)', '자격증/시험 준비 중(9.6%)', '심리적 어려움(6.0%)', '육아/가사로 인하여' 및 '몸이 아파서'(각각 4.8%), '체류자격/비자 문제로(3.6%)'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포기자의 54.2%는 교육기관(학원, 학교 등)/훈련기관 다니고 있거나(42.2%), 자격증/시험 준비 중(9.6%) 또는 사업 준비 중(2.4%)으로 이들은 곧 구직자로 전환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포기자 중 향후 1년 이내 또는 학교를 졸업한 후 일자리 구직 의향은 '있다' 68.7%, '없다' 31.3%로 구직 의향 있는 포기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 모두 외국 출신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구직 의향이 높은 편이었다.

〈표 4-26〉 일자리 비탐색 이유(포기자)

(단위 : 명, %)

		사례수	① 교육/ 훈련 기관	② 그냥 쉬고 있음	③ 자격증/ 시험 준비	④ 심리적 어려움	⑤ 육아/ 가사	⑥ 몸이 아파서	⑦ 채류 자격/ 비자	⑧ 사업 준비	⑨ 취업 포기 때문	⑩ 가족 돌봐야 해서	⑪ 기타
전 체		83	42.2	21.7	9.6	6.0	4.8	4.8	3.6	2.4	2.4	1.2	1.2
성별	남성	37	45.9	24.3	8.1	5.4	0.0	0.0	0.0	5.4	5.4	2.7	2.7
	여성	46	39.1	19.6	10.9	6.5	8.7	8.7	6.5	0.0	0.0	0.0	0.0
연령	20~24	29	65.5	10.3	13.8	0.0	0.0	0.0	6.9	0.0	0.0	0.0	3.4
	25~29	36	33.3	27.8	8.3	11.1	5.6	5.6	2.8	0.0	2.8	2.8	0.0
	30세 이상	18	22.2	27.8	5.6	5.6	11.1	11.1	0.0	11.1	5.6	0.0	0.0
본인 국적	한국 국적	57	35.1	26.3	12.3	8.8	1.8	5.3	0.0	3.5	3.5	1.8	1.8
	외국 국적	26	57.7	11.5	3.8	0.0	11.5	3.8	11.5	0.0	0.0	0.0	0.0
최종 학력	고졸(중퇴) 이하	16	12.5	12.5	18.8	12.5	6.3	6.3	12.5	0.0	6.3	6.3	6.3
	전문대졸 (중퇴/재학)	10	50.0	10.0	20.0	0.0	10.0	0.0	0.0	10.0	0.0	0.0	0.0
	4년제졸(중퇴/재학)	42	38.1	33.3	4.8	7.1	2.4	7.1	2.4	2.4	2.4	0.0	0.0
	대학원졸 (중퇴/재학) 이상	15	80.0	6.7	6.7	0.0	6.7	0.0	0.0	0.0	0.0	0.0	0.0
가구 구성	혼자	29	48.3	24.1	6.9	10.3	0.0	3.4	3.4	3.4	0.0	0.0	0.0
	본인+부모 등	37	40.5	27.0	8.1	2.7	0.0	2.7	5.4	2.7	5.4	2.7	2.7
	본인+배우자 등	13	30.8	0.0	15.4	7.7	30.8	15.4	0.0	0.0	0.0	0.0	0.0
	그 외	4	50.0	25.0	25.0	0.0	0.0	0.0	0.0	0.0	0.0	0.0	0.0
한국어 수준	못함	10	50.0	20.0	10.0	10.0	0.0	0.0	10.0	0.0	0.0	0.0	0.0
	잘함	39	25.6	28.2	10.3	10.3	5.1	10.3	5.1	0.0	2.6	2.6	0.0
	매우 잘함	34	58.8	14.7	8.8	0.0	5.9	0.0	0.0	5.9	2.9	0.0	2.9
과거 일자리 개수	0개	59	32.2	28.8	13.6	6.8	1.7	5.1	5.1	0.0	3.4	1.7	1.7
	1개	11	81.8	9.1	0.0	0.0	9.1	0.0	0.0	0.0	0.0	0.0	0.0
	2개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개 이상	12	50.0	0.0	0.0	8.3	16.7	8.3	0.0	16.7	0.0	0.0	0.0

〈표 4-27〉 향후 1년 내(또는 졸업 후) 구직 의향(포기자)

(단위: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83	68.7	31.3
성별	남성	37	62.2	37.8
	여성	46	73.9	26.1
연령	20~24	29	86.2	13.8
	25~29	36	61.1	38.9
	30세 이상	18	55.6	44.4
본인 국적	한국 국적	57	64.9	35.1
	외국 국적	26	76.9	23.1
부모님 출신	1명 외국 출신	56	66.1	33.9
	모두 외국 출신	27	74.1	25.9
최종 학력	고졸(중퇴) 이하	16	62.5	37.5
	전문대졸(중퇴/재학)	10	80.0	20.0
	4년제졸(중퇴/재학)	42	64.3	35.7
	대학원졸(중퇴/재학) 이상	15	80.0	20.0

구직자 71명과 향후 1년 이내 구직 희망이 있는 포기자 57명이 희망하는 일자리 직종은 ③ 사무종사자(39.8%)가 가장 많이 많았고, 다음으로 ② 전문가/관련 종사자(21.9%), ④ 서비스 종사자(14.1%), ① 관리자(6.3%), ⑤ 판매 종사자 및 ⑦ 기능원/관련 기능 종사자(각각 5.5%), ⑨ 단순노무자(4.7%), ⑧ 장치·기계 조작/조립 종사자(2.3%)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28.8%) 및 여성(47.4%) 모두 ③ 사무종사자를 가장 희망하였으나 여성에서 그 비중이 훨씬 높고, 남성의 경우 ② 전문가/관련 종사 희망자(26.9%)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 및 향후 1년 이내 구직을 희망하는 포기자의 88.3%가 고용 형태로 ① 정규직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② 비정규직 6.3%, ③ 자영업/프리랜서 5.5%의 순이었다. 남성(92.3%)과 25~29세(95.1%)에서 정규직 희망 비중이 훨씬 높았다. 외국 국적자보다 한국 국적자들이, 부모님이 모두 외국 출신인 응답자보다 1명 외국 출신인 응답자들의 정규직 희

망 비중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이 취업 불가인 경우에서 자영업/프리랜서를 희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어를 잘할수록 정규직, 못할수록 비정규직을 희망하는 비중이 높았다.

〈표 4-28〉 희망 일자리 직종(구직자 및 포기자)

(단위 : 명, %)

		사례수	① 관리자	② 전문가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종 사자	⑥ 농사· 어업· 축산업 종사자	⑦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자
전 체		128	6.3	21.9	39.8	14.1	5.5	-	5.5	2.3	4.7
성별	남성	52	7.7	26.9	28.8	13.5	7.7	-	5.8	3.8	5.8
	여성	76	5.3	18.4	47.4	14.5	3.9	-	5.3	1.3	3.9
연령	20~24	41	9.8	19.5	34.1	19.5	4.9	-	2.4	2.4	7.3
	25~29	61	3.3	21.3	44.3	11.5	8.2	-	6.6	3.3	1.6
	30세 이상	26	7.7	26.9	38.5	11.5	0.0	-	7.7	0.0	7.7
취업 상태	구직자	71	5.6	18.3	39.4	16.9	7.0	-	5.6	2.8	4.2
	포기자	57	7.0	26.3	40.4	10.5	3.5	-	5.3	1.8	5.3
본인 국적	한국 국적	87	5.7	20.7	46.0	13.8	5.7	-	3.4	2.3	2.3
	외국 국적	41	7.3	24.4	26.8	14.6	4.9	-	9.8	2.4	9.8
최종 학력	고졸(중퇴) 이하	24	4.2	0.0	16.7	25.0	12.5	-	25.0	4.2	12.5
	전문대졸 (중퇴/재학)	21	4.8	19.0	38.1	23.8	4.8	-	4.8	4.8	0.0
	4년제졸(중퇴/재학)	63	6.3	22.2	54.0	6.3	4.8	-	0.0	1.6	4.8
	대학원졸 (중퇴/재학) 이상	20	10.0	50.0	25.0	15.0	0.0	-	0.0	0.0	0.0
한국어 수준	못함	17	5.9	17.6	17.6	17.6	5.9	-	17.6	5.9	11.8
	잘함	36	11.1	13.9	41.7	11.1	5.6	-	5.6	0.0	11.1
	매우 잘함	75	4.0	26.7	44.0	14.7	5.3	-	2.7	2.7	0.0

〈표 4-29〉 희망 고용 형태(구직자 및 포기자)

(단위 : 명, %)

		사례수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③ 자영업/프리랜서
전 체		128	88.3	6.3	5.5
성별	남성	52	92.3	5.8	1.9
	여성	76	85.5	6.6	7.9
연령	20~24	41	78.0	17.1	4.9
	25~29	61	95.1	1.6	3.3
	30세 이상	26	88.5	0.0	11.5
취업 상태	구직자	71	88.7	5.6	5.6
	포기자	57	87.7	7.0	5.3
체류 자격	취업 불가	11	63.6	18.2	18.2
	조건부 취업 및 파트타임	21	71.4	14.3	14.3
	취업 가능	9	77.8	22.2	0.0
본인 국적	한국 국적	87	96.6	1.1	2.3
	외국 국적	41	70.7	17.1	12.2
한국어 수준	못함	17	64.7	23.5	11.8
	잘함	36	86.1	8.3	5.6
	매우 잘함	75	94.7	1.3	4.0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40.5시간이며, 희망 소득은 월 평균 281.3만 원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희망 소득(월급)(평균 300.2만 원)이 여성(평균 268.4만 원)보다 31.8만 원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어를 잘할수록 희망 소득(월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희망하는 일자리의 회사 위치는 수도권이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 외 지역 25.8%,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 24.2%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65.4%가 수도권을 희망하는 반면, 여성은 수도권(39.5%), 광역시(30.3%) 및 그 외 지역(30.3%)을 고루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직업훈련 참여 수요

본 조사에 응답한 이주배경 청년의 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참여 경험률은 29.3%로 낮은 편이었다. 남성(23.7%)보다 여성(33.3%)의 경험률이 약 10% 정도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경험률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자(25.3%)와 포기자(26.5%)의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경험률보다 구직자(42.3%)의 경험률이 훨씬 높았다. 체류자격이 조건부 취업 및 파트타임인 경우, 외국 국적인 경우, 월 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본인+배우자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을 경험한 비중이 높았다.

〈표 4-30〉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참여 경험

(단위: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324	29.3	70.7
성별	남성	135	23.7	76.3
	여성	189	33.3	66.7
연령	20~24	95	27.4	72.6
	25~29	156	29.5	70.5
	30세 이상	73	31.5	68.5
취업 상태	취업자	170	25.3	74.7
	구직자	71	42.3	57.7
	포기자	83	26.5	73.5
체류 자격	취업 불가	14	42.9	57.1
	조건부 취업 및 파트타임	32	25.0	75.0
	취업 가능	33	39.4	60.6
본인 국적	한국 국적	245	27.8	72.2
	외국 국적	79	34.2	65.8
최종 학력	고졸(중퇴) 이하	73	30.1	69.9
	전문대졸(중퇴/재학)	59	30.5	69.5
	4년제졸(중퇴/재학)	152	27.6	72.4
	대학원졸(중퇴/재학) 이상	40	32.5	67.5

〈표 4-30〉의 계속

		사례수	있다	없다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42	50.0	50.0
	100~200만 원 미만	42	23.8	76.2
	200~300만 원 미만	72	38.9	61.1
	300~400만 원 미만	119	20.2	79.8
	500만 원 이상	49	24.5	75.5
가구 구성	혼자	114	36.8	63.2
	본인+부모 등	138	18.8	81.2
	본인+배우자 등	52	44.2	55.8
	그 외	20	20.0	80.0
한국어 수준	못함	27	40.7	59.3
	잘함	112	31.3	68.8
	매우 잘함	185	26.5	73.5

이주배경 청년의 과반수(54.0%)가 향후 정부 주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의 44.4%, 여성의 60.8%가 '있다'고 응답하여 여성의 참여 의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5~29세(51.9%)의 참여 의향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고, 취업자(50.0%) 및 포기자(48.2%)보다 구직자(70.4%)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훨씬 높다. 체류자격 중 조건부 취업 및 파트타임 응답자의 참여 의향이 84.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국적자보다 외국 국적자가, 부모님 1명 외국 출신보다 모두 외국 출신에서 참여 의향이 63% 이상으로 더 높다. 최종 학력이 대원원졸(중퇴/재학) 이상, 가구 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100~200만 원 미만 및 100만 원 미만) 및 본인+배우자 등과 함께 거주하는 응답자의 교육훈련 참여 의향이 약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31〉 정부 주관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향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324	54.0	46.0
성별	남성	135	44.4	55.6
	여성	189	60.8	39.2
연령	20~24	95	56.8	43.2
	25~29	156	51.9	48.1
	30세 이상	73	54.8	45.2
취업 상태	취업자	170	50.0	50.0
	구직자	71	70.4	29.6
	포기자	83	48.2	51.8
제류 자격	취업 불가	14	50.0	50.0
	조건부 취업 및 파트타임	32	84.4	15.6
	취업 가능	33	48.5	51.5
본인 국적	한국 국적	245	51.0	49.0
	외국 국적	79	63.3	36.7
최종 학력	고졸(중퇴) 이하	73	49.3	50.7
	전문대졸(중퇴/재학)	59	55.9	44.1
	4년제졸(중퇴/재학)	152	49.3	50.7
	대학원졸(중퇴/재학) 이상	40	77.5	22.5
월 평균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42	69.0	31.0
	100~200만 원 미만	42	78.6	21.4
	200~300만 원 미만	72	48.6	51.4
	300~400만 원 미만	119	50.4	49.6
	500만 원 이상	49	36.7	63.3
가구 구성	혼자	114	53.5	46.5
	본인+부모 등	138	48.6	51.4
	본인+배우자 등	52	71.2	28.8
	그 외	20	50.0	50.0
한국어 수준	못함	27	63.0	37.0
	잘함	112	51.8	48.2
	매우 잘함	185	54.1	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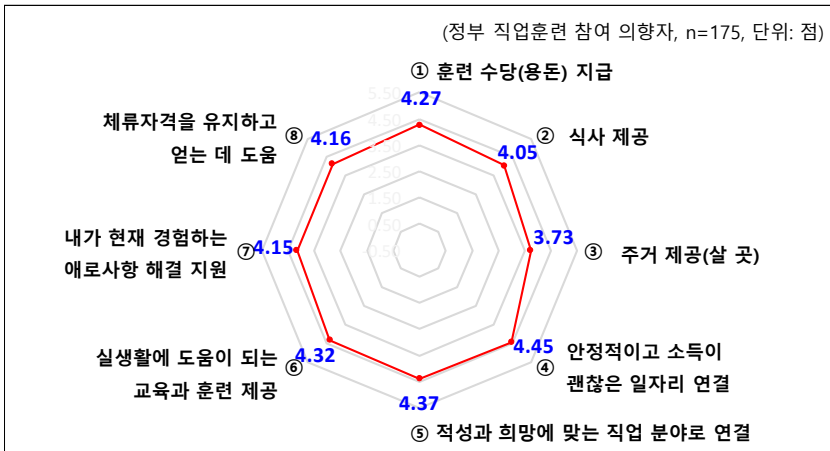
4. 정책 수요

향후 정부에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175명)의 참여 조건별 필요도와 교육 분야별 필요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참여 조건으로 중요시되는 요인은 ④ 안정적이고 소득이 괜찮은 일자리 연결이 4.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⑤ 내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직업 분야로 연결(4.37점), 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훈련 제공(4.32점), ① 훈련 수당(용돈) 지급(4.27점), ⑧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얻는 데 도움(4.16점, 외국 국적자(50명)에게만 질문), ⑦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 지원(4.15점), ② 식사 제공(4.0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③ 주거 제공(살 곳)(3.73점) 조건은 유일하게 필요도가 4점 미만으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최종 학력에서 전문대졸(중퇴/재학)은 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훈련 제공, 대학원졸(중퇴/재학) 이상은 ⑤ 내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직업 분야로 연결 조건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④ 안정적이고 소득이 괜찮은 일자리 연결과 ⑤ 내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직업 분야로 연결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20대는 ④ 안정적이고 소득이 괜찮은 일자리 연결을, 30세 이상은 ⑤ 내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직업 분야로 연결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외국 국적자(50명)의 직업훈련 참여 시 중요한 요인은 ④ 안정적이고 소득이 괜찮은 일자리 연결이 4.3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⑤ 내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직업 분야로 연결(4.26점), ⑧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얻는 데 도움(4.16점), ① 훈련 수당(용돈) 지급(4.14점), 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훈련 제공(4.12점)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외국 국적자 중 남성(4.53점), 구직자(4.53점), 그리고 혼자 거주(4.45점)하는 경우 ⑧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판단하였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참여 조건의 중요 순위는 ④ 안정적이고 소득이 괜찮은 일자리 연결이 28.6%(1~2순위 5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① 훈련 수당(용돈) 지급이 22.3%(1~2순위 37.7%), ⑤ 내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직업 분야로 연결이 16.0%(1~2순위 36.0%), ⑥ 실생활

[그림 4-4] 정부 직업훈련 참여 조건 필요도



주: 필요 정도는 1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5점 매우 필요하다고 측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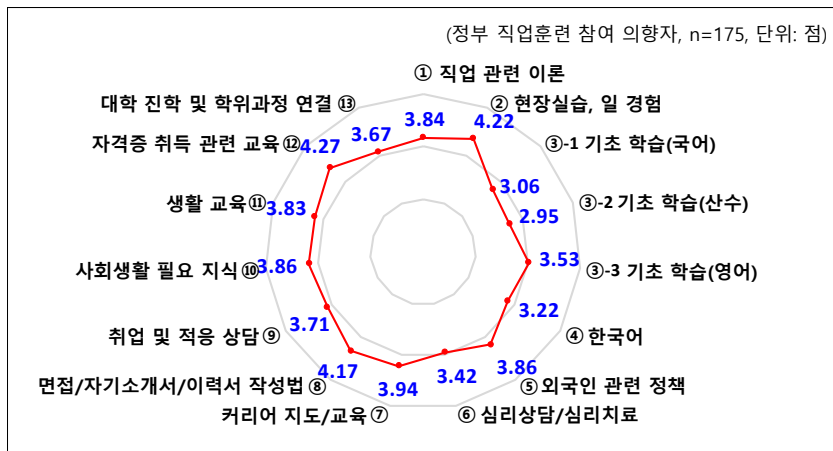
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훈련 제공이 8.6%(1~2순위 21.7%), ③ 주거 제공(살 곳)이 6.9%(1~2순위 13.7%)로 나타났다. 특히 ④ 안정적이고 소득이 괜찮은 일자리 연결(28.6%)과 ⑤ 내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직업 분야로 연결(16.0%) 등 참여 조건으로 일자리 연결을 1순위로 꼽은 응답자가 44.6%로, 정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훈련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 국적자(50명)들은 참여 조건으로 ④ 안정적이고 소득이 괜찮은 일자리 연결을 26.0%(1~2순위 56.0%)로 가장 많이 꼽았고 그다음으로 ① 훈련 수당(용돈) 지급이 18.0%(1~2순위 30.0%), ⑤ 내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직업 분야로 연결이 12.0%(1~2순위 22.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희망 교육 분야는 ⑫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이 4.27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② 회사에서 현장실습, 일 경험(4.22점), ⑧ 면접,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방법(4.17점), ⑦ 커리어(진로) 지도/교육(3.94점), ⑤ 체류자격/비자 등 외국인 관련 정책 및 ⑩ 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시간 관리, 일할 때 태도, 의사소통법 등)(각각 3.86점), ① 직업 관련 이론(3.84점), ⑪ 생활 교육(건강관리/운동, 법/권리, 돈 관리하는 법, 생활안전 등)(3.8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③-2 기초 학습(산

수)(2.95점), ③-1 기초 학습(국어)(3.06점), ④ 한국어(3.22점), ⑥ 심리상담/심리치료(3.42점)는 필요성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로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지만, 25~29세 및 30세 이상, 구직자, 현재 서울 거주자, 최종 학력 4년제졸(중퇴/재학), 한국어를 매우 잘 하는 응답자 및 과거 일자리 경험 개수가 3개 이상인 응답 계층에서는 ② 회사에서 현장실습, 일 경험이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특히 25세 이상부터) ② 회사에서 현장실습, 일 경험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외국 국적자(50명)의 교육 분야별 필요도는 ② 회사에서 현장실습, 일 경험과 ⑫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이 각각 4.00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⑧ 면접,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방법(3.98점), ⑤ 체류자격/비자 등 외국인 관련 정책(3.96점), ③-3 기초 학습(영어) 및 ⑩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시간 관리, 일할 때 태도, 의사소통법 등)(각각 3.70점)순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자 중, 남성(4.13점), 고졸(중퇴) 이하(4.29점) 및 혼자(4.23점) 사는 응답자가 ⑤ 체류자격/비자 등 외국인 관련 정책 교육의 필요성이 높았다.

[그림 4-5] 정부 직업훈련 교육 분야 필요도



주: 필요 정도는 1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5점 매우 필요하다고 측정됨.

정부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교육 분야별 중요 순위는 ② 회사에서 현장실습, 일 경험이 1순위 기준 2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⑧ 면접,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방법(15.4%), ⑫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12.6%), ④ 한국어(9.1%), ⑦ 커리어(진로) 지도/교육(6.9%)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② 회사에서 현장실습, 일 경험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서울 거주자, 월 평균 가구소득 100~200만 원 미만 및 한국어를 잘하는 응답자들은 ⑧ 면접,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한편, 외국 국적자(50명)들은 교육 분야별 1순위로 ② 회사에서 현장실습, 일 경험(20.0%)을 꼽았고 다음으로 ④ 한국어와 ⑤ 체류자격/비자 등 외국인 관련 정책(각각 18.0%)을 꼽았다.

제5절 취업 상태와 직업훈련 참여 결정요인

1. 취업 상태 결정요인

본 절에서는 실태조사의 현재 취업 상태 문항을 이용하여, 이주배경 청년의 개인과 가족 특성이 어떻게 취업 상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실태조사는 현재 취업, 구직, 그리고 향후 취업 의지에 따라 취업자, 구직자, 포기자로 구분하여 취업 상태가 정의되었다.

종속변수는 취업 상태로 취업자, 구직자, 포기자로 코딩한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각 취업 상태를 가질 확률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는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평균 한계효과로 나타낸다. 취업 상태에 미치는 개인과 가족 요인으로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체류자격, 부모님 이주배경 여부, 한국어 수준, 현재까지 경험한 일자리 수, 취업에서 차별 인식, 한국 체류기간, 취업의 어려움, 가구 소득, 가구 구성, 지역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구직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포기자가 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24세 이하에 비해 25~29세는 구직자가 될 가능성이 10.8%p 증가하며, 30세 이상은 17.9%p 증가한다. 포기자의 경

우 20대 초반에 비해 20대 중반은 포기자가 될 가능성이 11.5%p 감소하였다. 체류자격은 취업자가 될 가능성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취업이 허가되지 않은 비자를 가진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진 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32.8%p 낮았고, 구직자가 될 가능성은 27.7%p 증가하였다. 반면, 한국 국적에 비해 취업 가능 비자를 가진 경우 포기자가 될 가능성은 13.8%p 낮았다. 지역적으로 강원과 제주 지역 이주배경 청년이 서울 거주 이주배경 청년보다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현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력을 가졌을수록 고졸에 비해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14.7%p 낮았다. 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나, 구직자가 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가구 구성을 보면, 1인 가구로 혼자 사는 이주 배경 청년에 비해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21.4%p 낮았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포기자가 될 가능성이 11.4%p 높았다. 즉, 부모에게 독립하지 않은 경우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청년 NEET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다. 한국어 능력이 매우 좋은 경우 구직자가 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현재까지 경험한 일자리 수가 많을수록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구직자가 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일자리 수가 1개 증가할수록 취업자가 될 가능성은 7.9%p 증가하였고, 구직자가 될 가능성은 4.3%p 감소하였다. 이주배경이 취업 시 차별로 작용한다고 생각할수록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만 18세 이전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22.1%p 증가했지만, 포기자가 될 가능성은 20.4%p 감소하였다.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수록 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취업 및 취업 준비 시 경험한 어려움은 취업 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상담을 할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수록 구직자가 될 가능성은 증가하였고, 포기자가 될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표 4-32〉 취업 상태 다항 로짓모형의 평균 한계효과

	취업자	구직자	포기자
성별(r : 남성)			
여성	0.0857 (1.61)	-0.0494 (-1.07)	-0.0364 (-0.74)
연령대(r : 20~24)	0 (.)	0 (.)	0 (.)
25~29	0.00652 (0.11)	0.108* (2.38)	-0.115* (-1.98)
30세 이상	-0.0717 (-0.82)	0.179* (2.45)	-0.108 (-1.42)
부모님 출신(r : 한 분만 외국 출신)			
모두 외국 출신	-0.0607 (-0.64)	0.0382 (0.49)	0.0224 (0.27)
체류자격(r : 한국 국적)			
취업 불가 비자	-0.328** (-2.63)	0.277* (2.05)	0.0515 (0.41)
조건부 취업 및 파트타임 가능	-0.197 (-1.53)	0.154 (1.28)	0.0434 (0.36)
취업 가능 비자	0.122 (1.22)	0.0161 (0.19)	-0.138* (-2.02)
지역(r : 서울)			
경기/인천	-0.0805 (-1.07)	0.0430 (0.70)	0.0375 (0.57)
전라권	-0.0549 (-0.67)	0.115 (1.66)	-0.0604 (-0.86)
충청권	0.0482 (0.49)	-0.0307 (-0.40)	-0.0176 (-0.20)
경상권	-0.103 (-1.13)	0.0156 (0.22)	0.0874 (1.09)
강원/제주	-0.232* (-2.18)	0.147 (1.47)	0.0850 (0.83)
최종학력(r : 고졸 이하)			
전문대 졸(중퇴/재학)	-0.0176 (-0.23)	0.0385 (0.57)	-0.0210 (-0.33)
4년제 졸(중퇴/재학)	-0.147* (-2.25)	0.0390 (0.67)	0.108 (1.93)
대학원 졸(중퇴/재학) 이상	-0.0246 (-0.21)	-0.121 (-1.81)	0.145 (1.35)
평균 가구 소득	0.101*** (4.60)	-0.0802*** (-4.49)	-0.0210 (-1.07)

〈표 4-32〉의 계속

	취업자	구직자	포기자
가구 구성(r : 1인 가구)			
본인+부모	-0.214*** (-3.53)	0.100 (1.85)	0.114* (2.04)
본인+배우자	-0.157 (-1.83)	0.0488 (0.71)	0.108 (1.38)
그 외	-0.122 (-1.12)	0.0791 (0.84)	0.0433 (0.48)
한국어 매우 잘함	-0.0583 (-0.93)	0.127* (2.54)	-0.0691 (-1.18)
현재까지 경험한 일자리 수	0.0797*** (3.34)	-0.0431* (-2.04)	-0.0365 (-1.68)
취업 차별	-0.0523* (-2.27)	0.0204 (1.06)	0.0319 (1.58)
5년 이상 체류	0.221** (3.09)	-0.0170 (-0.29)	-0.204*** (-3.59)
취업 상담 어려움	-0.0896 (-1.44)	0.218*** (3.69)	-0.129* (-2.40)
취업 정보 획득 어려움	0.0716 (1.20)	-0.0862 (-1.69)	0.0147 (0.27)
직업훈련 및 교육 이용 어려움	-0.0118 (-0.20)	-0.0596 (-1.22)	0.0714 (1.28)
전공/흥미 적합한 일자리 어려움	-0.00591 (-0.09)	0.0782 (1.44)	-0.0723 (-1.28)
취업/업무 시 한국어 어려움	0.0481 (0.75)	0.0608 (1.19)	-0.109 (-1.79)
N	324	324	324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괄호 안은 표준 오차.
 자료 : 자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직업훈련 참여 의향 결정요인

누가 직업훈련에 참여하길 희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직업 훈련프로그램 참여 의향 문항을 이용하여, 현재까지 경험한 직업력이 직업 훈련 참여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래 일자리 계획은 직업훈련 참여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직업훈련 참여 의향으로 참여 의향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처리하여 코딩한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이용하여 직업훈련 참여 의향의 오즈(odds)를 추정한다. 설명변수는 서비스 이용 여부, 자녀 수, 서비스 희망 자녀 연령, 서비스 이용 주된 이유 등이다. 분석 결과는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한계효과(marginal effect)로 변환한다.

개인과 가족 특성이 직업훈련 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업훈련에 참여할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20대 초반에 비해 20대 중반은 15.5%p, 30대 이상의 경우 29.9%p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취업한 이주배경 청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30대의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더욱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취업한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직업훈련에 참여 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컸다. 지역적으로는 전라 지역의 이주배경 청년이 서울보다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현재 취업한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4년제 대학 재학, 중퇴 또는 졸업 학력을 가진 경우 고졸에 비해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26.7%p 감소하였다. 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은 줄어들었으나, 결혼한 경우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1인 가구에 비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한 가구의 가장인 경우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27.8%p 증가하였다. 취업한 이주배경 청년으로 국한하여 보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은 33.6%p 증가하였다.

이주배경이 취업에 차별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할수록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7.6%p 증가하였다. 현재 취업 중인 경우로 한정하면

이러한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나 차별 요인 인식이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을 10.9%p 증가시켰다.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고, 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였을 경우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현재 취업한 이주배경 청년은 취업 상담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이 겪었을수록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직업훈련이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20.4%p 증가하였다.

〈표 4-33〉 직업훈련 의향 로짓모형 한계효과

	전 체	취업자	비취업자
성별(r : 남성)			
여성	0.138 (1.95)	0.332** (3.03)	0.0265 (0.25)
연령대(r : 20~24)			
25~29	-0.155* (-2.02)	-0.144 (-1.24)	-0.108 (-0.90)
30세 이상	-0.299* (-2.56)	-0.379* (-2.05)	-0.261 (-1.59)
부모님 출신(r : 한 분만 외국 출신)			
모두 외국 출신	0.0640 (0.56)	0.0386 (0.22)	-0.00630 (-0.04)
지역(r : 서울)			
경기/인천	-0.0955 (-0.98)	-0.122 (-0.90)	-0.0196 (-0.12)
전라권	0.226* (2.33)	0.231 (1.61)	0.243 (1.59)
충청권	-0.161 (-1.26)	-0.290 (-1.84)	-0.0375 (-0.17)
경상권	-0.0285 (-0.24)	0.100 (0.57)	-0.0842 (-0.46)
강원/제주	0.178 (1.33)	0.0759 (0.31)	0.215 (1.11)
한국 국적	-0.00179 (-0.02)	-0.0169 (-0.10)	-0.114 (-0.68)

〈표 4-33〉의 계속

	전 체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 상태(r : 취업자)			
구직자	0.154 (1.76)		
포기자	-0.0234 (-0.27)		
최종학력(r : 고졸 이하)			
전문대 졸(중퇴/재학)	0.0365 (0.34)	-0.110 (-0.73)	0.114 (0.63)
4년제 졸(중퇴/재학)	0.0192 (0.21)	-0.267* (-1.99)	0.181 (1.20)
대학원 졸(중퇴/재학) 이상	0.253* (1.98)	0.206 (1.27)	0.262 (1.16)
평균 가구 소득	-0.0842* (-2.54)	-0.0263 (-0.32)	-0.0701 (-1.63)
가구 구성(r : 1인 가구)			
본인+부모	0.0282 (0.29)	0.159 (1.15)	-0.207 (-1.21)
본인+배우자	0.278** (2.82)	0.336* (2.06)	0.222 (1.81)
그 외	-0.0936 (-0.64)	-0.239 (-1.53)	-0.0205 (-0.08)
한국어 매우 잘함	0.0247 (0.29)	-0.0504 (-0.37)	0.145 (1.09)
현재까지 경험한 일자리 수	0.0530 (1.62)	0.100 (1.86)	0.0605 (1.11)
취업 차별	0.0768* (2.41)	0.109* (2.08)	0.0137 (0.30)
5년 이상 체류	0.270** (2.65)	0.381* (2.13)	0.150 (0.99)
취업 상담 어려움	-0.107 (-1.29)	-0.257* (-2.23)	0.195 (1.27)
취업 정보 획득 어려움	-0.0127 (-0.16)	0.0489 (0.43)	-0.125 (-0.89)
직업훈련 및 교육 이용 어려움	0.204* (2.40)	0.232 (1.87)	0.106 (0.81)

〈표 4-33〉의 계속

	전 체	취업자	비취업자
전공/흥미 적합한 일자리 어려움	-0.0339 (-0.40)	-0.0779 (-0.64)	0.00860 (0.06)
취업/업무 시 한국어 어려움	0.0632 (0.75)	0.131 (1.06)	-0.0602 (-0.43)
N	324	170	154

주 : * $p < 0.05$, ** $p < 0.01$, *** $p < 0.001$. 괄호 안은 표준 오차. 부모 외국 출신, 지역 통제 함.

자료 : 자체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6절 소 결

본 장에서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외국 출신으로 만 18세 이전에 1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20~39세 이주배경 청년 324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직업력, 현재 일자리 그리고 미래 일자리 계획을 분석하였다. 체류자격, 인적자본, 취업 어려움 경험 등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 특성과 미래 일자리 계획을 살펴보고, 현재 취업 상태와 직업훈련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가구 특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이주배경 청년 일반적 특성

조사된 이주배경 청년의 평균 연령은 26.9세로, 20대 초반이 29.3%, 20대 후반이 48.1%, 30대가 22.2%로 구성되었다. 여성은 58.3%, 남성은 41.7%이며, 한국 국적자는 75.6%, 외국 국적자로 전체 응답자의 24.4%로, 이들 중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경우는 41.8%, 조건부 취업과 아르바이트 가능 비자는 40.5%,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는 17.7%였다. 세부적으로 외국 국적자의 비자 종류를 보면, 유학(D-2, D-4-1, D-4-7)이 38.0%로 가장 많고, 다음으

로 재외동포(F-4, F-4-R) 및 방문 동거(F-1), 동반(F-3)이 각각 16.5%, 영주(F-5; F-5-2는 제외)는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 F-4-R) 비중이 가장 높았다. 현재 취업 상태는 취업자가 52.5%, 구직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 상태의 포기자가 25.6%, 그리고 구직자 21.9%였다. 만 18세까지 한국 체류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78.4%로 청소년기에 한국 체류기간이 긴 편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일을 한 경험에 있는 경우는 67.6%이며, 평균 2.57개를 경험하였다. 구직자의 일 경험률은 35.2%, 포기자는 28.9%로 낮은 편이며, 포기자의 경우 평균 3.33개 일을 하여 취업자(2.47개) 및 구직자(2.52개)보다 일 경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응답자의 일 경험률이 84.8%로 매우 높고, 일 경험 개수도 매우 많았다(평균 3.57개).

2. 근로 실태와 직업력

취업자들은 평균 1.06개 일을 하며, 주로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65.3%, 비정규직 32.4%이며,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가 6.5%, 무급가족종사자와 특수고용직이 각각 1.2% 순이었다. 현재 일자리의 근속연수는 평균 29.5개월이었다. 취업자의 76.5%가 현재 일자리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23.5%, 잘 모른다고 6.5%였다.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 국적일수록 정규직 비중과 4대 보험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일주일 평균 37.6시간 일하며, 월 평균 236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 국적자일수록, 서울 거주자일수록, 한국어를 잘할수록 월 평균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일을 시작하게 된 주된 동기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이거나, 일자리의 임금, 근로시간, 안정성에 만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는 구인공고나 직업소개소나, 지인이나 가족의 소개를 통해 구한 비중이 높았다. 외국 국적자, 고졸 이하의 학력, 경험한 일자리 수가 많을수록 주변이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자 3명 중 1명만 현재 일자리를 은퇴까지 하고 싶은 일자리로 여겼으며, 나머지는 더 좋은 일자리가 있으

면 그만둘 수 있는 일자리이거나, 임시 일자리로 여겼다. 특히,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더 괜찮은 일자리로 이직 의사가 높은 편이었다. 현재 일자리에서 은퇴하고 싶은 경우 현재 일자리가 적성, 전공, 경력과 능력에 맞는 업무라고 평가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이 높고, 적성, 전공, 경력 및 능력에 맞는 업무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의 조건으로 평가하였다.

취업자는 현재 일자리에서의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작업 중 안전, 고용 안정성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반면, 체류자격 획득 및 유지에 도움 정도, 임금, 복지제도와 사회보장의 만족도는 낮았다. 구직자와 1년 이내 취업할 의사가 있는 포기자에게도 작업 중 안전과 복지와 사회보장은 취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취업자와 구직자는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과 취업 관련 상의할 사람을 찾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자인 구직자 모두 체류자격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포기자는 일자리를 구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이용하는 것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찾는 것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주배경이 취업의 차별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평균 2.45점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보통 사이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2.21점, 구직자의 경우 2.76점으로 나타나 취업에 성공한 경우보다 현재 구직 중인 경우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배경 청년의 생애 첫 일자리의 특성을 보면, 평균적으로 22.5세에 비정규직(68%, 정규직은 25%)으로 단순 노무, 사무, 판매 및 서비스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노동 경력이 시작되었으며, 평균 14개월 정도 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첫 일자리의 4대 보험 가입률은 46.3%로 낮은 편이며, 한국 국적자보다 외국 국적자의 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았다. 일주일 평균 35시간 일하여, 월 평균임금은 157만 원이었다. 가장 길게 한 일자리는 평균 23.3세에 단순 노무, 사무, 판매 및 서비스직에서 비정규직(61%, 정규직은 29%)으로 평균 18.1개월가량 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대 보험 가입률은 52.4%로, 일주일 평균 35.3시간 일하여, 월 평균 165.2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최근 및 직전 일자리는 평균 24.4세에 단순 노무, 사무, 서비스, 판매직에서 주로

비정규직(66%, 정규직은 27%)으로 일하였고, 평균 14.5개월간 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대 보험 가입률은 55.8%로, 일주일 평균 34.8시간 일하며 월 평균 172만 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노동 궤적은 이주배경 청년은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약 1년가량 일한 뒤 동일한 직종이지만, 상대적으로 임금과 복지 부분에서 개선된 자리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첫 일자리가 비정규직이었던 청년의 84%가 최근 자리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일하였다는 점은 이주배경 청년의 일자리 이동이 처음 시작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 청년은 처음 진입한 일자리 직종과 종사상 지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노동시장 경력을 쌓고 있어 께촘은 커리어 형성을 위한 이직 및 전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3. 미래 일자리 계획

현재 취업자인 이주배경 청년의 대다수가 향후 돈을 더 벌 수 있는 자리, 정규직 등의 안정적 일자리, 전문직 일자리를 가지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이 해외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외국 국적자로 조건부 취업 자격을 가진 경우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경향이 컸다. 취업자의 다수가 더 나은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위해 준비는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었다. 전체 취업자의 33%만 더 나은 일자리 취득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구직자는 57.7%, 포기자는 39.8%로 낮은 편이었다.

더 나은 일자리 취득을 위한 준비는 주로 자격증 취득 또는 교육 및 직업 훈련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성 그리고, 20대 후반에서 상대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준비 비중이 높았다. 더 나은 일자리 취득에 있어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 부족은 가장 큰 어려움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취업 등에 대한 상담할 사람의 부재, 필요한 경력의 기회 부재, 직업훈련 및 교육에 대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구직자들이 현재까지 구직활동을 한 지는 평균 12.7개월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일수록, 외국 국적자일수록,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평균 구직기간이 짧았다. 구직자들은 주로 구인공고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포기자들이 나중에 일할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구직을 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로 학업 및 훈련기관 재학 중인 경우를 제외하면, 그냥 쉬고 있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10명 중 7명의 포기자가 향후 1년 이내 또는 학업 종료 이후 구직 의향이 있으며, 외국 국적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구직 의향이 높았다.

현재 비취업자인 구직자와 1년 이내 구직을 희망하는 포기자가 희망하는 일자리 직종은 주로 사무직, 전문가였으며, 여성은 사무직, 남성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다수가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지만, 일부는 자영업 및 프리랜서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주당 평균 40.5시간 근로로, 월 평균 281만 원의 임금을 희망하였으며, 수도권 취업에 대한 희망이 높은 편이었다.

4. 직업훈련 정책 수요

본 조사의 이주배경 청년의 3명 중 1명만이 학교 졸업 이후 직업훈련이나 직업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이주배경 청년의 과반 정도가 향후 정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밝혔다. 직업훈련 및 교육 참여 기회 부재는 취업 시 겪는 주요 어려움일 뿐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 획득 시 경험하는 어려움이었다는 점에서 참여 의향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직업훈련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안정적이고 소득이 괜찮은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다음으로 적성과 희망에 맞는 일자리 연결을 중요시하였다. 직업훈련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희망하는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로 작용하기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을 가장 선호하였고, 회사에서의 현장실습 및 일 경험, 그리고 면접,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등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었다. 이는 앞서 더 나은 일자리 및 희망 일자리를 찾는 데 경험하는 어려움이 경력 획득 기회 부재, 취업 과정에서 상담할 사람

의 부재였던 점과 연결되는 선호로 보여진다. 특히, 회사에서의 현장실습과 일 경험은 정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중요도에서 1순위를 차지하여 이주배경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한국어와 체류자격 등 외국인 관련 정책에 대한 교육 훈련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5. 취업 상태와 직업훈련 참여 의향 결정요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취업 상태 결정요인 분석 결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구직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포기자가 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한국 국적 이주배경 청년과 비교하여, 외국 국적자로 취업 가능 비자를 가진 경우 포기자가 될 가능성이 감소하였으며, 취업 불가 비자를 가진 경우에는 구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체류 여건을 가진 이주배경 청년일수록 노동시장 진입의 의지가 높고, 구직 의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현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력을 가졌을수록 고졸보다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작았다. 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부모에게 독립하지 않은 이주배경 청년은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청년 니트(NEET)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다. 만 18세 이전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5년 이상일수록, 현재까지 경험한 일 자리 수가 많을수록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주배경이 취업 시 차별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인식할수록 취업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취업 상담할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수록 구직자의 가능성이 높았다.

직업훈련 참여 의향 결정요인 결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훈련 참여 의향이 낮았다. 취업한 이주배경 청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취업한 20대 여성일수록 직업훈련 참여 의향이 높아졌다. 지역적으로는 전라 지역이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서울보다 컸다. 취업한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4년제 대학 재학, 중퇴 또는 졸업 학력은 고졸과 비교하여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평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결혼하였을수록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주배경이 취

업에 차별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할수록, 만 18세 이전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였을수록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였을 경우 청소년기에 장기 한국 체류기간은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직업훈련이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취업 청년일수록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6. 시사점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이주배경 청년의 괜찮은 커리어 형성을 위한 이직 및 전직 지원이 필요하다. 이주배경 청년의 일자리 이동이 처음 가진 일자리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동시장 경력을 쌓고 있어, 불안정한 첫 번째 일자리가 불안정한 커리어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취업한 이주배경 청년의 다수가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이나 전직을 희망함에도 3명 중 1명만 실제로 이를 위한 실질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구직자와 포기자도 희망하는 일자리 진입을 위해 실제 준비하는 경우는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둘째,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장기적인 커리어 플랜 설계가 가능한 직업상담기관의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취업자, 구직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취업 의사가 있는 현재 비경제활동 이주배경 청년은 취업 관련 상담을 할 사람을 찾지 못해 더 나은 일자리 취득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주배경 청년의 사회 및 인적 네트워크가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에서 학교 졸업 후 이주배경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및 커리어 개발 상담이 더욱 필요하다.

셋째, 직업훈련과 취업 교육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주배경 청년은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의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업훈련과 취업 교육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주배경 청년의 과반이 정부의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보였고, 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직업훈련이 희망하는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장실습과 취

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이주배경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경력이 부재하고, 취업 준비의 행정적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취업에 제한이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배경 청년의 국내 노동시장 진입 및 구직 의사가 높았다. 사회통합 관점에서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정책의 주요 대상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취업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취업에 있어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배경 청년의 국내 노동시장의 진입과 구직 의사가 높다는 점은 향후 이주배경 청년 노동시장 정책의 대상자로 이들을 포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 5 장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제1절 서론

세계화로 인구이동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주해오고 있다. OECD는 비이주배경 귀화자, 비이주배경 이민자 2세 및 외국인 인구를 합친 이주배경 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을 경우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2023년 체류외국인만 250만 명(4.89%)을 넘어, 한국국적 취득자, 출생외국인 주민자녀까지 포함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이주배경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출생아 감소에 따른 학령기 인구감소로 인해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과 여러 사회적 영향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 유학생 등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9세에서 24세 이하의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를 지난 25세 이상의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통계자료나

실태조사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¹²⁾. 한편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되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신분의 34세 이하 이주배경 청년은 청년 대상 정책 지원에서 배제된다. 이처럼 이주배경 청소년은 다문화가족의 일부로 다문화정책과 교육정책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주배경 청소년을 거쳐 온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다문화정책과 청년정책 모두에서 배제된다.

이처럼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규모나 특성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및 안착은 그들 개인적 이슈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조차 중장기적 국가경제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 현재 이주배경 청소년의 연령이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청년으로 이행하게 되고 그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인구 규모는 이주배경 인구의 약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의 노동시장 이행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통합으로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매개가 되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일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한국 출생과 성장을 모두 거친 이들이 부모의 배경 때문에 정책 대상이 되는 것이 차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실제 국내 출생이거나 국내 출생이 아니더라도 한국어가 유창하고, 외모가 이국적이지 않으며, 지역에 이주한 사람이 많은 경우 차별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고,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김진희, 2021; 김민선 외, 2022; 류유선, 2023) 오히려 다문화라는 틀에 자신이 속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국적 외모와 외국 출신 부모의 출신국가 지위로 인해 받는 차별은 학교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며, 국내 출생 외 중도입국이나 제3국 출생 이주배경 청년 등 의사 소통이 안되거나 억양 및 말투가 다른 경우, 실용 한국어 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김진희 외, 2021; 양계민 외, 2023). 이로 인해 일자리 탐색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직업경력 역시 단순 업무 중심의 파트타임 경력만 축적하는 경향을 보였다.

12) 통계청(2024)에 의하면 이주배경 청년(19~34세)의 인구가 2022년 71만 명에서 2042년 114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주배경 청년들은 비이주배경 청년과 마찬가지로 일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에 더해 언어의 어려움, 사회적인 차별,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어 노동시장으로 진입 혹은 진입 할 이주배경 청년들에 대한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관심은 필수 불가결하며, 사회통합적 관점에서도 선제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윤성호(2022)는 기존 출판된 다문화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총 12,300건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다문화 청년과 관련된 연구는 30여 건이 채 안되며, 이마저도 사회적응, 정체성, 학습, 군복무 등과 관련된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양적 자료 확보의 한계상 심층면접을 활용한 질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탐색적인 수준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생애 및 생활경험(벋드갈, 2019; 윤형준, 2019; 김지혜, 2020; 최영미·이지선, 2020; 김민선 외, 2022; 류유선, 2023)이나 진로(남혜경·이미정, 2016)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일부이며, 직접적인 노동시장 경험을 다룬 연구(노은희·오인수, 2016; 박희진 외, 2023) 또한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이주배경 청년과 이주배경 지원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첫째, 이주배경 청년이 경험한 노동경험은 어떠하였으며, 취업에 있어서 어떠한 장벽이 있었고, 진로취업 지원의 어떠한 긍정·부정적 경험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주배경 청년과 이주배경 청년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이주배경 청년의 특성에 따라 어떤 지원과 접근이 필요한지, 사회통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2절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및 절차

다양한 이주배경 청년의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특성별 어떠한 노동 경험이 있으며, 취업에 있어서 어떠한 장벽이 있었고, 진로취업 지원의 긍정·부정적 경험이 있었는지 청취하기 위하여 일 경험이 있거나 한국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이주배경 청년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지를 구성하여 개별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방식은 질적 자료의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양적 연구의 표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유명순 외, 2012) 방식으로, 개인의 인식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에 적합한 면담방식이다(Creswell, 2007).

심층면접은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진행되었고, 이주배경 전문가의 경우 10월 모두 진행되었다. 면접조사를 위하여 제작된 최종 작성된 질문지는 참여자가 면접의 목적을 이해하고 내용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내어 확인하도록 하였다.

면담 당일, 조사 목적,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추가로 자세히 설명한 후 면접 참여 동의를 받았다. 면담은 사전 발송된 반구조화된 면접조사질문지를 바탕으로 하되, 본인의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 도중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고, 반구조화된 질문의 내용과 순서에 얽매이지 않도록 면담자가 유연하게 조절하고,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자연스럽게 면담을 이끌어나갔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하였으며, 일부 참여자의 경우 근무 일정 등 대면 인터뷰가 어려워 온라인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약 60~90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1회 면담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화, 화상회의를 통해 추가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완료 후 보조연구원들이 축어록을 작성하며, 녹음본과 대조하며 축어록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검토하는 작업을 거쳤다.

2. 조사 참여자 선정

참여자는 유형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모집하는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 및 청소년이 성장하여 청년기에 접어든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지만 여전히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가 많고,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참여자를 모집하기 어려운 집단인 만큼 각 지역의 이주배경 청년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다문화 관련 민간기관과 이주배경 청소년 및 청년 지원 활동가(이주배경 청소년재단, 이주배경 청년지원 전문 민간기관, 다문화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 등 다양한 전문가의 추천 및 조언을 통해 사례를 선택하는 세평적 사례 선택방법을 선택하였다.

실제 거주지역, 부모의 출신국, 일자리 특성, 국내 출생 여부, 비자, 성별 등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였으나, 모집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구사능력, 참여자의 비적극성 등으로 대상자 선정이 용이하지 않았고, 특히 국내 출생 외국인 가정은 체류자격 등의 문제로 대상자 추천이 쉽지 않았다. 이에 1차 인터뷰 이후 인터뷰이를 통해 주변 지인들을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으로 추가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가. 이주배경 청년

이주배경 청년 심층인터뷰 참여자는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 경험을 지닌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며 일 경험이 있거나 한국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이주배경 청년 12명이다.

일 경험이 있거나 한국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이주배경 ‘청년’의 연령기준은 경제활동이 본격화되는 학령기 이후에 해당하는 「청년기본법」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을 준용하였다.

일 경험이 있거나 한국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이주배경 청년의 ‘이주배경’은 양계민 외(2020)의 분류 중 본인 또는 부모의 이주 경험을 적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①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서 국내 출생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다문화가정 자녀), ②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외출생 국제결혼

자녀가정 자녀(중도입국가정 자녀), ③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국내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외국인근로자, 난민, 조선족, 고려인), ④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자녀(외국인근로자, 난민, 조선족, 고려인)로 하였다. 또한 청년기 진입을 앞둔 아동·청소년기 교육, 진로설계, 취업 준비 지원 등이 청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이주배경 청년 진로 및 취업정책 수립에 있어 연계성 있는 지원방안 도출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기(만 7세~만 18세) 중 1년 이상은 한국에서 보낸 경험이 있는 청년으로 하고, 20세 이후에 중도입국한 자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분석 대상은 이주배경 가정의 자녀를 중심으로 하기에 이주노동자, 유학 후 취업자, 결혼이주여성은 본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상기 제시된 이주배경 청년과 다소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제외하였다.

일 경험이 있거나 한국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이주배경 청년의 '일경험'은 과거에 일(아르바이트, 무급 및 유급 가족종사자 등)을 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포함하였고, 일경험은 없으나 향후 국내에서 일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였다.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국내 출생 국제결혼 가정이 4명, 국외출생 국제결혼 가정이 4명,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 자녀 3명, 국내 출생 국제결혼 가정 1명이었다. 성별은 남성 5명, 여성 7명이었고, 연령은 20대 초반이 6명, 20대 중후반이 5명, 30대가 1명이다. 지역은 대도시에 위치한 기관 추천 참여자가 많아 10명 중 대도시가 8명, 중소도시 3명, 농어촌 1명이다. 참여자 부모님 중 아버지만 외국 출신인 경우는 3명, 어머니만 외국 출신인 경우 5명, 부모 모두 외국 출신인 경우 4명이었다. 부모님 출신 국가는 태국, 중국, 파키스탄, 일본, 중국, 인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조사참여자 중 국내 출생은 5명이고 중도입국은 7명인데, 중도입국 청년의 대부분 10세 전후로 입국하여 한국어가 능통하거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참여자 7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한국어를 접한 후 대학 생활을 하는 등 6년의 생활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 등은 다소 낮았다. 국외출생 국제결혼 자녀 중 4명은 중도 입국하였으나 모두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국외 출생 외국인 가정 자녀의 경우 고려인 가정 자녀 2명, 조선족 가정 자녀 1명이었는데, 모두 재외동포비자인 F4를 보

〈표 5-1〉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이주배경 청년)

	ID	성별	연령	지역	부모님 출신국		성인기 이후 진로 및 취업경로
					부	모	
국내 출생 국제결혼 가정	1	여	25	대도시	한국	태국	대학입학 → 식당(8개월) → 대학생 활동가(1년 6개월) → 판매직(9개월) → 대학졸업 → 판매직(1년, 정규직) → 복지 관련 계약직
	2	여	23	대도시	한국	중국	대학입학 → 행정사무실 국가근로(영상편집, 모니터링)
	3	남	25	대도시	한국	일본	대학입학 → 편의점 → 대학졸업 → 주차관리직(대학재학 때 시작하여 지속, 2년 6개월, 4대 보험), 자격증시험 준비 중
	4	여	23	중소 도시	한국	중국	대학입학 → 중식당 조리사(조기취업, 11개월) → 대학 전공심화과정 → 의료기기 제작업체(국가근로)
국외 출생 국제결혼 가정	5	남	26	대도시	인도	한국	대학입학 → 영어강사(1년) → 탈북학생 멘토링 → 양어장 어류배송(간헐적), 건설 현장일용직 → 대학졸업 → 공무원시험 준비중
	6	남	32	농어촌	파키스탄	한국	대학입학 → 대학졸업 → 영어학원 강사 → 중견기업 취업 → 무역회사(소기업, 4개월) → 구직 중(7개월)
	7	남	23	대도시	한국	인도네시아	대학입학(일경험 없음, 4학년으로 군제대 후 취업 예정)
	8	여	25	중소 도시	파키스탄	한국	대학입학 → 수제품 판매 → 인턴(6개월) → 대학졸업 → 화장품 판매, 자동차물품 판매, 통역, 자격증시험 준비중
국외 출생 외국인 가정	9	여	22	대도시	우즈벡	우즈벡	대학입학 → 판매직(6개월) → 공장(방학중 1개월), 사과 수확(방학중) → 행사스텝, 편의점(야간, 2년) 등 → 승무원 준비중
	10	여	23	대도시	우즈벡	우즈벡	대학입학 → 휴학 → 복학, 카페(주1회, 고교때부터 지속), 판매직(6개월) 병행
	11	여	24	대도시	중국	중국	편의점 → 직업교육(1년, 청년직업교육기관 교육) → 마케팅대행사 → 쇼핑몰 취업(9개월, MD) → 구직중(구직급여 수령중)
국내 출생 외국인 가정	12	남	27	중소 도시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거주 → 대학입학 → 공장(간헐적, 1개월) → 편의점(1년) → 식당(4개월) → 취업준비 중

유하고 있었다. 국내 출생 외국인 가정 청년의 경우 국내에서 출생하였으나 현재 유학비자인 D2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재 재학 중인 참여자는 6명, 졸업자는 6명이었다. 일 경험의 경우 참여자 7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르바이트가 아닌 전일제 근로의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7명이었다. 참여자 7의 경우 일 경험은 없지만 향후 국내에서 일할 의사가 있어 참여자에 포함하였다.

나. 이주배경 청년 전문가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경험과 정책제언에 대한 청취를 위하여 이주배경 청년 지원 관련 전문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전문가는 이주배경 청년 진로·취업 지원 및 연구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와 현장 활동가 5명이다. 이때 현장 활동가의 경우 근무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인 실무자로 한정하였다.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지원이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경험하였던 이주배경 청년 특성별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의 특징, 사회통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에 대해 주로 청취하였다.

〈표 5-2〉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이주배경 청년 전문가)

ID	성별	연령대	전문영역	관련 지원 및 연구 경력
전문가1	여	40대	이주배경 청소년, 청년 진로지원	9년
전문가2	남	60대	이주배경 청소년, 청년 종합지원	10년
전문가3	남	30대	이주민 노동자 지원	8년
전문가4	여	50대	이주민 생활 전반 지원	16년
전문가5	여	50대	이주배경 진로·취업 관련 연구	14년

3. 조사 내용 및 분석방법

가. 조사 내용

심층면담의 내용은 질적 분석 전담 연구원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작하고, 다문화 정책 전공 외부 교수 1인과 현장전문가 1인에게 연구 주제와 질문의 적합성, 질문의 난이도, 질문 내용의 구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후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이주배경 청년 대상 질문지와 전문가 질문지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표 5-3〉 조사 내용

ID	구분	내용
이주 배경 청년	개인적 배경	- 인적사항(성별, 나이, 거주지역, 국적 등), 동거가족 - 가족과의 관계, 외국인 부모의 언어능력, 소통수준, 인간관계 - (중도입국) 입국연령, 입국전 국가, 체류자격
	현재까지의 일경험	- 입직시기 및 경로, 입직정보 제공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또는 도구 - 과거 및 현재 직업종류, 업무내용 - 직장생활 만족도(급여, 관계, 복리후생 등),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및 대처방법 - 일에서 이주배경의 영향 - (무직) 일하지 않는 이유 - (포기)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 일상생활
	진로 및 직업교육 경험	- 국내외 학업과정 -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 - 직업교육 및 훈련 경험(종류, 관련 기관, 참여 계기, 도움 정도 등)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 (미취업) 구직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향후 진로계획	- 향후 계획 - 향후 진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 이용기관 - 정착의사(귀화, 영주권 획득 등) - 진로계획 및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

〈표 5-3〉의 계속

ID	구분	내용
	현재 취업이 아닌 구직자/ 구직포기자	- 구직활동 기간, 구직시 어려움, 고려사항 - 구직시 도움을 준 기관 및 프로그램 - (미취업) 현재의 구직방법 - (미취업)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고용형태, 희망직종 및 특징)
	진로 및 취업관련 요구사항	- 진로계획 및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전문가	실태	- 청년의 전반적인 진로 및 취업상황 - 청년의 입직, 노동시장 정착 시 경험하는 어려움
	성공적 노동시장 이행	-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성공요소 - 성공사례
	필요한 지원	- 이주배경별 노동시장 이행 및 안착을 위해 필요한 지 원 - 이주배경별 추가적인 정책 요구

이주배경 청년 대상 설문 내용은 첫째, 인적사항, 성장배경, 가족관계, 외국인 부모의 소통수준 및 노동현황, 둘째, 과거의 일자리, 현재 직장 취업경로, 업무 내용, 직장만족도 등 현재까지의 일경험, 셋째, 진로 설계 및 직업 교육·훈련 경험, 넷째, 향후 진로계획과 진로 및 취업, 정착의사, 다섯째, 현재 취업 중이 아닌 구직자 및 구직 포기자에 대한 질문으로 구직활동 및 구직기간, 방법, 원하는 일자리 및 구직방법, 여섯째, 진로 및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로 구성하였다.

이주배경 청년 지원 전문가 대상 설문 내용은 첫째, 이주배경 청년의 진로 및 노동시장 진입 실태와 입직 및 정착에서의 어려움, 둘째, 성공적 노동시장 이행에 필요한 요소와 성공적 노동시장 이행의 성공사례 셋째,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및 안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이주배경별 추가적인 정책 요구 등이다.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 형태로 진행되기에 질문지에 구성된 내용 이외에 연계 질문이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추가 질문을 통해 면밀한 면담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분석방법

목적 달성을 위해 이주배경청년과 이주배경 청년 전문가들과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질적 사례연구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론을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거이론이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 등과는 달리 단일한 혹은 복합적인 특정 사례를 깊이 있게 알고자 할 때(조흥식 외, 2005)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질적 사례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본 연구가 이주배경 청년이라는 복합적인 특징을 가진 대상의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의미 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례 그 자체가 일차적 관심이 될 때, 즉 사례가 비일상적이거나 독특한 상황을 보여주는 경우 본질적 사례연구 방법은 매우 적합한 방법으로 논의된다(공수연·양성은, 2014).

또한 질적 사례연구는 구체적이고 상황 맥락적으로 사례를 이해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이라는 독특한 맥락을 분석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취업장벽, 진로 계획, 정책 이슈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기에 질적사례연구 방법은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경험을 사례연구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분석의 특성상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 등의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에 질적 사례연구 중에서도 도구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전사후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의미단위 분석을 통해 내용들을 개념화하였다. 연구자와 보조연구자는 사례의 의미단위를 읽고, 비교와 대조를 통해 반복적인 패턴을 발견하고 범주화하여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우선 사례 내에서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슈를 발견한 후, 각 사례를 비교하면서 주제를 발견해나가는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이슈를 통합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화하였다. 사례 간 분석 후에는 범주화한 분석 결과를 관통하는 주제를 발견한 후 주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면담 진행자는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사전에 연구목적과 방법, 진행계획에 대해 안내하고, 자유롭게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만 참

여하도록 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철저한 비밀이 보장됨을 사전에 밝히고,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고지하였다. 또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참여자 7의 경우 한국어가 다소 서툴러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활동가가 인터뷰에 배석하여 필요한 통역 및 단어의 해석 등에 도움을 주었다.

분석 및 결과 작성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를 추측할 만한 요소는 최소화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직업, 서비스 참여경험, 구체적인 거주지역 등의 노출은 자제하였다.

제3절 분석 결과

이주배경의 노동시장 이행 경험을 내부자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질적 분석을 시행하였고, 연구 결과를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사례연구 방법에 따라 시간 경과에 따른 흐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주배경 청년은 다양한 진로를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취업준비를 하며, 본격적인 일을 갖기 전 다양한 일 경험과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하며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이 안착할 일을 찾기도 하며, 도약의 발판으로 현재의 일을 하며 미래를 도모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서 살아가기 위해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청년별로 매우 상이하면서도 공통적인 주제들로 범주화되었다. 도출된 주제는 이주배경 청년 참여자와 전문가 참여자의 목소리를 함께 담았다.

분석 결과, 3개의 범주, 9개 주제, 32개 하위 범주, 121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3개의 범주는 ‘취업 준비 및 구직경험’, ‘과거와 현재의 일’, ‘변화, 모두를 위한 제안’이며, 구체적인 사례 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4〉 사례 간 분석 결과

범주	주제	하위범주
취업준비 및 구직경험	가. 진로,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들	1) 나, 적성, 미래를 고려한 진로 선택
		2) 진지한 고려 없이 그냥 선택한 길
		3) 가족 특성과 경제적 여건에 따른 선택
		4) 어떤 특별한 계기
	나. 역량키우기	1) 다양한 스펙 쌓기 : 기울어진 스펙 쌓기의 조건
		2) 직업 세계에서 원하는 실력키우기
		3) 언어는 나의 힘,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
		4) 이주배경 청년에 특화된 지지체계 활용하기
	다. 일에 접근하기 : 본격적인 구직활동	1) 정보 및 취업 연계망 활용하기 : 폭넓지는 않음
		2) 적당한 곳, 가능한 곳으로 : 스스로 한계를 둠
		3) 오히려 유리한 조건
		4) 기본 역량은 갖추었으나 구직활동 지원체계는 없음
		5) 미묘한 차별과 편견1 : 구직 중
	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1)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경력개발 어려움
		2)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조건에서 먼 사람
과거와 현재의 일	가. 다양한 사회 경험	1) 경력개발과는 무관한 돈벌이 : 파트타임 경험
		2) 일 경험을 통해 성장함 : 알을 깨고 나옴
		3) 잦은 일자리 변화
		4) 이주 배경을 살린 일자리 경험
	나. 일 자리에서 경험한 어려움	1) 과중한 업무량, 불합리한 대우
		2) 일자리 쏠림
		3)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
		4) 미묘한 차별과 편견 2 : 일 경험 중
	다. 나의 일 자리에 정착하기	1) 여느 청년과 다르지 않은 직장생활 : 정착할 일, 다음 일자리를 위한 징검다리
		2) 취업하면 끊기는 도움: 역량도, 마음도 지켜야 하는데
		3) 국내 정착의 불확실성: 보이지 않는 미래
변화, 모두를 위한 제안	가. 이주배경 청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지지	1) 정확한 규모, 욕구 파악부터 선행되어야
		2) 보다 실질적인 전문교육, 지원 필요
		3) 확실한 취업 지원 전달체계 필요
		4) 대체인력이 아닌 교육받은 인재로서 바라보기
	나. 청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1)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 개선

1. 취업준비 및 구직 경험

가. 진로,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들

1) 나, 적성, 미래를 고려한 진로선택

국내 출생 이주배경 청년은 어렸을 때 약간은 다른 시선을 경험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파악하여 진로를 선택하였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접했던 진로교육이나 체험을 통해 느낀 것은, 내가 원하는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대학 졸업 이후 전문가가 되어 꿈을 펼치고자 하였다.

진학 선택의 주체가 본인이든, 주변인이든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참여자의 사다리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한편으로는 학력마저 낮으면 삼류시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정확하게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직업체험했던 게 기억나요. 여러 가지 직업을 해봤던 것이 도움이 됐어요...(중략)..제가 원하는 걸 하려면 대학을 가야겠더라고요(참여자 10)”

“그렇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는데...한국 사람도 살기 힘든 게 한국인데, 다른 건 몰라도 학력은 유지해 줘야 어느 정도 대접받고 살 수 있다고 들었고,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해요(전문가 5)”

대학을 선택하거나 진로를 결정할 때, 별도로 알아보지 않아도 될 법한 정보를 이주배경 청년들은 지원 기관을 통해 알게 되기도 한다. 출신 고등학교에서는 유망 분야나 생소한 전공에 대한 소개를 제공할 뿐, 진짜 진로나 비전을 고려한 일에 대한 탐색이 부족했던 반면, 센터에서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탐색하게 한다. 특히 대학 진학을 생각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비자 문제가 있는 경우 대학 교육이 필요 없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학 진학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센터에서 이것저것 해보라고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줘요. 내가 좋아하는 거.. 꿈 찾는 거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걸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고, 이런저런 체험에도 가보게 하고 그랬었어요(참여자 8)”

“저희가 고등학교 나이의 아이들은 진로 설계라고 하는 걸 해요. 실제 꿈이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요즘에 두꺼운 책자로 각 전공을 소개하는 책자가 있어요. 한국 애들은 잘 안 보지만... 거기서 함께 찾아봐요(전문가 1)”

대부분 연구 참여자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여 이전보다 구체적인 진로를 설계하게 된다. 막연하게 선택하였던 공부가 직업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취업 분야에 대한 결정을 한다. 청소년기에는 막연하게 ‘이것이 되고 싶다’였다면 대학에서의 진로 결정은 본인의 적성, 취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역량, 취업 분야의 수요 및 미래 전망, 본인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설계가 된다.

“저는 컴퓨터를 전공했으니까 회사 취직이 먼지인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다른 공무원을 한다거나..(중략)..전공 중 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이걸 경력이 없으면 안 뽑아준대요. 그래서 다른 부분의 경력을 쌓은 다음에 자격증을 따고 내가 이만큼 경력이 있고 자격증이 있으니까 지원하고 싶다고 접근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취업하려고요(참여자 2)”

“요리에 관심이 생겼는데 제가 혼자 찾아서 이쪽 대학으로 갔어요. 막상 공부해 보니까... 힘들고, 다른 쪽도 있는 걸 알게 돼서...지금은 요리 쪽 말고 위생사를 생각하고 있어요(참여자 4)”

2) 진지한 고려 없이 그냥 선택한 길

인터뷰 참여자의 다수는 본인이 원하는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를 향해 가고 있었으나 일부는 진로를 선택할 즈음 지인, 친구, 부모에게서 들은 말 한마디로 진지한 고민 없이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친구나 지인의 소개로 단순히 괜찮아 보여서 현장을 전전하거나 언어가 필요 없는 공장을 선택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선택한 대학 진학은 본인이 원

하는 미래가 있거나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한국에서는 고학력을 선호하며, 보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부모님의 교육과 학교 선생님 등의 권유로 대학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직장은 다 제가 찾은 게 아니라 다 지인 소개였어요. 진로 선택할 때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진로 선택할 때 지인 소개라서..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옆에서 그냥 해볼래? 그래 이런 거 봐봐 해서 괜찮은 거 같으면 해보고... (참여자 6)”

“아버지가 대학은 가야지(라고) 했어요. 한국으로 넘어와서 살려면 대학 가야 한다고 해서 재외국민(전형)으로 대학 왔어요(참여자 7)”

“처음에 다른 학교 다니다가 적성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옮겼어요. 급하게 정했다 생각하면 되는데.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괜찮다, 재밌다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왔어요(참여자 9)”

3) 가족 특성과 경제적 여건에 따른 선택

이주배경 청년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본인이 꿈꾸던 미래를 준비하고 싶었지만 개인 및 가족적 특성에 따라 부모님의 부재, 경제적 여건, 진로를 무용하게 바라보는 가족의 시선 등 다양한 진로 장벽을 경험한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을 생각하며 가계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족은 밀어주지만 저임금 단기 파트타임 일을 하며 직업계 고등학교나 이주배경 대안학교로 진학을 하게 된다. 성인이 된 이후 대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대학 진학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대학생할 중 끊임없이 파트타임을 하며 생활비 등을 조달하고 있었고, 대학 졸업 후에도 가족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에 본인이 되고 싶은 것보다 빠른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를 선택하기도 한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좀 되어서 엄마가 일하면서 저희를 케어하고 있죠... (중략) 집도 경매 넘어가고 엄마랑 동생들은 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뭘 하라고 하지는 않는데 빨리 또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가지고요(참여자 4)”

“이게 돈 필요한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조금 어려워 가지고... 왜냐하면 아버지도 외국에 계시는데 이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복학도 해야 되고 자취도 해야 되고.. 이제 생활비는 저 혼자 스스로 벌어보자 해서 가서 일을 했습니다(참여자 5)”

내 선택은 아니지만 집안 사정이 어렵거나 외국인 한부모 가정으로서 생활고에 시달리기에 적은 수입이라도 빠르게 가구 경제에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요구에 따라 내 꿈보다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공으로 입학하여 공부하기도 한다. 한편 경제적인 문제는 없지만 한국 사회에 조금 더 일찍 정착한 부모님의 추천이나 의견, 강요, 가치관 등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한다.

“근데 보통 어머니 추천이 좀 센 것 같습니다. 말이 추천이지 그게 강압적으로... 저는 센터를 하고 싶은데.. 다른 직업보다는 수입이 좀 적다고.. 어릴 때 영어 공부도 많이 시켜냈고 고등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법도 전공했는데 그걸 안 살리고 다른 길로 가려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스트레스였죠. 하고 싶은 일이라 해야 하는 일이라 조금 다르다 보니...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하면 어머니한테 나는 뭘 해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다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 능력이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것도 어쨌든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참여자 5)”

“아빠가 사업하시니까 뭐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마인드로 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일자리가 많고, 친구들이 자취하니까 같이 살면 어떨까 얘기를 해 봤는데..아빠가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나가고 싶으면 결혼해서 나가라 이런 느낌이에요(참여자 8)”

4) 어떤 특별한 계기

연구 참여자가 관련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는 매우 다양하다. 가족의 특성이나 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선택도 있지만 이주배경이기에 접했던 지원기관, 기관을 이용하면서 만났던 실무자, 같은 이주배경을 가진 선배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라잡이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멘토

링, 동포들을 위한 의료 지원, 통역 지원 등 짧게 일했던 경험이 평생 업(業)으로 삼고 싶은 희망 직업이 되기도 한다.

“어렸을 때 한 10년 정도 이용했던 기관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가정불화가 있어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거 하고 싶다 해서 갑자기 진로를 바꿨어요(참여자 1)”

“근로로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했었는데...학생의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태도라든지 보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말도 잘 안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니까 제가 이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좀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됐어요(참여자 5)”

“고등학교 때 ○○동에 고려인 진료소에서 무료 진료를 하는 데 통역이 필요해서... 지금은 잠시 쉬지만 대학교 때까지 계속하던 봉사가 있었거든요. 봉사하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의료 쪽 직업을 찾고 하다 보니까 간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약간 외국인 전용으로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 해서 대학에 지원해서 공부하고 곧 졸업해요(참여자 10)”

나. 역량키우기

1) 다양한 스펙 쌓기: 기울어진 스펙 쌓기의 조건

연구 참여자는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학력이라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자의 다수는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청년으로서, 적정 수준의 학점은 실력의 측면보다 성실성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학점 관리에 신경을 쓴다. 참여자의 취업 희망 분야의 특성,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관련 분야 취업에서 필수 자격요건인 자격증이나 면허를 취득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 초년생으로서, 관련 분야 경력취득이 어려운 초기 청년의 특성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며, 재학 중에는 공모전 등에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이나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듣거나 영어공부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수의 이주배경 청년은 일반 청년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기초 학습 능력, 기술 습득 능력, 전공 열의, 경제적 지원 등에 따라 스펙의 종류, 스펙의 수준과 양이 달라진다. 그러나 이주배경 청년 중 일부는 한국어 능력, 체류자격이라는 또 다른 스펙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사 1급은 합격했는데, 올해 취준을 하면서 뭐라도 있어야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될까 하다가 다른 선생님들이 청소년지도사 3급 판다고 해서 꺼서 같이 시험을 쳤어요(참여자 1)”

“지금 취업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이게 4대 보험 되는 일자리는 한테 일 주일에 3~4일 가는 거라...익숙하니까 가면서 손해사정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어렵기는 한데 저한테 맞는 것 같아서요(참여자 3)”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로 취업은 잘 된대요. 근데 한국말 좀 더 배워야 해요(참여자 7)”

“저는 취업하고 싶어요. 필리핀보다 여기가 더 익숙해서...졸업해서 빨리 취업해야죠. 요즘 (체류 정책이) 막 바뀐다고 들어서 일단 그중에 괜찮은 걸로...가능한 곳으로 취업해야죠(참여자 12)”

2) 직업 세계에서 원하는 실력 키우기

연구 참여자 중 체류 조건에 제약이 없거나 해결이 된 경우에는 전공 및 적성에 맞는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한 경험이 있었다. 간단한 아르바이트나 인턴십 등의 일 경험을 통해 노동 시장에서 원하는 기능을 익히고, 자격증 취득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한다.

직업 세계에서 원하는 실력을 키우는 도중 여러 정보를 접하게 되고, 실제 기술이나 역량 향상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도 한다. 경험하면 할수록 그동안 탐색했던 직업의 세계가 좁았던 것을 인지하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 진짜 하고 싶은 자신의 일을 발견하기도 한다.

“제가 그냥 워크넷인가 거기서 이제 확인을 했을 때, 다 요양원 아니면 재활기관 같은 거더라고요. 근데 바로 지금 거기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고...그래

서 좀 해보고 싶은 분야가 다문화 쪽이나 아니면 또 아동 쪽이나 아니면 종합 센터 이런 데서 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고 싶은 곳은 항상 경력직 같은 자리밖에 안 올라와요. 경력도 2년 정도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인턴십을 6개월 했어요(참여자 8)”

“법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공무원 쪽 일을 해보려고 공무원 공부하고 있어요. 사회복지학 과목이 있는데 이걸 새롭게 공부해야 해요...(중략)...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집 근처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어요(참여자 5)”

“지금 전공이랑 좀 다른데...저는 승무원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학교 안에 승무원 학과가 있는데 행사하다가 그쪽 얘기를 몇 번 듣기도 했고 궁금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일단 우즈베크어 잘하니까 우즈베크 항공사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지금 하는 거 마무리하고, 2학년 때부터는 다시 영어학원 다닐 거예요(참여자 9).

3) 언어는 나의 힘,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본인들이 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한국어 능력을 언급했다.

그러나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해서 모두 한국어가 유창한 것은 아니며, 중도입국한 경우 언어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 아동기에 중도입국한 청년의 경우 언어의 어려움이 덜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었으나 청소년기에 입국한 경우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한국어의 미숙함은 남아 있어 학교 공부, 취업 면접 등에서 한계로 작용한다고 증언한다.

언어의 한계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어렵게 하며, 소심한 성격 형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떨어진 자신감 때문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취업에는 언어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언어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직업이 제한이 되더라고요(참가자 5)”

“한국어는 잘하기는 하는데...고등학교 때까지 파키스탄에서 영어만 쓰다 왔잖아요. 보통 그냥 타이핑도 다 영어로만 하고. 근데 이제 대학교에 가서 좀

하기는 하지만 이게 간혹 안 하다 보면 (타이핑이) 너무 느려져요. 친구들이 1시간 걸리면 저는 2시간 걸리고 그랬었어요. 코로나 때 화상 면접을 한다는데 화상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럴 때마다 피곤하고 솔직히 자존감이 완전 낮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혹 내가 여기 지원하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안 하다, 하다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막 미루게 되고 제출 안 해버리기도 하고요(참여자 8)”

“공부할 때 한국어를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한 번 더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참여자 10)”

아동기의 경우 많은 시간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외국 출신 어머니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게 된다. 어머니의 언어가 유창한 경우 언어 발달이나 학업에도 큰 문제가 없었던 반면, 어머니의 언어 능력이 낮은 경우 대체로 언어 능력이 떨어져 학교 부적응의 문제로 이어지고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교육을 포기하여 취업이나 직업 진로가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증언한다.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거의 외국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세요. 근데 친구 중에는 어머니가 몇 년을 있었는데도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계속 힘들어요. 학교 다닐 때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학교도 안 나오더라고요. 소식 들으면 그냥 공장 들어가서 일하고, 짧게 짧게 일하고 있더라고요(참여자 3)”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언어 발달이 늦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업도 굉장히 뒤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학교생활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업 중단율도 기존에 우리 한국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업에는 굉장한 장애 요소로 작용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에요(전문가 2)”

한편 부모님의 언어 유창성과 무관하게 중도입국 청년 가정의 상당수가 맞벌이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더 이상 언어능력이 발달하지 않아 취업을 포기하거나 기술직, 단순노무직을 선택한 중도입국 친구들이 많다고 말한다. 언어가 안되는 친구일수록 힘든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봐왔기에 본인만큼은 언어 능력을 향상하여 적절한 직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하다. 취업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언어 공부를 하고 있으며, 추가로 어학원을 다니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한국어가 부족하면 시골 사는 친구들은 제조하고 도시 사는 친구들은 택배하고 그러더라고요. 맞벌이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도 좀 가지게 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참여자 5)”

“저는 군대 갔다 오면 한국어 학원을 다시 다니려고요. 2년 어학원하고, 4년 학교 생활을 했는데 아직 부족해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거의 혼자 다녔어요. 엄마아빠 다 일하셔서 말을 할 일이 잘 없어요(참여자 7)”

“저는 취업할 때 언어가 필요하거든요. 한국어, 영어 이런 언어를 조금더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새날학교에서 따로 배우긴 했는데 계속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참여자 9)”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격이 좀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그래도 크게 한국말 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센터 같이 다녔던 친구들 중에 센터 와서도 말 통하는 애들이랑만 얘기하고 이런 애들이나 중간에 들어온 애들은 아무래도 힘들죠. 취업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알바하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참여자 12)”

4) 이주배경 청년에 특화된 지지체계 활용하기

청소년기에는 학교라는 공식지원체계가 있지만 청년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고, 취업준비와 구직현장에서도 지지체계는 한정적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센터나 대학의 일자리센터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주배경 청년의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밀착된 구직 지원을 받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언어 능력이 부족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 청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나 이용하더라도 큰 효과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용을 잘 하지 않는다.

“제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취업캠프인데... 학교에서 열어줘서 시간이

맞으면 참여하는 편이에요. 거기서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고요(참여자 2)"

"(학교에 센터가 있다는 것은) 못 들어봤어요. 그냥 전공수업에서 취업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고. 졸업한 선배들이 와서 특강하고..(참여자 7)"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은 센터 활동가의 소개로 참여하였기에 이들은 청소년 시기의 진로지도부터 취업 준비까지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주민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기관이기에 체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결이 가능하며, 오랜 기간 라포를 형성해 왔기에 새롭게 설명하지 않아도 참여자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주배경 청년이 이용하는 다문화센터, 가족센터, 지역아동센터,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등은 초기 청년까지 지원하는 기관이 대부분이며, 일자리 전문기관이 아닌 진로 지원이나 생활 지원을 전담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경우 일자리 관련 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상담, 교육, 문화 등 포괄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하기에 취업처 발굴에서부터 이력서 작성, 면접,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외국인지원센터나 근로자지원센터의 경우 이주노동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주배경 청년의 독특한 개별적 특성이나 취업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어렸을 때는 갔었는데 이제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데...어머니는 도움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취업이나 갈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참여자 2)"

"지금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제한된 인력 가지고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전문성도 좀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요.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전문가 2)"

"아무래도 저희 센터에 오기에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어서 제한을 두지는 않는데 청년이 된 친구들은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여기에는 안 있죠. 일단 저희는 이 지역

공장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E9이 많아요. 미등록도 이용 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분들 자녀들이 있는데 아직은 어린 것 같아요. 다 큰 친구들은 (본국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미등록으로 머물기도 하는데 이쪽에 잘 남지를 않아요(전문가 3)”

다. 일에 접근하기 : 본격적인 구직활동

1) 정보 및 취업 연계망 활용하기 : 폭넓지는 않음

본격적인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 취업 정보를 얻거나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의 다수는 지인 소개나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스스로 찾는 방법이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 먼저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지인의 소개나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 지인이 소개하는 경우 다른 일자리보다 분위기가 좋고, 일의 강도가 강하지 않으면서 시급이 나쁘지 않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만족도도 높았다. 돈이 필요한 경우 공장, 농촌 작물 수확, 건설 노동 등 단기간 높은 시급을 주는 일자리를 지인을 통해 소개받기도 하였다.

“사람인, 알바천국, 워크넷 뭐 이런 거...일 찾을 때 여러 사이트에서 보는 것 같아요. 사이트에서 이제 지원을 하기도 하고. 간혹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8).”

“원격센터에서 국가 근로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대학을 다니셨었는데 국가근로장학금이 있다고 한번 찾아보라 그래서 하게 됐어요(참여자 2)”

“정보는...이게 학교 선배들이 건너 건너 아시더라고요. 선배들이 다 옛날에 했었던 일이더라고요...(중략) 어쨌든 선배 소개로 왔으니까 먼저 제 얘기를 다 해줬어요. 이 친구는 인도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도 그렇고 외국분인데 말은 잘 통한다. 그래도 애는 성실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 다 해 주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기억하기도 더 쉽고 더 잘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시다(참여자 5)”

“아빠 일 도와주면서 주변에 하시는 분들 알바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일했었어요. 거기는 서로 아니까 화장품 가게 외에 도 이제 컴퓨터 가게에서도 일해 봤고, 자동차 물품 가게 그런 것도 해봤어요. 다양하게 이것저것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8)”

단기간, 단시간 아르바이트가 아닌 일자리의 경우 구직사이트뿐 아니라 과거 이용했던 센터나 직업훈련기관에서 채용정보를 알려주어 채용에 응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수의 추천, 참여하는 커뮤니티에서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아 근무하기도 하였다. 지인이나 커뮤니티를 활용한 취업은 중도입국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 다니던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이 여기 공고 보고 왔는데 넣어보라고 정보를 주셨어요. 추천서 그런 건 아니고요(참여자 1)”

“조기취업 때도 교수님 추천으로 가긴 갔는데.. 위생사는 선배들이 별로 없어요. 일단 앱 같은거 요즘 많이 잘 나오더라고요. 사람이나 잡코리아 막 이런 것도 괜찮기 때문에 거기에 한 번 나오는 거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해 볼 생각이에요(참여자3)”

“제 자의로 지원한 게 아니라 소개 소개로...지인 소개로 갔어요. 소개해 주신 분의 와이프가 저랑 아는 사이라서 들어가게 됐는데...(참여자6)”

“회사 찾기 전에 중국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한국 회사 막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제 게시물 같은 게 올라와요. 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게시물 올라오면 이제 이 회사는 걸러내야 한다. 저 회사는 걸러내야 한다면 게 많아요. 그럼 그걸 보고 걸러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참여자 11)”

2) 적당한 곳, 가능한 곳으로 : 스스로 한계를 둬

연구 참여자는 취업 장벽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 다양한 취업처에 도전하지만 구직에 어려움을 경험했던 경우에는 가고 싶은 곳, 원하는 곳이 아닌 갈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하게 된다. 여러 번의 좌절 경험은 원서 제출을 망설이게 하고, 본인의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낮은 곳에 원서를 제출하거나 대기

업이 아닌 현실 가능한 소기업을 타깃으로 하여 취업을 준비하기도 한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말도 좀 부족하고..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을 생각하고 있어요..(중략)...가면 좋죠 대기업.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쪽에는 그렇게 막 한국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군대갔다가 한국말 좀 더 배워서 ○○지역 근처에 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요(참여자 7)”

“전에 저랑 좀 친했던 발주 담당자가 중국인이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한국인이었는데 저랑 좀 친해서.. 애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회사를 이제 다른 곳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 신분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제 지원을 하기에는 뭔가 안 될 것 같아서...대부분 학교를 다니지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주문관리나 리오더 그런 거 하는 친구도 있고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11)”

3) 오히려 유리한 조건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대학 진학 당시 재외국민 전형이나 사회배려자 전형에 참여할 수 있어 좋은 학벌이라는 스펙을 쌓는 데 유리했다고 말한다.

구직 상황에서 이주배경이라는 것이 가점으로 작용한 사례도 있었다. 근무했던 직장의 성격 자체가 다양함을 추구하거나 전형적인 외모가 아니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다소 다른 외모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빈티지 샵에서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정직원원으로 일하자고 먼저 제안했어요. 여기서 느낀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굳이 딱 이렇게 생길 필요도 없겠네, 이렇게 생겨도 나름 멋있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플러스가 있었어요(참여자 1)”

“친구 중에 유튜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외모적인 것도 그렇고 오히려 그걸 더 활용해서 출연하거나 섭외가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참여자 3)”

“영어학원 강사를 했는데 원어민 쌤이 따로 있고 한국인 쌤도 있고 하니까 제 포지션이 애매하잖아요. 제가 문법을 잘하고 이런 건 아니라서 그냥 이게

영어를 내추릴하게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모가 조금 다르니까 원어민 샘으로 해달라 해서 영어로만 쓸 수 있는 컨셉으로 갔어요. 그래서 면접 볼 때 별 어려움 없이 한번 인터뷰 하고 나서 원장님이 오세요라고 했었어요(참여자 6)”

이주배경 청년으로서 다른 청년들보다 접근하기 좋았던 이중 또는 다중 언어의 장점은 크게 작용하였다. 본국 체류 당시 습득하였거나 부모님과과의 대화에서, 가족 내 이중 언어 교육으로 습득한 외국어는 수출 및 수입, 물류, 통역, 학원강사 등 채용시장에서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배경 청년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접해본 것이 활동 무대를 더 넓게 보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도 한다. 다양한 문화를 접해봤기 때문에 외국 생활에 대해 거부감이 없고 더 잘 적응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

“중국에 취업할 생각도 있어요. 다문화 가정으로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다른 사람들 보다 여러 문화를 많이 접해봐서 외국에서 취직한다는 것에 대한 겁은 없는 것 같아요(참여자 2)”

“전공이 다른데 영어가 되니까 수출이나 유통 이런 쪽 취업으로 소개가 들어왔어요(참여자 6)”

4) 기본역량은 갖추었으나 구직활동 지원체계는 없음

연구 참여자는 대학에서의 고등교육을 통해 전공과 관련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었으나 실제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했던 참여자는 취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도움 없이 모든 것을 거의 스스로 해야 했다고 증언한다.

대학에서는 전공공부에 대한 학습이나 취업영역에 대한 소개는 하지만 구체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전취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취업과 관련하여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NCS 기반 채용준비뿐 아니라 이주배경 청년에게 다소 익숙하지 않은 면접복장, 면접매너 등 한국의 전형적인 면접문화에 대한 도움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4학년이지만 또 이제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야 되지만 취직에 대해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그냥 학과 과목만 이제 알려주지.. 취직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이런 게 이런 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포괄적으로 그냥 던져주시는 건지 약간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다 이제 학생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정보가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참여자 2)”

“취직할 때 어려운 건 자소서 쓰는 거랑 이런 건데... 일단 자소서랑 경력 먼저 보고 인터뷰를 하는데...처음부터 이제 막 연락이 안 오는 데가 많고 하다 보니까..그런 부분 좀 도움받으면 좋겠는데 멀기도 하고..(참여자 8)”

“이곳으로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걸 일일이 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이트에 이런 정보가 있다 뭐 이런 거라도 알려주면 좋겠어요(참여자12)”

“면접복장부터 인사하는 거, 말하는 것까지 알려줬어요. 어떤 친구는 요리 용어나 이런 전문 용어 같은 거 찾아서 익히게도 하고 면접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기도 했었어요(전문가 1)”

5) 미묘한 차별과 편견 1 : 구직 중

연구 참여자 중 언어와 외모에서 전형적인 한국인과 차이가 없는 경우 구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사례는 드물었다. 그러나 외모가 다소 다른 경우에는 여지없이 면접 과정에서 동일한 차별을 경험하였다. 차별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동일하지는 않다. 백인이면 무조건 영어를 잘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동남아 계열이나 흑인들의 경우 선진국 출신이라 하더라도 하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증언한다.

“말 안 하면 모르는데 일본인 다문화 가정이라는 걸 알면 좀 한번 움찔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정적인 게 있으니까(참여자 3)”

“취직할 때 어려웠던 점이...외모? 그러니까 좀 저도 그렇지만 이제 더 이제 좀 이국적으로 생긴 분들이 취직할 때 특히 면접 볼 때나 이럴 때 약간 그 면접관들의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약간 저는 좀 더 쉽다

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외모 지상주의니까..(중략)..나라나 인종에 대한 편견 있는 것 같아요. 대하는 스탠스가 달라요(참여자 6)”

“히잡을 안 쓰고 모자를 쓰고 해봤는데 그냥 그 얼굴 보고도 조금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넌 한국 사람은 아니야’ 좀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8)”

“많이 그래요. 동남아 계열이나 흑인이면 무시하고...백인이면 좀 뭔가 모르게 본인들이 영어 못하니까 초롱초롱하게 눈뜨고 관심 가지고. 같은 아시아인인데도 그래요. 말 안 하고 있으면 한국말 잘하는 거 모르니까 막 말하는 경우도 진짜 많은데 (한국말 잘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는 진짜 놀라죠(참여자 12)”

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역량 외의 것들

1)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경력개발 어려움

불안정한 체류자격은 취업 활동뿐 아니라 삶 전체를 불안정하게 한다. 국적을 취득한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다른 청년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취업처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능력개발 등을 하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과 전직을 반복하며 유사경력을 축적하는 등 경력개발에 분주하다.

그러나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성인이 되면서 부모의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이주배경 청년 스스로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20대 후반이나 30대에나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상황이 된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노동시장 이행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취업 역량 강화나 경력개발은 생각하기 어렵다.

“동포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 그런지 외국 국적으로 일하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저는 그나마 F4라서 다른 생각 안 하고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는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면 F5로 바꾸려고요(참여자 10)”

“부모님도 외국 국적, 본인도 외국 국적인데, 중학교 1학년부터 학교를 다

니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쪽으로 외국인 전형으로 좋은 대학을 갔고, 졸업을 했어요. 입학했을 때 찬란한 빛만 남았다. 꽃길이다 생각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2년 안에 취업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꿈을 펼칠 수 있는 걸 생각하기보다 당장 4대 보험 들어줄 수 있고, 안정적으로 비자 연장할 수 있는 직장만 찾는 거예요(전문가 1) ”

“...얼마나 두려워요. 비자가 곧 없어진다. 19살이면, 24살이면... 이제 사람을 얼마나 촉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다 내려놓고 미등록으로 살고 싶게 만 들어요(전문가 4)”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나마 2022년부터 시행된 미등록 자녀에 대한 한시적 체류 허가제도를 활용하려면 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D-4,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년간 G-1을 부여받을 수 있고, 유학이나 취업이 되면 비자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 원하던 직종에 모두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 참여자의 경우 이미 고등학교 시절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한 기능과 기술을 모두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받은 영역은 전문 인력 비자인 E1~E7 비자 대상이라 학사학위가 필요했고, 학사학위를 얻기 위해 불필요한 대학교육을 선택해야 했다. 외국인전형이라 입학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학비부담이 생겼다. 2024년 법무부에서 발표한 新출입국·이민정책(법무부, 2024)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구직(D-10), 취업비자(E-7 등) 전환, 가족 거주가 필요한 경우 방문동거(F1)비자 등을 부여하도록 비자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최근 출입국 정책이 개방적이고,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체류 정책이 하나씩 새롭게 발표될 때마다 두려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저는 대학 안 가도 됐어요. 근데 대학 안 가면 한국 오기가 애매했어요. 그래서 일단 유학비자로 다시 들어왔어요.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똑같이 배우는 애도 있어요(참여자 12)”

“별로 대학 갈 필요는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인력 쪽은 대학

졸업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비자 때문에 다시 대학을 간 학생들이 있어요 (전문가 2)”

2)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조건에서 먼 사람

대부분은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긴 하지만 한국 국적이거나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주배경 청년의 상황에 따라 언어가 능통하고 적절한 자격요건(학력, 기술 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가령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일자리 공급 대체로 많은 편이지만, 대면서비스가 주축을 이루기에 외모가 조금 다른 경우 채용이 되는 경우가 드물며,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국적 취득이나 영주권 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졸업 후 취업 준비 비자(D-10)가 부여된 상태에서 2년 안에 취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D-10 상태에서 사실상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 일자리 탐색기간을 가지고 싶지만 그 기간을 놓치는 경우 언제 한국을 떠나야 할지 모르기에 식당 서빙이나 카페에서 커피를 만드는 등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 졸업자나 같은 근로 상황에 있게 되어 교육의 인적자본 축적 효과는 미미하게 된다.

“히잡을 쓰기도 하고 외모가 아무래도 다르니까 원서를 내도 잘 안되더라고요. 대면서비스니까 이해는 되는데..또 왜 꼭 피부색이 똑같아야 대면서비스를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참여자 8)”

“동포비자가 있지만..그래도 외국인이니깐요. 그래도 아무래도 약간 취업이 힘들기도 하고. 사실은 아직 병원에서 이제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이제 국적으로 아직 일하는 분을 못 봐가지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여자 10)”

2. 과거와 현재의 일

가. 다양한 사회경험

1) 경력개발과는 무관한 돈벌이 : 파트타임 경험

연구 참여자 12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트타임 일 경험이 있었다. 본인이 희망하는 취업 분야나 전공영역의 파트타임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시급이 다른 일에 비해 좋거나 지인이 추천한 일자리였다. 파트타임 일자리는 주로 편의점, 잡화점 판매직, 카페 등 서비스업 파트타임 경험이 가장 많았고 일시적인 용돈벌이를 위한 일자리가 많았다. 대학 재학중인 경우 공부와 파트타임 일자리와 병행하는 경우 수업이 없는 야간이나 방학 중 공장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한국장학재단의 교외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반회사에서 업무를 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의 경우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서 경력이 없기 때문에 파트타임 일자리는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하나의 일 경험 기회로 여겨졌다. 이러한 이유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전이나 취업하기 직전까지 파트타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업무강도가 높지는 않아 오래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태국 식당에서 알바를 했는데 엄마가 추천해 줬어요. 20살 때 알바를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거기서 시작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알바를 8개월 정도 했어요(참여자 1)”

“근로장학생인데 교외장학이라 의료기기 만드는 데서 일하고 있어요(참여자 4)”

“아르바이트 꾸준히 하는 건 2개고, 가끔씩 중간에 들어오면 하고요. 오래 하는 2개는 시급을 잘 쳐줘요. 좀 큰 곳이라 일 돌아가는 것도 배울 수도 있고요...(중략).. 야간 알바하면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서 열심히 해야죠(참여자 9)”

2) 일 경험을 통해 성장함 : 알을 깨고 나옴

연구 참여자의 일 경험은 단순히 금전적 도움에서 그치지 않는다. 참여자 중 절반 정도는 보통의 청년들과 같은 능력과 자신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절반 정도는 본인의 업무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고, 어차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신감을 보유한 청년은 일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뿐 아니라 일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본인의 업무 역량도 키워가는 계기로 활용한다. 또한 일 경험을 통해 적성에 진짜 맞는지 맞지 않는지 검증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도 획득한다.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람을 대한다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워져 전 화도 잘 못 받고 약간 그랬는데 근로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약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참여자 2)”

“조기 취업을 해서 근무 안 하는 날은 학교 갔는데, 공부랑 일이랑 같이해서 체력적으로 힘들긴 했어요. 근데 한번 일하고 나니까 뭐든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좋았어요(참여자 4)”

“멘토링 국가근로를 하면서 제 용돈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아이가 변화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이전에는 이해를 못 해도 그냥 넘어갔는데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생겼으니까... 물어보면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공부하고...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조금 더 성장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참여자 5)”

3) 잦은 일자리 변화

연구 참여자는 청년기에 경험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유명무실해졌으나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의 진입과 정착에 있어 유관 경력이 지속되는 것이 유리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단기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취업과 아르바이트, 취업과 실업, 취업과 비경제활동인구로서의 생활을 불규칙하게 이어가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잦은 변동의 이유는 다양한데 기존 일자리에 대한 부적응, 조건이 맞

지 않아, 비전 없음, 여행계획, 일단 쉬고 싶다는 등 다양하다.

유사한 경력을 축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한 장기적인 경력개발계획을 가지고 전직이나 이직을 하는 것이 아닌 숙고 없이 주어지는 일을 하다가 비전이 보이지 않아 퇴사를 결심한다. 또 미취업 상태인 경우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보며 불안감을 느껴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압박이 생겨 불안감에 유사한 일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주변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학교를 안 다니면 인턴이라도 하고 있는데 저는 놀고 있으니까..(참여자 1)”

“이제 일이 힘든 것도 있는데 물론 그거를 제가 무조건 버틸 수는 있었어요. 근데 약간 비전이 없다 해야 되나? 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착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더라고 판단이 된 거죠. 저보다 먼저 일한 동료가 일의 강도에 비해서 별로 좋은 인센티브나 이런 게 없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그때 조금씩 이제 결심을 하게 됐죠. 빨리 발 빼려면 지금이다(참여자 6)”

“아빠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드리다가 인턴을 했어요. 너무 멀어서 인턴은 그만뒀는데...또 중간에 파키스탄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 가지고 지금 바로 취업 안 하는 이유가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검사점사 한국어 가르치기도 하고 통역 일도 간혹 하고(참여자 8)”

4) 이주배경을 살린 일자리 경험

연구 참여자의 일 경험은 이주배경이기에 가능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중언어를 습득한 참여자의 경우 통역 지원이나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중도입국 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던 경우 영어강사, 무역 등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하기도 한다. 동남아 음식점의 경우 실제 요리는 하지 못하지만 상징적으로 참여자를 고용하여 서빙을 하게 하기도 하였다.

“청년들이 다같은 경쟁자라고 생각하는데 모국어를 먼저 습득한 친구는 언어적 능력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인도에 계시는

아버지와 지금도 영어로 소통하니까 영어 강사도 하고 그랬어요(참여자 5)."

"전공은 디자인인데..그거랑 관계없이...파키스탄의 공용어가 우르두어랑 영어다 보니 제가 영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출하는 그쪽으로 일을 했었어요. 주로 문서 인보이스나 이런 거 해외 수출에 관련된 거..(참여자 6)"

나. 일자리에서 경험한 어려움

1) 과중한 업무량, 불합리한 대우

취업한 일자리에 정착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영세한 기업의 특성 때문이었다.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접근의 용이성, 지인소개를 통한 취업 등 비공식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잦은 야근, 비인격적인 대우, 폭발적인 업무량 등을 경험하였는데, 기업 관리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당하다. 연구 참여자는 일·생활균형이 불가능한 불합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 빠른 퇴사를 결정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 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을 유지하기도 한다.

"일에 치여서.. 이제 일이 좀 태산 같았어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람 분량이 약간 거의 한 10명과 맞먹는 수준...(중략)..그냥 A부터 Z까지 제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도 뛰고. 머리는 또 머리대로 쓰고. 정신없었죠. 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참여자 5)"

"전 직장도 제가 그만둔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메일이 그냥 진짜 쏟아져 나오거든요. 저는 워라밸이 중요한 사람이라 오래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참여자 6)"

"제 동료도 중국인이었는데 너무 슬픈 얘기지만 이제 갈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라도 해서 그래도 자기는 좀 배웠대요. 이 회사에서 계속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감성적인 사람이었는데 T가 됐다고(참여자 11)"

그나마 적당히 만족하며 일을 잘 지속하고 있었던 경우 회사가 인수합병되거나 기업의 규모가 작고 영세하여 어려운 시장 상황에 회사 유지가 어려

워 폐업하기도 한다. 때로는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 실업자가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갑자기 일하던 식당이 인수된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그만 두게 되었어요(참여자 4)”

“전 직장은 사실 제가 그만둔 게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져서...서울에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또 여기를 떠나기는 좀 그렇고...(참여자 6)”

“부당해고였어요. 데드라인이 금요일까지래요. 근데 수요일 날 불러서 이틀 만에 완성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못 했고 보고를 드렸어요. 금요일까지 하다가 중간에 보고를 드렸어요.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뭐라 뭐라 하면서 업무량을 더 주면서 월요일까지 완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말에 나와서 또 하라는 거예요. 매일 10시 반까지 야근했었는데 또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안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까지 정리해요 이라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3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거잖아요(참여자 11)”

2) 일자리 쏠림

산업의 특성상 원하는 취업처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몰려 있는 경우도 있었고, 거주 지역 내에는 관련 업종의 취업처가 거의 없어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장거리 통근을 하는 경우 장기간 근속하기에 쉽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그전에 회사는... 회사 전반적인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6점? 7점?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인서울 가야지 그게 있는데..시간도 빨리 시작하면 빨리 마치고.. 하여튼 뭐 복지나 이런 거 그냥 제가 듣기로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참여자3)”

“취업처가 지금 사는 동네에서 너무 멀었어요. 왔다갔다만 거의 3시간 잡았어요(참여자 4)”

“인턴을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그것도 피업피업 하긴 했지만 그래도 6개월 정도 했다가 또 이제 취업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직원으로 일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왕복 4시간은 너

무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안 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는 여기는 공장에서 일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생산직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일하고 싶은 곳은 서울 쪽에 많긴 하더라고요(참여자 8)"

3)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

연구 참여자 중 일에 대한 어려움은 차치하고 사람이 힘들었다는 사례가 많았다. 상사의 업무방식 강요, 폭언, 불합리한 조직문화 강조 등 다양한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직장생활 중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누구나 경험하는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단지 이주배경이라는 이유로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국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은근한 차별, 언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거나 직장 내 은근한 따돌림을 경험하기도 한다.

“상사 성격이 불 같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런데 옛날처럼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한마디라도 하면 한국문화를 잘 모르는구나라며....저 한국사람인데...(참여자 4)”

“공장 알바는 방학 때 했거든요. 일은 쉬운데 거기 점장님이 화를 많이 내시고 조금 무서웠어요. 다시는 못 오겠다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저희한테만 유독 그러신 것 같아요(참여자 9)”

“사람이 힘들었어요. 잘해주다가도 한 번에 돌아서고. 믿고 얘기하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변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승진시켜주려 했는데 왜 나가냐고 뭐라 하더라고요(참여자 11)”

4) 미묘한 차별과 편견 2 : 일 경험 중

국내 출생과 국외 출생 관련 없이 언어가 유창한 경우 노동시장에서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있지만 업무에 있어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은 일 선택과 근무 과정에서 동료들과 다른 취급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특정 업무에서의 배제, 부당노동 등의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한국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외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잘하는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반대로 약간은 어

눌하거나 다른 억양 때문에 무시당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 본인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둑 누명을 쓰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차별에 대해 의연해졌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거나 하등한 인격체로 취급하는 경우는 여전히 전디기 힘들다고 말한다.

“꾸준하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동남아 사람이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죠... (중략) 어쩌다 다문화가정인 걸 알게 되면 그럼 왜 한국말 잘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구나라고 해놓고선 또 물어봐요. 무례한 거죠..(참여자 1)”

“외모나 말하는 거만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제 이름이 좀 특이해서 계속 여쭙봐요. 인도에서 왔다고 하면 표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참여자 5)”

“식당에서 알바할 때 같이 일하던 분 중에는 도둑으로 오해받은 적도 있어요. 착한 분이었는데.. 사장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손님 말만 듣고 몰아세우더라고요. 결국 그 손님이 착각한 거였는데...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참여자 12)”

다. 나의 일자리에 정착하기

1) 여느 청년과 다르지 않은 직장생활 : 정착할 일, 다음 일을 위한 징검다리

취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소소한 불만은 있지만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족의 요소로는 복지후생, 급여, 배려하는 조직문화, 풍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환경 등이 언급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일자리 중 대기업은 없었고, 소규모 일자리이지만 정규직인 경우 동일 분야 일자리를 지속하겠다는 경우가 있었고, 계약직인 경우 계약 종료 이후 동일 분야 일자리에 이직하여 계속 일을 지속하겠다는 경우가 많았다.

“엄청 수직적이고 이러면 내가 이런 문화를 안 겪어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했는데 좋더라고요. 일단 월급이 생각보다 많아서 책임감이 느껴지고요. 회

사 사람들이 좋아요. 복리후생이나 뭐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요(참여자 1)”

“일자리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MD의 영역에서 성장하고 싶어서 소기업을 찾은 거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할 수 있고 단기간 동안에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선택을 했어요. 부당하고 그런 게 있긴 했는데.. 저는 성장이 목표라서 그래도 전 회사에서는 좀 그래도 배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한 70~80%(참여자 11)”

한편 현재의 일자리를 다음 일자리를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현재의 경력을 활용하여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꿈꾸기도 하며, 지금보다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하여 해외에 나가 공부할 생각을 가지는 참여자도 있었다. 한국에서 절반의 한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왔기에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저는 항상 해외에서 정규 과정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동경을 가지고 있어서...외국생활이 이방인으로 사는 건데 힘들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기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참여자 1)”

“좀 나중 이야기이긴 한데 창업 생각이 있어요. 회사 몇 군데 다니면서 쌓은 경력으로...중국어 좀 하고 관계도 좀 있어서 수입 병행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차릴 생각이예요(참여자 11)”

2) 취업하면 끝기는 도움 : 역량도, 마음도 지켜야 하는데

연구 참여자는 취업 전 지지체계도 미미하지만 취업 이후에는 지지체계가 전무한 경우가 많아 각자도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취업 전에는 막연한 준비였으나 취업 이후에는 업무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 기술 등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역량 개발을 필요로 하기에 내일배움카드 등 직장인 능력개발 프로그램이나 고용안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학교에서는 선배 초청이나 이런 거 하고 학교 무슨 센터도 좀 가봤고 교수님들한테 여쭙보기도 했는데...지금은 그냥 동료들이랑 얘기하는 정도지 뭐

가 있지는 않아요(참여자 1)”

“물류 쪽으로 일하고 쇼핑물 계획도 있어서...드로잉 이런 거 좀 더 해줬으면 좋긴 하겠더라고요. 일할 때 필요하니까(참여자 11)”

취업한 경우 지식이나 기술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조직 적응을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익혀야 하고 인간관계를 원활히 해야 한다. 이런 조직 적응 과정은 이주배경 청년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한다. 가족이라는 지지 체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 스트레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친구들은 회사 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공감을 받기는 쉽지 않다.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직장 적응을 위한 팁을 알려주는 선배, 응원 한마디가 필요할 때도 있다고 말한다.

“센터 다닐 때는 쌤들이 챙겨주시는 거가 있죠. 그래서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한 것도 있고. 근데 취업하고 나니까 일단 여유가 없잖아요. 갑자기 연락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힘든 거 있어도 그냥 참자 참자 하는 거죠(참여자 12)”

“아이들이 가족 내에서 애정이 철철 넘치는 애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결핍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센터에 가면 대학도 갈 수 있고 친구들도 있으니깐 일단 재밌고, 나중에 취업처나 필요할 때 도움도 준다더라 하니 이용하는데..심리적인 지지 부분도 많이 크죠(전문가 1)”

3) 국내 정착의 불확실성 : 보이지 않는 미래

중도입국 연구 참여자의 경우 국내 정착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모호하여 반드시 한국에 정착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어 영주권 취득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다. 동일한 능력과 자격으로 한국에서 지내는 것보다 출신 국가에서의 대우가 더 좋고, 발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문화와 언어가 익숙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출신 국가로 돌아가 취업하고 정착하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조선족과 고려인의 경우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한국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어나 중국어로 소통하는 경우가 더 많아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은 경우도 많다. 한국어

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취업하려는 경향도 나타나 취업처가 한정적인 경우도 있다.

“졸업하면 제 고향에 가서 거기 승무원으로 일할 생각도 있어요. 제 고향이여 가지고 집도 다 마련돼 있고. 그래서 더 쉬울 것 같아서 거기 가고 싶고. 그리고 거기 주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을 항공사에서 쓰니까 소통이 더 쉬울 것 같아서요..(중략).. 일단 내년엔 F5 다들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따로 생각은 안 해봤어요. 어차피 나갈 생각도 있어서..(참여자 9)”

“대림동에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겨우 19살인데 평생을 대림동에서만 산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냐 다른 곳도 가고 우리가 소통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지 했더니 나 그냥 죽을 때까지 대림동에서만 살 거예요. 내가 한국어를 왜 배워야 돼요? 대림동에서 다 대화가 통하는데...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취업하고 살아갈 수는 있는데 폭이 좁아지는 거죠(전문가1)”

3. 변화, 모두를 위한 제안

가. 이주배경 청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지지

1) 정확한 규모, 욕구 파악부터 선행되어야

어떤 정책이든 가장 기초적인 과정은 대상자에 대한 파악이다. 최근 이주배경 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청년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조차 쉽지가 않다고 말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중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그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은 유사하지만 다문화가족 자녀, 비자, 학교생활 등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태는 일부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전까지 체류자격의 변동이 크고, 체류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국적국에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그 규모 파악조차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조사가 가능한 다문

화 청년에 대한 노동시장 이행과 성공적인 정착에 대한 욕구조사가 일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외 이주배경 청년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한 청년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일부 청년들의 얘기만 가지고 그것이 마치 이주배경 청년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고, 각 나라마다 청년들마다 다른 출신 부모님을 둔 청년들마다 또 요구하는 게 달라요(전문가1)”

“이주배경 청년 중에 은둔형이 은근히 많아요. 이주배경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다 보면 자주 발견되는 것 같아요. 집집마다 방문하다 보면 한 15~20% 정도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통계에서조차 안 잡히잖아요. 유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정보 받기도 쉽지가 않거든요(전문가 2)”

“일단 얼마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조차 한계가 있잖아요. 비자 문제 예민한 애들은 아무리 비대면이라고 해도 꺼려질 거고.. (전문가 4)”

“이주배경 청년 케이스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미등록도 포함하고 다른 배경 친구들도 포함하는 데이터 수집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어렵다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다문화가정의 청년 대상 취업 관련 조사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전문가 5)”

2) 보다 실질적인 전문교육, 지원 필요

24세 이전 이주배경 청소년이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폴리텍 다솜고)이 있으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아닌 경우 이용이 어렵고(2025년부터 재외동포 등은 가능),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의 내-일을 잡아라 프로그램은 체류조건의 제약은 없지만 직업교육 분야에 제약이 있어 원하는 교육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는 기술 인력이 필요한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이주배경 청년에게 기술훈련 지원을 제안하기도 한다. 가령 기존 운영하고 있지만 공석이 발생하는 국비지원 직업훈련학교를 이

주배경 청년에게 개방하자는 것이다.

“자동차학과를 가고 싶다는 아이가 어서 용접과 관련된 용어를 이제 멘토링 선생님 붙여가지고 이런 용어는 네가 미리 알고 들어가야 편하다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교육원이 기술교육원이 영주권 이상이 아니고서는 입학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설 좀 이용하게 하자는 거죠(전문가1)”

“직업훈련 해주면 좋죠. 어차피 E7에 준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원하면 어차피 비어 있는데 이용하게 해주면 효율적이죠(전문가 4)”

비단 기술적인 부분뿐 아니라 구직부터 일자리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및 유지를 위한 직업과 더불어 이주배경 청년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문화 및 언어적인 역량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직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얼마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SK뉴스쿨이라고 거기서 지원해 줬는데 SK에서 후원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교육받을 수 있는 게 MD, 정보보안, 자동차, 판금도장 외식 경영, 조리과 이렇게 5개 과가 있는데 그중에 MD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배웠어요...(중략)..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취업할 수 있는 길도 열렸고요. 이런 지원이 많아지면 좋겠어요(참여자 11)”

“훈련기관을 이주배경 청년들에게 열어주면 어떤가 하는 거죠. 길게 4년, 5년 하는 것도 아니니 2년 동안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직업관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또 이제 직업 언어가 또 다르잖아요(전문가4)”

3) 확실한 취업지원 전달체계 필요

연구 참여자 다수가 경험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실제 취업에 임박했을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일반 청년의 경우 취업에 임박했을 때 고용지원센터, 청년센터 등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국적을 가진 청년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같이 이들 센터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취업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등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 기관들이 국제결혼가정 청년에게는 유용한 수단

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국제결혼가정 청년들 가운데서도 언어적 어려움, 문화 적응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자리 지원 전문성과 함께 이주배경에 대한 전문성이 동시에 갖추어진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언어가 유창하고 문화 적응에 문제가 없는 이주배경 청년도 지지체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전문가 지원이 절실함을 토로하였다.

“애들이 적응을 잘하면 연락이 끊겨요. 본인들이 외국인 출신이라고 하는 걸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물어볼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이런저런 전화를 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결국에는 그 거예요. 뭐냐면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 그 아이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면접 스킬에서부터 직장 내에서의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는 이제 약간 문화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매너라든지 상사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게 한국 아이들보다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전문가 1)”

“고용에서 배제되는 이주배경 청년은 다양한 정보나 서비스를 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좀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정보를 많이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다양한 고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죠(전문가 2)”

“복지영역이든 어디든 이주배경에 대한 전문성을 좀 키우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너무 몰라요(전문가 4)”

한편 청소년의 경우 이주배경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24세까지 관련 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는 고용센터지원, 무료직업교육 등은 국적자 외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원의 종류가 대부분 교육, 심리정서지원, 생활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취·창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받기는 쉽지 않다. 일부 청소년기에 관련 센터를 이용했던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사후관리 차원에서 일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일자리 전문가가 아니기에 활동가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청소년기 센터와 연을 맺지 않은 경우 이용하기가 쉽

지는 않다.

“제가 이용했던 센터에서 연계해 줘서 무슨 취업교육을 들었다는 친구가 있었는데...새로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취업을 위해서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지원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배울 수 있게? 그런 게 있지만.. 좀 서울에만 있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쪽에는 없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8)”

“제 상황이 간호 쪽에서는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국 국적이니까. 아무래도 취업 때는 병원에 면접도 보고 필요한 자격증 이런 게 있잖아요. 면허시험이야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면 되기는 하는데.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10)”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조금 발전을 도모하는 친구들, 계획성 있는 친구들이에요. 아니면 비자 시기도 놓치기도 하고 그렇죠. 민간 차원에서 지원 받아서 미등록 노동자들뿐 아니라 이주배경 청년들도 이제 이제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 같은 것도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와요. 합법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많고요(전문가 3)”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지원을 아우를 수 있는 이주배경 청년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담체계 내에는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진 전문인력과 더불어 청년의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담체계가 적극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 또는 지역에 외국인인을 전담하는 공공부문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우리가 필요한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지원금 아예 알아보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약간 그냥 안 될 것 같아서..(참여자 11)”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직군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는 있지만 이주배경 청년들이 막 찾아서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만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네트워크를 좀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고용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또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전문가 2)”

“공무원뿐 아니라 현장,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주 노동자나 이주배경 청년들도 보이는 그런 특성 행동 특성이라든지 종교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주배경 청년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도 전문성부터 좀 제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는(전문가 4)”

4) 대체인력이 아닌 교육받은 인재로서 바라보기

아동·청소년기에 입국한 이주배경 청년과 일반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는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노동배경이 별로 없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나라 이민정책이나 출입국정책은 우수 인재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외국인의 경우 3D업종 등 비이주배경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일하는 대체인력으로만 바라본다. 한국에 유입되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비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일반국민들도 대학 교육을 받은 우수 인재, 한국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화이트컬러라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최근 발표된 탐티어 비자에 대해 반기지만, 일부 제한된 영역뿐 아니라 전 영역에서 동등한 요건이나 능력을 갖춘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노동이나 근로 환경 자체가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야겠다는다고 하는 사고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외국인은 3D 업종에서나 취업하는 사람들이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한국인과 똑같은 직장을 다닌다 이런 생각들은 기업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깊이 있게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E9 비자의 외국인 노동자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전문분야의 우수한 인력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고민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기업이나 일반인들도 그런 노동자로서 일반 그런 화이트칼라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전문가 1)”

“D10 상태에서 돌봄 인력으로 일하게 되면 E7으로 바뀌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대학 졸업한 외국 유학생 아이들이...젊은 친구들이 돌봄 노동자를 선호하지는 않거든요(전문가 5)”

나. ‘청년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1)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

외국인가정 자녀와 전문가들의 경우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미성년 시기에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경우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숙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이지만 인구구조에 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보충적 출생지주의를 고려하거나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국적을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국내 출생 여부나 국내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준비를 위한 비자가 아닌 안정적 체류비자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가령 미성년 시기에 일정기간 이상 생활하는 이주배경 청년에 대해서는 신규 비자를 부여하자는 등의 의견으로, 외국인 신분이지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가 유창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새로운 인력을 유입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다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사실은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재들이 다시 또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중략)...미성년 시기에 한국에서 최소 5년 이상 생활하는 아이들에게는 좀 신규 비자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전문가 1)”

“한국의 체재기간을 고려해서 국적을 준다든지 아니면 취업의 길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아이들은 계속 은둔형 청년들이 돼서 불법체류자가 되어서 사회로 못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나 국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좀 완화될 필요성이 많이 있겠다는 거예요. 물론 심사는 굉장히 강

화해야 되겠지만(전문가 2)”

“한국에 있는 애들 그래도 소통이 가능한 아이들을 직업의 현장에 이렇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필요한 것이죠(전문가 5)”

최근 법무부에서 발표한 新출입국·이민정책에서 이민 2세대 등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는 했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기 청소년의 비자를 대학졸업자와 동일하게 구직(D-10)이나 취업비자(E-7 등)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수준이라 조건이 없는 안정적 체류자격은 아니다. 취업을 통해 특정활동 취업비자(E-7)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령, 학력, 소득, 한국어 능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GNI 2배 이상의 수입은 원주민도 맞추기 어려운 요소이며, 영주권 취득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가족과 거주가 필요한 경우 방문동거(F1)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와 같은 경우 계절근로를 제외한 취업 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 안정적 체류자격이라기보다 기존 정책에서 학력요건 하나를 생략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회 부여로 볼 수 있다.

“그냥 국적이 안 되다 보니까.. 불법 취업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노동에서 부당노동 행위를 직접 당할 수밖에 없고요. 또 임금 체불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전문가 4)”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 개선

다문화 인구가 5%를 넘어설 정도의 많은 이주배경 주민의 증가, 저출산으로 선주민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업종이 늘어나면서 이주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보수성이 존재한다.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국민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여전하고,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제 단순한 인식의 차원에서 벗어나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이 행동으로, 그리고 생활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한다. 특정한 방법으로,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적극적

인 정책이 이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본다.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나 정책적으로나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어쩌면 식상할 주제라고 치부될 수도 있으나 여전히 필요한 정책이라 말한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뭔가 이런 게 다양하지가 않다 보니까(참여자 1)”

“저도 좀 상황이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진짜 사회에서 묵묵하게 일하시고 성실히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분 중 한 분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럼 이제 언론이나 뉴스에서는 이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다. 과장된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돌봄 하시는 분들 두 분인가 도망가셨는데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편견이 좀 이 사회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구성원들 인식이 안 바뀌면 힘든 것 같습니다(참여자 5)”

“실제로 공장에서 이제 일해보자 그래서 하루 갔다 왔는데 그때도 이제 ‘히잡을 쓰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거 안 벗을 거면 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면... 또 저를 처음에 봤을 때 ‘너는 한국인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국 국적이다 얘기를 해줘도 그냥 ‘국적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참여자 6)”

“사실은 이러한 이주배경 청년들이 지금 원하는 것들은.. 사회로 못 나가고 또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편견과 또 문화적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겹나서 못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전문가 2)”

제4절 소 결

본 장은 이주배경 청년과 이주배경 지원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범주는 크게 ‘취업 준비 및 구직 경험’, ‘과거와 현재의 일’, ‘변화, 모두를 위한 제안’이라는 3가지로 축약되었고 그 양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취업 준비 및 구직 경험의 가장 첫 단계는 ‘진로, 직업선택’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선택은 나의 미래를 고려한 선택이 가장 많았는데, 그 가운데 대학은 한국사회 정착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라고 인식하고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여 진학을 선택하게 하였고, 대학교육은 이러한 진로결정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역할모델이 부족한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 자기탐색보다 비슷한 배경을 가진 지인의 경험이나 교육기관의 추천, 부모의 진로방향에 의해 진지한 고려 없이 그냥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가족의 경제 상황은 학업과 취업의 기로에서 취업을 선택하게 하지만 비자 여건상 어쩔수 없이 대학이라는 대체 진로를 선택하기도 한다. 이주라는 배경 속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주배경이기에 접했던 지원기관,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하기도 한다.

진로취업의 방향이 결정된 이후에는 ‘역량 키우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은 여느 청년들과 다르지 않다. 학점, 자격증, 한국어 외에 어학능력을 키우고,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을 학습한다. 그러나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어 능력, 체류자격에 따라 역량키우기의 방점은 달라지며, 체류자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들도 달라진다. 역량 중 한국어 능력은 노동시장 이행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입직 뿐 아니라 조직 적응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주배경 청년들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예 취업목표를 낮추는 선택을 하기도 하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언어 공부를 병행한다.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스스로 하기도 하지만 일반 청년의 취업 지원체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효과성은 미미하여 전문 취업지원기관은 아니지만, 본인의 이주배경 특성을 이해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로지원기관을 찾는다.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역량을 기르고 있거나 기른 후에는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일에 접근’하게 된다. 취업정보를 얻거나 실제 취업알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지인 소개나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스스로 찾고 있었다. 일자리를 찾는 과정은 반드시 원하는 취업 목표 기관의 탐색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러 취업 장벽을 경험한 이주배경 청년은 스스로 한계를 두어 본인의 객관적 조건보다 낮은 곳을 타킷으로 하여 취업을 준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주배경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진학 시 특별전형 등을 통해 일반 청년보다는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었고, 외모의 독특성, 이중 언어의 장점,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이 취업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탐색과 실제적인 구직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한다.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 기본적인 면접 에티켓조차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청년조차 난항을 겪기도 하지만, 이를 실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은 없다. 또한 본격적인 구직의 과정에서는 언어가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이국적인 경우 일반 청년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인종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진로 방향을 정하고 역량을 키워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이 모든 과정에서 '이주배경 청년이 통제할 수가 없는 역량 외의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이 불안정한 체류자격이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청년과 마찬가지로 경력개발만을 위해 집중하면 되지만 외국인가족 자녀나 일부 체류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눈앞에 닥친 체류자격 확보에 몰두하느라 긴 시간을 소요하기도 한다. 실제 대학교육이 필요없지만 체류자격 유지를 위하여 유학생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며, 대학 졸업 후에는 대한민국 출생이며 전 생애를 한국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체류자격 변경을 거쳐 평균 10여 년의 영주권 획득 전쟁을 치르게 된다.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긴 하지만 한국 국적이나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주배경 청년의 상황에 따라 언어가 능통하고 적절한 자격요건(학력, 기술 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나 국적이 취업을 가로막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다사다난한 준비의 과정을 거치거나 거치는 과정에 '과거의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현재의 일'을 가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노동시장 경험을 가지게 된다. 현재 일자리에 이르기 전까지 '다양한 사회경험'

을 하게 되는데, 본인 스스로 ‘취업’이라고 말하는 일자리에 진입하기 전까지 또는 취업 이후에도 경력개발과는 무관한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게 된다. 경제적 도움이 되고 일 경험 측면에서는 유익할 수 있으나 다수의 아르바이트는 경력개발과는 무관한 경험으로 자리한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실제 취업이라 할 수 있는 일 경험을 시작하게 되며, 이는 본인의 능력을 검증하며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지만, 초단기 일자리에 전전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다양한 사회경험을 하는 와중에 이주배경이 일자리를 경험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중 언어를 활용한 일이나 출신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일자리 등에서 일자리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시장은 만만치 않아 ‘일자리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과중한 업무량으로 잦은 야근을 하게 되어 일 생활 균형이 깨어지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도 한다. 또한 산업 특성상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일하기가 어렵거나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누구나 노동 현장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겠으나 단순히 이주배경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은근한 차별, 무시, 직장 내 은근한 따돌림을 경험하기도 한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차별과 편견과도 연결이 되는데 업무 과정에서 동료들과 업무 내용을 달리 부여받기도 하고, 특정 업무에서 배제 등을 당하기도 한다.

구직과정에서나 일 경험 중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곳곳이 ‘나의 일자리에 정착’하게 되는데, 여느 청년과 다르지 않은 직장생활을 이어간다. 그러나 이주배경 청년이기에 부가적인 역량개발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관계 및 조직문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경험하기도 하지만 역량도, 마음을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고 도움받을 곳도 없다고 호소한다. 일자리에 안정적인 정착을 해야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도 모호하고, 동일한 능력과 자격으로 한국에서 지내는 것보다 출신 국가에서의 대우가 더 좋고, 발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문화와 언어가 익숙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출신 국가로 돌아가 취업하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의 경험과 인식은 우리에게 ‘변화’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으며 변화해야 할 부분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먼저

‘이주배경 청년을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들을 지지’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배경 청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욕구가 무엇인지 분석해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분석이 끝난 이후에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전문교육이나 훈련,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전문가들은 기술 인력이 필요한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이주배경 청년에게 기술훈련 지원을 제안하기도 한다. 가령 기존에 운영하고 있지만 공석이 발생하는 국비지원 직업훈련학교를 이주배경 청년에게 개방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또한 실제 취업에 임박했을 때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주배경 청년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취업을 실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학 교육까지 마친 우수한 인재로서 이주배경 청년을 인정해야 하며, 대체인력으로만 보는 시각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으로서 일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이다. 최근 새로운 출입국정책이 발표되고 있는데, 외국인가정 자녀와 전문가들의 경우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미성년 시기에 한국에서 일정기간 이상 체류한 경우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미성년 시기에 일정기간 이상 생활하는 이주배경 청년에 대해서는 신규 비자를 부여하자는 것으로, 외국인 신분이지만 한국어가 유창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그들을 유입하는 것이 새로운 인력을 유입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식의 차원에서 벗어나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이 행동으로, 그리고 생활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인식 개선 교육과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제 6 장

결 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년 규모와 취업 상태 변화 추이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개인적 측면에서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일자리 경로 특성, 그리고 노동시장 이행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이주배경 청년 고용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이주배경 청년의 개념과 체류 자격을 검토하였고, 제3장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 변화 추이와 취업 상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시적 측면에서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특성과 정책 수요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이주배경 청년과 현장 전문가의 질적 사례 분석을 통해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경험 과정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주배경 청년의 개념과 체류자격 종류별 취업 자격을 파악하고, 이주배경 청년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기본계획을 검토하였다. 이주배경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법이나 정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정책이나 학계에서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주배경 가구의 자녀 중 아동 및 청

소년기를 포괄하는 정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녀로 정의한다. 다문화 학생 또는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년 등에 사용되는 다문화의 개념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결혼이민자 가족 또는 기타 귀화자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등 외국인 가정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 지원법」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그 외 관계 부처(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정책 대상 또한 청년보다 아동 또는 청소년에 초점을 둔 정의가 주를 이룬다.

최근 이주배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및 학술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연령을 청년기로 확장하여 사용하거나, 부모와 자녀의 출생지를 교차하여 이주배경 청년을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와 이주배경의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만 25세 이상 연령의 청년을 기준으로 다문화 청년 또는 이주배경 청년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이주배경 청년의 체류자격은 이들이 청소년 시기 갖고 있는 체류자격 유형에 따라 성인이 된 후 체류할 수 있는 자격 전환 방식이 다르며, 취업 가능 여부도 달라진다. 현재 이주배경 주민의 미성년 자녀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F계열 사증이며,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4(재외동포), 영주(F-5)가 가능하다. 이 외에 학업과 관련된 D-4(일반연수) 자격, G-1(기타자격)이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는 성년이 된 이후 한국에서 체류 가능한 별도의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정주형 체류자격인 F-2나 F-5의 경우에는 기존 체류자격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존재한다. 정주형이 아닌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D계열, F-1 계열, F-3 계열)에는 성년이 되면 별도의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그 외의 연령을 특정하여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있다. 재외동포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F-1-9)는 부나 모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25세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다. F-1, F-3 체류자격의 이주배경 청소년이 청년이 되었을 때 체류자격 취득이 상대적으로 용

이 할 수 있는 자격은 유학(D-2)과 연수(D-4) 자격이다. 성년이 된 직후 진학이 아니라 취업을 한다고 한다면 E-1~E-7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취득이 어렵다. E-9은 한국과 송출국(국적국) 간에 선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성장한 이주배경 청년이 국내에서 지원할 수는 없고, 국적국에서 선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입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선발 인원, 대기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단시간 내 입국이 쉽지는 않다.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인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을 통하여 초청자 또는 주 이민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F계열의 비자를 취득할 수도 있다.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인도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경우 난민신청을 하여 G-1(난민 신청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난민인정 심사 결과 난민인정자(F-2)나 인도적 체류자(G-1)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 이주배경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동포 관련 체류자격인 F-4계열도 취득 가능하다. 동포의 직계비속이면 동포 관련 자격(H-2)의 신청이 가능하다. 미등록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D-4계열 체류자격을 미성년일 때 부여받고 성인이 되어 D계열, E계열로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1년 동안 임시로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는데 이 기간 동안 다른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D계열은 요건 충족 후 허용 분야에서 파트타임이 가능하다. F-2는 일부 제한 직종 외에 취업 제한이 없고, F-5계열은 취업의 제한이 없다. F-1, F-3, F-6계열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다. G-1계열은 신청 후 6개월 이후부터 취업 가능하다. 동포 체류자격인 F-4계열은 단순 노무가 불가하며, H-2계열은 46개 업종 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이주배경 청년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국가 기본계획은 「제4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이 있다.

제3장은 인구주택총조사 2010·2015·2020년 2% 표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와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 간 비교를 통해 취업 상태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주배경 청년은 1)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출생 또는 현재 국적이 외국(북한 포함)인 가구의 19~34세 자녀(유형 1: 부모 기준 이주배경 청년)와 2) 본인의 출생 또는 현재 국적이 외국인 19~34세 청년 중에서 가구주와의 관계가 자

녀(유형 2: 본인 기준 이주배경 청년)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비교집단으로서 비이주배경 청년은 부모 기준 이주배경 청년이 속한 가구원이 아님과 동시에, 본인 기준 이주배경 청년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이 아닌 19~34세 자녀로 정의하였다.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는 2010년 1만 7천 명, 2015년 2만 7천 명, 2020년 3만 5천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이주배경 청년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부모 기준 이주배경인 경우가 연도에 상관없이 70% 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부모의 출생 시 국적 기준으로 가족 유형을 구분할 때,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 경우가 연도에 상관없이 32%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일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는지(부업, 아르바이트, 가족의 수입되는 일을 도움 포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 ‘일 자리를 갖고 있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일하였음’으로 구분하고 취업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49%에서 2020년 46%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 학교 재학 비중이 증가하면서, 취업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배경 청년과 비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비중을 비교하면, 이주배경 청년이 비이주배경 청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비이주배경 청년은 51~54%의 취업 비중을 유지하지만, 이주배경 청년은 2010년 49%에서 2020년 46% 수준으로 다소 하락을 보였다. 연령대를 세분화하면, 19~24세에서는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비중이 시기에 상관없이 비이주배경 청년보다 다소 높지만, 25~29세 연령대에서는 비이주배경 청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인구주택총조사 2010~2015년 연계 표본과 2015~2020년 연계 표본을 각각 구성하고, 이중 코호트 모형(double cohort model)의 틀에서 이주배경 여부가 취업 확률과 직업별 선택 확률에 끼친 영향을 이항 로짓모형 및 다항 로짓모형으로 추정하였을 때, 이주배경 청년은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취업 확률이 1.3%p(2015~2020년)~3.5%p(2010~2015년) 낮았다.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 이해도의 대리변수인 ‘5년 전 한국 거주 여부’의 평균 한계효과는 2010~2015년에 8.3%p, 2015~2020년에는 4.3%p로 나타나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취업 확률 감소보다 더 큰 효과를 보였다. 직업별 선택 확

률의 경우, 분석 기간에 상관없이 이주배경 청년은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사무직과 서비스 및 판매직을 선택하는 확률이 낮은 반면, 기능직, 단순 노무직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다만 이주배경 청년인 경우라도 5년 전 한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관리자·전문가, 서비스·판매종사자를 선택 확률이 늘어났다.

제4장은 부모 중 1명 이상이 외국 출신으로 만 18세 이전에 1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20~39세 이주배경 청년 324명을 대상으로 직업력, 근로실태 그리고 미래 일자리 계획을 살펴보았다. 체류자격, 인적자본, 취업 어려움 경험 등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 특성을 살펴보고, 다항로짓 분석을 이용하여 현재 취업 상태와 직업훈련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가구 특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이주배경 청년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된 이주배경 청년의 평균 연령은 26.9세로, 20대 초반이 29.3%, 20대 후반이 48.1%, 30대가 22.2%로 구성되었다. 여성은 58.3%, 남성은 41.7%이며, 한국 국적자는 75.6%, 외국 국적자는 전체 응답자의 24.4%로, 이들 중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경우는 41.8%, 조건부 취업과 아르바이트 가능 비자는 40.5%,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는 17.7%였다. 현재 취업 상태는 취업자가 52.5%, 구직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 상태의 포기자가 25.6%, 그리고 구직자 21.9%였다. 만 18세까지 한국 체류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78.4%로 청소년기에 한국 체류기간이 긴 편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67.6%이며, 평균 2.57개를 경험하였다. 구직자의 일 경험률은 35.2%, 포기자는 28.9%로 낮은 편이며, 포기자의 경우 평균 3.33개 일을 하여 취업자(2.47개) 및 구직자(2.52개)보다 일 경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 실태와 직업력 특성을 요약하면, 취업자들은 평균 1.06개 일을 하며, 주로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65.3%, 비정규직 32.4%이며,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가 6.5%, 무급가족종사자와 특수고용직이 각각 1.2% 순이었다. 현재 일자리의 근속연수는 평균 29.5개월이었다. 취업자의 76.5%가 현재 일자리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23.5%, 잘

모른다가 6.5%였다.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 국적일수록 정규직 비중과 4대 보험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일주일 평균 37.6시간 일하며, 월 평균 236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 국적자일수록, 서울 거주자일수록, 한국어를 잘할수록 월 평균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일을 시작하게 된 주된 동기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이거나, 일자리의 임금, 근로시간, 안정성에 만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는 구인공고나 직업소개소나, 지인이나 가족의 소개를 통해 구한 비중이 높았다. 취업자 3명 중 1명만 현재 일자리를 은퇴까지 하고 싶은 일자리로 여겼으며, 나머지는 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그만둘 수 있는 일자리이거나, 임시 일자리로 여겼다. 현재 일자리에서 은퇴하고 싶은 경우 현재 일자리가 적성, 전공, 경력과 능력에 맞는 업무라고 평가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이 높고, 적성, 전공, 경력 및 능력에 맞는 업무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의 조건으로 평가하였다.

취업자와 구직자는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과 취업 관련 상의할 사람을 찾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자인 구직자는 체류자격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포기자는 일자리를 구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이용하는 것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찾는 것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주배경 청년의 생애 첫 일자리의 특성을 보면, 평균적으로 22.5세에 비정규직(68%, 정규직은 25%)으로 단순 노무, 사무, 판매 및 서비스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노동 경력이 시작되었으며, 평균 14개월 정도 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첫 일자리의 4대 보험 가입률은 46.3%로 낮은 편이며, 한국 국적자보다 외국 국적자의 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았다. 일주일 평균 35시간 일하여, 월 평균임금은 157만 원이었다. 가장 길게 한 일자리는 평균 23.3세에 단순 노무, 사무, 판매 및 서비스직에서 비정규직(61%, 정규직은 29%)으로 평균 18.1개월가량 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대 보험 가입률은 52.4%로, 일주일 평균 35.3시간 일하여, 월 평균 165.2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최근 및 직전 일자리는 평균 24.4세에 단순 노무, 사무, 서비스, 판매직에서 주로 비정규직(66%, 정규직은 27%)으로 일하였고, 평균 14.5개월간 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대 보험 가입률은 55.8%로, 일주일 평균 34.8시간 일하며 월 평균 172만 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노동 궤적은 이주배경 청년은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약 1년간 일한 뒤 동일한 직종이지만, 상대적으로 임금과 복지 부분에서 개선된 자리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첫 일자리가 비정규직이었던 청년의 84%가 최근 자리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일하였다는 점은 이주배경 청년의 일자리 이동이 처음 시작한 자리의 종사상 지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미래 일자리 계획 특성을 요약하면, 현재 취업자인 이주배경 청년의 대다수가 향후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자리, 정규직 등의 안정적 일자리, 전문직 일자리를 가지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이 해외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였다. 취업자의 다수가 더 나은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위한 준비는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었다. 전체 취업자의 33%만 더 나은 일자리 취득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구직자는 57.7%, 포기자는 39.8%로 낮은 편이었다. 더 나은 일자리 취득을 위한 준비는 주로 자격증 취득 또는 교육 및 직업훈련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성 그리고, 20대 후반에서 상대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준비 비중이 높았다. 더 나은 일자리 취득에 있어 필요한 경비와 생활비 부족은 가장 큰 어려움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취업 등에 대해 상담할 사람의 부재, 필요한 경력의 기회 부재, 직업훈련 및 교육에 대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구직자들이 현재까지 구직활동을 한 지는 평균 12.7개월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일수록, 외국 국적자일수록,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평균 구직기간이 짧았다. 구직자들은 주로 구인광고나 직업소개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현재 비취업자인 구직자와 1년 이내 구직을 희망하는 포기자가 희망하는 일자리 직종은 주로 사무직, 전문가였으며, 여성은 사무직, 남성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다수가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희망하지만, 일부는 자영업 및 프리랜서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주당 평균 40.5시간 근로로, 월 평균 281만 원의 임금을 희망하였으

며, 수도권 취업에 대한 희망이 높은 편이었다.

넷째, 본 조사의 이주배경 청년의 3명 중 1명만이 학교 졸업 이후 직업훈련이나 직업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이주배경 청년의 과반 정도가 향후 정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밝혔다. 직업훈련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안정적이고 소득이 괜찮은 일자리로 연결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다음으로 적성과 희망에 맞는 일자리 연결을 중요시하였다. 직업훈련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희망하는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을 가장 선호하였고, 회사에서의 현장 실습 및 일 경험, 그리고 면접,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등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었다. 이는 앞서 더 나은 일자리 및 희망 일자리를 찾는 데 경험하는 어려움이 경력 획득 기회 부재, 취업 과정에서 상담할 사람의 부재였던 점과 연결되는 선호로 보여진다. 특히, 회사에서의 현장실습과 일 경험은 정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중요도에서 1순위를 차지하여 이주배경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한국어와 체류자격 등 외국인 관련 정책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다섯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취업 상태 결정요인 분석 결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구직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포기자가 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한국 국적 이주배경 청년과 비교하여, 외국 국적자로 취업 가능 비자를 가진 경우 포기자가 될 가능성이 감소하였으며, 취업 불가 비자를 가진 경우에는 구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체류 여건을 가진 이주배경 청년일수록 노동시장 진입의 의지가 높고, 구직 의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에게 독립하지 않은 이주배경 청년은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청년 니트(NEET)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다. 만 18세 이전 한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5년 이상일수록, 현재까지 경험한 일자리 수가 많을수록 취업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직업훈련 참여 의향 결정요인 결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훈련 참여 의향이 낮았다. 취업한 이주배경 청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취업한 20대 여성일수록 직업훈련 참여 의향

이 높아졌다. 지역적으로는 전라 지역이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서울보다 컸다. 평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결혼하였을수록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였을 경우 청소년기에 장기 한국 체류기간이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직업훈련이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취업 청년일수록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제5장은 이주배경 청년의 내부자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이주배경 청년과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질적 사례 분석을 시행하였다. 시간 경과에 따라 그들의 노동시장 이행 경험은 어떻게 전개되고 그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분석의 범주는 크게 ‘취업준비 및 구직 경험’, ‘과거와 현재의 일’, ‘변화, 모두를 위한 제안’이라는 3가지로 축약되었고 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취업준비 및 구직 경험의 첫 단계로 ‘진로, 직업선택’을 하는 데 한국사회 정착에 있어 대학은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적성을 고려하여 대학에 진학한다. 그러나 역할 모델이 부족한 경우 진지한 고민 없이 진학을 선택하기도 하고, 취업을 원하지만 비자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대학이라는 대체 진로를 선택하기도 한다. 방향 결정 이후에는 ‘역량 키우기’를 하는데, 한국어 능력, 체류자격에 따라 역량키우기 방법은 달라지며,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 정책도 달라진다. 국내 출생 청년은 한국어가 걸림돌이 된 적은 없으나 중도 입국 청년 중 일부는 한국어 능력의 한계로 취업목표를 낮추기도 한다.

‘본격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일 접근’ 과정에서는 외모의 독특성, 이중 언어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여러 취업장벽 및 실패를 경험하며 본인의 역량보다 낮은 곳을 목표로 하거나 추가적인 준비를 하게 된다. 구직은 전문기관 활용보다는 인터넷이나 지인 소개가 주를 이루어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 기본적인 면접 에티켓 등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청년조차 난항을 겪지만, 실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전문기관은 없다. 한편 취업준비 과정에서 ‘통제할 수 없는 역량 외의 것들’ 중 가장 큰 것은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이들의 경우 적성과 능력에 관계없이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직업을 얻거나 대학 교육이 필요 없지만 다시 유학생이 되기도 한다.

본격적인 ‘일 경험’ 단계에서는 대부분 본인 스스로 취업이라고 말하는 일자리 진입 전까지 취업 경력개발과는 무관한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한다. 다양한 사회 경험 중에 이중 언어 활용,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일자리 등 이주배경이 일자리 경험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노동시장은 만만치 않아 ‘일자리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과중한 업무량, 불안정한 회사 상황과 더불어 누구보다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차별, 무시, 은근한 따돌림과 업무 과정에서 동료들과는 다른 업무 내용 부여, 특정 업무 배제 등을 당하기도 한다. 구직 과정이나 일 경험 중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곳곳이 ‘나의 일자리에 정착’하며 어느 청년과 다르지 않은 직장생활을 이어간다. 이주배경 청년이기에 부가적인 역량개발과 관계 및 조직문화 어려움,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하지만 역량을 지키는 것도, 마음을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고 도움받을 곳도 없다. 안정적인 정착을 해야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도 모호하고, 같은 역량이나 조건일 경우 한국보다 대우가 더 좋고, 문화와 언어가 익숙하며,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출신 국가로 돌아가 취업하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노동시장 이행의 경험과 인식은 ‘변화’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데, 먼저 ‘이주배경 청년을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이주배경 청년에게 기술훈련 지원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한 대학 교육까지 마친 우수한 인재로서 이주배경 청년을 인정해야 하며, 대체인력으로만 보는 시각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으로서 일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이다. 외국인가정 자녀와 전문가들의 경우 방법의 범람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미성년 시기에 한국에서 일정기간 이상 체류한 경우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식의 차원에서 벗어나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이 행동으로, 그리고 생활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인식개선 교육과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19~34세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는 2010~2020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0~18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이주배경 청년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주배경 청년의 정확한 규모와 이들의 상황과 정책 수요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도 커진다.

둘째, 이주배경 청년의 약 70% 이상이 부모가 외국 출신이고, 45% 이상은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으로 추측되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 및 가구 특성이 동일하더라도 이주배경 청년은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취업과 직업 선택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지만,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도가 향상될 경우 상당한 노동시장 성과 개선이 기대된다. 이주배경 청년의 원만한 노동시장 이행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들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 문화 이해도 향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를 재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이주배경 청년의 괜찮은 커리어 형성을 위한 이직 및 전직 지원이 필요하다. 이주배경 청년의 일자리 이동이 처음 가진 일자리의 직종과 종사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동시장 경력을 쌓고 있어, 불안정한 첫 번째 일자리가 불안정한 커리어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취업한 이주배경 청년의 다수가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이나 전직을 희망함에도 3명 중 1명만 실제로 이를 위한 실질적 준비를 하였다. 구직자와 포기자도 희망하는 일자리 진입을 위해 실제 준비하는 경우는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넷째,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장기적인 커리어 플랜 설계가 가능한 직업상담기관의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취업자, 구직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취업 의사가 있는 현재 비경제활동 이주배경 청년은 취업 관련 상담을 할 사람을 찾지 못해 더 나은 일자리 취득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주배경 청년의 사회 및 인적 네트워크가 비이주배경 청년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에서 학교 졸업 후 이주배경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및 커리어 개발 상담이 더욱 필요하다. 실제, 현장 전문가들은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이 임박했을 때 이들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있으면서 실제적인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나 전문가들과의 멘토링 시스템 운영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직업훈련과 취업 교육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주배경 청년은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의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업훈련과 취업 교육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주배경 청년의 과반이 정부의 직업훈련 참여 의향을 보였고, 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직업훈련이 희망하는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장실습과 취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이주배경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경력이 부재하고, 취업 준비의 행정적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장 전문가가 강조한 활용 가능한 더욱 실질적인 전문교육이나 훈련, 지원의 필요성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주배경 청년의 역량 개발과 관심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에서 2016년부터 도입된 이주배경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이주배경 청년 정착프레임워크(National Youth Settlement Framework)와 지역 사회의 취약 이주배경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과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주배경 청년 지원서비스(Youth Transition Support)는 우리가 벤치마킹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여섯째, 취업에 제한이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배경 청년의 국내 노동시장 진입 및 구직 의사가 높았다. 사회통합 관점에서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정책의 주요 대상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거나 취업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취업에 있어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배경 청년의 국내 노동시장의 진입과 구직 의사가 높다는 점은 향후 이

주배경 청년 노동시장 정책의 대상으로 이들을 포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공수연·양성은(2014), 「중국국적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과정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한국가정관리학회, pp.133
~150.
- 김광욱·김민철·권순식(2020), 「일과 삶의 균형과 고성과작업시스템」, 『인
적자원관리연구』 27(3),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pp.25~30.
- 김민선·김재훈(2021), 「이주배경 청년들의 우울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개
인·사회·환경적 변인 간의 관계」,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2),
pp.141~170.
- 김민선·김재훈·고은영(2022), 「다문화 청년들이 경험하는 성인기 진로 선
택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35(1), 한국진로교육학
회, pp.111~141.
- 김민선·박희진(2022), 「다문화 청년들의 진로장벽과 삶의 만족의 관계 : 진
로목표불일치,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조절된 매개효
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35(3), pp.1~27.
- 김민선·연구진·Paul Youngbin Kim(2022), 「다문화 청년들이 지각한 진로
장벽과 괜찮은 일자리 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와 진로 적응성의 매개
효과 :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집단 분석」, 『인
간이해』 43(1), pp.45~66.
- 김은정·김민선(2023), 「다문화 청년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진로목표불일치의 순차매개효과 : 통합 사회
인지진로이론에 기반하여」, 『미래교육학연구』 36(3), 연세대학교 교
육연구소, pp.37~61.
- 김영용(2005), 「최근 유럽연합국가들의 작업조직 형태의 다양성에 관한 검
토」, 『국제노동브리프』 3(9), 한국노동연구원, pp.125~130.
- 김진희·김자영·권진희(2021), 「다문화배경 청년의 학습생활과 교육 요구

- 에 대한 질적 분석」, 『평생학습사회』 17(2), pp.61~88.
- 노세리 · 노용진 · 박영원 · 강혜정(2021), 『작업조직 혁신과 인사혁신의 통합적 접근』, 한국노동연구원, pp.5~10.
- 류유선(2023), 『이주배경청년의 생애기획 경로에 대한 기초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박희진 · 위고운 · 강민희 · 윤성찬 · 김민선(2023),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주변화, 미묘한 차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30(7), pp.173~204.
- 백경민 · 연구진(2022), 「다문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직무만족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다문화와 평화』, 16(1), pp.174~202.
- 법무부(2024),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 新 출입국 · 이민정책 추진방안」.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22), 「비자 내비게이터」.
- 신윤정 · 양미선 · 최혜리 외(2018),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 · 성장 환경 분석』,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송영호 · 김재훈(2022), 「이주배경청년의 불안정성 잠재프로파일과 삶의 질」, 『디아스포라연구』 16(1), pp.105~144.
- 송영호 · 최영미(2021), 「이주배경청년의 시민적 위계화와 사회적 주변화 : 국적과 출생지, 젠더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22(2), pp.3~38.
- 양계민 · 권오영 · 이영신 · 장운선 · 장인숙(2023),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성우 · 민성희 · 박지영 · 윤성도(2005), 『로짓 · 프로빗모형 응용』, 박영사.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2023), 『이주배경청소년 사회진출 지원 방안 정책 토론회 자료집』.
- 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 _____(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_____(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018~2022)」.
- _____(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2023~2027)」.
- 유명순 · 이근찬 · 권순만 · 윤혜정(2012), 「한국 병원 최고 경영자의 책무성 인식 : 심층 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보건행정학회지』 22(4), 한국보건행정학회, pp.597~627.
- 윤성호(2022), 「다문화배경 청년에 관한 연구동향과 과제」, 『인문사회21』 13(1), 인문사회21, pp.2303~2316.
- 장현진 · 이수현 · 한은지 · 김민선 · 연구진(2022), 「이주배경 청년의 코로나 19 스트레스, 취업장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3), pp.1~27
- 장현진 · 류예진 · 왕희찬 · 연구진 · 김민선 · Paul Youngbin Kim(2023), 「사회적 주변화가 이주배경 청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한국 및 외국인 부모 문화에 대한 수용 태도에 의해 조절된 진로 목표 불일치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4(3), pp.131~154.
- 최영미 · 이지선(2020), 『경기도 이주배경청년 생활경험 및 정착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최영미 · 송영호(2020),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 : 초국가적 가족관계 및 새로운 관계구성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2(4), pp.189~213.
- 통계청(2010, 2015, 2020), 「인구주택총조사」.
- _____(2021), 「2021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행정안전부(2023. 11. 8.),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Adda, Jérôme, Christian Dustmann, and Katrien Stevens(2015), "The Career Costs of Children," Working paper, University College London.
- Albert, S. M. and J. Duffy(2012), "Differences in Risk Aversion between Young and Older Adults", *Neuroscience and Neuroeconomics*, 2012(1), pp.3~9.
- Creswell, J. W(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J. W. Creswell, Ed.),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nd ed.), California : Sage Publications.

Myers, D. and S. W. Lee(1998), “Immigrant Trajectories into Homeownership : A Temporal Analysis of Residential Assimilation,”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2 (3), pp.593~625.

Shibuya, K., H. Guo and E. Fong(2020), “Unemployment Patterns of Local-Born and Migrant Youth in a Postcolonial Society : A Double Cohort Analysi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88 (1), pp.20~37.

〈웹사이트 자료〉

여성가족부(2022),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현황,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09, 2015, 202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https://kosis.kr/common/meta_oned_eptb.jsp?vwcd=MT_OTITLE&listid=154_11779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www.rainbowyouth.or.kr.(접속일 : 2024. 9. 5.)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조사 통계별 질문(2010. 8. 25), https://kostat.go.kr/board.es?mid=a10502020100&bid=3203&act=view&list_no=71991&tag=&nPage=1&ref_bid=3203&keyField=T&keyWord=(접속일 : 2024. 8. 8).

한겨레(2024. 3. 18), 「이민 확대, 만병통치약 아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2750.html>(접속일 : 2024. 11. 12).

한국일보(2024. 8. 17), 「‘이민정책 확대’ 찬성 46% vs 반대 44%…이젠 ‘정착 후 사회통합’ 고민 필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1415270004904>(접속일 : 2024. 11. 12).

행정안전부(2024. 7. 1),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 · 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955> (접속일 : 2024. 11. 12).

SQ6. 본인 국적	① 한국 국적 ▶SQ8 이동] ② 외국 국적 : _____ ▶SQ7 이동] ③ 이중 국적 : 외국국적 어디? _____ ▶SQ8 이동]			
SQ7. 현재 체류자격	※ 현재 비자 기간 만료 등으로 미등록인 경우 과거 입국 당시 비자로 응답 ① 방문취업(H-2) ② 단기방문동포(C-3-8) ③ 재외동포(F-4, F-4-R) ④ 영주국민의 배우자(F-5-2) ⑤ 영주(F-5; F-5-2는 제외) ⑥ 방문동거(F-1), 동반(F-3) ⑦ 거주(F-2; F-2-1은 제외) ⑧ 유학(D-2, D-4-1, D-4-7) ⑨ 난민(신청) (G1, G1-5) ----- ⑩ ~ ⑮는 조사 중단 ----- ⑩ 결혼이민(F-6, F-2-1, F-2-R) ⑪ 비전문취업(E-9) ⑫ 전문인력(E-1~E-7) ⑬ 기술연수(D-3) ⑭ 기타 91일 이상 체류자격 ⑮ 단기 방문(C-3), 관광·통과(B-2), 사증면제(B-1) 등 단기 체류자격 ⑯ 기타 _____			
SQ8.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9. 현재 사는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SQ10. 한국어 수준	① 전혀 못함 ② 못하는 편 ③ 잘하는 편 ④ 매우 잘함			

SQ11. 귀하는 학교를 졸업한(또는 그만둔) 후에, 한국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일’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일용직)/계약직/파견직, 인턴, 아르바이트, 자영업, 프리랜서,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일(무급가족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① 있다 → 현재 일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총 몇 개의 일을 해보셨습니까? 개
 ② 지금까지 일을 해 본 적이 없다. ▶ SQ12-2 이동]

SQ12.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 A. 취업자 이동]
 ② 돈을 받으며 휴직(육아휴직 등) 중이다 ▶ SQ12-1]
 ③ 돈을 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 ▶ SQ12-2]
 ④ 예전에는 일을 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다 ▶ SQ12-2]

SQ12-1. 귀하는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돈 받지 않고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도와주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A. 취업자 이동]
 ② 아니다 ▶ SQ12-2 이동]

SQ12-2. 귀하의 현재 상황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일자리를 찾고 있다 ▶ B. 구직자 이동]
 ② 나중에 일할 생각이 있지만, 지금은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다 ▶ C. 포기자 이동]
 ③ 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 ▶ 조사 중단]

A. 취업자

■ Part 1. 현재 일자리 정보

A1.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모두 몇 개입니까?

- '일'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일용직)/계약직/파견직, 인턴, 아르바이트, 자영업, 프리랜서,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일(무급가족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개

A2.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모두 OO개입니다.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다음의 각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첫 번째 일

1) 현재 하는 일	① 관리자 (기업 임원,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의사, 간호사, IT업 종사자, 선생님, 법률가 등)
	③ 사무종사자 (회사 사무·행정)
	④ 서비스 종사자(경찰·소방·보안 관련, 돌봄·미용·결혼 및 개인생활 서비스, 식음료 서비스 등)
	⑤ 판매종사자 (영업, 마트·가게 판매, 통신 관련 판매,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 등)
	⑥ 농사·어업·축산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배관공, 용접원, 수리원,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공장 생산직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각종 기계 조작원·운전원 등)
	⑨ 단순노무직(쿠팡상하차, 택배 포장, 배달원, 가사도우미, 음식관련 단순 종사자, 청소, 경비, 건설현장 일용직)
	⑩ 기타(자세히 적어 주세요 _____)
2) 일 시작한 날	_____년 _____월
3) 일자리의 고용 형태	① 정규직 (원하면 다니고 싶을때까지 일할 수 있음) ②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아르바이트/인턴 (정해진 계약 기간만큼 일할 수 있음) ③ 자영업/프리랜서 ④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와주고 있음(무급가족종사자) ⑤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전속 대리운전기사, 전속 쿼터서비스기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⑥ 기타 ()
4) 4대 보험 가입 여부	※ 4대보험(정부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1개라도 가입했으면 가입에 체크 ① 가입함 ② 가입하지 않음 ③ 모름
5)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 _____ 시간
6) 한달 평균 소득(월급)	(※ 세후 소득(세금을 떼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 을 기준으로 응답) 한달 평균 만원 ※ '일용직'은 일당과 일한 날을 계산하여 한달 평균 소득을 적어 주세요. ※ 2024년 상반기(1~6월)의 한달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적어 주세요. ※ 자영업/프리랜서의 경우, 2024년 상반기(1~6월) 본인의 소득을 6개월로 나눈 '평균 금액'으로 적어 주세요.
7) 회사 위치	_____시/도 _____시/군

■ 두 번째 일 ■ ■ 세 번째 일 ■ ■ 네 번째 일 ■.....

■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모두 00개입니다.
그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A3. 귀하가 현재 일을 시작하게 된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1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 ②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 ③ 일자리의 임금, 근로시간, 안정성에 만족하여
- ④ 체류자격에 적합한 일자리가 지금 일어서
- ⑤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라서
- ⑥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어서
- ⑦ 기타 (자세히 적어주세요) _____

A4. 귀하는 현재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 ① 구인 공고(잡코리아, 알바천국, 알바몬, 회사 구인공고 등)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 ② 정부의 일자리 정보(고용센터, 워크넷 등)를 통해
- ③ 학교, 교사, 교수, 교육기관 소개 등을 통해
- ④ 주변 지인/가족의 소개를 통해
- ⑤ 다문화/외국인/이주배경 지원 단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
- ⑥ 인턴십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기업에 연락해 봄
- ⑦ 기타 (자세히 적어주세요) _____

A5. 귀하에게 현재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입니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 주세요

- ① 현재 일자리에서 은퇴할 때까지 일하고 싶다. ▶A5-1, A6 이동
- ② 현재 일자리는 원하는 일을 찾기 전의 임시 일자리다 ▶A5-2 이동
- ③ 현재 일자리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그 일을 하고 싶다 ▶A5-2 이동

A5-1. 귀하는 현재 일자리의 어떤 점이 좋습니까? 다음 중 최대 2개까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나의 적성과 전공, 경력, 능력에 맞는 업무
- ② 높은 임금
- ③ 고용의 안정성(회사가 망하거나 해고될 걱정 없는 직장)
- ④ 적정 근로시간(정시 퇴근 포함) 및 업무량
- ⑤ 일의 내용(사무직/생산직 등)
- ⑥ 가정 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조건(유연한 근무시간, 육아휴직 활용 등)
- ⑦ 회사의 규모, 인지도 등
- ⑧ 출퇴근 편의(시간, 거리)
- ⑨ 회사의 장래 발전 가능성
- ⑩ 기타(자세히 적어주세요 _____)

A5-2. 귀하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최대 2개까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나의 적성과 전공, 경력, 능력에 맞는 업무
- ② 높은 임금
- ③ 고용의 안정성(회사가 망하거나 해고될 걱정 없는 직장)
- ④ 적정 근로시간(정시 퇴근 포함) 및 업무량
- ⑤ 일의 내용(사무직/생산직 등)
- ⑥ 가정 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조건(유연한 근무시간, 육아휴직 활용 등)
- ⑦ 회사의 규모, 인지도 등
- ⑧ 출퇴근 편의(시간, 거리)
- ⑨ 회사의 장래 발전 가능성
- ⑩ 기타(자세히 적어 주세요 _____)

A6. 귀하는 현재 일자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만족도를 응답해 주세요.

항목	만족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소득(월급)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3) 근로강도(일의 양 또는 어려움 정도)	①	②	③	④	⑤
4) 작업 중 안전(일하다 다칠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원하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다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만의 기술이나 능력이 발전될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7) 복지제도 및 사회보장(휴가, 보너스, 건강보험 등)	①	②	③	④	⑤
8) 동료/상사(윗사람)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9)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얻는데 도움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일(직업) 또는 나의 회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미지)	①	②	③	④	⑤
11) 퇴근 후에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이 있고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있다 (워라벨)	①	②	③	④	⑤
12) 전반적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A7. 귀하가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해서 일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어려움 정도를 응답해 주세요.

항목	어려움 정도		
	어렵지 않음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1) 비자와 체류자격을 얻거나 유지하는 것	①	②	③
2) 체류자격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	①	②	③
3) 취업 등에 대해 상의할 사람을 찾는 것	①	②	③
4) 취업 및 일자리 정보를 찾는 것	①	②	③
5)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이용하는 것	①	②	③
6) 나의 전공이나 경력, 흥미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	①	②	③
7) 일하면서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	①	②	③
8) 일하면서 문화적인 차이(업무 스타일 또는 식사 습관 등)에 적응하는 것	①	②	③

A8. 귀하는 다문화 가정 또는 이주배경 청년이라는 것 때문에 취업할 때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차별을 받지 않는다 ② 차별을 받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차별을 받는 편이다 ⑤ 매우 차별을 받는다

Part 2. 과거 일자리 정보

귀하는 학교를 졸업한(또는 그만둔) 후에 **현재 일자리를 제외하고 총 00개의 일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한국에서 경험한 과거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A9. 귀하가 **“현재 하는 일 바로 전에 했던 일자리(직전 일자리)”**에 대해 다음의 각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현재 일 바로 전에 했던 일자리(직전 일자리) 정보

1) 현재 하는 일 바로 전에 했던 일	① 관리자 (기업 임원,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의사, 간호사, IT업 종사자, 선생님, 법률가 등)
	③ 사무종사자 (회사 사무·행정)
	④ 서비스 종사자(경찰·소방·보안 관련, 돌봄·미용·결혼 및 개인생활 서비스, 식음료 서비스 등)
	⑤ 판매종사자 (영업, 마트·가게 판매, 통신 관련 판매,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 등)
	⑥ 농사·어업·축산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배관공, 용접원, 수리원,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공장 생산직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각종 기계 조작원·운전원 등)
	⑨ 단순노무직(쿠팡상하차, 택배 포장, 배달원, 가사도우미, 음식관련 단순 종사자, 청소, 경비, 건설현장 일용직)
	⑩ 기타(자세히 적어 주세요)
2) 시작한 년도	_____년
3) 근무기간	_____년 _____개월
4) 일자리의 고용 형태	① 정규직 (원하면 다니고 싶을때까지 일할 수 있음)
	②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아르바이트/인턴 (정해진 계약 기간만큼 일할 수 있음)
	③ 자영업/프리랜서
	④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와주고 있음(무급가족종사자)
	⑤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전속 대리운전기사, 전속 쿼서비스기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학습지도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⑥ 기타 ()
5) 4대 보험 가입 여부	※ 4대보험(정부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1개라도 가입했으면 가입에 체크 ① 가입함 ② 가입하지 않음 ③ 잘모름
6)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 _____시간 ▶36시간 미만이면, A9-1 이동
7) 한달 평균 소득(월급)	(※ 세후 소득(세금을 떼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응답) 한달 평균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width: 100px; height: 30px; vertical-align: middle;"></table> 만원 ※ '일용직'은 일당과 일한 날을 계산하여 한달 평균 소득을 적어 주세요. ※ 직전 일자리 근무기간 동안 한달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적어 주세요. ※ 자영업/프리랜서의 경우, 직전 일자리 본인의 총 소득을 근무기간으로 나눈 '평균 금액'으로 적어 주세요.
8) 회사 위치	_____시/도 _____시/군

A9-1. 귀하는 직전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평균 00시간 일했습니다.

귀하가 시간제(파트타임) 일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1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 ② 원하는 분야의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 ③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임금, 근로시간에 만족하여
- ④ 체류자격에 적합한 일자리여서
- ⑤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어서
- ⑥ 전일제 일자리보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을 선호해서
- ⑦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 ⑧ 기타 (자세히 적어주세요) _____

A10. 귀하가 학교를 졸업한(또는 그만둔) 후에 ‘**처음으로 했던 일자리(첫 일자리)**’에 대해 다음의 각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학교 졸업(또는 그만둔) 후에 처음으로 했던 일자리(첫 일자리) 정보 ▣

1) 졸업 후 처음으로 했던 일	① 관리자 (기업 임원,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의사, 간호사, IT업 종사자, 선생님, 법률가 등)
	③ 사무종사자 (회사 사무·행정)
	④ 서비스 종사자(경찰·소방·보안 관련, 돌봄·미용·결혼 및 개인생활 서비스, 식음료 서비스 등)
	⑤ 판매종사자 (영업, 마트·가게 판매, 통신 관련 판매,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 등)
	⑥ 농사·어업·축산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배관공, 용접원, 수리원,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공장 생산직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각종 기계 조작원·운전원 등)
	⑨ 단순노무직(쿠팡상하차, 택배 포장, 배달원, 가사도우미, 음식관련 단순 종사자, 청소, 경비, 건설현장 일용직)
	⑩ 기타(자세히 적어 주세요)
2) 시작한 년도	_____년
3) 근무기간	_____년 _____개월
4) 일자리의 고용 형태	① 정규직 (원하면 다니고 싶을때까지 일할 수 있음)
	②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아르바이트/인턴 (정해진 계약 기간만큼 일할 수 있음)
	③ 자영업/프리랜서
	④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와주고 있음(무급가족종사자)
	⑤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전속 대리운전기사, 전속 쿼터서비스기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⑥ 기타 (_____)	
5) 4대 보험 가입 여부	※ 4대보험(정부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1개라도 가입했으면 가입에 체크 ① 가입함 ② 가입하지 않음 ③ 모름
6)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 _____시간 ▶36시간 미만이면, A10-1 이동]
7) 한달 평균 소득(월급)	(※ <u>세후 소득(세금을 떼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u> 을 기준으로 응답) 한달 평균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width: 100px; height: 30px; vertical-align: middle;"></table> 만원 ※ '일용직'은 일당과 일한 날을 계산하여 한달 평균 소득을 적어 주세요. ※ 첫 일자리 근무기간 동안 한달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적어 주세요. ※ 자영업/프리랜서의 경우, 첫 일자리 본인의 총 소득을 근무기간으로 나눈 '평균 금액'으로 적어 주세요.
8) 회사 위치	_____시/도 _____시/군

A10-1. 귀하는 직전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평균 OO시간 일했습니다.

귀하가 시간제(파트타임) 일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1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② 원하는 분야의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③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임금, 근로시간에 만족하여
 ④ 체류자격에 적합한 일자리여서
 ⑤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어서
 ⑥ 전일제 일자리보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을 선호해서
 ⑦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⑧ 기타 (자세히 적어주세요) _____

A11. 귀하가 과거에 했던 일자리 중에서 가장 오래 했던 일자리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일자리 바로 전에 했던 일 (직전 일자리) ▶ A13 이동]
 ② 학교를 졸업하고(또는 그만두고) 처음으로 했던 일 (첫 일자리) ▶ A13 이동]
 ③ ①번(직전 일자리)과 ②번(첫 일자리)이 아닌 다른 일 ▶ A12 이동]

A12. 귀하가 과거에 했던 일자리 중에서 **“가장 오래 했던 일자리”**에 대해 다음의 각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과거에 가장 오래 했던 일자리 정보 ■

1) 과거에 가장 오래 했던 일	① 관리자 (기업 임원,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의사, 간호사, IT업 종사자, 선생님, 법률가 등)
	③ 사무종사자 (회사 사무·행정)
	④ 서비스 종사자(경찰·소방·보안 관련, 돌봄·미용·결혼 및 개인생활 서비스, 식음료 서비스 등)
	⑤ 판매종사자 (영업, 마트·가게 판매, 통신 관련 판매,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 등)
	⑥ 농사·어업·축산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배관공, 용접원, 수리원,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공장 생산직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각종 기계 조작원·운전원 등)
	⑨ 단순노무직(쿠팡상차, 택배 포장, 배달원, 가사도우미, 음식관련 단순 종사자, 청소, 경비, 건설현장 일용직)
	⑩ 기타(자세히 적어 주세요 _____)
2) 시작한 년도	_____년
3) 근무기간	_____년 _____개월
4) 일자리의 고용 형태	① 정규직 (원하면 다니고 싶을때까지 일할 수 있음)
	②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아르바이트/인턴 (정해진 계약 기간만큼 일할 수 있음)
	③ 자영업/프리랜서
	④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와주고 있음(무급가족종사자)
	⑤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전속 대리운전기사, 전속 쿼터서비스기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학습지도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⑥ 기타 (_____)
5) 4대 보험 가입 여부	※ 4대보험(정부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1개라도 가입했으면 가입에 체크
	① 가입함 ② 가입하지 않음 ③ 모름
6)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 _____시간 ▶36시간 미만이면, A12-1 이동
7) 한달 평균 소득(월급)	(※ 세후 소득(세금을 떼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 을 기준으로 응답) 한달 평균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width: 100px; height: 30px; vertical-align: middle;"></table> 만원 ※ '일용직'은 일당과 일한 날을 계산하여 한달 평균 소득을 적어 주세요. ※ 가장 오래 했던 일자리 근무기간 동안 한달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적어 주세요. ※ 자영업/프리랜서의 경우, 가장 오래 했던 일자리 본인의 총 소득을 근무기간으로 나눈 '평균 금액'으로 적어 주세요.
8) 회사 위치	_____시/도 _____시/군

A12-1. 귀하는 직전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평균 OO시간 일했습니다.

귀하가 시간제(파트타임) 일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1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 ② 원하는 분야의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 ③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임금, 근로시간에 만족하여
- ④ 체류자격에 적합한 일자리여서
- ⑤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어서
- ⑥ 전일제 일자리보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을 선호해서
- ⑦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 ⑧ 기타 (자세히 적어주세요) _____

Part 3. 미래 일자리 계획

A13. 귀하의 향후 직업 계획에 관한 항목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항목	아니다	그렇다	해당없음
1) 체류자격이 바뀐다면, 직업이 달라질 것이다.			
2)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갖고 싶다.			
3)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			
4)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싶다.			
5) 전문직 일자리를 갖고 싶다.			
6)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싶다			

A14. 귀하는 더 나은 일자리(창업 포함)를 얻기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 ① 있다 ▶A14-1 이동]
 ② 없다 ▶D1 이동]

A14-1. 귀하는 더 나은 일자리(창업 포함)를 얻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음 중 최대 2개까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또는 직업훈련
 ② 자격증 취득을 준비
 ③ 창업 교육
 ④ 현재 일자리에서 경력 쌓기
 ⑤ 대학교/대학원 등 학업을 병행
 ⑥ 안정적인 체류자격 획득을 위한 준비
 ⑦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할 준비
 ⑧ 기타(자세히 적어 주세요 _____)

A14-2. 귀하가 더 나은 일자리(창업 포함)를 얻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얻는 게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직업훈련이나 교육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필요한 경험(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취업 등에 대해 상의할 사람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필요한 경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업무한 필요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일자리에 지원하는 과정(인터넷 지원 신청 등)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문화/이주배경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B. 구직자

■ Part 1. 구직 정보

■ '일자리'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일용직)/계약직/파견직, 인턴, 아르바이트, 자영업, 프리랜서,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의 일을 도와주는 일(무급가족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B1. 귀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년 개월

B2. 귀하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구인 공고(잡코리아, 알바천국, 알바몬, 회사 구인공고 등)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 ② 정부의 일자리 정보(고용센터, 워크넷 등)를 통해
- ③ 학교, 교사, 교수, 교육기관 소개 등을 통해
- ④ 주변 지인/가족의 소개를 통해
- ⑤ 다문화/외국인/이주배경 지원 단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
- ⑥ 인턴십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기업에 연락해 봄
- ⑦ 기타 (자세히 적어주세요) _____

B3. 귀하는 어떤 일자리를 구하고 싶습니까? 희망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 ■

1) 일자리 직종 (내가 하고 싶은 일)	① 관리자 (기업 임원,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의사, 간호사, IT업 종사자, 선생님, 법률가 등)
	③ 사무종사자 (회사 사무·행정)
	④ 서비스 종사자(경찰·소방·보안 관련, 돌봄·미용·결혼 및 개인생활 서비스, 식음료 서비스 등)
	⑤ 판매종사자 (영업, 마트·가게 판매, 통신 관련 판매,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 등)
	⑥ 농사·어업·축산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배관공, 용접원, 수리원,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공장 생산직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각종 기계 조작원·운전원 등)
	⑨ 단순노무직(규평상하차, 택배 포장, 배달원, 가사도우미, 음식관련 단순 종사자, 청소, 경비, 건설현장 일용직)
	⑩ 기타(자세히 적어 주세요) _____
2) 고용 형태	① 정규직 (원하면 다니고 싶을때까지 일할 수 있음)
	②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아르바이트/인턴 (정해진 계약 기간만큼 일할 수 있음)
	③ 자영업/프리랜서
	④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와주고 있음(무급가족종사자)
	⑤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전속 대리운전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⑥ 기타 ()
3)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 _____ 시간
4) 한달 평균 소득(월급)	(※ 세후 소득(세금을 떼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응답) 한달 평균 만원
5) 회사 위치	_____ 시/도 _____ 시/군

B4. 귀하가 취업을 결정할 때, 다음의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항목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1) 소득(월급)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3) 근로강도(일의 양 또는 어려움 정도)	①	②	③	④	⑤
4) 작업 중 안전(일하다 다칠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원하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다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만의 기술이나 능력이 발전될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7) 복지도 및 사회보장(휴가, 보너스, 건강보험 등)	①	②	③	④	⑤
8) 동료/상사(윗사람)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9)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얻는데 도움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일(직업) 또는 나의 회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미지)	①	②	③	④	⑤
11) 퇴근 후에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이 있고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있다 (워라벨)	①	②	③	④	⑤

B5. 귀하가 일자리를 구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어려움 정도를 응답해 주세요.

항목	어려움 정도		
	어렵지 않음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1) 비자와 체류자격을 얻거나 유지하는 것	①	②	③
2) 체류자격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	①	②	③
3) 취업 등에 대해 상의할 사람을 찾는 것	①	②	③
4) 취업 및 일자리 정보를 찾는 것	①	②	③
5)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이용하는 것	①	②	③
6) 나의 전공이나 경력, 흥미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	①	②	③
7) 취업 인터뷰(면접)를 할 때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	①	②	③

B6. 귀하는 다문화 가정 또는 이주배경 청년이라는 것 때문에 취업할 때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차별을 받지 않는다 ② 차별을 받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차별을 받는 편이다 ⑤ 매우 차별을 받는다

- ①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 ② 원하는 분야의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 ③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임금, 근로시간에 만족하여
- ④ 체류자격에 적합한 일자리여서
- ⑤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어서
- ⑥ 전일제 일자리보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을 선호해서
- ⑦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 ⑧ 기타 (자세히 적어주세요)

B8. 귀하가 학교를 졸업한(또는 그만둔) 후에 **“처음으로 했던 일자리(첫 일자리)”**에 대해 다음의 각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학교 졸업(또는 그만둔) 후에 처음으로 했던 일자리(첫 일자리) 정보 ■

1) 졸업 후 처음으로 했던 일	① 관리자 (기업 임원,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의사, 간호사, IT업 종사자, 선생님, 법률가 등)
	③ 사무종사자 (회사 사무·행정)
	④ 서비스 종사자(경찰·소방·보안 관련, 돌봄·미용·결혼 및 개인생활 서비스, 식음료 서비스 등)
	⑤ 판매종사자 (영업, 마트·가게 판매, 통신 관련 판매,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 등)
	⑥ 농사·어업·축산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배관공, 용접원, 수리원,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공장 생산직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각종 기계 조작원·운전원 등)
	⑨ 단순노무직(쿠팡상하차, 택배 포장, 배달원, 가사도우미, 음식관련 단순 종사자, 청소, 경비, 건설현장 일용직)
	⑩ 기타(자세히 적어 주세요 _____)
2) 시작한 년도	_____년
3) 근무기간	_____년 _____개월
4) 일자리의 고용 형태	① 정규직 (원하면 다니고 싶을때까지 일할 수 있음)
	② 비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인턴 (정해진 계약 기간만큼 일할 수 있음)
	③ 자영업/프리랜서
	④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와주고 있음(무급가족종사자)
	⑤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전속 대리운전기사, 전속 쿼터서비스기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학습지도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⑥ 기타 (_____)
5) 4대 보험 가입 여부	※ 4대보험(정부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1개라도 가입했으면 가입에 체크
	① 가입함 ② 가입하지 않음 ③ 모름
6)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 _____ 시간 ▶36시간 미만이면, B8-1 이동
7) 한달 평균 소득(월급)	(※ 세후 소득(세금을 떼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 을 기준으로 응답) 한달 평균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width: 100px; height: 30px; vertical-align: middle;"></table> 만원
	※ ‘일용직’은 일당과 일한 날을 계산하여 한달 평균 소득을 적어 주세요. ※ 첫 일자리 근무기간 동안 한달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적어 주세요. ※ 자영업/프리랜서의 경우, 첫 일자리 본인의 총 소득을 근무기간으로 나눈 ‘평균 금액’으로 적어 주세요.
8) 회사 위치	_____시/도 _____시/군

B8-1. 귀하는 첫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평균 OO시간 일했습니다.

귀하가 시간제(파트타임) 일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1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② 원하는 분야의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③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임금, 근로시간에 만족하여
 ④ 체류자격에 적합한 일자리여서
 ⑤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어서
 ⑥ 전일제 일자리보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을 선호해서
 ⑦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⑧ 기타 (자세히 적어주세요) _____

B9. 귀하가 과거에 했던 일자리 중에서 가장 오래 했던 일자리는 무엇입니까?

- ① 가장 최근에 했던 일 (가장 최근 일자리) ▶ B11 이동
 ② 학교를 졸업하고(또는 그만두고) 처음으로 했던 일 (첫 일자리) ▶ B11 이동
 ③ ①번(가장 최근 일자리)과 ②번(첫 일자리)이 아닌 다른 일 ▶ B10 이동

B10. 귀하가 과거에 했던 일자리 중에서 **“가장 오래 했던 일자리”**에 대해 다음의 각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과거에 가장 오래 했던 일자리 정보 ■

1) 과거에 가장 오래 했던 일	① 관리자 (기업 임원,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의사, 간호사, IT업 종사자, 선생님, 법률가 등)					
	③ 사무종사자 (회사 사무·행정)					
	④ 서비스 종사자(경찰·소방·보안 관련, 돌봄·미용·결혼 및 개인생활 서비스, 식음료 서비스 등)					
	⑤ 판매종사자 (영업, 마트·가게 판매, 통신 관련 판매,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 등)					
	⑥ 농사·어업·축산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배관공, 용접원, 수리원,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공장 생산직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각종 기계 조작원·운전원 등)					
	⑨ 단순노무직(쿠팡상하차, 택배 포장, 배달원, 가사도우미, 음식관련 단순 종사자, 청소, 경비, 건설현장 일용직)					
	⑩ 기타(자세히 적어 주세요)					
2) 시작한 년도	_____년					
3) 근무기간	_____년 _____개월					
4) 일자리의 고용 형태	① 정규직 (원하면 다니고 싶을때까지 일할 수 있음)					
	②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아르바이트/인턴 (정해진 계약 기간만큼 일할 수 있음)					
	③ 자영업/프리랜서					
	④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와주고 있음(무급가족종사자)					
	⑤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전속 대리운전기사, 전속 쿼서서비스기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⑥ 기타 ()					
5) 4대 보험 가입 여부	※ 4대보험(정부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1개라도 가입했으면 가입에 체크 ① 가입함 ② 가입하지 않음 ③ 잘모름					
6)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 _____시간 ▶36시간 미만이면, B10-1 이동					
7) 한달 평균 소득(월급)	(※ 세후 소득(세금을 떼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응답) 한달 평균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 <td style="width: 30px; height: 30px;"></td> <td style="width: 30px; height: 30px;"></td> <td style="width: 30px; height: 30px;"></td> <td style="width: 30px; height: 30px;"></td> <td style="width: 30px; height: 30px;"></td> </tr> </table> 만원 ※ ‘일용직’은 일당과 일한 날을 계산하여 한달 평균 소득을 적어 주세요. ※ 가장 오래 했던 일자리 근무기간 동안 한달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적어 주세요. ※ 자영업/프리랜서의 경우, 가장 오래 했던 일자리 본인의 총 소득을 근무기간으로 나눈 ‘평균 금액’으로 적어 주세요.					
8) 회사 위치	_____시/도 _____시/군					

B10-1. 귀하는 가장 오래한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평균 OO시간 일했습니다.

귀하가 시간제(파트타임) 일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1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 ② 원하는 분야의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 ③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임금, 근로시간에 만족하여
- ④ 체류자격에 적합한 일자리여서
- ⑤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어서
- ⑥ 전일제 일자리보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을 선호해서
- ⑦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 ⑧ 기타 (자세히 적어주세요) _____

Part 3. 미래 일자리 계획

B11. 귀하의 향후 직업 계획에 관한 항목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항목	아니다	그렇다	해당없음
1) 체류자격이 바뀐다면, 희망하는 직업이 달라질 것이다.			
2)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싶다			

B12. 귀하는 희망하는 일자리(창업 포함)를 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 ① 있다 [▶B12-1, B12-2 이동]
 ② 없다 [▶D1 이동]

B12-1. 귀하는 희망하는 일자리(창업 포함)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음 중 최대 2개까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또는 직업훈련
 ② 자격증 취득을 준비
 ③ 창업 교육
 ④ 대학교/대학원 등 학업을 병행
 ⑤ 안정적인 체류자격 획득을 위한 준비
 ⑥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할 준비
 ⑦ 기타(자세히 적어 주세요 _____)

B12-2. 귀하가 희망하는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얻는 게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직업훈련이나 교육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필요한 경험(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취업 등에 대해 상의할 사람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필요한 경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업무한 필요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일자리에 지원하는 과정(인터넷 지원 신청 등)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문화/이주배경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C. 포기자

■ Part 1. 비경제활동 이유

C1. 귀하가 현재 일자리를 찾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지만 선택해 주세요.

- | | |
|------------------------------|---------------|
| ① 몸이 아파서 | ② 육아/가사로 인하여 |
| ③ 가족(동생, 아픈 가족 등)을 돌봐야 해서 | ④ 심리적 어려움 |
| ⑤ 교육기관(학원, 학교 등)/훈련기관 다니고 있음 | ⑥ 자격증/시험 준비 중 |
| ⑦ 취업이 확정되어 입사 대기 상태 | ⑧ 사업 준비 중 |
| ⑨ 취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 ⑩ 체류자격/비자 문제로 |
| ⑪ 그냥 쉬고 있음 | ⑫ 기타 _____ |

C2. 귀하는 지금부터 1년 이내 또는 학교를 졸업한 후에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C3 이동 ② 없다 ▶C6 이동

C3. 귀하는 어떤 일자리를 구하고 싶습니까? 희망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 ■

1) 일자리 직종 (내가 하고 싶은 일)	① 관리자 (기업 임원,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의사, 간호사, IT업 종사자, 선생님, 법률가 등)
	③ 사무종사자 (회사 사무·행정)
	④ 서비스 종사자(경찰·소방·보안 관련, 돌봄·미용·결혼 및 개인생활 서비스, 식음료 서비스 등)
	⑤ 판매종사자 (영업, 마트·가게 판매, 통신 관련 판매,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 등)
	⑥ 농사·어업·축산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배관공, 용접원, 수리원,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공장 생산직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각종 기계 조작용·운전원 등)
	⑨ 단순노무자(쿠팡상차, 택배 포장, 배달원, 가사도우미, 음식관련 단순 종사자, 청소, 경비, 건설현장 일용직)
	⑩ 기타(자세히 적어 주세요 _____)
2) 고용 형태	① 정규직 (원하면 다니고 싶을때까지 일할 수 있음)
	②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아르바이트/인턴 (정해진 계약 기간만큼 일할 수 있음)
	③ 자영업/프리랜서
	④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와주고 있음(무급가족종사자)
	⑤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전속 대리운전기사, 전속 쿼터서비스기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⑥ 기타 ()
3)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 _____ 시간
4) 한달 평균 소득(월급)	(※ 세후 소득(세금을 떼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응답) 한달 평균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width: 100px; height: 20px; vertical-align: middle;"></table> 만원
5) 회사 위치	_____ 시/도 _____ 시/군

C4. 귀하가 향후 취업을 결정할 때, 다음의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항목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1) 소득(월급)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3) 근로강도(일의 양 또는 어려움 정도)	①	②	③	④	⑤
4) 작업 중 안전(일하다 다칠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원하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다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만의 기술이나 능력이 발전될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7) 복지제도 및 사회보장(휴가, 보너스, 건강보험 등)	①	②	③	④	⑤
8) 동료/상사(윗사람)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9)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얻는데 도움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일(직업) 또는 나의 회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미지)	①	②	③	④	⑤
11) 퇴근 후에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이 있고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있다 (워라벨)	①	②	③	④	⑤

C5. 귀하가 일자리를 구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어려움 정도를 응답해 주세요.

항목	어려움 정도		
	어렵지 않음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1) 비자와 체류자격을 얻거나 유지하는 것	①	②	③
2) 체류자격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	①	②	③
3) 취업 등에 대해 상의할 사람을 찾는 것	①	②	③
4) 취업 및 일자리 정보를 찾는 것	①	②	③
5)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이용하는 것	①	②	③
6) 나의 전공이나 경력, 흥미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	①	②	③
7) 취업 인터뷰(면접)를 할 때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	①	②	③

C6. 귀하는 다문화 가정 또는 이주배경 청년이라는 것 때문에 취업할 때 차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다 ②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차별을 받을 것이다 ⑤ 매우 차별을 받을 것이다

- ①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 ② 원하는 분야의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 ③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임금, 근로시간에 만족하여
- ④ 체류자격에 적합한 일자리여서
- ⑤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어서
- ⑥ 전일제 일자리보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을 선호해서
- ⑦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 ⑧ 기타 (자세히 적어주세요)

C8. 귀하가 학교를 졸업한(또는 그만둔) 후에 **“처음으로 했던 일자리(첫 일자리)”**에 대해 다음의 각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학교 졸업(또는 그만둔) 후에 처음으로 했던 일자리(첫 일자리) 정보 ■

1) 졸업 후 처음으로 했던 일	① 관리자 (기업 임원,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의사, 간호사, IT업 종사자, 선생님, 법률가 등)
	③ 사무종사자 (회사 사무·행정)
	④ 서비스 종사자(경찰·소방·보안 관련, 돌봄·마용·결혼 및 개인생활 서비스, 식음료 서비스 등)
	⑤ 판매종사자 (영업, 마트·가게 판매, 통신 관련 판매,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 등)
	⑥ 농사·어업·축산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배관공, 용접원, 수리원,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공장 생산직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각종 기계 조작원·운전원 등)
	⑨ 단순노무직(쿠팡상하차, 택배 포장, 배달원, 가사도우미, 음식관련 단순 종사자, 청소, 경비, 건설현장 일용직)
	⑩ 기타(자세히 적어 주세요 _____)
2) 시작년도	_____년
3) 근무기간	_____년 _____개월
4) 일자리의 고용 형태	① 정규직 (원하면 다니고 싶을때까지 일할 수 있음)
	②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아르바이트/인턴 (정해진 계약 기간만큼 일할 수 있음)
	③ 자영업/프리랜서
	④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와주고 있음(무급가족종사자)
	⑤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전속 대리운전기사, 전속 쿼서비스기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학습지도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⑥ 기타 (_____)
5) 4대 보험 가입 여부	※ 4대보험(정부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1개라도 가입했으면 가입에 체크 ① 가입함 ② 가입하지 않음 ③ 모름
6)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 _____ 시간 ▶36시간 미만이면, C8-1 이동
7) 한달 평균 소득(월급)	(※ 세후 소득(세금을 떼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응답) 한달 평균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width: 100px; height: 30px; vertical-align: middle;"></table> 만원 ※ '일용직'은 일당과 일한 날을 계산하여 한달 평균 소득을 적어 주세요. ※ 첫 일자리 근무기간 동안 한달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적어 주세요. ※ 자영업/프리랜서의 경우, 첫 일자리 본인의 총 소득을 근무기간으로 나눈 '평균 금액'으로 적어 주세요.
8) 회사 위치	_____시/도 _____시/군

C8-1. 귀하는 첫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평균 OO시간 일했습니다.

귀하가 시간제(파트타임) 일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1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 ② 원하는 분야의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 ③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임금, 근로시간에 만족하여
- ④ 체류자격에 적합한 일자리여서
- ⑤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어서
- ⑥ 전일제 일자리보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을 선호해서
- ⑦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 ⑧ 기타 (자세히 적어주세요) _____

C9. 귀하가 과거에 했던 일자리 중에서 가장 오래 했던 일자리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가장 최근에 했던 일 (가장 최근 일자리) | ▶ C11 이동 |
| ② 학교를 졸업하고(또는 그만두고) 처음으로 했던 일 (첫 일자리) | ▶ C11 이동 |
| ③ ①번(가장 최근 일자리)과 ②번(첫 일자리)이 아닌 다른 일 | ▶ C10 이동 |

C10. 귀하가 과거에 했던 일자리 중에서 **“가장 오래 했던 일자리”**에 대해 다음의 각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 과거에 가장 오래 했던 일자리 정보 ■

1) 과거에 가장 오래 했던 일	① 관리자 (기업 임원,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의사, 간호사, IT업 종사자, 선생님, 법률가 등)
	③ 사무종사자 (회사 사무·행정)
	④ 서비스 종사자(경찰·소방·보안 관련, 돌봄·미용·결혼 및 개인생활 서비스, 식음료 서비스 등)
	⑤ 판매종사자 (영업, 마트·가게 판매, 통신 관련 판매,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 등)
	⑥ 농사·어업·축산업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배관공, 용접원, 수리원,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공장 생산직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각종 기계 조작용·운전원 등)
	⑨ 단순노무자(쿠팡상하차, 택배 포장, 배달원, 가사도우미, 음식관련 단순 종사자, 청소, 경비, 건설현장 일용직)
	⑩ 기타(자세히 적어 주세요 _____)
2) 시작년도	_____년
3) 근무기간	_____년 _____개월
4) 일자리의 고용 형태	① 정규직 (원하면 다니고 싶을때까지 일할 수 있음)
	② 비정규직/계약직/파견직/아르바이트/인턴 (정해진 계약 기간만큼 일할 수 있음)
	③ 자영업/프리랜서
	④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도와주고 있음(무급가족종사자)
	⑤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전속 대리운전기사, 전속 쿼서비스기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학습지도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⑥ 기타 (_____)
5) 4대 보험 가입 여부	※ 4대보험(정부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1개라도 가입했으면 가입에 체크 ① 가입함 ② 가입하지 않음 ③ 모름
6)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 : _____ 시간 ▶36시간 미만이면, C10-1 이동
7) 한달 평균 소득(월급)	(※ 세후 소득(세금을 떼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 을 기준으로 응답) 한달 평균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width: 100px; height: 30px; vertical-align: middle;"></table> 만원 ※ '일용직'은 일당과 일한 날을 계산하여 한달 평균 소득을 적어 주세요. ※ 가장 오래 했던 일자리 근무기간 동안 한달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적어 주세요. ※ 자영업/프리랜서의 경우, 가장 오래 했던 일자리 본인의 총 소득을 근무기간으로 나눈 '평균 금액'으로 적어 주세요.
8) 회사 위치	_____시/도 _____시/군

C10-1. 귀하는 가장 오래한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평균 OO시간 일했습니다.

귀하가 시간제(파트타임) 일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1~7까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 ② 원하는 분야의 전일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 ③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임금, 근로시간에 만족하여
- ④ 체류자격에 적합한 일자리여서
- ⑤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어서
- ⑥ 전일제 일자리보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을 선호해서
- ⑦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 ⑧ 기타 (자세히 적어주세요) _____

Part 3. 미래 일자리 계획

C11. 귀하의 향후 직업 계획에 관한 항목입니다.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항목	아니다	그렇다	해당없음
1) 체류자격이 바뀐다면, 희망하는 직업이 달라질 것이다.			
2)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싶다			

C12. 귀하는 희망하는 일자리(창업 포함)를 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 ① 있다 ▶C12-1, C12-2 이동]
 ② 없다 ▶D1 이동]

C12-1. 귀하는 희망하는 일자리(창업 포함)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음 중 최대 2개까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또는 직업훈련
 ② 자격증 취득을 준비
 ③ 창업 교육
 ④ 대학교/대학원 등 학업을 병행
 ⑤ 안정적인 체류자격 획득을 위한 준비
 ⑥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할 준비
 ⑦ 기타(자세히 적어 주세요 _____)

C12-2. 귀하가 희망하는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얻는 게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직업훈련이나 교육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필요한 경험(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취업 등에 대해 상의할 사람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필요한 경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업무한 필요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일자리에 지원하는 과정(인터넷 지원 신청 등)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문화/이주배경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D. 정책 수요

D1. 학교를 졸업한(또는 그만둔) 후에 귀하는 현재까지 직업훈련이나 직업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D2. 귀하는 향후 정부에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D3, D4 이동]

② 없다 [▶E1 이동]

D3. 만약 정부에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다음의 조건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또 참여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참여 조건	필요 정도					중요 순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1) 훈련 수당(용돈) 지급	①	②	③	④	⑤	1 순위
2) 식사 제공	①	②	③	④	⑤	
3) 주거 제공 (살 곳)	①	②	③	④	⑤	
4) 안정적이고 소득이 괜찮은 일자리 연결	①	②	③	④	⑤	
5) 내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직업 분야로 연결	①	②	③	④	⑤	
6)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훈련 제공	①	②	③	④	⑤	2 순위
7)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 지원	①	②	③	④	⑤	
8)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데 도움	①	②	③	④	⑤	

D4. 만약 정부에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다음의 분야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또 다음 분야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분야	필요 정도					중요 순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1) 직업 관련 이론	①	②	③	④	⑤	1 순위
2) 회사에서 현장실습, 일 경험	①	②	③	④	⑤	
3)-1 기초 학습(국어)	①	②	③	④	⑤	
3)-2 기초 학습(산수)	①	②	③	④	⑤	
3)-3 기초 학습(영어)	①	②	③	④	⑤	
4) 한국어	①	②	③	④	⑤	2 순위
5) 체류자격/비자 등 외국인 관련 정책	①	②	③	④	⑤	
6) 심리상담/심리치료	①	②	③	④	⑤	
7) 커리어(진로) 지도/교육	①	②	③	④	⑤	
8) 면접,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방법	①	②	③	④	⑤	
9) 회사에 취업한 후부터 적응할 때까지 상담	①	②	③	④	⑤	
10)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시간 관리, 일할 때 태도, 의사소통법 등)	①	②	③	④	⑤	
11) 생활 교육(건강관리/운동, 법/권리, 돈 관리하는 법, 생활안전 등)	①	②	③	④	⑤	
12)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	①	②	③	④	⑤	
13) 대학 진학 및 학과과정 연결	①	②	③	④	⑤	

E. 응답자 개인 특성

E1. 귀하는 현재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나 혼자 산다 ▶E2 이동
 ②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 ▶E1-1 이동

E1-1. 현재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 ① 배우자(부인 또는 남편) | ② 자녀 |
| ③ 부모님(아버지 또는 어머니) | ④ 조부모님(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
| ⑤ 친척 | ⑥ 친구 |
| ⑦ 기타 | |

E2. 귀하 가구의 한달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세후 소득, 즉 세금을 떼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 “한달 평균 가구소득”은 “본인은 물론 같이 사는 가족들”들이 받는 월급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자, 배당금, 건물임대료 등)이 있으면 그 금액도 모두 포함시켜 주세요.

- | | |
|-----------------------|-----------------------|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 ⑤ 500만원 이상 | |

E3. 귀하가 한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는 어디입니까?

- | | | |
|-------------------|---------------|--------|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
| ④ 전문대 | ⑤ 4년제 대학 | ⑥ 대학원 |
| ⑦ 한국에서 학교 다닌 적 없음 | ⑧ 기타 (검정고시 등) | |

E4. 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초등학교 졸업/중퇴 | ② 중학교 졸업/중퇴 |
|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 | ④ 전문대 졸업/중퇴/재학 |
| ⑤ 4년제 대학 졸업/중퇴/재학 | ⑥ 대학원 졸업/중퇴/재학 이상 |
| ⑦ 기타(_____) | |

♣ 바쁘신 가운데 조사에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執筆陣

- 김영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강동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임유진(고신대학교 조교수)

이주배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연구

- | | |
|------------|--|
| ▪ 발행연월일 | 2024년 12월 26일 인쇄
2024년 12월 30일 발행 |
| ▪ 발 행 인 | 허 재 준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1 Fax (044) 287-6089 |
| ▪ 조 판 · 인쇄 | 고려씨엔피 (02) 2277-1508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2015-000013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24 정가 11,000원

ISBN 979-11-260-0791-2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경제정책동
TEL : 044-287-6083 <http://www.kli.re.kr>



ISBN 979-11-260-0791-2